

2016년 오산문화총서 제2집

烏山學研究(Ⅱ)



오산문화원 부설

오산향토문화연구소

표지사진
독산성 남문 진남루 터

2016년 오산문화총서 제2집

烏山學研究(Ⅱ)



오산문화원 부설

오산향토문화연구소

발간사

오산의 다양한 역사이야기들을 담은 두 번째 오산문화총서 『오산학 연구Ⅱ』를 발간



오산은 선사시대인 구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줄곧 거주해온 역사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산의 역사가 이토록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오산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그 만큼 역사적 유래가 깊고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산문화원의 역할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산지역의 고유한 향토문화와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를 확산, 정착시켜 오산 시민들에게 문화를 통하여 행복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산지역의 고유한 향토문화와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오산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임무입니다.

작년 우리 오산문화원에서는 부설 오산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오산문화총서 제1집 『오산학 연구Ⅰ』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오산학 연구Ⅰ』은 오산의 고유한 역사문화에 대해 최초로 정리한 논문집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평 속에 오산의 오피니언리더들에게 필독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오산문화원은 작년 『오산학 연구Ⅰ』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오산의 다양한 역사 이야기들을 담은 두 번째 오산문화총서 『오산학 연구Ⅱ』를 발간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성과와 가치를 밝힌 논문이 게재되어, 오산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자부심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산에 역사박물관을 지어야 한다는 여론과 맞물려 시민들에게 박물관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필진들이 집필

한, 그 동안 묻혀 있었던 오산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논문들이 게재되어, 오산향토사의 연구에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지역학의 연구는 그 지역의 향토문화와 역사를 연구하여 지역민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알게 해주고, 나아가 그 지역 주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해주는 일입니다. 오산문화원 부설 오산향토문화연구소의 연구작업과 『오산학 연구』의 발간은 오산지역의 향토문화에 있어 아주 소중한 일이며, 오산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산시의 문화콘텐츠 개발의 밑바탕이 되어 오산의 문화가 한층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예로 작년 오산학연구의 성과 중 하나인 ‘경기도당굿과 경기재인청의 재조명’은 올해 독산성문화제의 중요 프로그램이 되어 축제의 질을 한층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오산에서 『오산학 연구』는 앞으로도 오산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산의 문화를 한층 빛나게 해주는 『오산학 연구』가 오산시민의 자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오산문화원은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 동안 『오산학 연구Ⅱ』가 발간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동안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님과 특히 오산향토문화연구소 남경식 상임위원을 비롯한 오산문화원의 김종욱 사무국장, 이은나 행정실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오산문화원장 공 창 배

축사

교육과 문화·예술의 격조 높은 도시,
오산시의 모습을 맛깔나게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오산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와 발굴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의 결과물인 오산문화원 부설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의 논문집 오산문화총서 제2집 『오산학연구(Ⅱ)』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논문집에는 그동안 오산시 세교택지개발 1, 2지구 내에서 유적 발굴 조사된 매장물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고, 현재 독산성 복원에 따른 세마대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세마대 첫 축대부터 개·보수에 대한 변천사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武(무)의 고장이기도 한 오산시, 오산의 독산성과 한 패키지를 이루는 수원고읍성과의 관계와 독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기록하였습니다. 오산시에서 작년에 이은 표지석(표지판) 2차분을 설치하였습니다. 최초화성등기소와 오산시법원 자리, 오산의 대표적 쌀 생산지였으며, 이제는 오산의 행정 중심, 주거지와 상업지이기도 한 이곳 운암들 지명유래를 담아 오산시청 광장에 설치하였고, 오산오색시장과 오매장터로 구성되어 있는 오산장에도 유래를 담아 설치하였습니다. 또 오산시가 한국 전통예술의 본고장임을 알리는 경기도당굿, 경기재인칭, 이용우 선생에 관한 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부산동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지명유래를 알지 못했던 탑동의 지명유래를 담은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이 표지판들 내용도 담았습니다. 독산천신고유제의 유래와 제의 진행 순서인 홀기, 고유축문 등도 담았으며, 오산화성궐리사 홀기, 정월대보름 기원문도 담았습니다. 오산만의 독특한 무속은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의 근원 역할을 하는데, 이 오산12거리(오산12제차)의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경기재인칭과 오산시독산성문화제의 전통 연희, 오산시 외삼미동의 별자리 성혈 연구, 오산시에 전해지고 있는 도깨비 설화 연구, 중앙동의 지명유래와 구비 전승과 전설도 담았습니다. 오매장터의 역사성을 오

매장터 생존 어르신들의 채록을 통하여 기록하며, 곧 오매장터 재정비가 시작되면 지금의 모습이 사라질 것이기에 재정비 전의 오매장터의 모습을 사진을 통하여 기록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하 신문과 잡지로 보는 오산인의 삶의 모습과 오산의 위상은 새로운 감회를 줍니다. 교육과 문화·예술의 격조 높은 도시, 오산시의 모습을 맛깔나게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독산성 복원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교육, 역사와 문화가 한층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는 오산시 기대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오산문화총서 제2집 『오산학연구(Ⅱ)』에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이 꼼꼼하게 기록되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연속 작업이 오산시의 참 모습을 보게 하리라 봅니다. 이 『오산학연구(Ⅱ)』가 오산시민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활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오산문화총서 제2집 『오산학연구(Ⅱ)』가 발간되기까지 수고하신 공창배 오산문화원장님과 남경식 상임위원을 비롯한 연구위원님들, 관계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댁내 두루 평안 하시고 많은 축복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오산시장 곽 상 욱

축사

오산문화총서 발간은

오산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의장 손정환입니다.

오산문화총서 제2집 『오산학 연구(Ⅱ)』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산의 유산적 가치를 확인하고 관련 고문헌 자료를 분석하여 역사적·학술적 보존 가치가 매우 뛰어난 오산문화총서를 발간해 주신 공창배 오산문화원장님과 남경식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상임위원을 비롯한 연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문화총서 발간은 오산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산 세교택지개발 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 성과, 독산성 세마대지의 변천, 무향의 터전 수원고읍성과 독산성, 정조대 화성유수부의 의료기관 고찰, 오산시 외삼미동 탁자식 고인돌의 별자리 성혈, 일제강점기하 신문과 잡지 기사로 보는 오산인의 삶, 경기재인청과 오산시 독산성문화제 전통 연희 등 오산의 역사를 수록함으로써 당시의 생생한 지역 역사를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산문화원에서 발간한 오산문화총서는 오산 지역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오산지역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상들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오산문화총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재조명하고 22만 오산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애향심 함양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산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자료로 활용은 물론 관련 분야의 연구와 문화재 활용 콘텐츠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조선상고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역사의 무관심 속에 점차 잊혀져가는 권율장군의 충과 정조의 효 사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오산문화원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오산시의회 의장 손 정 환

축사

오산문화총서 발간이
오산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소중한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지난해 오산문화총서 제1집 『오산학연구』 발간에 이어 오산문화총서 제2집 『오산학연구(Ⅱ)』를 발간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산지역 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향토사를 담은 오산문화총서 발간을 위해 애쓰신 공창배 오산문화원장님과 남경식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상임위원을 비롯한 연구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산문화총서는 단순한 문화역사서를 넘어서 우리 오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향토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오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러한 향토 사료의 발굴 및 보존 작업은 큰 틀에서 과거의 문화 사료를 현재 시점에서 발굴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끌어내 미래세대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으로서 오산 지역의 문화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오산 시민 분들에게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색이 살아 있는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도시화로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오산의 모습들을 다각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발굴 전승이라는 뜻 깊은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오산향토문화연구소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오산문화총서 제2집 『오산학연구(Ⅱ)』 발간이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오산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금 바라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오산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국회의원 안 민 석



목 차

오산 세교택지개발 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 성과 강지원	5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변천 - 보수기록을 통하여 이용범	25
무향의 터전 수원고읍성과 독산성 김영호	65
정조대 화성유수부의 의료기관 고찰 김준혁	79
오산시 외삼미동 탁자식 고인돌의 별자리 성형 임종삼	95
새롭게 기억하고, 기록되어야 할 오산이야기(Ⅱ) 남경식	145
일제강점기하 신문과 잡지 기사로 보는 오산인의 삶 김종욱	225
경기재인청과 오산시독산성문화제 전통 연희 박문정	253
오산시 구전설화연구-도깨비 설화를 중심으로 김용국	283
중앙동의 지명유래, 구비전승과 전설 한민규	303
오산장(오산오색시장, 오매장터)의 역사성과 연혁 강경구 - 오산장 거주 주민 인터뷰를 통한 기록을 중심으로	331
2016년 오산오색시장, 오매장터 사진 신명수	357

오산 세교택지개발 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 성과

강 지 원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I. 조사개요

II. 조사내용

III. 조사성과

* 참고문헌

집필자
강 지 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연구원

I. 조사개요

오산시에서는 오산시의 역사·고고 환경을 정리·체계화 하여 오산시의 역사를 정립하고 정립된 역사를 토대로 역사교육과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을 전시·보관하기 위한 공립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선사시대 오산, 삼국~통일신라시대 오산, 고려~조선시대 오산이란 주제로 오산시의 역사·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끝으로 오산 세교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고유적을 간략하게 살펴 향후 박물관 설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오산 세교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조사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산 세교 택지개발 사업은 1지구와 2지구로 구분되는데, 먼저 1지구는 오산시 금암동·내삼미동·세교동·수청동·외삼미동 일원에 3,257,000㎡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부터 16개 지점에 대해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16지점 가운데 2지점·4지점·5지점·6지점·7지점·9지점·10지점·12지점·16지점 등 모두 9개 지점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교 1지구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청동기시대 주거지·수혈유구, 원삼국~백제시대 주거지·수혈유구·(주구)토광묘, 통일신라시대 주거지·수혈유구·석곽묘·석실묘, 조선시대 주거지·토광묘·수혈유구·기와가마·숫가마 등 총 1,026기가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78,812점이 출토되었다.

세교 2지구는 오산시 금암동·곶동·탑동·두곡동·벌음동·청학동·가수동·누읍동 일원에 위치하며 총 13개 지점에 대해 시굴 및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지점에서 매장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세교 2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수혈유구, 초기철기시대 환호·토광묘·옹관묘, 원삼국~백제시대 주거지·수혈유구·(주구)토광묘·숫가마, 통일신라시대 주거지·석곽묘·석실묘, 고려시대 주거지·석곽묘, 조선시대 주거지·건물지·수혈유구·구상유구·야외노지·석렬유구·토광묘·회곽묘·기와가마·숫가마 등 총 1,457기가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5,686점이 출토되었다.

세교 1·2지구의 발굴조사 된 내용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간략한 조사내용과 성과 및 의미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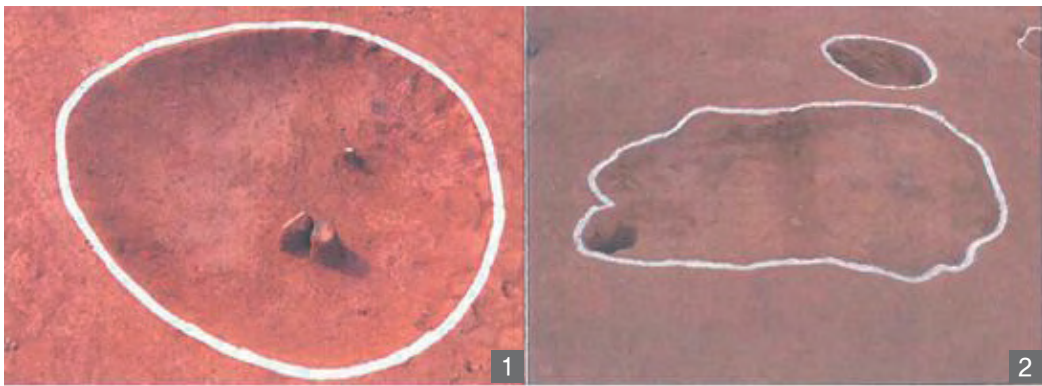


〈그림 1〉 오산시와 세교 1·2지구 위치도

Ⅱ. 조사내용

1.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한반도 전역에서 확인되는데 이들 유적을 통해 당시는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산지역 역시 낮은 구릉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신석기 시대에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던 곳으로 짐작된다.



〈그림 2〉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①1지구 2지점 35호 ②1지구 12지점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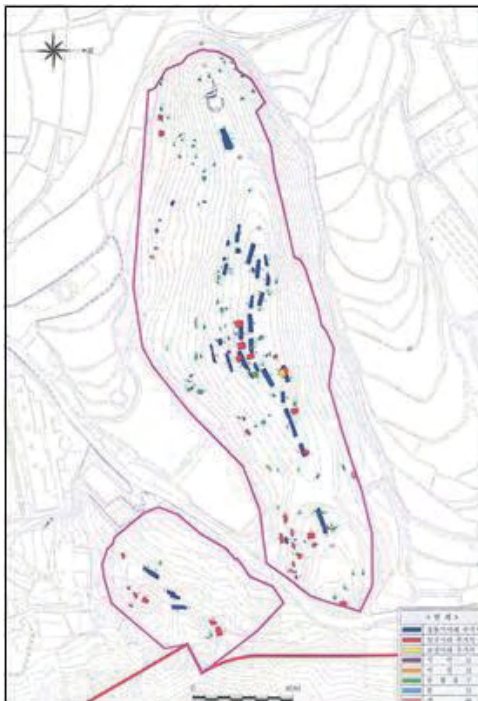
세교지구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신석기시대 유적의 존재는 파악할 수 있다. 세교1지구 2지점과 12지점에서 신석기시대 수혈유구가 조사되었다. 수혈유구는 주거지와 관련하여 주변 부대시설일 가능성이 높으나, 가시적인 모습을 볼 수 없고 그 흔적만 관찰될 뿐이다. 수혈유구는 구릉 정상부에 분포되어 있는데, 형태는 원형 혹은 부정형으로 조사되었다.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빗살무늬토기와 석부, 석촉편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세교지구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수혈유구 2기로 매우 희미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근 가창동(경기문화재연구원 2008·서경문화재연구원 2011)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수혈유구가 조사된 사례를 통해 오산천을 중심으로 인근 구릉에 신석기시대 취락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들어 세교지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거지 69기·수혈유구 88기, 지석묘 1기·석관묘 2기·석개토광묘 2기로 생활유구 157기, 분묘유구 5기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입지한 곳은 해발 40~60m 내외의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에 분포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입지한 지형은 오산천이 오산 시가지를 북에서 남으로 흘러 진위천과 합류하며, 다시 하천은 서쪽으로 흘러 평택시 서탄면 일대에서 황구지천과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른다. 세교지구 일대의 하천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하천과 연결된 지천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지형에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유적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양상은 기왕에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입지조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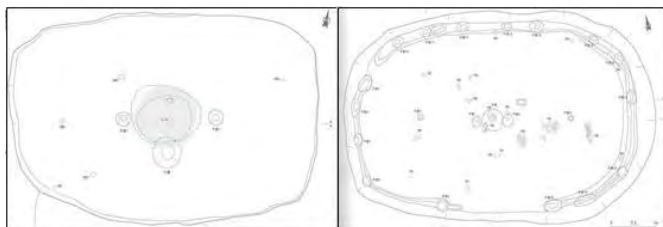
〈그림 3〉 1지구 2지점 유구 배치도

1지구 2지점의 경우 해발 45m의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주거지 40기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30호 주거지의 규모가 길이 2230cm, 너비 332cm 정도로 대형의 주거지가 다수 확인된다. 주거지는 화재로 인해 폐기된 것과 이주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구분 가능한데, 화재 주거지에서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주거지 내부에는 노지가 주거지의 중앙부를 따라 2~7개 가량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밖에 주거지의 한쪽 측면에 수혈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 주거공간과 작업공간이 구분되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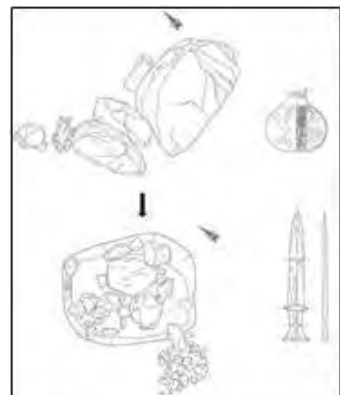
〈그림 4〉 1지구 2지점 청동기시대 27호 주거지 및 유물출토상태

이밖에 청동기시대 주거지 주변으로 수혈유구가 다수 확인된다. 수혈유구는 내부에 노지가 존재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별다른 시설 없이, 바닥을 편평하게 마무리하고 저장시설 혹은 작업공간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청동기시대 주거지 ①2지구 14지점 2호 ②2지구 14지점 6호

〈그림 6〉 2지구 14지점 1호 지석묘 ▶



청동기시대 세교지구 일대는 거점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경관이 그려진다. 거점취락은 1지구 2지점에서 40기가 밀집되어 있어 이곳을 거점취락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에서는 10기 내외의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어, 거점취락 인근에 소규모의 주변취락들이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분묘유적은 5기가 조사되었는데, 형태와 구조에 따라 지석묘, 석관묘, 석개토광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석묘의 경우 오산천유역을 비롯해 안성천과 황구지천 주변으로 10여 기 이상이 군집을 이루는 유적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지석묘는 14지점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매장주체부를 석관으로 조성한 후 덮개돌을 얹은 개석식 구조이다. 인근 오산 금암동 등지에서도 이러한 지석묘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석관 내부에서는 적색마연호와 마제석검을 매납하여 무덤을 조영할 당시 매장관념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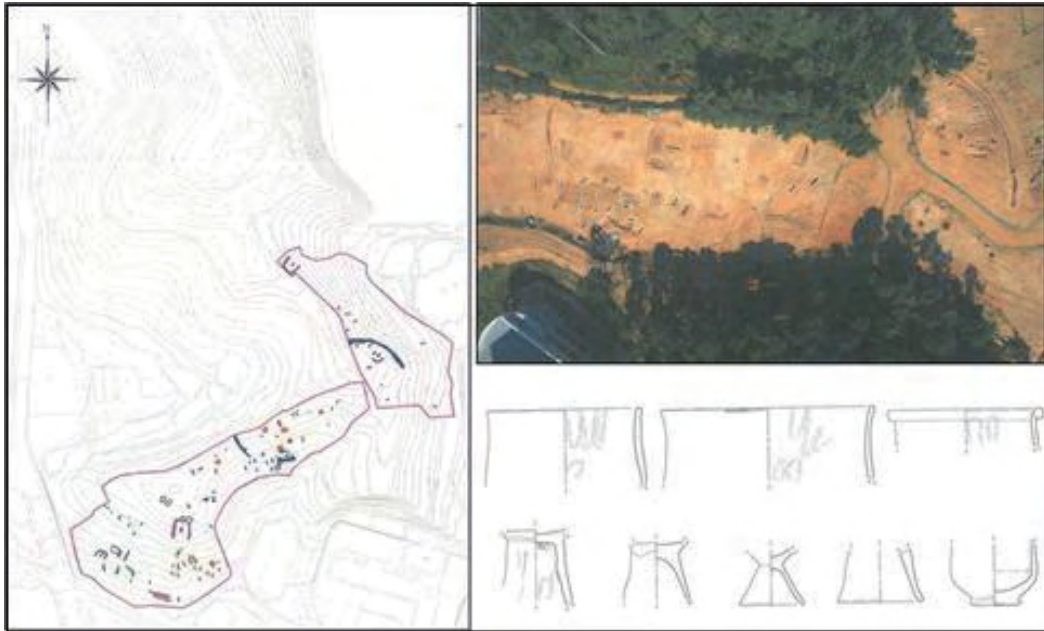
3. 초기철기시대

세교지구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초기철기시대 유구는 전 시기를 통틀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세교 2지구 8지점에서 초기철기시대 환호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이외에 토광묘 1기와 옹관묘 1기 등이 조사된 바 있다.

초기철기시대 환호유구는 8지점 남동쪽 해발 33~40m 정도의 능선 정상부를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형태는 장타원형으로 보인다. 환호의 규모는 대략 260m 정도이며, 환호 내부 면적은 4,000㎡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확인된 환호유구는 신석기시대까지 소급된 예도 있으나, 대체로 청동기시대~통일신라시대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환호의 기능에 대해서는 안팎의 구분이나 경계, 회부에 대한 방어, 의례, 배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초기철기시대 환호유구는 세교지구에서 조사된 것을 비롯해 인근 오산 가장동(경기문화재연구원 2008)에서도 조사된 바 있으며, 수원 울전동(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화성 동학산(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안성 반제리(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등 경기지역 일대에서 다수가 조사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비교·검토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7〉 2지구 8지점 초기철기시대 환호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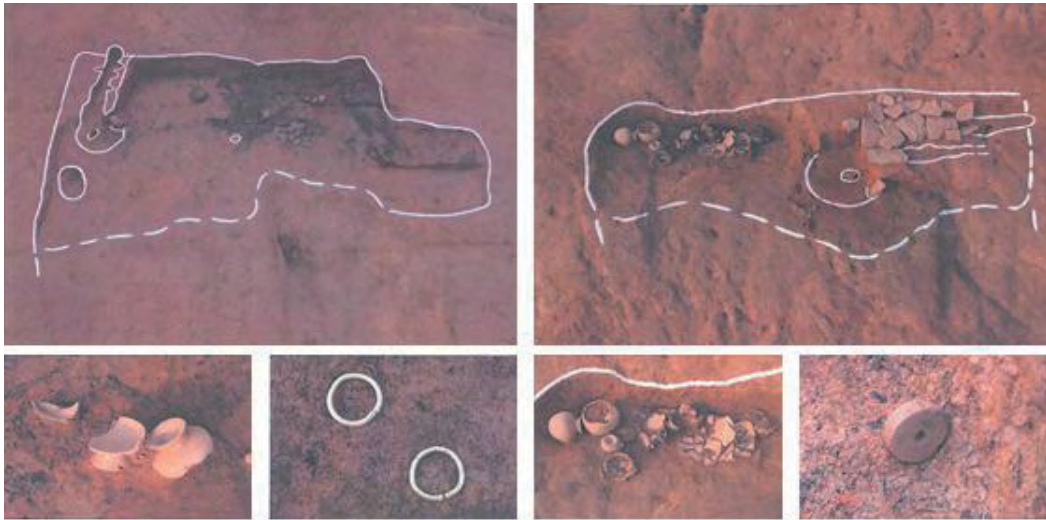
4. 원삼국~백제시대

원삼국시대는 고고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기원전후~기원후 300년까지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 문화는 청동기가 소멸되고 철생산이 성행하며, 도작의 발전과 지석묘의 소멸, 타날문토기의 출현을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후 원삼국에서 삼국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산 일대는 소위 '마한에서 백제로의 전환 혹은 통합'이라는 정치 변동과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교 지구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원삼국~백제시대 유적은 이전 시기보다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세부적인 속성 또한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주거지는 선사시대와 비슷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구릉 정상부와 사면 상단부에 밀집 분포하는 양상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오산천 주변의 야트막한 구릉성 산지가 인간이 생활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凸자형과 장방형, 방형의 형태로 다양하며, 내부에는 온돌시설이 갖추고 있다. 온돌시설은 형태에 따라 '一'자형과 'ㄱ'자형 등으로 구분되며, 일

부는 벽면에 잇대어 쪽구들 형태로 조성한 예도 있다. 주거지 출토유물은 단경호, 고배, 병, 완 등의 토기류와 철검, 철촉, 철모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으며, 특히 2지점 14호 주거지에서는 금제이식 1쌍이 출토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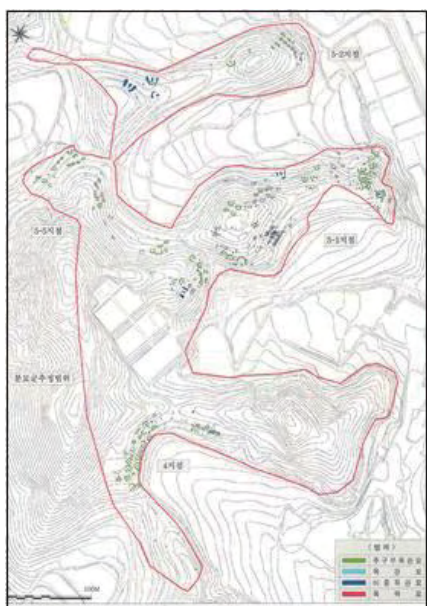
〈그림 8〉 원삼국~백제시대 주거지 ①1지구 2지점 14호 ②1지구 2지점 19호

원삼국~백제시대 취락 역시 주거지 뿐 만 아니라 주변으로 수혈유구가 다수 확인된다. 이 시기 수혈유구는 플라스크 형태로 입구부는 좁고, 바닥은 넓은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평면형태는 원형 내지 타원형으로 조성하였으며, 규모는 지름 100~250cm 정도이며, 깊이는 300cm 이상인 것도 확인된다. 내부에는 벽면이나 바닥에 흠이 관찰되는 특별히 주목되는 시설은 관찰되지 않는다. 출토유물은 대웅, 단경호, 시루 등이 토기류가 다수 출토 되었다.

수혈의 기능은 곡물 등의 저장 및 토기 저장시설·방어·의례공간·주거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세교지구에서 조사된 백제시대 수혈유구의 경우 평면형태 원형에 입구부는 좁고 바닥은 넓은 플라스크 형태의 수혈이며, 직경이 대체로 100~250cm 내외의 크기로 크지 않고, 군집을 이루어 밀집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의례나 방어·주거의 목적보다 저장의 기능을 한 저장수혈로 판단된다.

세교지구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원삼국~백제시대 분묘라고 할 수 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세교 1지구 4지점과 5지점에서 302기의 (주구)토광묘가 조사되었으며, 세교 2지구 5지점 36기·8지점 28기·13지점 6기·14지점 6기 등 모두 76기가 조사되어 총 378기의 원삼국~백제시대 (주구)토광묘가 존재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대표적으로 유개대부호, 원저발, 단경호, 발, 청자반구호 등의 토·자기류와 철검, 철모, 철부, 철촉, 환두도, 마구류 등의 철기류 및 구슬 등 모두 18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조사된 내용과 유물의 양적·질적인 면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9〉 1지구 4·5지점 유구 배치도

분묘가 입지한 지형을 살펴보면 세교 1지구 4·5지점의 경우 해발 75m 내외의 구릉 정상부에서 동쪽과 북동쪽,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연결부에 걸쳐서 넓게 분포한다. 분묘는 능선 정상부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구릉 사면을 주로 이용하였다. 곡부가 형성되었거나 급격한 지형변화가 있는 곳은 피하고 있어 분묘를 조영할 때 지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릉 사면의 전면에 걸쳐 확인되는 점에서 방위에 따른 선별적 조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분묘는 구조적 특징과 분포정형을 토대로 주구토광묘와 관·곽토광묘로 구분되며,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주구토광묘에서 관·곽토광묘로의 시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조영되었다. 경기·충청지역 일대 원삼국~백제시대 (주구)토광묘의 장축방향이 대부분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며, 이는 분묘 축조 시 노동력 절감 등의 이유로 나타나는 형상으로 알려져 있다. 세교지구의 경우 대부분 직교되게 조영된 상태로 다른 지역과 대별되는 오산지역 일대의 지역적 특징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의 묘·장제적 전통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이창엽 2007·서현주 2011).

묘제의 특징을 통해 주구토광묘와 관·곽토광묘로 구분할 수 있다. 주구토광묘는 지하에 묘광을 구축하고 목곽이나 목관을 안치한 다음, 고층의 봉토를 조성하면서 외변에 주구를 남긴 묘제이다. 매장주체부는 물론이고 주구도 서로 간 중복되는 현상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개별 무덤들이 일정 구역을 점유하면서 독립된 구역을 확보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여기에 주구가 남겨져 있고, 그것은 거대한 봉분을 올리면서 남겨진 흔적이기에 분묘 자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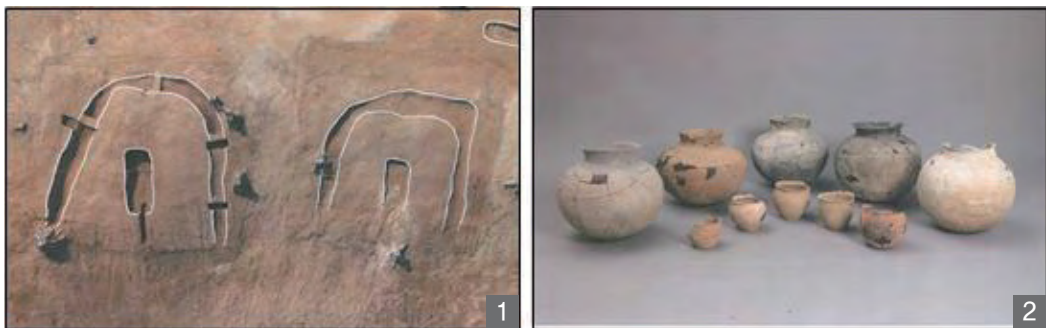
지상에 표지적 분구를 조성한 형상이다. 이는 무덤 자체가 고총의 형상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관·곽토광묘는 주구토광묘보다 후행의 묘제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4세기 중·후반 무렵에 중서부지역 일대에서 석곽묘와 함께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구토광묘와 달리 외형상 고총고분을 인지할 봉분의 존재를 추정하기 어려운 묘제로, 대체로 밀집 배치되는 것이 특징으로 무덤간 거의 연접된 형태로 있어 별도의 봉분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곽토광묘의 묘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이남석 2002).



〈그림 10〉 2지구 5지점 25호 토광묘와 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세교지구 원삼국~백제시대 분묘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유적에 대한 분포정형 뿐만 아니라 존재의미 및 분묘 축조집단의 성격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주구토광묘와 출토유물 ①2지구 5지점 7호·8호 ②출토유물 일괄

첫째 신 자료의 등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 고고학상에서 중서부지역 일대는 기원전후 ~300년까지 공백기로 관련 고고학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2011년 세교 2지구 5지점에서 (주구)토광묘가 조사되었고 출토유물을 통해 2세기 중반 전후의 문화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유개대부호와 원저발이 함께 공반되는 유물조합상의 특징으로 철검과 철모, 철촉 등의 철기류가 함께 부장되었다(충청문화재연구원 2011 · 강지원 2012).



〈그림 12〉 1지구 4지점 25호 관 · 곽토광묘

둘째는 묘제의 변화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세교지구에서 조사된 총 378기의 분묘는 I 단계 단순토광묘단계에서 II 단계 주구토광묘단계 그리고 III단계인 관 · 곽토광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I 단계는 2세기 중반 전후~2세기 말까지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유물부장에 있어 유개대부호와 원저발이라는 표지적인 유물이 출토되는 시기이며, 철기유물 중에서는 철검의 출토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II 단계는 주구토광묘단계로 2세기 말~4세기 중반까지이다. 오산세교 지구의 중심묘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적인 모습은 무덤을 조영하는 양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단위별 묘역이 조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무덤을 조성하는 전통이 일반화되었음을 추측

하는 연구도 있다.

Ⅲ단계는 주구토광묘가 점차 줄어들고 관·곽토광묘의 조영이 증가하는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대체로 4세기 중반 이후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는 백제중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4지점 25호 관·곽토광묘 출토 청자반구호는 세교지구 분묘축조 집단과 백제중앙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끝으로 분묘축조집단의 전통성과 능동성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제지집단은 백제중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집단 내 전통성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집단 내 전통 묘제를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은 다른 지역과는 대별되는 모습이다. 주구토광묘와 관·곽토광묘 등 전통 묘제를 유지하면서 백제중앙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선진문물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나누어 통치하였고, 당시 오산지역은 漢山州에 속한 水城郡이 되었다. 한산주는 757년(경덕왕 16) 주군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면서 漢州로 개명했다. 한주의 속·군·현이었던 지금의 오산 일부와 진위 지역에 해당하는 釜山縣은 振威縣으로 개명됐다.

이후 통일신라시대 水城郡으로 편제되었던 오산지역은 고려시대에 들어 전국의 州·府·郡·縣의 지방제도 개편에서 水州로 승격되었다. 수주는 10도 중 關內道 구역에 속하게 되었으며,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都團練使가 파견되어 중앙정부의 지방편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18년(현종 9) 수주에 知水州事를 둬와 동시에 안산·영신·정송·용성·진위·양성·쌍부 등의 縣을 영속시켰다. 이 가운데 오산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주의 속현은 진위현으로, 진위현은 고려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존속되었으며, 1172년(명종 2)에 監務를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오산지역의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역사 환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세교지구 내에서는 이러한 역사 환경을 뒷받침할만한 다양한 자료들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주거지는 2지구 13지점에서 11기가 수혈유구와 함께 조사된 바 있다.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사면의 하단부로 사면에서 곡부 평탄대지로 연결되는 지점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선 시기의 취락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취락의 입지 변화는 저지대에 형성된 평탄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지 선택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①2지구 13지점 2호 ②2지구 13지점 3호

주거지의 형태는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내부에 ‘一’자형, ‘ㄱ’자형의 구들시설이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완, 완, 호, 시루, 방추차 등의 생활용기와 철제괭이, 철제차관, 추 등의 농공구류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분묘유적으로는 석곽묘와 석실묘가 산발적으로 확인되었다. 세교 1지구 2지점과 세교 2지구 1지점 및 13지점 14지점 등에서 석곽묘 18기, 석실묘 4기 등이 조사된 바 있다. 석곽묘와 석실묘는 대부분 파괴되고 벽석 1~2단만 남아있는 상태가 대부분이나,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 소량 있어 구조와 조성시기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완, 완, 호, 시루, 방추차 등의 생활용기와 철제괭이, 철제차관, 추 등의 농공구류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그림 14〉 2지구 1지점 통일신라시대 1호 석실묘 ①전경 ②출토유물

세교지구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유구로는 주거지와 토광묘 등이 확인되나 다른 시기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주거지로는 2지구 4지점 2기·14지점 8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구릉 사면

에 장방형의 형태에 내부에서 석재를 활용해 구들을 시설한 것으로 확인되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구조적 특징은 파악할 수 없다.

토광묘 역시 2지구 5지점 등에서 조선시대 토광묘와 함께 산발적으로 조사된 바 있다. 5지점 6호 토광묘 출토 청동기물과 청자상감연당초문발 등을 통해 무덤의 조영시기를 14세기 후반경으로 편년한 바 있다.



〈그림 15〉 2지구 5지점 6호 고려시대 토광묘 ①전경 ②출토유물

6. 조선시대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즉위 2년 후에 지방의 중심이 되는 25개의 大邑을 界首官으로 정하였는데, 수원도 계수관이 되었다. 1413년(태종 13)에 京畿左·右道를 京畿道로 개칭하였고, 수원은 都護府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러한 수원·오산지역은 都護府使가 파견됨과 아울러 세종대 후반까지 경기도의 本營이 설치되기도 하였던 곳으로 관찰사가 주로 巡行하는 중요 지역이었다.

수원·오산지역은 임진왜란 때에 권율장군이 독산성에서 승전을 거두기도 하였는데 독산성은 당시 수원지역의 유일한 관방시설로 수원부민의 대부분이 독산성에 올라가 난을 피하였다. 이에 독산성은 조정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수축을 하여 경기남부의 요충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1602년(선조 35)에 수원부사가 防禦使를 겸하며 한때 독산성에 鎮駐하기도 하였으나 곧 방어사를 폐지하였다. 1668년(현종 9)에 別中營將과 討捕使를 겸하게 하였으며, 1678년(숙종 13)에는 摠戒左右營將을 겸하도록 하여 중·후반기까지도 경기 남부의 행정·군사·교통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했던 수원·오산지역은 정조대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1789년(정조 13) 정

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園寢을 수원부 화산으로 천봉하면서 화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던 수원부의 治所를 현재의 수원시 팔달산 동쪽 기슭으로 옮겨가게 하였던 것이다. 한편, 1793년(정조 17)에는 수원부를 留守府로 승격시키고 이듬해부터는 華城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화성축성은 단순한 읍성으로서 공격·방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園寢과 華城行宮을 수호하고 수원유수부가 신흥대도회로 발전할 수 있는 행정적·군사적 거점으로, 나아가 정조의 강력한 왕권강화의 상징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러나 1895년(고종 32)에 근대식 행정제도로서 지방제도를 개정, 23部制를 시행하여 유수부를 폐지하고 수원군으로 개칭하면서 일시 仁川部 관할로 된 적이 있었으며, 그 이듬해 13道制로 다시 바뀌면서 경기도 수원군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수원군은 남양군을 통합하였는데 이때 오산시 지역은 淸湖面의 湖자를 따서 城湖面이 되었다.

이처럼 오산지역은 조선시대 수원지역과 함께 정치·군사·행정·교통의 중심지로 활용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도 매우 풍부한 편이다. 세교지구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조선시대 유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조선시대 오산지역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생활유구는 주거지·수혈유구·건물지·야외노지·구상유구·석렬유구·우물지 등 매우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1지구 9·10지점에서 67기의 주거지와 주변에 다수의 수혈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2지구 13지점에서도 57기의 주거지와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생활유구의 분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밖에 분묘 주변으로 주거지가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예도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임시주거 공간으로써 활용된 예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림 16〉 조선시대 주거지 ①2지구 2지점 1호 ②2지구 3지점 1호

분묘는 대부분 토광묘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회곽묘도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사면을 따라 밀집 분포하여 취락단위 별로 공동묘역을 조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묘광의 굴착방식에 따라 일단광식과 이단광식으로 나뉘며, 매장주체부는 목관의 유무에 따라 목관묘와 직장묘로 세분된다. 유물은 피장자의 발치쪽 혹은 머리쪽에 유물을 부장한 예가 있으며, 요갱과 편방을 만들어 이곳에 유물을 부장한 예도 다수 확인된다.

유물은 백자발·백자접시·백자종자 등이 함께 출토되며, 일부 백자병·흑유호 등도 출토된다. 청동기물로는 청동손가락·청동합·청동병·청동시저·청동거울 등이 있으며, 철제교구·철제가위·동전 등의 조합으로 유물을 부장하였다. 이밖에 세교지구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유구는 건물지와 수혈유구, 구상유구 등이 있으며 생산유구로는 기와가마와 솥가마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Ⅲ. 조사성과

오산 세교 택지개발부지는 오산시 금암동·궐동·수청동·누읍동·벌읍동·탑동·두곡동·청학동·가수동 등 9개 동 일원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했던 지역이다. 이곳은 오산천이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70m 내외의 야트막한 구릉성 산지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 선사시대 이래 인간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던 지역으로, 개발 전 문화재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2,483기의 유구와 84,498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양적·질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매장문화재가 확인된 바 있다. 조사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조사내용을 토대로 발굴조사 성과를 살펴보면서 본고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세교지구에서 가장 이른 시기 유적은 신석기시대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문화상은 아직까지 희미한 편이다. 세교 1지구에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된 수혈유구가 조사되었으나, 세부적인 특징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인근 가장동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수혈유구가 조사된 사례를 통해 오산천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취락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세교지구 일대는 본격적으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주거지와 수혈유구 및 분묘유구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취락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거점취락과 소규모의 주변취락이 존재하였으며, 주거지의 구조나 출토유물의 변화를 통해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박물관 설립 시 오산천을 이용한 청동기시대 생활모습을 복원한다면 오산지역의 선사시대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철기시대 세교지구는 유적의 양은 소략하나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조사된 유구는 환호유구와 토광묘 및 옹관묘 1기씩이나, 환호유구의 경우 초기철기시대 의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향후 관련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다양한 각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교지구에서 조사된 유구 가운데 원삼국~백제시대 분묘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총 378기의 (주구)토광묘가 조사되었으며, 1800여 점이 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삼국~백제시대 오산지역 일대 분묘축조 집단의 성격과 특징을 복원하고 이를 토대로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에 활용한다면 지역의 전통성이나 특징을 대변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신라시대~조선시대 유적은 세교지구 발굴조사 유구 가운데 70% 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물론 이 시기는 문헌자료를 통한 역사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고고학 자료에 대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오산지역은 고려시대 이후 남에서 북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활용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했음을 세교지구 발굴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이 시기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관심은 고려시대 이후 오산지역의 지역 문화상을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오산시의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재미있는 박물관·배울 꺼리가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주셨으며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고 문헌

- 강지원,『원삼국시대 중서부지역 토광묘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경기문화재연구원,『오산 가장동 유적』, 2008.
- _____,『오산 수청동 백제 분묘군』, 2012.
- 거례문화재연구원,『오산 청학동 유적』, 2013.
- 기호문화재연구원,『오산 탑동 · 두곡동 유적』, 2013.
- 서경문화재연구원,『오산 가장2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1.
- 서현주,「한강 · 영산강 · 낙동강 유역원과의 문화적 상사 · 상이성 및 교류」,『금강유역 마한 문화의 지역성』, 호서고고학회, 2011.
- 이남석,『백제의 고분문화』, 서경문화사, 2002.
- 이창엽,「중서부지역 백제한성기 목관묘 변화-오산 수청동유적을 중심으로」,『선사와 고대』27, 2007.
- 중앙문화재연구원,『오산 궐동유적』, 2013.
- 충청문화재연구원,『아산 용두리 진터 유적(Ⅱ)』, 2011.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변천

－ 보수기록을 통하여 －

이 용 범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I. 머리말

II. 조선시대

1. 임진왜란기

2. 정조이후

III. 일제강점기

IV. 현대의 독산성 보수기록

1. 1979년 이전

2. 1979년 이후

V. 맺음말

*참고문헌

집필자

이 용 범

오산시 학예연구사

여 백

I. 머리말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는 사적 제140호(1964년 8월 29일 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성곽의 길이는 1,095m이고 성문은 동서남문과 암문 1개를 포함하여 총 5개가 있으며, 치는 8개가 있다. 해동지도¹⁾와 화성지²⁾의 기록에 의하면 남문과 서문에 문루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성내부에도 운주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청건물이 있었다고 하나³⁾ 현재는 정상부에 세마대⁴⁾와 동문 안쪽에 보적사⁵⁾만 남아있다.

독산성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임진왜란과 그 이후에 경기남부를 방어하는 요충지로서 한 축을 담당하였으며, 정조 때는 현릉원을 외호하는 역할 하는 등 조선후기 중요한 성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산성은 지리적인 위치를 볼 때, 삼국시대부터 관방시설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⁶⁾되고 조선시대 다양한 개보수로 인한 당시 성곽 축조 및 보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단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독산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⁷⁾ 이러한 연구 미흡은 독산성에 대한 자료가 문헌기록만 있으며, 현재의 성곽도 현대의 보수로 인해 원형을 파악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문헌기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고고학적 조사도 1982년 서문과 암문 간이발굴⁸⁾

1) 『海東地圖』

2) 『華城誌』

3) 주2)의 책

4) 현재 남아있는 세마대는 1957년 세마대중건위원회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현판에는 '洗馬埧'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가 있다.

5) 보적사의 창건연대는 삼국시대 독산성의 승전을 위해 건립되었다는 설과 고려시대에 건립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독산성 전투 당시 승군이 함께 싸웠다는 기록과 화성지에 기록된 독산성 건물지 현황에 보적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임진왜란을 이후에는 보적사가 독산성 내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조 기록된 독산책을 독산성으로 비정하는 연구가 있으나, 이는 낙랑의 위치 등을 볼 때,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독산성의 현재 지리적인 입지를 볼 때 삼국시대에 관방시설이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7) 정해득, 2009, 『正祖時代 顯隆園 造成과 水原 移邑 研究』, 경기대학교 대학원.

심승구, 2012, 『임진왜란 중 독산성 전투와 그 역사적 의의』, 『한국학논총』37,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김준혁, 2015, 『독산성의 역사와 군사문화적 의의』, 『오산 독산성 학술대회』, 오산시청.

8) 1982년 보수 시 서문과 암문에 대해 간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보고서 등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조사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과 1995년 지표조사⁹⁾, 2000년 시굴조사¹⁰⁾만 실시되는 등 자료의 부족 때문에 판단된다.

앞으로 독산성에 대한 정확한 축조시기와 내부 시설물의 성격규명을 위해서는 성곽과 내부에 대한 연차적인 학술조사가 가장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그 전에 현대에 실시된 독산성의 보수기록을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잘못된 보수라는 지적이 많지만, 현재 복원된 형태 이전의 기록이 있고, 특히 독산성을 도면과 사진으로 기록한 유일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산성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보수·정비 시에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대의 보수기록을 중심으로 독산성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독산성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독산성의 보수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1594년(선조27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자 한다.

Ⅱ. 조선시대

독산성에 대한 기록은『朝鮮王朝實錄』이나『華城誌』등 조선시대 문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 이전 시기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삼국사기』에 ‘독산책’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오산시에 소재하는 독산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독산성의 최초 형태와 보수기록이 확인되는 조선시대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조선왕조실록에 독산성이 최초로 확인된 임진왜란기와 대규모 보수가 진행된 정조시대의 2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임진왜란기¹¹⁾

9) 한신대학교박물관, 1999, 『독성산성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10)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오산 독산성·세마대지 시굴조사 보고서』.

11) 독산성 첫 수축기록이 확인되는 1594년부터 정조이전 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다.

임진왜란 당시 독산성에 대한 기록은 권율장군의 독산성 전투와 그 이후 전략적 요충지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대부분이고 독산성의 형태나 보수 등에 관한 기록은 아래와 같이 일부만이 확인된다.

『朝鮮王朝實錄』宣祖實錄

① 선조27년 9월19일

京畿觀察使柳根馳啓曰: “水原 禿城山城修築事, 今月十一日始役, 十四日畢役。 參商事勢, 訪得民情, 禿城城內, 募入人民, 中設倉廩, 以爲積粟之計, …(후략)…”

② 선조27년 11월 19일

…(전략)…修築舊城, 據險鍊兵等事, 一如禿城之例, 應募者亦多。…(후략)…”

③ 선조27년 12월 2일

…(전략)…修築舊城, 據禿城、海州因舊修築之比。…(후략)…”

④ 선조28년 10월 27일

…(전략)…近日水原 禿城, 城堞粗就, 而又設砲樓, 民之來見者, 頗有守城之意云。 此亦民心, 見其所恃, 則稍定之一驗也。…(후략)…”

⑤ 선조29년 4월 17일

四道都體察使柳成龍啓曰: “水原 禿城, 則城堞已修, 器械粗完, 故一府之民, 皆有定志, 時方以私力, 蓋造廬舍, 欲爲入處者甚多。…(후략)…”

⑥ 선조29년 5월 2일

“禿城山城, 軍器之中, 他餘物件, 則雖未大備, 粗得成樣, 而火藥則只有四兩, 臨急應用, 決不可望, 實非細慮。 令該司, 急速優送。…(후략)…”

각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성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경기 관찰사 유근이 백성들과 함께 옛 성을 어느 정도 수축하고 내부에 식량창고를 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백성들이 성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당시 독산성은 성으로서의 기초적인 형태만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조선왕조실록 ① ~ ③) 하지만 1년 뒤에 독산성에 여장과 포루가 축조되고 화포 등이 배치되면서 점차 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으며¹²⁾ 전쟁 중에도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조선왕조실록 ④ ~ ⑥)

12) 독산성에 여장과 포루 등을 축조하고 성으로의 면모를 갖추도록 수축한 것은 화성지와 수원군읍지의 기록을 보면 변응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왜란 이후인 1601년(선조34년) 윤두수가 경기 독성 방어책에 대하여 상차한 것¹³⁾을 계기로 독산성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당시 개보수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약 200여년 뒤에 만들어진 화성지와 수원부읍지 등에 당시 개보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 이를 통하여 개보수의 규모와 독산성의 모습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華城誌』山城

① 禿城

…(전략)…上命 本府府使 邊應星 築城仍建廨宇…(후략)…

② 鎮南樓

…(전략)…築其城使高 鑿其溝使深 浚井使民不渴 耕田使民不饑荒…(중략)…城中居民亦過二百戶 寺刹廨宇並百餘區…(후략)…

『輿地圖書』水原部邑誌

① 山川

…(전략)…독성산 부에서 남쪽으로 10리에 있으며 만력 30년 임인년에 석성을 쌓았다. …(후략)…

화성지의 기록을 보면 부사 변응성이 독산성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수의 내용을 보면 성을 석성¹⁴⁾으로(수원부읍지 ①)높게 쌓고 해자로 추정되는 도랑을 설치하였으며, 관청건물을 축조하고 독산성의 취약점인 식수를 해결하고자 깊은 샘과 둔전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밭을 만들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보수의 결과 성내 주민이 167호에 달했으며, 사찰과 관청 건물이 약 100여구에 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화성지 ① ~

13) 『朝鮮王朝實錄』宣祖實錄 선조34년 3월17일

…(전략)…前有累次操鍊而設險, 亦得禿城之地. 臣之妄意, 若設兵營, 以文武中重望之人差送, 以備邊司屯田幾千石穀, 分番教養, 民不改聚, 兵皆土着, 皆成手下之使, 坐收澤潞之效, 聞變而趨, 何往不可?…(후략)…

14) 1602년 보수 시에 석성으로 쌓았다는 기록은 마치 이전의 독산성을 토성으로 판단하게 한다. 하지만 이미 1595년에 여장과 포루가 축조된 것으로 볼 때 이전에도 석성이었지만, 전쟁 중 단기간에 수축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 구간을 석성으로 쌓지 못하고 일부 구간이 토성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602년의 석성으로 쌓았다는 기록은 이러한 구간까지 모두 돌로 쌓아올린 것에 대한 기록으로 판단된다.

②)

이 당시의 보수 내용과 규모를 볼 때 화성지 등에 기록된 관청건물 대부분이 이 때 건립된 것으로 판단되고, 독산성이 경기남부의 중심적인 방어시설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하였으며 이후 기록을 볼 때 산성보수의 표본¹⁵⁾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의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던 사찰의 존재로 아마 독산성에서 함께 전투를 수행했던 승병들 중 일부가 성안에 거주하고 있다가, 변응성에 의해 관청건물 축조와 둔전의 설치 등 내부 구획정리가 진행될 때 사찰도 함께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1602년의 대규모 보수 이후 독산성은 다른 성들과 달리 꾸준히 정비되어 왔으며¹⁶⁾ 1690년(숙종16년)에는 봉수가 추가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다만 봉수의 설치의 경우 1754년(영조30년)에 독산성에 봉수를 설치 할 것을 건의 하는 기록¹⁸⁾이 있어, 숙종 때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2. 정조이후¹⁹⁾

1602년 대규모의 보수를 거치면서 경기남부 방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던 독산성은 정조의 아버지인 장헌세자의 능원인 현릉원의 축조로 인해 1792년(정조16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보수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朝鮮王朝實錄』正祖實錄

⑦ 정조16년 10월 3일

戊辰/修禿城山城【城周一千四步，體城新築七百三十二步，修築二百七十二步。水門三改築，女城

15) 『朝鮮王朝實錄』宣祖實錄 선조36년 2월18일

…(전략)…”曾聞南漢山城，形勢甲於東方。廣州，乃畿甸巨鎮，南道往來要衝之地。若於此處，修築山城，操鍊士卒，一依禿城，擇其倅而守之，內有以爲京都之保障，外有以爲諸陣之控制。…(후략)…”

16) 『朝鮮王朝實錄』光海君日記 광해2년 1월17일

…(전략)…”京畿山城，無慮十七處而一自賊退之後，漸就廢弛，唯水原之禿城，綿綿修葺矣。…(후략)…”

17) 『朝鮮王朝實錄』光海君日記 광해2년 1월17일

…(전략)…”本府南距五里之內，有禿城山城，而其峰最高。若置烟臺，則南應槐台，西照天柱，三南報警之事，一刻便至，與其坐待五十里天柱烽軍之來告然後，始知警急，不啻相懸矣。”上命禿城加設烟臺。…(후략)…”

18) 『朝鮮王朝實錄』英祖實錄 영조30년 7월23일

…(전략)…”三日，請設完營及水原 禿城山城烽燧，以嚴報警之具。…(후략)…”

19) 대규모 보수가 진행된 1792년부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다.

三百九堞新築，南將臺移舊基三尺改建。】教曰：“山城重地，密邇於園寢，又是庚辰駐宿之所也。將臺卽鎮南樓，而昔年登臨之所也。今聞修葺云，當製下碑文。原任閣臣中，左相書進。”

『輿地圖書』水原部邑誌

② 城地

…(전략)…독산성성 둘레 5리, 성첩 303첩, 높이 3장…(후략)…

조선왕조실록 ⑦의 기록을 보면 성곽을 신축한 부분이 730보로 전체 성곽의 약 72%에 해당한다. 이는 성을 새로 신축한 것에 버금가는 보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산성 내에 수문이 3군데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의 경우 후술하겠지만, 현재는 2군데만 남아있어 조선시대의 모습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옛 터에서 3척 옮겨 다시 세운 남장대는 진남루로 추정되는데, 이는 진남루가 1602년 성의 남쪽에 건립되었으며 1790년(정조14년)에 개건되었다는 기록²⁰⁾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2년의 차이가 있는데, 1792년(정조16년)의 기록은 독산성의 수축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남장대의 개건은 1790년에 완료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수가 완료된 1792년에 함께 보고되어 화성지의 기록과 2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1792년 대규모 보수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독산성에 대한 보수 기록은 1804년(순조4년)에 암문을 설치²¹⁾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원부읍지와 화성지, 수원군읍지 등 지리지와 만기요람 같은 서적에서 독산성의 규모와 내부시설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표1 참조)

독산성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된 화성지의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독산성의 규모는 둘레 1010보(1,212m)이고 시설물은 성첩 309첩, 성문 4개, 암문 1개, 수문 3곳이다. 그리고 내부 건물은 운주당, 삼문, 진남루, 장대, 관청 등 약 168.5칸이 있었으며 민가는 120여 호 달하였다. 성의 규모에 비해 많은 수의 관청과 민가가 내부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독산성의 위상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정조시대의 기록에서 주목할 점은 임진왜란기는 독산성의 축성이나 여장과 같은 시설물과 내부 건축물의 축조 등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정조시대를 기점으로는 성의 둘

20) 『華城誌』山城 禿城 鎮南樓

…(전략)…正宗庚戌因 特教改建…(후략)…

21) 『朝鮮王朝實錄』純祖實錄 순조4년 10월30일

…(전략)…禿城南設暗門也，陽山東麓及禿城東門加植也，…(후략)…

레와 높이 여장의 규모와 수량, 내부 건축물의 규모 등이 기록되고 있는 차이점이 확인되어 성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록된 성의 둘레에 있어 문헌마다 10~900m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영조척, 주척, 보, 리 등 다양한 도량형이 사용되어 기록자에 따라 각자가 사용하는 도량형에 따른 차이로 생각되고 또한, 당시의 도량형을 현재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규모가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조선왕조실록은 왕실기록으로 기록에 있어서 국가에서 사용하던 도량형으로 표기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미터법으로 환산한 둘레가 현재의 독산성 둘레 1,095m와 가장 근접하기 때문이다.

〈표1〉 문헌자료에 나온 성곽의 규모와 시설물²²⁾

문헌명	시대	규모	시설물	비고
조선 왕조실록	1792년 정조16년	둘레 1004보 성첩 309보		둘레 1004보 = 1,205m 성첩 1보 = 3.90m
수원부읍지	1793년	둘레 5리 성첩 303첩 높이 3장	중영, 산창, 진남루	둘레 5리 = 2,100m 성첩 1첩 = 4m 높이 3장 = 9.09m
만기요람	1808년	둘레 1,800보		둘레 1,800보 = 2,159m
화성지	1831년	둘레 1010보(5리) 성첩 309첩	운주당, 삼문, 진남루, 아전청, 장교청, 관청, 사창, 오창, 군기고, 보별고, 무고, 동고, 서고, 보적사, 장대	둘레 1010보 = 1,212m 성첩 1첩 = 3.92m
수원군읍지	1899년	둘레 1010보(5리) 성첩 309첩	운주당, 삼문, 진남루, 아전청, 장교청, 관청, 사창, 군기고, 보적사 장대	둘레 1010보 = 1,212m 성첩 1첩 = 3.92m

조선시대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조선시대 이전부터 존재하던 古城인 독산성이 임진왜란 당시 독산성전투 등을 통해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1592년 유근의 보수를 시작으로 지속적

22) 오산시, 2016,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종합정비계획』, p43 표2-4 일부수정

인 보수가 진행되었다. 특히 전란 이후인 1602년 변응성의 대규모 보수 및 수축을 통해 석성으로 개축되고, 여장과 포루를 갖추는 등 진정한 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경기남부 방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1792년 정조에 의해 다시한번 대규모 보수 및 수축이 진행되고 내부에 운주당, 진남루, 관청, 보적사, 장대 등 000칸의 관청건물이 들어섰고 민가도 200호에 달하는 등 독산성의 최전성기를 맞게 되며, 경기남부 방어의 핵심적인 역할과 함께 현릉원을 외호하는 역할도 함께 맡았다.

한편, 조선시대 독산성에 대한 기록은 성의 규모와 내부시설물의 규모와 배치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성의 형태에 대해 어느정도 추정은 가능하지만 도면 등이 남아있지 않아서 당시 성곽과 성문의 형태,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독산성의 원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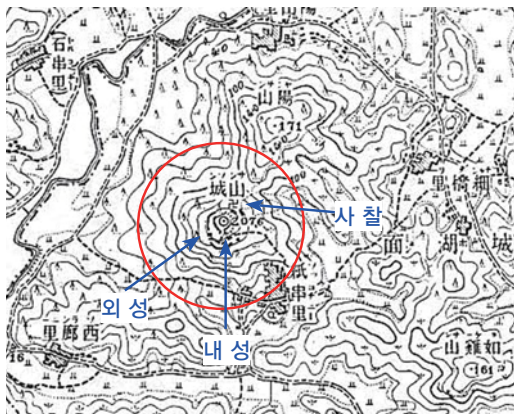
Ⅲ.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독산성에 대해서는 1914년 독산성 내 주민들에 대한 疏開令이 있었고 그 이후 성이 쇠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²³⁾ 다만, 소개령 이전에 제작된 지적원도(1912년)를 보면 성곽 내부에 종교용지와 전, 대지 등이 표기되어 있어 1912년까지도 내부에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18년에 발행된『五萬分之一地形圖』에 독산성에 성곽과 사찰의 표시가 되어있어 주민들이 소개된 이후에도 사찰은 운영되고 있으며, 육안으로 성곽을 확인할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23) 오산시사편찬위원회, 2009, 『오산시사』, 오산시.



〈도판 1〉 1912년 지적원도



〈도판 2〉 『五萬分之一地形圖』에 표기된 독산성

한편, 최근 확인된 고적조사 자료²⁴⁾를 보면 독산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토지의 소유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있다.²⁵⁾ 독산성 토지의 대부분은 田(度支部 所管)으로 되어있으며 일부만 山野(李王職²⁶⁾ 所管)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912년도 지적원도의 기록과 거의 유사하다. 1912년도 지적원도를 보면 세마대 주변과 서문 주변이 임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田으로 되어 있어 이왕직 소유의 토지는 세마대와 서문 주변이고 그 이외의 토지는 탁지부의 소유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성곽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경기도 고적대장』에 ‘둘레는 약 五百間이고(이중 약 百間은 李王職 所管의 땅에 속한다.) 대부분은 붕괴되었다. 높이는 一間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一間은 현재 약 1.82m로 환산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성곽의 둘레는 약 910m이고 높이는 약 1.82m이다. 성곽의 둘레가 조선시대 기록된 것과 현재 측량된 둘레와 차이가 있고 높이도 조선시대 기록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성곽이 대부분 붕괴되었다는 기록을 볼 때, 붕괴된 상태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 시설물에 대해서는『유적 및 유물 소재 보고』에 기록된 ‘間數: 三白五十間’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50칸을 환산하면 약 637m이다. 기록된 間數를 둘레 또는 성 내부

24) 殖産國 山林科(추정), 1916~1917, 『경기도 고적대장』.

고적조사위원회, 1919, 『유적 및 유물 소재 보고』.

『조선 유적유물 연구』, 생산연도 및 생산부서 미상

25) 고적조사 자료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도면이나 사진은 확인되지 않았다.

26) 1910년 한일합병과 함께 대한제국황실이 李王家로 격하되면서 기존의 황실업무를 담당하던 宮內府를 계승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의 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적 및 유물 소재 보고』의 조사연도(1915년 ~ 1916년)와 『경기도 고적대장』의 조사연도(1916년 ~ 1917년)가 1년 ~ 2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그 짧은 기간 동안 둘레가 약 273m 정도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붕괴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현재 성내의 면적은 약 63,000㎡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 間數는 둘레 또는 성 내부의 면적이 아니라 시설물의 칸수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고 1916년 까지 성 내부에 시설물이 350칸 정도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화성지』에 독산성 내부 시설물이 168.5칸으로 기록되어 있어 『유적 및 유물 소재 보고』에 기록된 350칸과 약 2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화성지』와 『유적 및 유물 소재 보고』의 목적의 차이로 판단된다. 『화성지』는 읍지로 관영 건물은 명칭과 칸수를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내부에 있던 민가의 경우 규모 보다는 가구수의 파악이 더 중요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실시된 고적조사는 관영 건물과 민가의 구분 없이 독산성 내에 남아있는 시설물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고 『유적 및 유물 소재 보고』의 조사 당시는 주민소개령 이후로 가구수를 파악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한편,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까지 남문의 문루와 세마대에 대한 기록이다. 문루의 경우 ‘土木局 所管’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문루의 소유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마대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으며 약 70년 전에 수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세마대가 당시에 잔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지적원도와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이왕직의 소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약 70년 전은 1846년(헌종12년)으로 헌종 때도 독산성에 대한 수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기록을 종합해보면 <표2>와 같다.

<표2> 일제강점기에 기록된 독산성의 규모 및 시설물

규모	시설물	비고
둘 레: 910m 높 이: 1.82m 시설물: 350칸	성 곽: 대부분 붕괴 성 문: 동서남북문 문 루: 남문 세마대: 약 70년전 수리	문 루: 토목국 소유 세마대: 이왕직 소유(추정) 임 야: 이왕직 소유 田 : 탁지부 소유

IV. 현대의 독산성 보수기록²⁷⁾

현재 독산성의 모습은 1979년부터 진행된 보수를 통하여 복원된 것으로 잘못된 복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당시의 보수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된 독산성에 대한 기록 중 도면과 사진이 포함된 유일한 기록으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보수기록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있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독산성에 대한 보수가 시작된 1979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1979년 이전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자료 이후 독산성에 대한 기록물 중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1956년에 촬영된 독산성 안내판이다.²⁸⁾



〈도판 3〉 ①1955년에 촬영된 독산성 안내문, ②1958년 유엔군 참전기념 안내판

이 안내판의 정확한 설치연도는 모르나 1956년에 촬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58년에 설치된 유엔군 참전기념 안내판²⁹⁾과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볼 때 안내판은 6.25전쟁 이후에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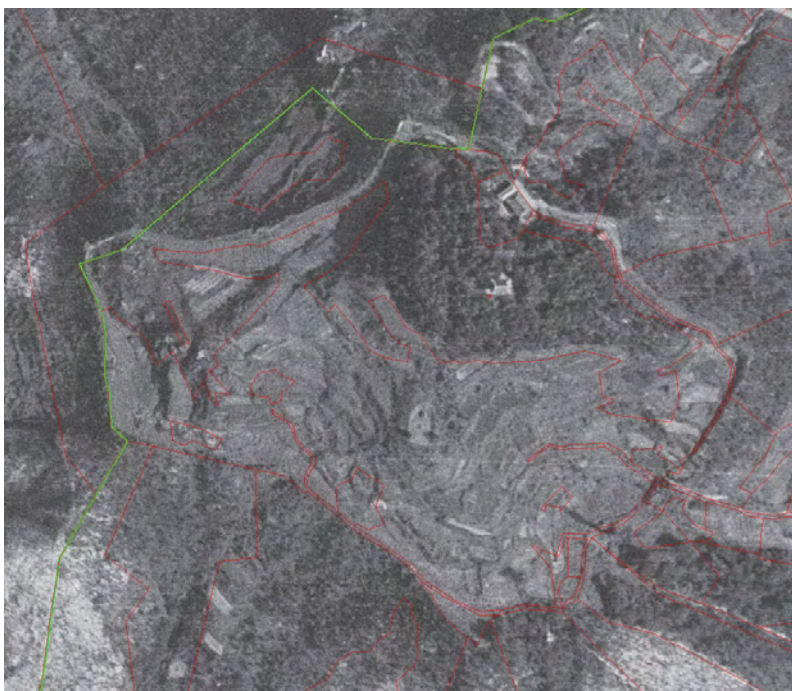
27) IV장에 제시된 도면 및 사진은 오산시청, 화성시청, 국가기록원, 유엔군초전기념관 제공임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국가기록원 자료는 별도로 각주를 표기하지 않고 참고문헌에 일괄표기 하였다.

28) 국가기록원 제공

29) 유엔군 초전기념관 제공

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안내판이 설치된 1950년대는 독산성이 사적으로 지정³⁰⁾되기 이전으로 당시에도 독산성은 중요한 古蹟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성곽은 육안으로 어느 정도 확인될 만큼 잔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판 4〉 1966년 항공사진(오산시청 제공)

이러한 내부 시설물의 不在는 일제강점기의 부실한 관리³¹⁾와 6.25를 거치면서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6.25 당시 오산의 죽미령과 갈곶동 등에서 여러차례 전투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전략적 요충지인 독산성도 이러한 전투를 피해가지 못했을 것이고 독산성이 많은 포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³²⁾ 잔존하고 있던 성곽과 내부

30) 독산성은 1964년 8월 29일 사적 제140호 지정되었다.

31) 주민 소개령 이후 약 2년 뒤에 실시된 고적조사 당시에도 성곽 등이 대부분 붕괴 되어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소개령 이전에도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았으며, 소개령 이후에는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주)23의 책

시설물은 대부분 파괴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 설치된 안내판에 규모나 시설물에 대한 것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1979년 이전 독산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세마대의 복원이다.³³⁾ 현재 독산성 최정상 부에 있는 세마대는 1957년 ‘세마대중건위원회’에 의해 복원 되었는데³⁴⁾ 정부와 시민 등 각계 각층의 보조금³⁵⁾으로 건립되었으며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모금활동 등이 활발하였다.

세마대가 1957년에 복원되면서 당시 보적사만 있던 독산성 내부에 새로운 시설물이 하나 더 들어 서게 되었다. 비록 복원된 세마대의 위치³⁶⁾와 형태에 있어서 고증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³⁷⁾, 시민들이 자발적·주도적으로 독산성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세마대 중건기’에 독산성의 당시 모습에 대한 기록이 일부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마대 중건기』

… (전략)…한일 합병 후 왜인은 세마대를 파괴하고 주거민은 각처로 분산되어 현대는 보적사와 폐허로 된 황성과 성문만이 남아 있다.… (후략)…

이 기록을 볼 때 당시 독산성에는 보적사와 성문, 일부 성곽만이 잔존하고 있고 다른 시설물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술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안내판의 설치와 같이 古蹟으로 인식은 되고 있었으나 ‘폐허로 된 황성’의 기록을 볼 때 관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복원된 세마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이 확인되었는데 1957년에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마대도 여러차례 보수가 진행되면서 잡상과 단청 등이 원래의 모습과 다른 형태로 변

33) 복원된 세마대는 전면3칸, 측면 2칸, 팔작지붕의 형태이고, 현판은 2개가 있는데 그 중 ‘洗馬臺’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휘호이다. 그리고 내부에 ‘세마대 중건기’와 ‘세마대 중건 경위서’가 걸려 있다.

34) 2016년 보수공사 중 지붕해체를 통해 세마대의 상량식은 1956년 5월 10일에 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5) 세마대 건립비용과 관계자, 작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 세마대에 ‘세마대 중건 경위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36) 세마대가 현재의 위치에 복원된 것은 중건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초석만 남은 옛 터에 단기 四二九〇年 八月 十五일 독산성 세마대 고적 중건 위원회의 …(중략)…세마대는 중건 복구되었고…(후략)…

37) 주)10의 보고서.

형되었다.

먼저 잡상의 경우 세마대가 복원되고 1년 뒤인 1958년에 촬영된 ‘禿山洗馬坵雅會’의 사진을 보면 처마 끝에 잡상 2개가 확인되는데, 1977년에 촬영된 세마대 사진에는 처마가 아닌 용마루 위로 옮겨져 있다. 그리고 1979년 당시 세마대 현황 도면과 1980년대 촬영된 세마대 사진에는 잡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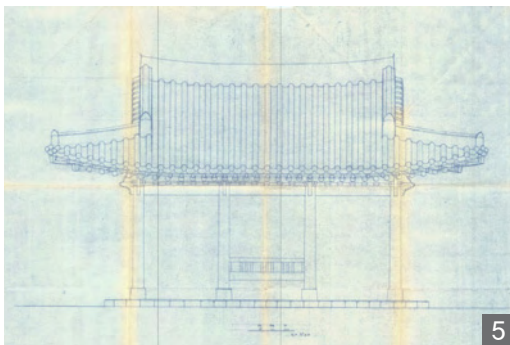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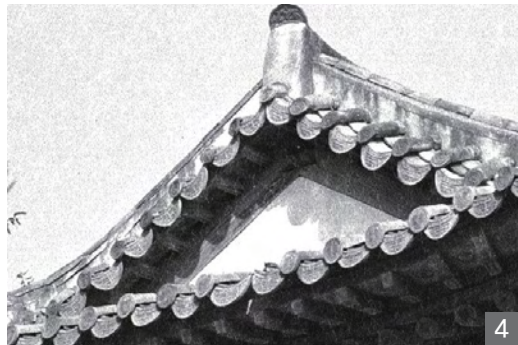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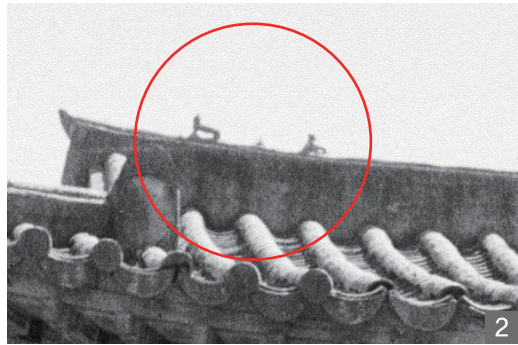
잡상이 맨 처음 확인된 사진인 1958년인 것을 감안하면 잡상은 세마대가 복원될 당시에 함께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용마루로 옮겨진 잡상은 정상적인 보수를 통해서 옮겨진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57년부터 1978년 사이에 독산성 보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고 3년 뒤의 보수 현황 도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임시적으로 용마루로 옮겨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잡상이 1979년 현황 도면에 표시 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보수에서 제외 된 것이 아니라 1976년 ~ 1979년 사이에 도난 등으로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5〉 1958년 세마대 사진(①세마대 전경, ②잡상, ③세마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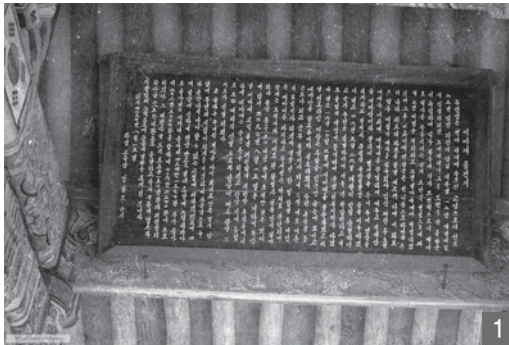
단청의 경우도 1958년 사진에는 ‘세마의식’이 그려져 있었으나 그 이후 1969년에 촬영된 사진과 1977년 사진에서는 1958년에 있던 ‘세마의식’ 그림이 확인 되지 않는다. 또한 1976년에 촬영된 사진의 경우 세마대 내부 종보에 태극기도 확인되는데 이후 1983년과 1988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종보에 태극기가 없다. 세마대의 단청은 1979년과 이후 1990년에 다시 하였는데, 보수 기록과 사진이 촬영된 연도를 볼 때 1979년 보수 때 태극기를 지운 것으로 추정된다.

태극기를 지운 연유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독산성의 보수는 문화재청의 설계검토를 받아 진행하였으므로 설계검토에 따라 태극기를 지우고 지금과 같은 문양으로 바꾼 것으로 추



〈도판 6〉 세마대 모습(①1977년 세마대 전경, ②잡상, ③1977년 세마대 측면, ④세부, ⑤1979년 세마대 도면, ⑥1979년 세마대 현황사진)

정된다. 한편 세마의식의 경우 보수 이전인 1969년에 촬영된 사진에서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1958년과 1969년 사이에 지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이 기록되지 않은 세마대 단청 보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마의식이 보수 시 지워진 연유는 알 수 없다.



〈도판 7〉 세마대 내부 태극기(①1976년 태극기, ②세부, ③1988년, ④2016년)

1979년 이전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독산성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내부 시설물과 일부 성곽이 파괴되었으며 고적으로의 인식은 있었으나 관리의 부실로 폐허와 같은 상태였다. 내부 시설물은 1957년 세마대가 복원되기 이전 까지 보적사 만이 잔존하고 있었으며, 복원된 세마대도 시간을 거치면서 일부에 있어 변형이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1979년 이후

1980년 ~ 1990년은 문화재에 대한 복원정비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절로 독산성 또한 당시 복원정비가 진행되었다. 1979년 이후 독산성에 진행된 보수내역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독산성의 보수는 복원의 시기와 정비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979년부터 1985년까지는 성곽 전체에 대한 복원과 일부 구간에 대한 간이 발굴이³⁸⁾ 진행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수해나

38) 1982년 일부구간(서문, 암문 등)에 간이발굴이 실시되었으나, 보고서 등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조사방법과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었다.

異質석재 교체 등 복원된 성곽의 일상적인 관리 차원의 정비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복원정비의 양상을 볼 때 현재 독산성의 모습은 1979년에서 1985년까지 실시되었던 복원정비 때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3〉 1979년 이후 보수 기록³⁹⁾

연도	보수내용	비고
1979	남문 및 좌우측 성곽보수(각 80m), 북문 좌우측 성곽보수(각 80m), 세마대 보수, D형 안내판 설치	
1982	동문 및 성곽 보수(200m), 북문 및 성곽보수(60m), 북동1·2치 보수, 화장실 개축, 우물보수, 서문지·암문 및 성곽 간이 발굴	
1983	동문-북문간 성곽보수(30m), 북문주위(우측) 성곽보수(10m), 서문유구 정비	
1984	성곽보수 360m, 남서치·북서치 보수, 수구복원, 진입로 보수, 수해복구(79년~83년 보수 367m 중 10m, 84년 보수 중 수구 1개소 피해)	
1985	성곽보수(암문-남문, 남문-동문) 294m, 암문지 보수, 치 보수 4개소(남동2치, 남서2치, 남서3치, 북동2치), 남문-암문 수구 설치, 회주보도 정비(1,020m)	
1989	보적사 법당 단청 공사	
1990	보적사 요사채 개축, 세마대 보수공사	
1991	수해복구, 남문보수, 회주보도 정비(1,024m), 편의시설 설치, 잡목제거	수해복구는 2년간 실시
1992	주차장 배수로 설치 38m	
1993	급수시설공사	
1998	세마대 보수(지붕기와), 화장실 건립(보적사 주차장)	
1999	보적사~남서치구간 성벽보수(12.3m), 회주보도 정비(80m), 자연석계단 설치 및 측구, 집수정 설치	
2001	독산성 성벽 진입로 정비	

39) 주22) 보고서 p81 표.3-19 일부 수정.

2002	성곽보수(37m, 여장 8m, 남문지 4m) 진입로 포장공사, 안내판 정비	성곽보수는 2년간 실시 성곽보수는 2년간 실시
2003	성곽 및 남서2치 보수(38.5m) 보적사 요사채 보수	
2004	남문지 및 성곽보수(38.5m), 남문 석재 교체 세마대 보수, 주차장 약수터 설치	성곽보수는 2년간 실시
2007	성곽보수(25m)	
2008	성곽보수(남동1치, 남서1치 등 82m), 남문구간 정비(계단설치), 서문구간 배수로 정비, 안내판 설치, 진입로 보수	진입로와 성곽보수는 2년간 실시 진입로와 성곽보수는 2년간 실시
2009	진입로 보수	
2010	암문 개설 설치, 주차장 석축 공사, 잡목제거	
2013	진입로 보수	
2014	성곽보수(북동치 외벽)	
2016	세마대 보수 및 잡목제거	

그리고 이 때의 보수기록은 독산성에 현대 보수의 손길이 닿기 이전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 독산성의 원형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79년 현황기록이 가장 중요한데 이 기록은 독산성이 보수되기 이전의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현대의 보수로 인해 원형이 변형되지 이전의 형태가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독산성을 도면과 사진으로 남긴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1979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록을 중심으로 독산성의 원형과 변천양상에 접근해 보고자하며, 먼저 전체 현황도를 통해 독산성의 전체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성문 또는 수구와 같은 내부 시설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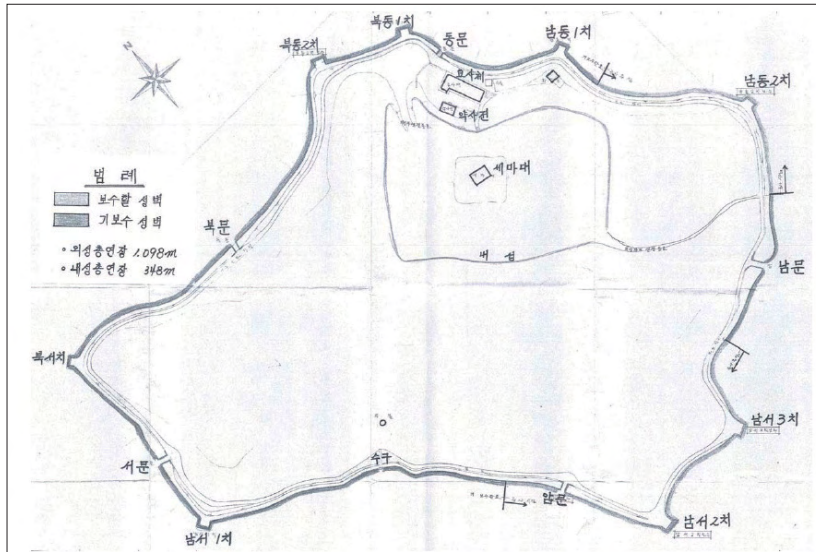
먼저 독산성의 보수가 되기 이전인 1979년의 현황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이 형태는 현재의 모습과 비슷하고 동서남북문과 암문, 보적사, 세마대 등이 모두 표현되어 있으나, 성의 전체적인 형태가 지금과는 차이가 있으며, 치와 같은 부속시설이 명확하게 표기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도판 8〉 1979년 독산성 현황도

성의 형태가 지금과 차이가 있고 치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979과 1982년의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1979년의 기록을 보면 '성곽은 일부만 남은 상태이며'라고 기록되어 있고 1982년에는 지하에 당초 성곽이 붕괴되어 매몰되어 있고 동문과 북문사이에서 토사에 파묻혀 있던 치 2개를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1979년 당시 독산성 성곽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방해요인들이 작용하여 전체 현황도 작성 시 성의 정확한 형태와 치의 위치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다시 현황도가 현재의 모습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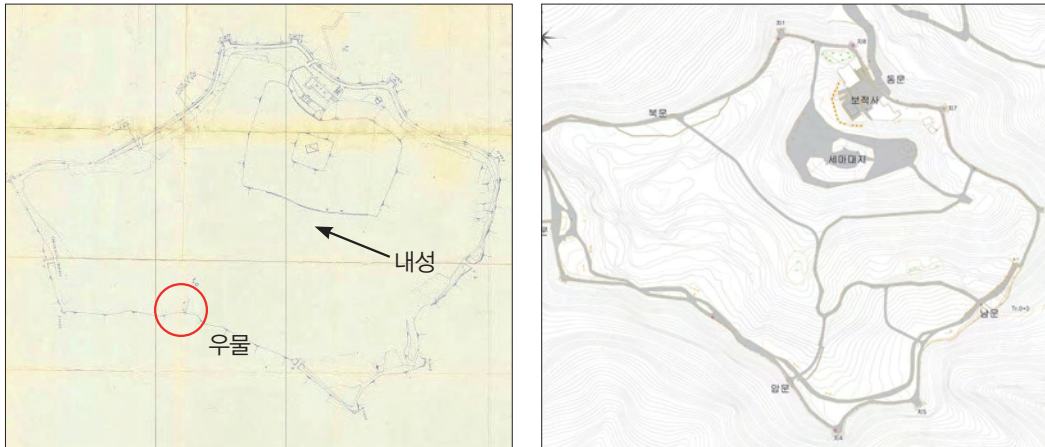
1979년 이후의 현황도를 보면 지금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성곽라인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1979년도 현황도에 보이지 않던 치나 수구, 우물 내성 등이 표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앞에서도 서술하였지만 1982년 보수가 진행되던 중에 동문과 북문사이에서 토사에 파묻혀 있던 치 2개가 새롭게 확인된 것인데 그것이 지금의 북동1치와 북동2치이다. 이 치 2개는 1982년 보수가 진행되기 전 현황조사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야말로 새로운 발견이었고 당시 보수도 새롭게 발견된 치의 보수로 변경되었다. 아쉬운 점은 새로 발견된 치의 경우도 고증이나 발굴조사 없이 기존 다른 치의 형태로 보수·복원되었다는 점이다.



〈도판 9〉 1985년 독산성 현황도

한편, 현재 독산성의 전체 현황도와 그 이전 현황도의 가장 큰 차이는 내부 시설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전체 현황도에는 우물이나 내성이 표시 되어 있지 않으나 이전의 현황도에는 세마대 주변에 내성이 표시되어 있으며 성 내부 곳곳에 우물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내성은 세마대지 주변으로 석축이 남아있어 표시가 되었으며 이는 2001년 시굴조사 당시 도면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그 이후의 도면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우물의 경우도 1개 정도만 그 흔적만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황도의 차이는 내부에 수풀이 울창하게 자라면서 석축이 일부 붕괴되고 가려졌으며 우물도 이러한 수풀에 가려지거나 훼손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도 세마대 주변의 수풀사이로 석축이 일부 확인되는 등 현황도의 차이는 내부에 울창하게 형성된 수목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도판 10〉 독산성 현황도(상:1983년 현황도, 하:2016년 현황도)

전체 현황도를 통해 독산성의 변천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의 정확한 형태와 내부 시설물의 확인이다. 1957년 세마대가 복원되고 1964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성곽과 내부시설 대부분이 파손되거나 토사 등에 파묻혀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 점차 보수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확인 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간 것이다.⁴⁰⁾

두 번째는 확인되었던 내부시설의 변화이다. 내부에 수목이 울창하게 번창하면서 기존에 확인되었던 내성과 우물 등이 오히려 현재로 오면서 훼손되고 다시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차후 정비 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으로 새롭게 정비된 부분이 후대에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성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문도 현황도와 마찬가지로 1979년의 기록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979년의 현황 기록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동문: 구(口)형의 석문이 남아있고 좌우 성이 연결되어있다.
- 서문: 완전 붕괴되어 규모 형태를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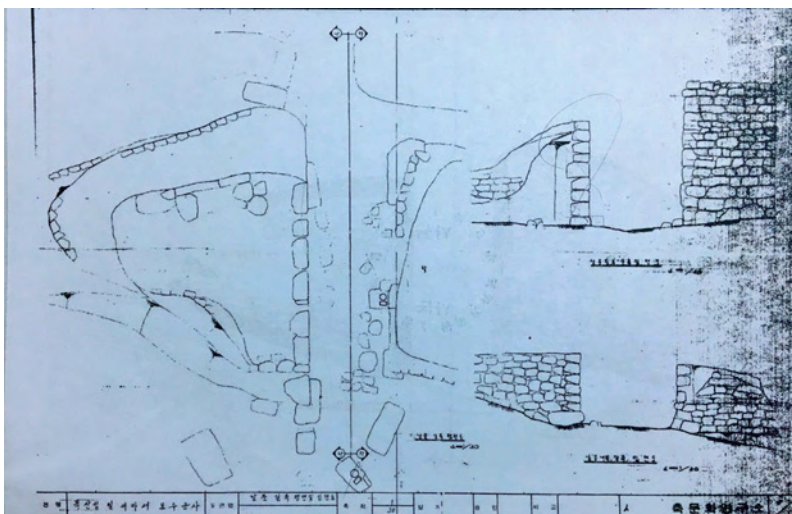
40) 성곽의 경우 지표상에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고증을 거치지 않고 보수하였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형태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토사에 의해 가려져 있던 성곽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에서 정확한 형태를 확인했다고 표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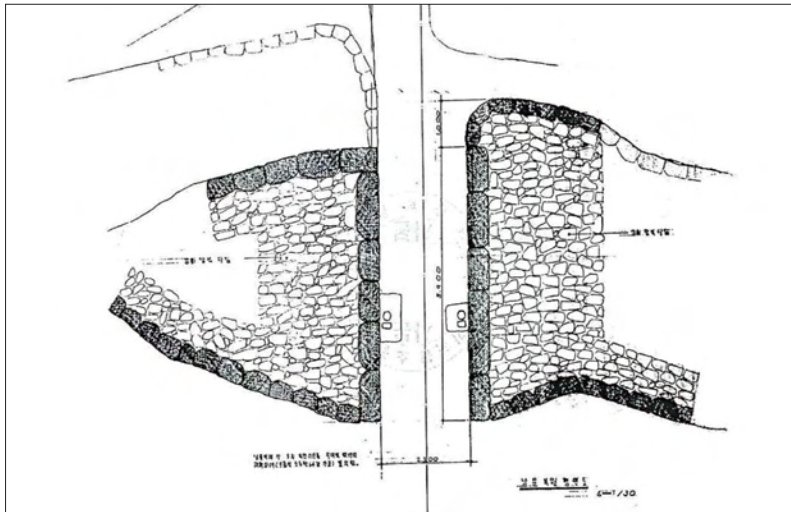
- 남문: 붕괴되었으나 문 네측의 돌과 무사석이 일부 있다.
- 북문: 구(口)형의 석문이고 비교적 잘 남아있으나 도괴될 우려가 있다.

보수 이전의 성문의 형태에 대해서는 1982년의 기록에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록을 보면 먼저 동문은 ‘벽석이 파손되거나 석재 일부가 유실되었으며, 문확석은 원래의 위치에 이탈한 상태이며 개석은 4개의 장대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매가 하부 지면으로 떨어져 있다. 또한 문확석은 원래의 위치에서 이탈되어 있으며 규모는 4개의 성문 중 가장 작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문은 내부 벽석 양쪽에 문확석 2개가 나란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완전히 붕괴되어 문지 내부 바닥에 파손된 석재와 토사가 매몰되어 있고, 문지와 성벽 접합부의 파손이 심하여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2년 기록에는 이전에 없던 암문의 기록이 일부 남아있는데 암문은 ‘서문지-남서치 사이에 파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다.

동문과 북문을 제외하고 파손된 상태로 확인된 성문들은 1979년 남문의 보수를 시작으로 1982년에 동문과 북문 보수 및 서문과 암문 간이발굴, 1983년 서문 보수, 1985년 암문을 끝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모두 보수된다. 다만 남문은 2002년에 수해로 인해 무너져 다시 보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의 모습으로 보수되었고 암문의 경우 1985년에는 처음 확인 되었을 때 모습으로 천정석이 없는 형태로 보수 되었으나 2010년에 관람객의 안전 등을 이유로 천정석이 설치된 지금의 모습으로 보수되었다.





〈도판 11〉 상: 남문 보수 전 도면(1979년), 하: 계획도(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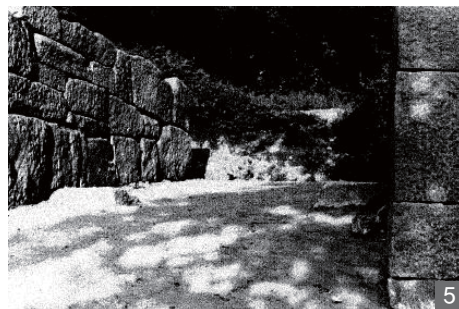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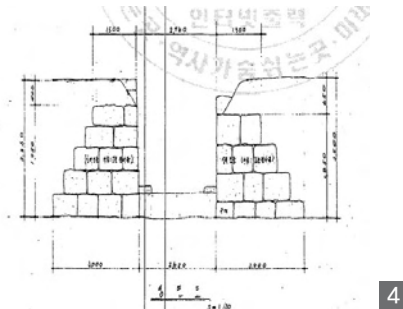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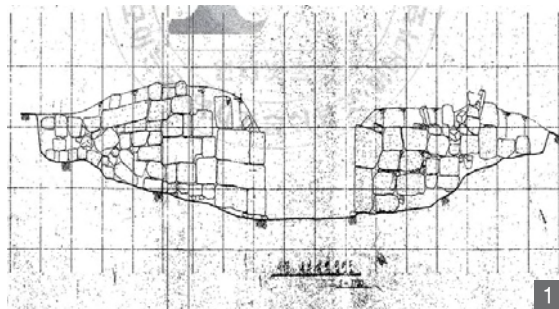


〈도판 12〉 ① 남문 보수 전(1978년), ② 보수 후(1980년), ③ 현재 남문(2016년)

한편, 1979년과 1982년의 동문의 현황에 대한 기록을 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원 성문이 남아 있다고 하였으나, 보수 업체의 현황 기록에는 벽석이 파손되고 석재 일부가 유실되었다는 등 상태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당시 동문의 현황이 기록된 도면과 사진을 보면 일부 훼손 되었으나 원래 성문의 형태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위원은 원 성문이 남아 있다고 기록하였을 것이지만 보수업체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훼손된 부분 등을 세밀하게 기록했을 것을 것이다. 따라서 1979년의 문화재위원과 1982년 보

수업체 간의 현황 기록에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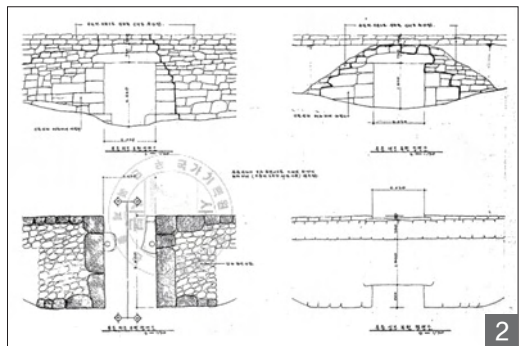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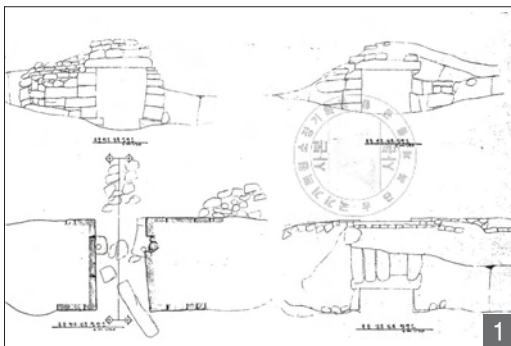
또한 보수기록을 통해 독산성 성문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천정석의 유무이다. 보수가 되기 이전의 성문을 보면 동문과 북문에만 천정석이 남아있고 그 이외의 문에는 천정석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천정석의 유무가 원래부터 설치되지 않았던 것인지 파손에 의해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 확인은 되지 않다. 다만 동문과 북문의 천정석과 유사한 규모의 석재가 다른 성문의 주변에서 확인되지 않고 남문과 서문에는 문루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동문, 북문과는 성문의 형태가 차이가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유사한 규모의 석재가 없고 기록에 따른 성문 형태의 차이를 볼 때, 남문과 서문에는 원래 개석이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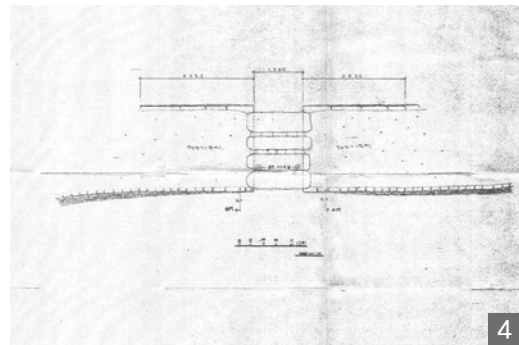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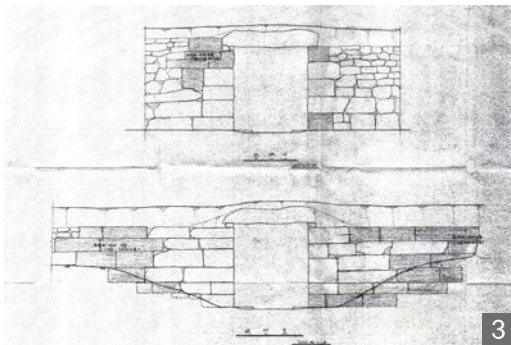
〈도판 13〉 ① 서문 보수 전 도면(1983년), ② 보수 전(1979년), ③ 보수 전(1983년)
④ 서문 계획도(1983년), ⑤ 보수 후(1983년)



〈도판 14〉 ① 암문 보수 전(1980년), ② 전경(1983년), ③ 보수 후(1983년), ④ 개석설치(2010년)



〈도판 15〉 ① 복문 보수 전 도면(1979년), ② 계획도(1979년), ③ 보수 전(1978년), ④ 보수 후(1982년)



〈도판 16〉 ① 동문 보수 전(1977년), ② 보수 전(1979년), ③ 계획도(1982년),
④ 상부 계획도(1982년), ⑤ 보수 후(1982년), ⑥ 현재 동문(2016년)

한편, 암문의 천정석은 2010년 보수 당시 탐방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동문과 북문을 본 따 설치한 것으로 정확한 고증 없이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암문은 순조 때 축조되었다는 기록을 제외하고는 형태에 대한 기록이 없어 암문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간이발굴 결과를 통해 본 성문의 바닥구조이다. 독산성 성문의 구조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바닥구조의 경우는 서문과 암문에 실시되었던 간이발굴조

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 할 수 있다. 간이발굴조사는 1982년도에 서문과 암문의 내부를 대상으로 조사 되었다.⁴¹⁾

보수기록에 남아 있는 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서문

- 바닥에 잔돌이 시설되었으며, 석축석 일부가 확인되었다.

· 암문

- 문지방바닥이 확인되었으며 서문과 같이 바닥에 잔돌이 시설되어 있다.
- 문지방 바닥에 문확석이 물려 양쪽에서 확인되었다.
- 문확석 사이에 문지방석을 가로 놓았고 문지방석 하단에 장방형의 구멍을 뚫어 배수시설의 기능하도록 만들었다.
- 규모가 동문이나 북문보다 크기 때문에 암문이 아닌 다른 기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17〉 ① 서문 간이발굴(1983년), ② · ③ · ④ 동문 간이발굴(1983년)

41) 1982년도에 실시된 간이발굴의 경우 조사 내용에 대한 기록된 보고서가 남아 있지 않고 보수기록에만 일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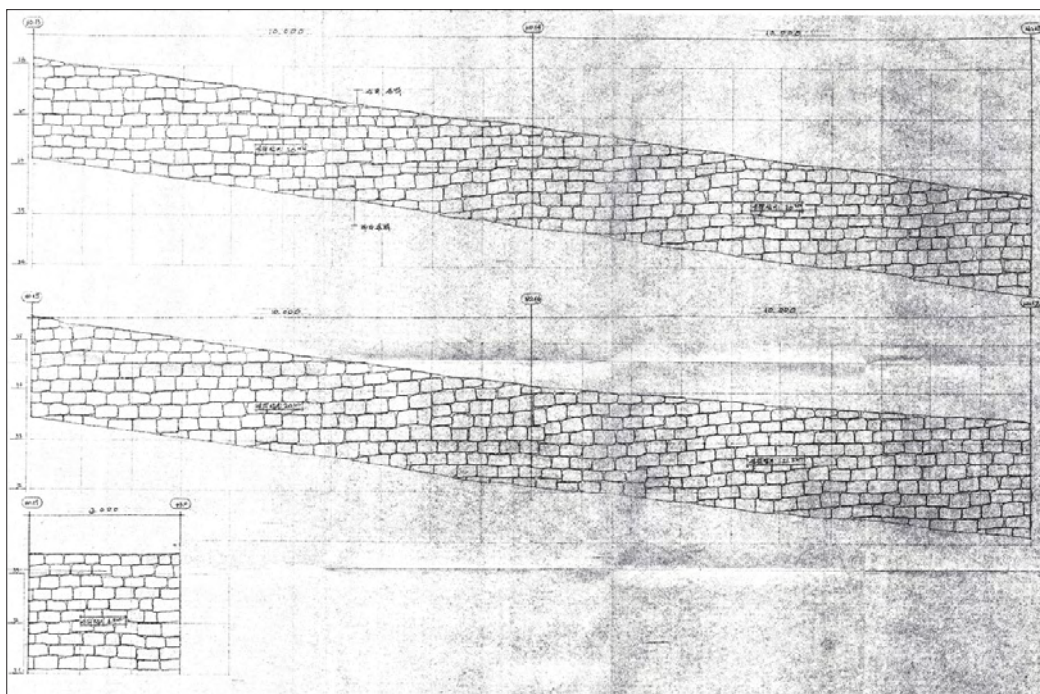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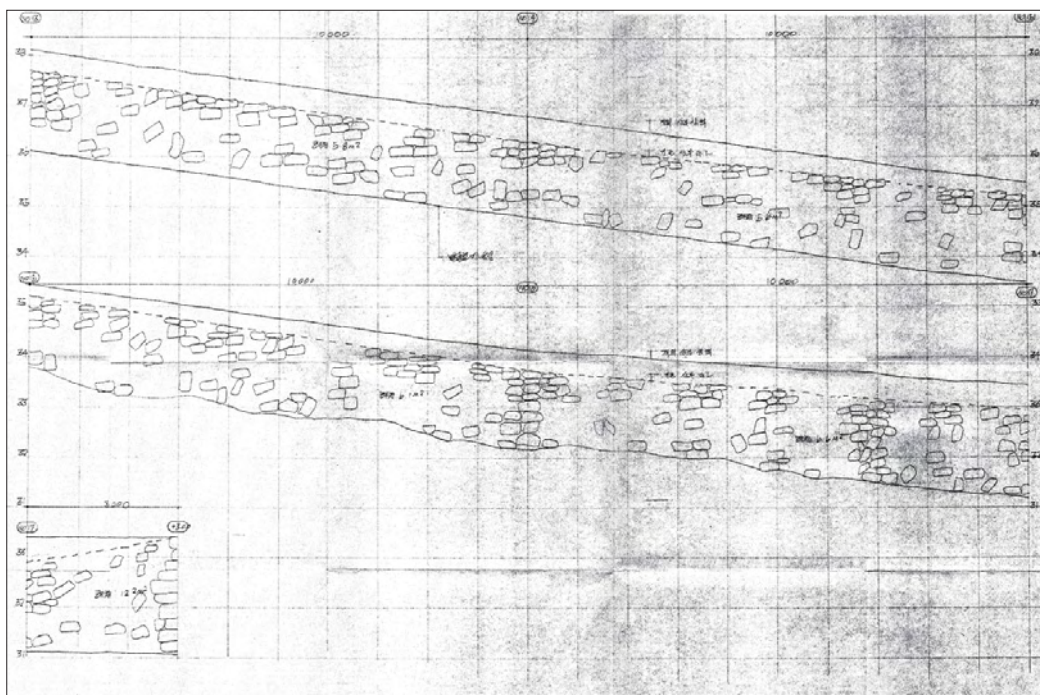
서문과 암문의 발굴내용을 통해 보면 독산성 성문의 구조는 먼저 바닥에 잔돌을 깔았으며 문확석은 측벽과 맞물리게 설치되었으며, 문확석 사이에는 배수가 가능한 문지방석이 설치된 구조로 추정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바닥시설이나 문지방석의 형태로 볼 때 배수에 신경을 많이 기울인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은 뒤에 서술 하도록 하겠다.

한편, 암문 간이발굴의 결과 중 규모가 동문이나 북문보다 크기에 다른 기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내용이 있는데, 과연 암문이 맞는 것인지 혹은 암문이라면 일반적인 성문보다 큰 규모로 축조된 배경이나 기능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성곽과 수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곽은 1979년 기록에 ‘대부분 파손되고 일부만 남아있으며 여장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파손되었던 성곽은 1979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수 하여 1985년까지 전체 성곽이 복원되었고 이후에는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 구간에 대한 보수만 진행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성벽의 형태와 규모는 사실상 1979년 ~ 1985년 사이에 완성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판 18〉 ① 여장 보수 전(1991년), ② 보수 후(1991년), ③ 성곽 보수 전(1999년), 보수 후(1999년)



〈도면 19〉 상: 성곽(동문-북문) 보수 전 현황(1983년), 하: 보수 후 현황(1983년)

성곽에 대한 특징적인 것은 규모와 여장에 대한 기록이다. 성곽의 규모에 대한 기록을 조선 시대부터 종합하면 <표4>과 같다.

<표4> 시대별 성곽의 규모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현재
둘레	1,010보 = 1,212m	500칸 = 910m	1,095m
높이	3장 = 9,90m	1칸 = 1,82m	약 2m

시대별 성곽의 규모를 보면 현재와 일제강점기의 규모는 비슷하나 조선시대 때 기록된 규모와는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하던 척도와 그것을 환산하는데 대한 차이일 수도 있으나 기록을 통해 보면 독산성의 보수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79년부터 성곽에 대한 보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당시 성곽의 보수는 잔존하고 있는 성곽의 형태를 기준으로 삼아서 진행되었는데, 복원된 성곽의 높이가 일제강점기 때 기록과 비슷한 것으로 볼 때 기준이 되었던 잔존성곽은 조선시대 때의 완전한 형태의 성곽이 아닌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당시에 파손된 형태로 남아있던 성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파손된 성곽이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 때 지속적인 보수로 잘 관리되던 독산성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관리가 되지 않아 성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성곽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토사에 파묻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6.25 전쟁으로 다시 파괴되고 그 상태로 1979년 까지 이어졌으나, 성곽에 대한 조사 없이 보수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독산성에는 여장이 일부 복원되어 있는데 이는 1982년 기록에 ‘여장하부 지대석 일부가 완전하게 잔존하고 외부에 강회물탈 미장마감 흔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복원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인 1979년의 기록을 보면 ‘여장은 확인할 수 없다’는 상반된 기록이 남아 있다.

여장에 대한 1979년과 1982년의 상반된 기록에 대해서는 도면이나 사진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1979년의 경우 성곽이 많이 파손되고 토사에 묻혀 있어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982년에는 이전의 보수 시에 성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1979년 보다 현황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장에 대한 기록 차이는 현황에 대한 조사 여건의 차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독산성의 성곽은 지속적으로 잘못 복원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당시 복원·보수 지침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지침을 보면 ‘잔존하고 있는 성벽과

동일하게 쌓으며 흩어져 있는 석재를 사용하고 재료가 모자를 경우 신재를 보충하여 복원 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지침은 '정확한 형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잔존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복원한다.'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곽복원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지침은 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형태와 축조방법을 확인하고 재질을 분석하여 신재를 보충할 경우 동일한 재료로 복원하는 지금의 지침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원형과는 다른 형태로 복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복원된 성벽을 보수 할 경우 기준이 되는 성벽이 잘못 복원되었다면 보수되는 성벽도 마찬가지로 잘못 보수는 되는 등 원형에서 점점 멀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독산성에 적용되어 지속적으로 성곽 복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독산성의 복원이나 보수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수구는 현재 독산성에 2개가 확인되는데 남문과 암문사이 1개, 암문과 서문사이 1개이다. 이 2개의 수구 중 암문과 서문사이의 수구는 처음부터 성 내에 잔존하고 있던 것이고 남문과 암문 사이의 수구는 1985년 보수 때 성벽으로 배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문과 서문사이의 수구를 모델로 하여 신설된 것이다.

암문과 서문사이의 수구는 1982년에 확인되었는데, 당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수구

- 서문에서 암문사이 130m지점에 위치한다.
- 덮개석이 주저앉은 상태로 잔존 한다.
- 바닥은 자연 판석이 시설되어 있다.



〈도판 20〉 ① 수구(암문-서문) 보수 전(1984년), ② 보수 전 출수구(1984년),
③ 보수 후(1984년), ④ 보수 후 출수구(198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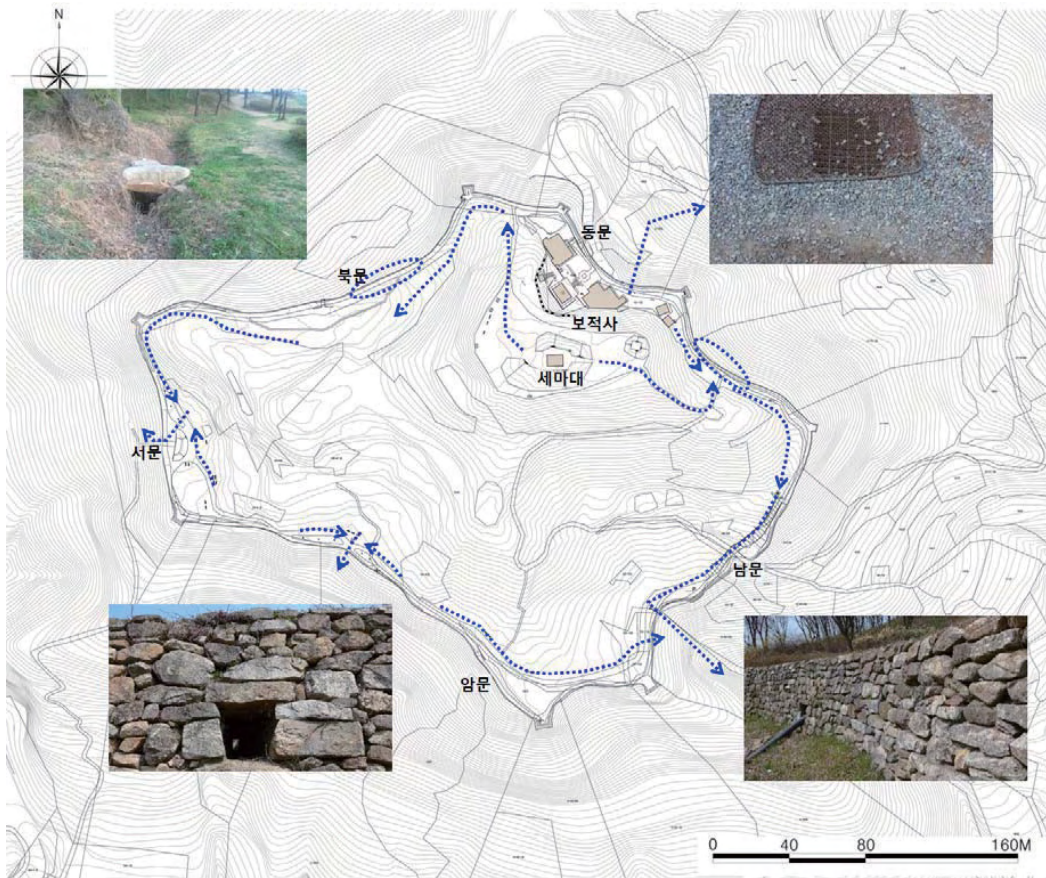


〈도판 21〉 좌: 1985년 신축 수구(남문-암문), 우: 암문-서문 주변 우물(1986년)

수구의 복원은 주저앉은 덮개석을 제자리에 올려놓는 정도로만 복원하였고 부족한 덮개석을 보충하지는 않았다. 현재도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구로서의 기능 또한 유지하고 있다.

독산성의 수구는 신설된 수구를 제외하면 1개로 기존의 수구가 제일 낮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지만 성의 전체 배수를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독산성의 배수 현황을 보면 수구와 성문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도면 8 참조)



〈도면 8〉 독산성 배수현황도⁴²⁾

이러한 배수 현황을 볼 때 독산성의 배수는 대체로 낮은 지형에 위치하는 각 성문을 배수구로 활용하였고 특히 지형이 낮은 서문과 암문사이에 별도의 수구를 설치하여 성내의 물을 외부로 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문을 배수구로 활용하는 것은 간이발굴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암문의 간이발굴결과를 보면 잔돌을 바닥에 시설하고 문지방석에는 구멍을 뚫는 등 성문 바닥의 구조가 배수에 굉장히 용이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주)22 보고서 p.113, 도면 3-20.

1979년 이후의 보수기록을 종합해보면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대부분 파괴되었던 독산성을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성문과 성곽 전체를 복원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완성하였고 그 이후는 복원된 독산성에 대한 끊임없는 보수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성곽은 원형의 성곽이 아닌 파손된 형태의 성곽이 기준이 되어 복원되었고 이는 당시 지침의 한계로서 향후 독산성 복원정비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V. 맺음말

본고는 독산성의 보수기록을 토대로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변천을 기초적으로 다룬 것으로 이 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기 보다는 앞으로 독산성 복원과 정비 그리고 연구방향에 대한 제안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상술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독산성의 앞길에 가장 큰 문제는 잘못 복원된 성곽일 것이다. 이 성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1. 잘못 복원된 성곽이니 뜯어내고 고증을 통해 원형대로 복원하자
2. 잘못 복원된 성곽도 독산성이 겪어온 역사이며 성곽을 뜯어내는 것은 또 다른 훼손이니 지금 모습 그대로 존치하자

필자는 두 가지의 의견 중에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다. 독산성 복원은 가까운 과거의 일이고 잘못된 복원이라는 암울한 기억이지만 이러한 것도 기록되고 전해져야 할 독산성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과거를 거울삼아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복원된 성곽을 뜯어내고 고증을 통해 다시 복원하기 보다는 현재 독산성의 형태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앞으로 복원되거나 보수가 이루어진다면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다양한 고증을 통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독산성의 미래에 더 바람직한 방

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존에는 빈약하였던 독산성에 대한 기존 자료의 정리와 연구, 신 자료의 발굴, 성곽과 내부에 대한 학술조사 등을 통해 원형을 파악하고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진왜란과 연계된 전쟁사 속의 독산성만이 아닌 진남루의 위치와 형태, 암문의 기능, 내부 시설물의 배치, 성곽의 구조 등 독산성 그 자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독산성의 진정한 가치와 원형 복원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독산성의 가치와 원형을 찾아가는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史料】

- 『朝鮮王朝實錄』宣祖實錄
- 『朝鮮王朝實錄』光海君日記
- 『朝鮮王朝實錄』肅宗實錄
- 『朝鮮王朝實錄』英祖實錄
- 『朝鮮王朝實錄』正祖實錄
- 『朝鮮王朝實錄』純祖實錄
- 『華城誌』山城
- 『輿地圖書』水原部邑誌
- 『海東地圖』

【논문 및 단행본】

- 김준혁, 2015, 「독산성의 역사와 군사문화적 의의」, 『오산 독산성 학술대회』, 오산시청.
- 심승구, 2012, 「임진왜란 중 독산성 전투와 그 역사적 의의」, 『한국학논총』37,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 오산시사편찬위원회, 2009, 『오산시사』1, 오산시.
- 정해득, 2009, 『正祖時代 顯隆園 造成과 水原 移邑 研究』, 경기대학교 대학원.

【보고서】

- 고적조사위원회, 1919, 『유적 및 유물 소재 보고』.

- 殖産國 山林科(추정), 1916~1917, 『경기도 고적대장』.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오산 독산성 · 세마대지 시굴조사 보고서』.
- 오산시, 2016,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종합정비계획』.
- 『조선 유적유물 연구』, 생산연도 및 생산부서 미상.

【국가기록원 자료】

- [BA0123319] 독산성 세마대지
- [BA0243352] 독산성 및 세마대보수공사
- [CB0004771-49] 출장복명서
- [CB0004778-47~55] 사적 제140호 경기 독산성 보수사진
- [CB0004771]도면
- [CB0004771-1~48] 도면자료
- [BA0120890] 독산성 보수 1회 설계변경서
- [BA0123407] 독산성 및 세마대 보수
- [BA0243468] 독산성 보수공사
- [BA0123473] 독산성보수
- [BA0243510] 독산성 보수공사
- BA0123473-01 독산성및세마대지보수공사
- BA0123473-02 독산성보수공사
- BA0123473-03 독산성보수공사설계도서시달
- BA0123473-04 설계도서검토회신
- [CA0015192] 독산성 및 세마대지 보수
- [BA0243542] 독산성 보수공사
- [BA0243608] 독산성 보수공사
- [CA0015313] 독산성 및 세마대지보수
- [BA0811103] 독산성 및 세마대지 내 보적사 법당 단청
- BA0811535 독산성 및 세마대지내 세마대 누각 단청
- [CA0022654] 독산성및 세마대지내 수해복구공사
- BA0811592 독산성및세마대지내 요사개축
- CA0022825 독산성 및 세마대지 내 성곽보수, 보도정비
- [BA0812670] 사적 제140호 독산성 및 세마대지 급수시설공사
- DA0275693 1998년도 독산성 수해복구 정비
- [DA0274122] 독산성 세마대지 보수

- [DA0273871]독산성 및 세마대지 수해복구
- [DA0216409] 독산성 및 세마대지 보수
- [DA1167472] 2001 독산성 및 세마대지 정비
- DA1167620 2002년도 독산성 및 세마대지 정비
- DA1167216 오산(2002) 독산성 및 세마대지

여 백

무향(武鄉)의 터전, 수원고읍성과 독산성

김영호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 | | |
|----------------------------------|---------------------------------------|
| I. 오산, 수원, 화성의 뿌리와 즐기는
하나다 | VI. 북벌의 뜻이 담긴 수원고읍성과
독산성 |
| II. 수원읍성과 독산성 | VII. 독산성과 수원고읍성은 한국 무예의
성지 |
| III. 사통오달의 땅 | IX. 수원고읍성과 독산성,
그리고 화성의 현재, 그리고 미래 |
| IV. 임진왜란으로 수원고읍성과
독산성이 주목을 받다 | |
| V. 경기도의 의병과 수원산성 | |

집필자
김영호

한국병학연구소장

여 백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

—《맹자》 공손추

I. 오산, 수원, 화성의 뿌리와 줄기는 하나다

오산과 화성과 수원은 한 고을이었다. 조선시대의 수원은 현재의 화성과 오산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경기도 북부의 양주 역시 조선시대에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양주도호부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고을 이름은 그대로 남았지만, 모습이 크게 달라진 곳이 적잖다. 근대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겪게 되는 부득이한 현상이다. 지역의 역사를 연구할 때도 현재를 준거로 수백 년 전의 과거를 상상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화성시에 화성이 없고 수원시에 수원이 없다”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49년 8월에 행정구역 명칭을 제정할 당시 공무원들이 수원이 되어야 할 곳을 화성이라 하고, 화성이라 불러야 할 곳을 수원이라 부르는 잘못이 벌어졌다.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잘못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처럼 터무니없는 결정이 혼란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그 잘못을 고치지 않았다. 60여 년이 지난 현재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 까닭에 바로잡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100여 년 전만해도 오산, 수원, 화성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와 줄기는 하나였다. 해방 후 도시화를 거치면서 수원은 화성과 분리되었고, 오산도 독립하여 세 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졌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고장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몇 년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한 세 도시의 시장과 국회의원, 지역 원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수화’라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짐작하듯이 산수화는 오산의 산, 수원의 수, 화성의 화를 조합해 만든 이름이다. 그 동안 산수화를 통해 세 도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이해가 엇갈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하나라는 사실을 공감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Ⅱ. 수원읍성과 독산성

조선시대의 수원은 종3품의 도호부사가 관장하는 도호부였다. 수원도호부의 주요 방어시설로 독산성(禿山城)과 수원고읍성(水原古邑城)이 있었다. 1789년 정조가 수원 화산으로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을 이장하고 팔달산 아래에 신도시 수원을 건설한 이후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1793년에 정조는 수원도호부를 정2품의 유수가 관장하는 수원유수부로 한 단계 승격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는 수원유수부를 화성유수부로 개명하고 초대 유수에 좌의정을 지낸 번암 채제공(1720~1799)을 임명했을 정도로 신도시 화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후 화성유수부는 장용영 외영의 5천 병력이 주둔하는 군사도시이자 농업과 상업을 아우른 자급자족의 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다가 1800년에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성장이 멈춘 도시이다. 이러한 수원의 역사를 이해해야 비로소 오늘의 오산, 수원, 화성이 나누어진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수원은 오래되었으나 수원고읍성은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다. 현재 수원고읍성이 있는 화성시에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당성(唐城)이나 화랑진성처럼 서해안에 위치한 오래된 산성이 여럿 남아 있다. 그러나 독산성이나 당성과 달리 수원고읍성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원고읍성은 정조에 명에 따라 신도시 수원이 화성유수부로 이름을 바꾸기 훨씬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수원의 중심지였다. 더구나 수원고읍성은 독산성은 물론 화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수원고읍성을 잘 알지 못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도세자와 정조가 잠들어 있는 화산 용릉과 건릉 주변이기 때문이다. 사실 ‘수원고읍성’이란 용어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수원읍성이라는 본래 이름 사이에 ‘고(古)’자를 굳이 넣은 것은 화성을 품고 있는 현재의 수원시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수원고읍성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 수원이라는 고을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271년(고려 원종12년)부터이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발굴조사와 옛 기록을 참고해 보면 삼국시대에 이미 읍성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1789년 정조가 팔달산 자락으로 수원읍치를 옮기기 전만해도 용릉과 건릉이 자리한 화산 주변은 동헌과 객사를 비롯한 수원부의 관아 부속 건물과 민가들이 즐비했던 읍성의 중심이었다.

수원에 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라 할 <세종실록지리지> ‘수원도호부’에 수원의 역사가 실려 있다. “본래 수원은 고구려의 매홀군인데 신라가 수성군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가 …수주(水州)로 승격시켰으며, …태종 13년 계사(1413)에 수원도호부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수원이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백제가 한강유역을 가장 먼저 차지했던 역사적 사실을 미루어보면 수원은 본래 백제의 영토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수원읍성이 축성된 시기는 백제 초기에 독산책(禿山柵)을 설치했던 기원 전 8년 무렵(온조왕 11년 7월)으로 짐작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읍토성(邑土城) 둘레가 270보요, 안에 우물 두 개가 있다”라는 기록의 사실 여부이다. 읍성의 규모치고는 둘레가 너무나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동지지> 모두 “읍성은 토축이며, 둘레가 4,035척이나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지>의 기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각수가 판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글자를 하나 빠트렸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정조실록>과 <장용영고사>를 보면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은 수원부의 강무당(講武堂)이 있었던 곳이다. 정조가 잠들어 있는 건릉은 옛 향교가 있었던 곳으로 무기고 자리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그렇다면 용릉과 건릉 앞에 펼쳐진 너른 평지 숲은 1789년 이전까지 수원도호부에 소속된 군사들의 훈련장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수원과읍성은 독산성과 ‘기각지세(掎角之勢)’를 이루고 있다. 기각지세란 달아나려는 사슴의 뿔을 앞에서 잡고 뒤에서 다리를 잡는 것처럼 적의 앞뒤에서 적을 협공한다는 뜻이다. 훗날 화성이 건설되면서 신도시 수원은 수원고읍성 대신 화성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

Ⅲ. 사통오달의 땅

수원은 중국과 직접 문물을 교류할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부터 수원읍성을 차지하려는 삼국간의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듯 수원고읍성 주위에는 독산성을 비롯하여 수기리성, 요리성, 당성이 늘어서 있다. 고려시대에 4개 역(驛)이 설치되었을 정도로 수원은 교통의 요지였다. 뿐만 아니라 염불산, 해운산, 흥천산으로 연결되는 봉수, 즉 통신망도 갖추고 있었다.

1456년 3월, 집현전 학자 양성지가 세조에게 올린 상소에 “수원부는 본시 관찰사의 관사를 둔 땅이며, 고려 때에 홍건적이 남하할 때에는 여기를 경유하여 사통오달할 땅입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수원은 일찍부터 경기도 행정의 중심이며 교통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은 조선을 건국한 이후 전략적으로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수원과 오산은 태종대부터 국왕의 사냥터이자 전마를 양성하는 목장으로 활용되었다(태종16년 2월20일).

세종은 수원과 오산을 강무(講武) 장소로 애용했다. ‘강무’란 국왕이 친림하여 실시하는 군사 훈련으로서의 수렵대회를 말한다. 세종은 1만 명 이상의 군사를 동원하여 경기도 수원이나 강원도 횡성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수원과 오산은 세종이 세자와 종친을 거느리고 강무하고 매사냥을 벌였던 장소였다. 책만 보았던 학자 세종이 아니라 수원과 오산의 너른 들판에서 군대를 사열하고 말을 달리며 노루와 멧돼지를 사냥하는 문무겸전한 세종의 면모를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

<세종실록>은 세종의 강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수원부 오산원(烏山院) 들에서 사냥을 하였고(세종15년 4월 22일)”, “수원부 동쪽 들판에서 사냥하다가 오산을 거쳐 진위현으로 이동했다(세종17년 10월 12일).” 또한 수원부 홍원곶(弘原串)은 매년 하삼도 목장과 제주에서 바친 말 1백 필을 목양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세종30년 7월 27일). 이처럼 조선 초기의 수원은 후방 보급기지의 역할을 맡았던 고을이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북방의 여진족과 몽골족이 주로 침략했기 때문에 한양의 남쪽에 위치한 수원은 안전한 후방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IV. 임진왜란으로 수원고읍성과 독산성이 주목을 받다

그러나 1592년의 임진왜란으로 수원의 역할은 크게 달라진다. 임진왜란으로 드러난 조선군의 전력은 기대 이하였다. 부산포와 동래성에서의 결사항전을 제외하고는 경상도에서 관군이 제대로 된 전투를 한 번도 벌이지 못했다.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던 신립 장군조차 충주 전투(탄금대전투)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참패를 당했다. 100년의 내전을 통해 최강의 전력을 갖춘 왜군에 비하면 전라도 수군을 제외한 조선군의 전력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도착한 왜군은 불과 20일 만인 5월 초에 한양을 무혈점령했다. 한강 방어선

과 임진강 방어선은 물론 평양 대동강 방어선까지 모두 뚫렸다. 1만8천 명의 병력을 갖춘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이 평양에서 진군을 멈추었기에 망정이지 계속 북상했다면 의주조차 위태했을 것이다. 고니시가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한 까닭은 수군과 의병이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2만2천 명의 병력을 갖춘 제2군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는 함경도를 점령하고 왕자 둘을 사로잡았다. 한양을 포기한 조선 관군은 국왕 선조가 피난하고 있는 평안도로 총집결했다.

조선의 외교력은 물론 정보력도 취약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통신사가 일본에 다녀왔음에도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의견이 나누어졌고, 일본의 전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섬나라 일본은 수전(水戰)에 강할 것이므로 육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전투를 통해 수전에 취약하고 오히려 육전에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선의 궁시(弓矢)는 신무기 조총보다 우월한 병기라고 자부했다. 그러나 조총의 위력이 궁시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전투 초기에 알게 되었다. 남북 변방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도 전쟁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최악의 패전으로 꼽히는 광교산 전투를 통해 수원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었다. 1592년 5월 초, 전라병사 이광 휘하의 삼도(전라, 경상, 충청)에서 모인 5만의 대군이 와카자키의 왜군 1,600명에게 대패한 광교산 전투는 조정을 충격에 빠트렸다. 광교산 전투 역시 장수의 두려움과 오판이 패배의 결정적 이유이다. 광교산 전투를 벌이기 전에 권율은 총대장 이광에게 수원 독산성으로 진을 옮길 것을 건의했으나 묵살되었다. 광교산 전투에서 패해 전라도로 퇴각했던 권율이 이치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자신감을 회복한 권율은 군사를 이끌고 다시 북상하여 독산성에 주둔하며 한양 수복의 기회를 노렸다. 권율은 독산성을 무대로 기습전과 유격전으로 왜군을 물리친 후 명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기 위해 고양 행주산성으로 진을 옮겼다. 그러나 명나라 이여송 부대는 벽제관에서 왜군의 기습작전에 말려 참패를 당했다. 평양성을 빼앗겨 의기소침했던 왜군은 벽제관 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로 3만을 총동원하여 행주산성을 포위했다. 그러나 권율은 2천3백 명의 병력으로 3만 명의 왜적을 물리치는 행주대첩의 신화를 이루었다.

V. 경기도의 의병과 수원산성

평안도는 경기도의 관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지킬 수 있었다. 경기도는 경상도와 더불어 일본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며 의병들의 활약 또한 활발했던 곳이다. 지리에 밝은 경기도의 의병들은 왜군 주력이 북상한 후 지역에 남겨진 소규모의 왜군을 상대로 기습전과 유격전을 벌여 보급로를 끊고, 후방을 교란했다. 그러나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593년 1월 8일, 조명연합군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장악하고 있던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평양성전투는 4만3천 명의 명군과 8천 명의 조선군이 연합작전을 벌여 승리한 전투이다. 그러나 평양성 탈환에 성공한 직후 퇴각하는 왜군을 뒤쫓던 명군 총사령관 이여송 부대가 벽제관에서 왜군의 기습을 받아 대패하면서 명군은 왜군과 전투를 회피했다. 다행히 같은 달, 고양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2천3백의 군사로 3만의 최정예 왜군을 물리친 ‘행주대첩’을 거두면서 전쟁의 양상을 바꾸었다. 행주대첩 이후 왜군이 한양에서 철수해 경상도 해안으로 후퇴하여 성을 구축하고 장기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의 전개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한 <난중잡록>에 수원산성과 독산성을 언급하고 있다. 1592년 7월에 “지난달 23일에 의병장을 따라 수원산성에 이르러 5일간을 머물렀다”는 구절과 10월에 “전라감사 권율이 수원 독성에 있으면서”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처럼 수원고읍성과 독산성은 권율 장군과 홍계남 장군이 활용하면서 선조를 대신해 분조(分朝)를 이끌며 전쟁을 지휘하던 광해군도 주목하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조선왕조실록>에는 ‘수원산성(水原山城)’이라는 표현이 네 차례나 나온다. 전후 사정을 통해 살펴보면 수원산성은 수원부의 독산성과 수원읍성을 가리키는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튼 독산성에 주둔하며 여러 차례 왜군을 물리친 권율 장군이 고양 행주산성에서 대첩을 이끌어내면서 독산성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수원 출신의 의병장 홍계남 장군의 활약도 독산성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영의정이자 체찰사로서 전쟁을 총지휘했던 유성룡도 독산성을 주목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원고읍성에서 십리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독산성은 경기도 최고의 군사요새로 발전되었다.

왜군이 영남 해안으로 퇴각한 이후부터 수원고읍성과 독산성에서 군사훈련이 이루어졌다. 한양에서도 체찰사 유성룡이 창설한 훈련도감을 통해 사수(射手), 포수(砲手), 살수(殺手)라는 삼수군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훈련도감의 운영은 경기도 일대까지 영향을 끼쳤다. 수원고읍성

과 독산성에서도 삼수군을 육성하는 군사훈련이 진행된 것이다. 조정에서 독산성에 시험관을 파견해 무과를 열었던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한편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평안도 도체찰사 이원익이 서원과 향교에 ‘서검재(書劍齋)’라는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군사를 모집하여 집단 훈련인 진법과 사격 및 창검을 다루는 무예를 가르쳤다.

앞에서 보았듯이 광해군은 수원고읍성과 독산성의 전략적 가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선조실록>을 보면 1593년 겨울에 왕세자(광해군)가 저녁에 수원부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다.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수원은 “경기의 큰 고을로 양호(兩湖)의 요충지이자 서울의 보장지”라거나 “실로 우리나라의 정예로운 군병이 있는 곳”으로 높이 평가했던 사실을 이를 반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597년(선조30) 4월 20일자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수원은 경기의 큰 고을로 양호(兩湖: 충청도와 전라도)의 요충지이자 서울의 보장지이고 또 산성을 지키는 일과 군병을 조련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4년이 지난 1601년 3월 17일에도 이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은 기보(畿輔: 경기도) 중에 가장 큰 고을로서 무인이 거의 1천 명에 이르니, 실로 우리나라의 정예로운 군병이 있는 곳입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군사를 조련하였고 독산성과 같은 요새지도 있습니다.” 1603년 2월 18일의 비변사가 선조에게 올린 보고서를 통해 독산성을 모범으로 남한산성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남한산성의 형세에 대해서 본사(本司: 비변사)에도 익히 살펴본 사람이 있습니다. 둘러싸인 가운데에 완전히 한 도움이 이루어졌는데, 산굽이가 몹시 깊어 바깥에서 굽어보거나 엿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백제가 이곳을 국도로 삼은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다 성을 쌓은 다음 한 겹같이 독성(禿城)에서처럼 군사를 조련하여 안으로는 경도(京都: 한양)의 보장이 되고 바깥으로는 제진(諸鎭)을 공제하게 한다면 참으로 장구한 계책이 될 것입니다.”

1610년(광해2) 1월, 비변사의 “경기 지방의 산성이 무려 열일곱 곳이나 되는데 적이 물러간 뒤로 점점 폐지되고 오직 수원의 독성만이 꾸준히 수리되어 왔습니다.”라는 보고문은 독산성의 독보적 위치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 현신적인 군사 활동으로 신하와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1608년에 선조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광해군의 수원 사랑은 각별했다. 광해군은 종묘나 성균관에 거동할 때 수원에서 병사를 뽑아 자신의 호위를 맡겼을 정도로 수원의 군사를 신뢰했다. 국왕의 신뢰와 관심에 힘입어 수원은 조선을 대표하는 무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614년 4월에는 “급히 선전관을 보내어 수원과 강화의 군사 각 2백 명씩을 징집하여 엄히 호위하게”하였고, “종묘와 알성의 거동 때에는 수원과 강화도에서 병사를 징발하여 호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외교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광해군이지만 내정에 실패하여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1623년의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한 서인이 집권하면서 광해군의 실리외교를 버리고 기울어가는 명에 의존하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이라는 두 번의 전쟁을 불렀다. 조선이 후금과의 전쟁에서 연거푸 패배한 것은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 인조반정 이듬해인 1624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으로 평안도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최정예 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병자호란 직전 수원의 상황을 알려주는 <인조실록>의 기사는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삼가 듣건대, 수원부는 호(戶)마다 대오에 편입하여 여리(閭里:마을)에서는 병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수원의 군병 중에 아직도 도망하는 자가 있는 것은 온 나라 백성을 모두 병사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관서(關西: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이 교생을 모두 모아서 대오에 편입시키고 ‘교생군’이라고 호칭하자 민중이 싫어하지 않은 것은 명분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인조실록 1636년 9월 13일)

이처럼 병자호란 직전에 수원사람들은 병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상무적 기풍을 지니고 있었다. 관서 지방에서는 향교에서 공부하는 유생을 모두 모아서 대오에 편입시키고 ‘교생군’이라 불렀다는 사실을 통해 임진왜란 이후에도 ‘서검제’가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튼 임진왜란부터 발휘된 수원사람들의 상무적 기풍은 병자호란에도 발휘되었다. 이러한 수원의 상무적 분위기는 김준룡 장군이 지휘한 광고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Ⅵ. 북벌의 뜻이 담긴 수원고읍성과 독산성

효종이 즉위하면서 수원고읍성과 독산성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효종은 “수원의 군병이 훈련도감보다 많고 실력도 낫다”는 신하의 평가를 듣고 “수원은 본디 무향(武鄉)”이라고 화답했을 정도로 수원의 상무적 기풍을 높이 평가했다. 효종과 현종시대에는 수원의 군병이 7천에서 8천명이나 되었다. 당시 훈련도감의 병력이 5천인 것을 생각해 보면 수원의 군병이 얼마나 많은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사실 군병의 숫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군병의 실력이다. 참고로 훈련도감에 소속된 군병 5천 명 전원이 급료를 받는 직업군이다. 따라서 ‘수원은 본디

무향'이라는 효종의 발언은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1636년의 병자호란부터 1866년의 병인양요까지 230년 동안 조선은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 다만 그 사이 두 차례의 내란이 있는데 영조에 반대해 일으킨 '이인좌의 난'과 평안도 지역차별에 들고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이런 까닭에 효종의 북벌정책을 수행한 이완 장군을 제외하고는 수원 화성 건설의 주역인 조심태 장군 정도를 기억할 뿐 이 시기 장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시백과 류혁연은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장군이다. 두 사람 모두 수원부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류혁연의 생애를 통해 전쟁이 없는 시기에 장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 볼 수 있다.

효종이 이완을 발탁하여 북벌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완과 함께 효종의 북벌정책에 앞장섰던 류혁연 장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북벌정책을 추진하던 효종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군사검열을 했을 때 류혁연은 수원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때 도 전체에서 수원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자 효종은 류혁연을 승지로 발탁하여 군사정책을 의논했다. 무인을 승지로 발탁했던 사례는 류혁연이 처음이다. 이후 류혁연은 어영대장과 훈련대장을 번갈아 역임하며 효종의 북벌정책에 앞장섰다. 류혁연은 훈련대장으로 효종, 현종, 숙종의 3대에 걸쳐 활약했으나 1680년에 서인 김석주가 주도한 경신대출척으로 남인계 영의정 허적, 윤휴와 함께 역모혐의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역사에 묻혀버린 무인이다.

류혁연은 어영청을 북벌의 주력군으로 확대 개편하고, 훈련별대를 만들어 재정을 줄이며 군사력을 강화했다. 또한 이완과 협력하여 인조반정 이후 군영에 성행했던 '기찰(讞察:사찰)'을 근절시켰다. 훈련대장으로 공조판서를 겸임하면서 화약의 원료가 되는 유황광을 개발하고 조총을 비롯한 화기의 품질을 크게 높였다. 류혁연은 본국검을 비롯한 창검 무예를 정리하여 군영에 널리 보급했을 뿐 아니라 훈련도감에 소속된 검객 김체전을 왜관에 밀파해서 일본 검술을 익혀오게 했을 정도로 조선군의 전력 강화에 헌신했다.

효종을 이은 현종도 수원을 주목했다. 현종이 재위하던 시기에 수원고읍성 안에 국왕이 거처할 수 있는 별당을 마련했다. 현종의 아들 숙종이 재위했던 시기에 별당의 시설이 확장되어 '행궁(行宮)'으로 승격했다. 물론 이 시기에 행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읍성이 보수되었다. 숙종이 노량사장에서 군병을 친열하면서 "수원의 군병은 가장 정예하다"라고 했던 칭찬이나 "수원의 7천 병마는 본래 날래고 사납다"라는 대신의 말은 '무향(武鄕)' 수원의 실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1692년 가을, 숙종이 노량사장에서 수원의 군병을 친히 사열한 뒤에 이런 평가를 내렸다.

"시골 군사들은 조련이 대체로 생소하여 대부분 모양을 이루지 못하는데, 유독 수원은 그렇지 아니하여 정예하다."

VII. 독산성과 수원고읍성은 한국 무예의 성지

효종이 승하한 1659년부터 꼭 100년이 지난 1759년에 사도세자는 효종의 북벌정책을 계승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무예신보>를 펴냈다. 사도세자는 16살부터 효종의 ‘원대한 뜻’을 계승 하겠다며 창덕궁 후원에서 효종이 사용하던 월도와 철주를 들고 무예를 익혔던 대장부였다. 1760년 초가을, 사도세자는 온양 온천으로 가던 길에 독산성을 찾았다. 이때 사도세자는 독산 성에서 효종이 묻히려 했던 화산을 바라보고 수원읍성을 찾아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독산성에 돌아와 무예를 시험하고 활을 쏘았다. 그러나 불과 2년 뒤에 사도세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정조는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1789년 초가을에 양주 배봉산에 있던 부친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부 강무당이 있는 화산으로 옮기고 현릉원을 조성했다. 이때 정조는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와 박제가, 장용영 장관 백동수를 불러 <무예신보>를 계승하는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도록 지시하여 이듬해 4월에 장용영에서 간행했다. 사도세자와 독산성의 특별한 인연을 주목한 정조는 1791년 독산성에서 지역민들을 만나고 활을 쏘았던 일을 재현했다. 이처럼 수원고읍성과 독산성은 효종과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를 연결하는 특별한 유적이다.

VIII. 읍성은 왕릉이 되고, 빈 들판은 대도회가 되다

1789년 10월 6일, 천장을 마치고 정자각에서 하룻밤을 지낸 정조는 7일 아침 일찍 화산에 올랐다. 산을 내려온 정조가 신하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지시했다.

“이 산은 화산이니 꽃을 많이 심으면 좋겠다.”

정조의 명에 따라 화산을 비롯하여 화성과 독산성 주위에도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었다. 빈터가 된 수원고읍성 주변에도 소나무와 꽃나무가 자랐다. 화산과 성황산 자락에 사도세자의 명복을 비는 원찰 용주사도 중창되었다. 동시에 일반 백성들의 접근이 금지되었다. 이때부터 수원고읍성은 백성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역사의 뒷란으로 묻히게 되었다. 고려시대부터 500년 동안 번영을 누리던 수원고읍성은 현릉원을 조성하면서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인 신

성한 공간이 되었다. 현릉원터에 있던 강무당은 화성 행궁 옆 화서문 쪽으로 옮겼다. 강무당은 장용영 외영의 무사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 화산 현릉원으로 모신 1789년부터 승하한 1800년까지 12년 동안 13차례 찾았다. 정조는 백성들이 행복한 행차인 행행(行幸)을 통해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행행을 하면서 군사를 다각도로 훈련시켰던 점도 돋보인다. 이런 점에서 원행에 나서는 정조의 차림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조는 창덕궁 돈화문을 나설 때부터 현릉원에 도착할 때까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착용했었다.

정조가 즉위 3년이 되던 1778년에 밝힌 네 가지 국정목표는 24년간의 정조시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그것은 민산, 인재, 용정, 재용이다. 세 번째로 꼽은 용정(戎政)은 독산성과 화성에 집약되어 있다. 정조는 용정의 개혁을 밝히고 난 뒤 이런 말로 마무리했다. “군자는 싸우려 하지 않으나,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君子有不戰, 戰必勝).” 이 발언은 국방에 대한 정조의 굳은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IX. 수원고읍성과 독산성, 그리고 화성의 현재, 그리고 미래

앞에서 살펴본 본 것처럼 2천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독산성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400년 전부터 특별하게 관리되었던 성곽이다. 현재 독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독산성에 못지않은 역사를 가진 수원고읍성의 존재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성문은 물론 성벽조차 대부분 허물어져 원형을 간직한 곳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성벽이 서 있던 자리만 몇 군데 겨우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거의 잊혔던 수원고읍성이 최근 이 지역을 택지지구로 개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이 지역 안에 수원고읍성의 성벽을 비롯하여 정조의 초창지가 있다. 정조의 초창지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을 죽여서도 돌보겠다는 아들 정조의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릉원과 초창지터는 한국인의 효(孝)의 성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택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수원고읍성은 경기도 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되었으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용건릉 매표소 부근을 공사할 때 관청건물지로 보이는 초석들이 다수 발굴되었다. 이를 통해 수

원고읍성의 주요 시설물들이 용릉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수원대학교 도서관 건물 쪽에도 성터가 일부 남아 있다. 현지 주민들이 ‘고수문(古守門)’이라 부르는 곳인데 수원 고읍성의 서문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지점이다. 수원대 도서관 건물부터 시작되는 성벽의 흔적은 수기리까지 연결되어 있다. 치리고개에 북문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남문터는 용릉 건릉의 건너편 도로변에 남아 있다. 치리고개에서 화산을 오르면 산허리 중간쯤에 용릉정내를 알리는 입산금지 표식이 있고, 건릉 경내에 역시 성터가 남아 있다. 따라서 수원고읍성은 성황산과 화산을 연결하는 능선과 골짜기를 포함하여 축조된 포곡식의 산성으로 추정된다.

수원고읍성과 독산성, 그리고 화성은 외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것이다. 지리의 이로움을 최대한 활용한 성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던 것이다. 독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이 끝날 때까지 2천년의 긴 세월 동안 적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존재했던 국방유적이다. 수원고읍성 역시 화성이 축성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수원의 백성을 품고 있었던 삶의 공간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연거푸 겪은 조선의 지도층은 백성을 동원하여 성곽을 새로 쌓고 보수하는 일에 매달렸다. 이때 사관은 붓을 들어 이러한 정책을 내린 조정 대신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기록했다.

“백성들이 병들었고 부역이 몹시 많은데 백성들을 쉬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적당한 때이다. 그런데 인화(人和)가 바로 굳건한 성(城)이라는 것은 모르고 지리(地利)의 험고한 것만을 믿으려고 하니, 금성탕지(金城湯池:천혜의 요새)가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데에야 소용이 있겠는가.”

천하의 요새도 사람들 사이의 화합만 못하니 먼저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라는 것이다. 독산성과 수원고읍성, 그리고 화성은 지도층이 백성들과 즐거움을 나누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실천했을 때만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2016년의 대한민국은 사회지도층의 불의와 임무태만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의 부흥과 튼튼한 국방도 인화에서 비롯된다는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야 할 때다.

정조대 화성유수부의 의료기관 고찰

김 준 혁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I. 서론

II. 화성유수부 승격과 의료기관 설치

III. 화성축성시 민본적 의료행위

IV. 결론

* 참고문헌

집필자

김 준 혁

문학박사,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여 백

I. 서론

정조시대 개혁정책의 주요 핵심은 위민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왕권강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이러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民의 재산을 만들고 人才를 무성하게 하며 軍事를 다스리며 財政을 풍족하게 해야 한다”는 요지의 更張大誥를 발표하였다.

정조는 세손 시절 사도세자의 죽음을 극복하고 조선의 국왕으로 등극한 인물로 어린 시절부터 조정의 정치원리를 몸으로 터득한 이였다. 따라서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고도의 정치 기법을 이용하여 당쟁을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정조의 왕권강화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규장각을 통한 문화융성, 抄啓文臣 활성화를 통한 인재양성, 辛亥通共을 통한 경제활성화, 서얼허통, 欽恤典則, 字恤典則 등 인본정책을 통해 王權과 臣權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정조의 이와 같은 민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장정책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료정책이었다. 정조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나라의 병을 고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인식하에 백성들이 홍역과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정책을 추진하였다. 스스로 『壽民妙詮』이란 의학서를 저술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산 정약용과 內醫院 首醫인 강명길에게 의학서를 편찬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물론 정조시대 이전 모든 국왕들이 백성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국왕으로부터 신하들에 이르기까지 의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대는 흔하지 않았다. 특히 정조의 지우를 받고 있던 이덕무는 조선의 선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율곡 이이의 『聖學輯要』, 반계 유형원의 『磻溪隱錄』 그리고 허준의 『東醫寶鑑』을 선정함으로써 당대 선비들 대부분이 동의보감을 읽음으로써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민본정신을 체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정조는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4대 개혁정책의 완수를 위하여 새로운 친위도시 건설이 필요하였다. 1789년 자신의 생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부읍치로 천봉하고 기존의 수원부읍치를 팔달산 동쪽의 들판으로 이전하면서 신도시 수원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1793년 1월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하면서 정조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부분에서 화성을 육성하여 조선에서 가장 큰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의 내용과 같이 화성을 기반으로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개혁정치를 하고자 함이었다.

당연히 정조는 화성의 백성과 화성에 주둔하고 있는 5,000여명의 장용외영 군사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도성에만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가정

의관들이 의료행위를 하던 기존의 지방행정 통치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의 실천이었다. 정조의 이와 같은 의료기관 설치에 화성유수부가 국왕이 임어하고 있는 한성부와 같은 도시위상을 갖게 하고자 하는 출발점이자 전국 모든 도시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정조는 화성 축성과정에 참여한 기술자와 인부들을 위하여 임시 약국을 설치하고 이들을 치료하였다. 치료 외에 다양한 약재를 하사함으로써 국왕의 백성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화성유수부 설치와 화성축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실제 화성유수부내의 의료기관 설치와 의료행위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 화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건축사적 내용과 정조의 화성건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도 그리고 화성 내에 주둔하고 있던 장용영외영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오산시는 정조시대 화성유수부에 포함된 지역으로 수원시, 화성시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조시대 화성유수부의 의료기관 및 의료 제도의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 제도 시행 역시 공유된 역사이다. 오산시는 생존수영과 음악 교육 등을 정착화하며 21세기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 기관의 안정성을 통해 건강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화성유수부내에 의료기관의 설치와 유지와 정조가 화성을 축성하는 과정에서 의료지원을 통해 민심과 함께 하였는지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Ⅱ. 화성유수부 승격과 의료기관 설치

1793년(정조 17) 1월 정조는 水原都護府를 華城留守府로 승격시키면서 화성유수부에 壯勇營外營을 신설하였다. 화성유수부의 승격은 1년 뒤에 있을 화성축조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었다. 화성 축성은 왕권을 강화하여 민생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조의 장기적인 정국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정조는 화성유수부를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배후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화성유수부 승격과 더불어 장용외영을 신설한 것이다.

정조는 도성 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빈민들의 홍역 치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전염병인 홍역을 치료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은혜가 빈궁

한 이들에게 먼저 가야한다는 爲民意識의 발로이자 극빈계층의 사회복지 정책 측면에서의 강조였다.

“저 의식이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자연히 제때에 간호할 수 있지만, 가난한 선비, 궁한 백성들 중 고할 데도 없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 누가 구제해 준단 말인가? 저들의 광경을 생각하면 눈으로 본 것 같다. 사람마다 병을 진찰해 주고 집집마다 약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의논하기 어렵지만, 가장 가난한 무리를 들은 대로 구제한다면 조금이나마 실효가 있을 것이다.”¹⁾

이로 볼 때 정조의 의료정책은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빈민들에 대한 구제가 더욱 우선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새로운 醫書를 간행되어 자신에게 바쳐지면 의서를 검토하여 전국의 각 지방으로 배포하게 하였다. 1786년(정조 10) 5월 박상돈과 남기복이 엮은 『疹疫方』이라고 하는 홍역 치료에 대한 의서가 바쳐졌을 때도 이를 기존의 한문으로 된 내용에 언문으로 번역하여 보내도록 지시하였다.²⁾

의서가 한문으로만 간행되면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없어 병의 치료를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는 정조가 생각하고 있는 의료의 대중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에 대한 의료정책을 추진하였던 정조는 화성유수부를 기반으로 지방 의료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793년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킨 정조는 이에 걸 맞는 도시 위상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화성은 장기적으로 자신이 거처할 도시였기에 상왕이 거주할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관청을 설립하였다. 기존의 수원도호부 관아를 화성행궁으로 승격시켜 행궁을 정식으로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정의 행정관청의 分所를 새롭게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신 기관 설치 속에서 수원지역의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설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도성을 제외하고는 典醫監·惠民署·活人署 등 일반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설치하지 않았다.³⁾

각 지방에서 발생한 각종 전염병에 대하여 임시로 조정의 醫官을 파견하여 조치할 따름이었

1) 『正祖實錄』卷21, 10年 4月 癸巳.

2) 『正祖實錄』卷21, 10年 5月 辛未.

3) 이규근, 「조선시대 내의원 연구」『조선시대사학보』2, 1997.

다. 따라서 화성유수부 역시 기존의 지방 수령체제하에서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다. 결국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도성에서와 같은 의료기관의 설립 대신 의과시험에 합격한 약원을 화성유수부에 임명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 지방 행정을 위하여 首領과 教授를 반드시 파견하였다. 즉 국왕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치할 수령과 조정이 각 지방마다 학문양성을 위하여 설립한 향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교수를 파견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전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세세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는 『新增東國輿地勝覽』 官員條에 의하면 전국의 모든 지방의 관원 파견은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정조는 화성유수부에 기존의 수령인 유수와 향교의 교수 외에 醫學 1원을 추가로 임명하였다. 즉 1793년에 수원도호부사를 화성유수로 승격시키면서 장용외사를 겸하게 하고 화성유수를 보좌하는 判官을 임명하였다. 새롭게 임명된 판관은 정조가 돌아가신 이후 정조의 어진을 봉안한 화령전의 책임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정조는 판관 외에 화성유수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을 조사하는 檢律을 추가로 임명함과 동시에 醫學 즉 의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⁴⁾

물론 1789년 7월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을 천봉하기 위해 수원의 읍치를 팔달산 일대로 옮겨 신읍치를 조성할 때 약방을 새롭게 설치하였지만 약방을 책임질 의관은 조정에서 임명하지 않았다.⁵⁾

화성유수부에 임명된 醫學은 조선시대 雜科에 의해 선발된 우수한 인재였다. 조선시대에는 집권적 관료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각종 官學을 설치하였다. 10學이 바로 그것이다. 10학은 儒學·武學·譯學·醫學·陰陽學·算學·律學·畫學·道學·樂學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전문 관리를 양성하는 관학이었다. 유학과 무학을 제외하고 雜學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문의 중요기관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이후 과거를 통해 관료로 임명하게 하였다. 이중 의학의 경우 전의감에서 50명, 혜민서에서 30명 등 각종 기관에서 총 140명을 양성하였다.⁶⁾

따라서 이들은 지방의 의원 집안에서 家傳에 의한 의료교육이 아닌 철저한 국가 의료기관에

4) 『新增東國輿地勝覽』卷9, 水原都護府 備考 官員.

5) 『水原下指抄錄』권2, 庚戌 2月 10日條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수원부 관리 및 下輩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을때 약방기명 진배감색(藥房器皿進排監色) 1인이 삼등으로 상을 받은 기록으로 보아 약방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당시 약방을 담당하는 의관 임명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6) 이성무, 『한국과거제도사』, 민음사, 1997, 328~336쪽.

서 양성된 의관이었기에 그 수준은 조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 의관들은 대부분 조정의 의료기관에 남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지방으로 임명되는 경향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유수부의 위상으로 인하여 특별히 임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새로 임명된 의관이 어느 곳에서 근무하였는지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수원과 관련된 각종 읍지와 화성유수를 역임했던 서유구의 『華營日錄』에도 의관이 어느 곳에서 근무하였고 규모의 크기에 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다만 『수원하지초록』의 약방에 대한 기록과 조정에서 의관을 화성유수 및 판관과 함께 임명한 것으로 보아 화성행궁 혹은 貳衙⁷⁾에 약방의 공간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화성유수부의 공식적인 의관과 더불어 조정에서 임명된 또 다른 의관이 존재하였다. 1793년 화성유수부에 장용영외영을 설치하고 장용외영을 화성유수로 임명하였다. 화성유수부와 장용외영을 지휘하는 인물은 동일하지만 체제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장용영외영은 군대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이 장용외영의 장졸들을 위한 의관 임명은 당연한 것이었다.

장용외영은 도성의 장용내영과 그 체제가 유사하기 때문에 군영에 필요한 각종 인원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장용외영에는 장용내영과 마찬가지로 藥房 1원과 鍼醫 1원을 두었다. 아울러 장용외영의 기병인 친군위에 반드시 필요한 馬醫 1원이 임명되었다.⁸⁾

약방과 침의는 도성과 지방을 논할 것 없이 침술업이 정밀하고 밝은 사람으로 국왕에게 아뢰어 분부를 받아 차출하여 임명하였다. 이들 약방과 침의는 중요성을 인정받아 하급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敎旨로 임명되며 이를 장용영 餉色提調의 직인을 찍어 巡令手가 전해주었다. 더불어 약방은 內醫院으로 옮겨 보내더라도 그대로 겸임하게 할 정도로 실력 있는 인물을 파견하였다.⁹⁾

약방과 침의는 軍校들의 환자를 간호하는 것만이 아닌 화성유수부에 있는 貧民을 구원하거나 치료해 주는 일을 맡았다. 화성유수부에 임명된 의관 1명으로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용외영의 약방과 침의로 화성유수부내의 빈민을 치료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교 중에서 약 재료를 자기 능력으로 마련하여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장용외영에

7) 이아는 화성유수부에 있는 특별한 행정기관으로 화성행궁이 정조의 행차를 맞이하고 유수가 행정을 하는 곳이었기에 두 번째 관아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아는 현재 신평초등학교 앞에 있는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가 들어선 자리다.

8) 『壯勇營大節目』卷1, 軍制.

9) 『壯勇營大節目』卷1, 差除.

문서를 바치면 모든 약을 무료로 지어주었다.¹⁰⁾

이는 자연스럽게 빈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리라고 판단된다.

당시 약방과 침의는 장용외영의 敎鍊官과 국왕 호위를 전담하는 壯勇衛보다도 높은 대우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련관과 장용위는 약방과 침의를 만나면 반드시 그들에게 먼저 절을 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 정조의 의관에 대한 대우를 확인할 수 있다.¹¹⁾

이와 같은 화성유수부와 장용외영의 공식적인 의료기관 및 의관 임명과 별도로 1794년 1월 화성축성 당시 임시 藥局을 설치하였다. 화성축성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설치는 당연하였다. 정조는 1794년 1월부터 1796년 9월까지의 화성 축성기간에 기술자와 참여한 인부들의 돌림병 및 일상적으로 질환 그리고 공사 중의 부상을 위하여 약국을 설치하였다. 이 약국은 일정 정도의 치료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이 완치 될 때까지 치료를 담당하였다.¹²⁾

당시 약국은 성문밖에 임시로 장막을 쳐서 입원 시설을 마련하였고 환자들에 대하여는 일하지 못한 대가로 매일 돈 1전과 쌀 1되를 지불해주었다.¹³⁾ 다만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병세를 조사하기 위하여 패장 1원과 사환군 1원을 보내 판단하도록 하였다.¹⁴⁾

당시 지급한 금액은 돈 170냥 5전과 쌀 11섬 5말 5되 값 50냥 8전 3푼이었다. 입원 치료자에 대한 손실비용을 계산해볼 때 당시 약국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는 약 1,700여명으로 파악된다. 입원 치료자 외에 크고 작은 상처 등으로 잠시 약국을 이용한 환자에게는 매일 돈 1전 5푼과 쌀 1되를 지급하여 돈 213냥 7전 5푼, 쌀 9섬 7말 5되 값 47냥 5전이었다. 이로 볼 때 경상 환자는 1,42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치료와 노동을 동시에 하였기 때문에 입원환자들이 일당 1전을 받는 것보다 높게 1전 5푼을 받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술자와 모군 치료를 위하여 구휼에 들어간 비용 117냥 2전, 무명 21필 값 42냥, 베 35필 값 52냥 5전 등을 합치면

10) 『壯勇營大節目』卷1, 職掌.

11) 『壯勇營大節目』卷1, 儀節.

12) 『華城城役儀軌』卷6, 實入2.

13) 현재까지 내려오는 수원지역의 설화 및 지명유래로 볼 때 성문 밖의 임시 병원은 화서문 밖에 있는 현재의 경기도지사 관사로 보여진다.

14) 『華城城役儀軌』卷4, 甘結, 甲寅 2月 6日.

총 비용이 734냥 3푼이 들었다.¹⁵⁾

환자들에 대한 임금 보전 비용 외에 화성유수부에서 축성 과정 중에 다친 환자에게 다양한 약재를 제조하여 치료제로 사용하였다. 당시 사용된 藥物은 淸心元 500환, 蘇合丸 4,000환, 廣濟丸 3,000환, 辰砂益元散 420첩, 益元散 3,978첩이 사용되었다. 이 약물에 대한 비용은 525냥 9전 6푼이었다. 더불어 당재, 향재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 비용은 126냥 9전 4푼으로 도합 652냥 9전이 약물 값으로 사용되었다.¹⁶⁾

Ⅲ. 화성축성시 민본적 의료행위

정조는 수원신읍치 이전과 화성축성에 참여한 관원 및 인부들을 위한 의료행위를 실천하였다. 이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 곧 나라의 병을 고치는 일과 같다”¹⁷⁾는 정조의 기본적인 의료철학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개혁정치의 기반이 될 화성을 축성하는 이들에 대한 민본주의적 배려였다.

1789년 10월 현릉원 공역을 완공하고 수원으로 사도세자의 神輿를 운반하는 輿土들을 위하여 정조는 한기를 막는 新方濟衆丹을 만들어 거사들에게 지급하였다. 비록 자신의 生父 사도세자를 위한 현릉원 천봉이었지만 정조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백여 리 길에 이르는 화산으로의 천원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다.¹⁸⁾

이후 정조는 화성을 축성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민본적 의료행위를 실천하였다. 즉 더위에 지친 인부들을 위해 滌暑丹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시켰다. 화성 축성을 시작한 1794년은 정조대 이래로 가장 심한 더위가 있어 성곽 축조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정조는 이에 축성 공사 현장 중 채석과 기와를 굽는 현장은 특히 띄약별 가운데 서있게 되므로 부역하는 일은 서늘한 기운이 생길 때까지 멈추도록 하였다. 즉 정

15) 『華城城役儀軌』권6, 實入2.

16) 『華城城役儀軌』권6, 實入2, 藥物.

17) 『弘齋全書』卷119, 群書標記 壽民妙詮.

18) 『正祖實錄』卷28, 13年 10月 戊辰.

조는 백성들을 위한 축성공사에 백성들이 병 들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다.¹⁹⁾

화성 축성 시에 가장 먼저 척서단을 하사한 것은 1794년 6월 25일이다.²⁰⁾

정조는 척서단 4천정을 화성 축성의 현장으로 내려주며 아래와 같이 하교하였다.

“불별더위가 이 같은데 城役處에서 공역을 감독하고 공역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끔끔대고 혈떡거리는 모습을 생각하니, 밤낮으로 떠오르는 일념을 잠시도 놓을 수 없다. 이러한데 어떻게 밥맛이 달고 잠자리가 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속이 타는 자의 가슴을 축여 주고 더위 먹은 자의 열을 식혀 주는 데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따로이 한 처방을 연구해 내어 새로 조제하여 내려 보내니, 匠手·募軍 등에게 나누어 주어서 속이 타거나 더위를 먹은 증세에 1정 또는 반정을 정화수에 타서 마시도록 하라. 이 밖의 구료할 처방도 각별히 유의하여 구중궁궐에서의 염려를 덜어 주도록 하라.”²¹⁾

화성 축성에 참여한 기술자와 인부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정조는 단순히 척서단만을 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처방에 대한 주의와 배포 지침도 함께 지시하였다. 당시 정조가 하사한 4,000정의 척서단은 감독, 패장, 원역, 모집한 일꾼들에게 등급을 매겨 나누어 주었다. 감독 14명과 경·부 패장 87명에게는 각 2정씩, 경·부 서리 33명, 석수와 조수 합하여 871명, 목수 344명, 대장장이와 조수 모두 합하여 267명, 벽돌장이 62명, 수레장이 15명, 조각장이 37명, 나막신장이 7명, 기톱장이 12명, 걸톱장이 8명, 큰끌톱장이 50명, 작은끌톱장이 18명, 배기술자 40명, 안자장이 2명, 화공 5명, 부계장이 2명, 수레꾼 75명, 소치기 32명, 짐꾼 582명, 허드레꾼 1,132 명에게 각각 1정씩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240정은 뒤에 오는 기술자들에게 주기로 하여 보관하였다.²²⁾

당시 정조로부터 척서단을 하사받은 기술자와 인부들은 모두가 손을 모아 감축하고 기뻐서 말을 이루지 못하였다. 더불어 척서단 외에 임시로 설치된 藥局에 척서단과 효능이 유사한 약

19) 『正祖實錄』卷40, 18年 7月 辛卯.

20) 『華城城役儀軌』卷首, 時日, 各項日子.

21) 『正祖實錄』卷40, 18年 6月 癸未.

22) 『華城城役儀軌』卷2, 頒賜, 甲寅年 6月 25日.

재를 많이 갖추어 누구든지 원하면 지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놓았다.²³⁾

척서단은 이듬해인 1795년은 인부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사하지 않고 1796년 여름에 하사하였다. 정조는 성역을 담당하는 성역 도처 이유경에게 날씨가 무더우므로 축성공사 시간을 조절하도록 지시하였다. 더불어 척서단 5,000정을 함께 내려 보냈다.

“더위가 이 같으니 성역은 새벽과 저물녘의 몇 시간 외에는 간간이 잠깐씩 정지하라 하였는바, 이와 같이 하교한 후에 비록 한 사람의 공장이나 한 사람의 일꾼이라도 만약 더위를 먹는 폐단이 생긴다면, 경은 마땅히 중형으로 다스림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뜻을 자상히 알 것이며, 척서단 5,000정을 내려 보내니,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고, 香薷散 100첩, 益元散 200 첩을 또 내려 보내니, 이것은 공사를 감독하는 장관 장교 및 공장 두목들이 있는 곳에 나누어 주도록 하라.”²⁴⁾

1796년은 1794년과 달리 척서단만을 하사한 것이 아니라 향유산과 익원산 등 각종 약재를 하사하였고 특별히 축성 감독에 전념하고 있는 이유경에게는 大方逐暑湯 1첩, 牛黃六一散 5첩, 辰沙益元散 5첩, 清心元 10환, 廣濟丸 20환, 濟衆丹 50정을 하사하였다.

이때 하사된 척서단 5,000정, 향유산 10첩, 익원산 200첩을 감독, 패장, 기술자들에게 등급을 매겨 나누어 주었다. 감독 8명에게 각각 향유산 2첩, 익원산 3첩, 경·부 감관 6명, 경·부 패장 64명에게 각각 향유산 1첩, 익원산 2 첩씩, 석수 편수 4명, 목수 편수 3명, 미장이 편수 2명, 대장장이 편수 2명, 벽돌장이 편수 3명에게 각각 향유산 1첩, 익원산 1첩씩, 석수 304명, 목수 55명, 미장이 42명, 벽돌장이 30명, 대장장이 16명, 기와장이 2명, 수레장이 3명에게 각각 척서단 2정, 석수 조수 304명, 대장장이 조수 48명, 수레꾼 58명, 소지기 28명, 짐꾼 287명, 허드레꾼 761명에게 각각 척서단 1정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익원산 22첩과 척서단 2,610정은 나중에 나누어 주도록 조치하였다.²⁵⁾

23) 『華城城役儀軌』卷2, 別單, 甲寅年 6月 25日.

24) 『華城城役儀軌』卷1, 傳令, 丙辰年 6月 24日.

25) 『華城城役儀軌』卷2, 頒賜, 丙辰年 6月 26日.

정조의 특별 하명을 받은 이유경은 이해 여름 축성과정에서 반드시 새벽과 저녁 시원한 때에만 일을 시킴으로서 기술자와 인부들이 더위를 먹지 않게 하였다.²⁶⁾

정조는 척서단만을 하사한 것이 아니라 인부들의 건강을 위한 濟衆丹을 함께 하사하였다. 1794년 4월 28일에 1,500정과 1795년 3,000정을 하사하였다. 1794년 4월에 하사된 제중단 1,500정 역시 척서단과 마찬가지로 도청 이유경 이하 員役이나 工匠들에게 이르기까지 등급을 매겨 나누어 주었다. 도청 2명에게는 각각 4정, 감독 13명과 감관 5명에게는 각각 3정, 京·府 胥長 63명, 京·府 員役 45명, 석수 350명, 대장장이 42명, 목수 167명, 벽돌장이 52명에게 각각 2정씩이 나누어졌다.

더불어 1795년 10월 28일에 하사된 제중단은 3,000정으로 패장과 기술자들에게 등급을 매겨 나누어 주었다. 패장 31명, 석수 편수 8명, 목수 편수 1명, 대장장이 편수 11명에게 각각 7정씩, 석수 102명에게 각각 5정씩, 벽돌장이 27명, 목수 21명, 배기술자 5명, 마름장이 3명, 수레장이 5명, 조각장이 2명, 톱질장이 2명, 석수 조수 102명, 대장장이 조수 33명, 수레꾼 55명에게 각각 3정씩, 소치기 9명에게 각각 2정씩 하사하고 나머지 1,350 정은 뒤에 추가시킬 기술자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조는 사도세자의 현릉원에 벌레를 잡은 이들을 위하여 그에 따른 시상과 더불어 특별히 제조한 제중단 4,000정, 廣濟丹 3,000정, 淸心元 100환, 향유산 400첩을 하사하였다.²⁷⁾

이와 같이 정조는 화성 축성에 참여한 관원들과 기술자 그리고 인부들을 위하여 척서단과 제중환 및 다양한 약재를 하사하여 그들의 건강을 책임졌다. 이 결과 3년에 걸친 대규모 토목 공사를 단행하면서 단 한명의 사망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IV. 결론

지금까지 사도세자의 현릉원 천봉으로 인한 수원신읍치 건설과 이에 따른 화성유수부의 승격과 위상 더불어 화성유수부에 있었던 의료기관과 의료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화성유수부

26) 『華城城役儀軌』卷2, 別單, 丙辰年 6月 25日.

27) 『正祖實錄』卷48, 22年 4月 己未.

는 정조시대 국왕의 正宮이 있는 한성부에 버금가는 도시로서 농업과 상업 개혁의 기반도시로 성장하였다. 더불어 화성유수부에 설치된 장용외영은 정조의 개혁정치를 뒷받침하는 조선 시대 최강의 군영이었다.

이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정조는 도성과 같은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방 행정구역에 조정의 계획으로 설치된 약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조는 화성유수부의 도시 위상을 제고하여 약국을 설치하고 의과에 합격한 醫學(의관)을 파견하였다. 이 의관은 화성행궁 및 화성이 실제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貳衛에 약국을 설치하여 근무하며 수원지역의 백성들을 구제하였을 것이다.

가전 의학으로 공부한 의관이 아닌 국가가 만든 10學에 의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의과에 합격한 의관의 화성유수부 임명은 수원지역 의료정책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으리라 판단된다. 정조는 이와 더불어 화성유수부 내에 설치된 장용외영의 군사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원과 침의를 파견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장용영 군사들만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유수부내에 있는 빈민들의 구제도 함께 하였다. 돈이 없어 약을 지을 수 없는 군인들과 빈민들을 위하여 장용외영의 의원으로 하여금 치료케 한 것은 軍民의 일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정조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군민일치의 의도는 1795년 장안문 밖에 만석거 저수지를 만들고 대유둔을 조성함으로써 장용외영 군사들과 일반 백성들이 함께 농사짓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소득으로 군사들의 급료를 주어 기존의 軍政이 지니고 있는 폐단을 극복하고자 한 것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조는 화성 축성 과정에서 축성 과정에서 다친 기술자와 인부들을 위하여 임시 약국을 설치하여 보살피게 하였다. 단순히 치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건비를 함께 지불함으로써 근현대 노사 관계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정조는 화성 건설에 참여한 기술자와 인부를 위하여 척서단과 제중단 등 다양한 약재를 하사함으로써 민본주의를 지향하는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정조의 화성유수부에 대한 의료기관 설치와 의료행위는 3년여 걸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서 단 1명의 사망자도 나타나지 않은 그야말로 세계사에 없는 역사를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것은 위민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조와 관료 그리고 축성 참여자 및 일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시는 정조의 위민정신과 개혁정신을 이어 화성을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대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정조가 지금까지 보여준 백성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다.

참고문헌

사료

- 『正祖實錄』
- 『弘齋全書』
- 『日省錄』
- 『園幸乙卯整理儀軌』
- 『大典會通』
- 『練藜室記述』
- 『水原下指抄錄』
- 『新增東國輿地勝覽』
- 『華城城役儀軌』
- 『華城志』

단행본

- 金成潤,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 지식산업사.
-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01.
- 이성무, 『한국과거제도사』, 민음사, 1997.
- 최흥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논문

- 김문식, 「18세기 후반 正祖 陵行의 意義」 『한국학보』88, 일지사, 1997.
- 金成潤,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 지식산업사, 1997.
- 김준혁, 「정조대 장용위 설치의 정치적 추이」 『사학연구』78, 2005.
- 박현모, 「正祖의 聖王論과 更張政策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 유봉학, 「정조시대 사상 갈등과 문화의 추이」 『태동고전연구』21, 2005.
- 이규근, 「조선시대 내의원 연구」 『조선시대사학보』2, 1997.
- 李達鎬, 『華城 建設 研究』, 祥明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3.
- 최흥규, 「正祖代의 華城經營과 壯勇外營 문제」, 『京畿史學』1, 1997.
- 최흥규, 「朝鮮後期 華城築造와 鄉村社會의 諸樣相」, 『국사관논총』30, 1991.
-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 정치사연구반, 2003,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인조~현종 시기.

오산시 외삼미동 탁자식 고인돌의 별자리 성형

임 종 삼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문헌 연구
- III.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 고인돌
- IV. 우리나라 하늘의 주요 별자리
- V. 오산시 금암동의 개석식 고인돌
- VI. 오산시 외삼미동의 탁자식 고인돌
- VII. 외삼미동 고인돌의 별자리 성형

집필자
임 종 삼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상임위원

여 백

I. 들어가는 말

A. 오산시의 고인돌

오산시는 두 개의 고인돌 공원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기념물 제 112호 금암동 고인돌 공원과 경기도 기념물 제 211호 외삼미동 고인돌 공원이 그것이다. 오산시 금암동의 고인돌 9기는 모두 개석식蓋石式이다. 그런데 오산시 외삼미동의 고인돌 1기는 탁자식卓子式이다.

오산시에 위치한 고인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고인돌을 채석하던 모암母巖을 볼 수 있다는 것, 탁자식과 개석식 고인돌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 탁자식 고인돌에는 별자리 문양의 성혈性穴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도1. 금암동 고인돌 공원



도2. 외삼미동 고인돌 공원

첫째, 오산시 금암동에는 고인돌을 채석하던 2개의 모암이 있다.

오산시 금암동 고인돌공원의 모암母巖은 일명 할아버지 바위와 할머니 바위로 불린다. 금암동의 개석식 고인돌은 모두 할아버지 바위와 할머니 바위에서 떼어내어 만든 것으로 보인다. 마을의 이름이 금암동錦巖洞인 것도 두 개의 거대한 바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금암동 고인돌 9기는 모암 1호와 모암 2호의 부속물로 보인다. 모암에서 떼어 내어 다듬고 운반하여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암과 고인돌의 석질石質이 같고 모암 주변에 고인돌로 쓰고자 떼어놓은 3~5개의 바윗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암동 고인돌공원의 모암 1호 곁에는 오래 된 은행나무가 있었다. 고대 신앙의 하나인 신수神樹, 거석巨石 숭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오산시 금암동 일대가 아파트 단지와

고인돌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은행나무는 고사되었다. 2008년, 금암동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은행나무 대목을 새로 심었다. 아직도 은행나무 고사목의 그루터기는 그 자리에 남아 전한다.



도39. 금암동 고인돌공원의 모암 1호-2003년 촬영

둘째, 오산시에는 탁자식 고인돌과 개석식 고인돌이 함께 남아 있다.

오산시 금암동의 고인돌은 모두 개석식이다. 그러나 오산시 외삼미동의 고인돌 1기는 북방형의 탁자식이다. 개석식과 탁자식의 고인돌이 한 지역에 존재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킴돌이 있는 탁자식이 킴돌이 없는 고인돌보다 앞선 시기에 축조된 고인돌이다. 학계에서는 북방형 탁자식 고인돌의 경계를 수원-용인-이천을 잇는 위도로 보고하고 있다.

셋째, 외삼미동의 탁자식 고인돌에는 별자리 문양의 성혈이 존재한다.

외삼미동의 탁자식 고인돌의 특징은 별자리 문양의 성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려 15개의 별자리 성혈이 새겨져 있는 바, 북극성과 북두칠성, 동삼성과 서삼성 체제로 보인다.

고인돌에 새겨진 청동기 시대의 별자리 문양은 이미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한국향토문화대전¹⁾이 기록한 성혈性穴¹⁾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성혈(性穴), 『디지털여수문화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성혈(性穴)은 바위그림의 한 종류로 돌의 표면에 파여져 있는 구멍을 말한다. 성혈은 주로 고인돌(支石墓)의 덮개돌(上石)이나 자연 암반에 새겨진다. 형태적 차이는 있지만 민속에서는 알구멍, 알바위, 알터, 알미, 알피 등으로도 불린다.」



도3. 외삼미동 고인돌의 성혈

Ⅱ. 문헌 연구

A. 청원 아득이 고인돌의 별자리 돌판

「청원 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에서 박창범·이용복은 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견된 돌판石版에 새겨진 홈이 별자리라고 보고하였다.²⁾ 다음은 위의 논문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2) 박창범,이용복「청원 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한국과학사학회』, 제23권, 제1호 (2001)

1. 서론

충북 청원군 문의면 가호리 아득이 유적은 1978년 대청댐 수몰지역에 대한 조사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이며, 북위 36° 25'07", 동경 120° 30'11"에 위치하고 있다.³⁾

고인돌 덮개돌 아래에서 석실이 발견되었고, 무덤방에서는 불을 피웠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고인돌은 이미 도굴된 상태였으나 청동기 조각, 간돌, 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주변에서는 돌무덤과 선돌 등이 함께 발견되었다. 발굴된 출토물은 현재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고인돌은 문의면에 복원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고인돌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서 크기가 324.5×235.4 mm2인 직사각형에 가까운 돌판이 발굴되었다. 이 돌판에는 지름이 7mm에서 2mm사이이고, 크기가 서로 다른 홈 65개가 파여 있었다 (그림 1, 그림 2). 이 홈들은 당시 별자리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세계의 거석문화 중심지역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덮개돌에 홈이 파여 있는 고인돌들이 많이 보고되어 왔다. 이 구멍들은 고인돌 외에도 자연바위나 탑, 비석, 선돌 등에서도 발견되는데, 흔히 성혈(性穴)이나 알구멍, 알바위, 알터, 알뿔, 알미, 성혈 등으로 불려왔으며, 주로 생산·풍요나 자손기원 등과 같은 민간 신앙이나 원시종교의 표식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외에도 외국의 경우 이러한 고인돌 구멍을 천동경외사상, 태양숭배사상, 불씨제작, 장식의 의미 등으로도 해석하여 왔다.⁴⁾

한편 북한에서는 고인돌 덮개돌에 새겨진 구멍들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져 일부 고인돌들에 파여 있는 구멍들이 별자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⁵⁾

반면에 고인돌에 새겨진 구멍들이 별자리일 가능성에 대한 남한에서의 연구는 극히 최근에 시작되고 있다. 김일권은 구멍이 파여 있는 고인돌 및 자연바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며 이 구멍들이 별자리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나 구체적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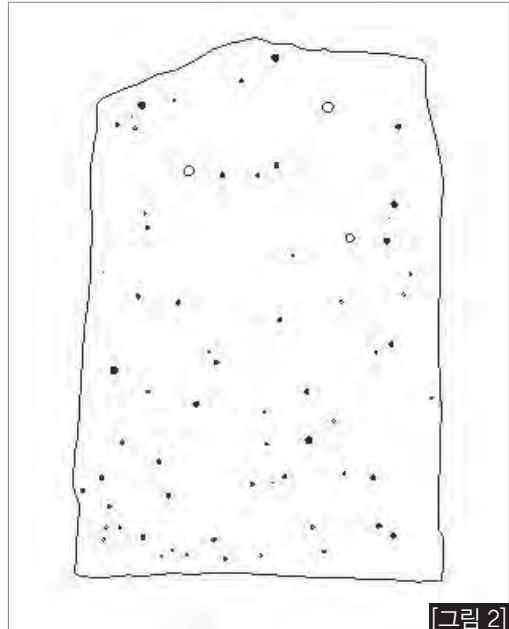
그러나 남한에서 고인돌에 새겨진 구멍들이 별자리일 가능성을 자료수집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별자리로 추정되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한 향후 연구를 강조함으로써 남한에서 고인돌의 성혈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3) 이용조, 1978, 『대청댐 수몰지구 유적발굴 보고서』(충북대학교 박물관); 이용조, 1981, 「청원 아득이 유적의 선사무덤 문화」, 『한국의 선사문화: 그 분석 연구』(탐구당).

4) 이용조, 1980, 『한국 선사문화의 연구』(평민사), p. 155; 이필영, 한창균, 1987, 「바위구멍 해석에 관한 시론: 고고·민속자료를 중심으로」, 『史學志』 21집 (단국대), p. 367.

5) 조선기술발전사 편찬위원회, 1997, 『조선기술발전사 (원시·고대편)』(백산자료 영인).

6) 김일권, 1998, 「별자리형 바위구멍에 대한 고찰」, 『古文化』 5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그림 1] 아득이 고인돌 돌판 사진 [그림2] 아득이 고인돌 돌판에 새겨진 흠의 위치와 크기 모사그림. 속이 빈 원으로 표현된 흠은 쪼아서 새긴 것이고, 나머지는 갈아서 새긴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고인돌에 새겨진 흠(성혈)에 대한 문헌과 답사 조사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아득이 고인돌에서 출토된 흠이 파인 돌판에 우선 주목하였다. 아득이 고인돌 돌판의 구멍들에 대해서 이용조는 이미 별자리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별그림이 그려진 고구려 시대의 벽화고분과의 관념적 연관성을 지적하였다.⁷⁾ 김일권 역시 이 돌판의 구멍들이 별자리일 가능성을 재 강조하였다.⁸⁾

본 논문에서는 이 돌판 구멍들의 분포와 고구려 고분의 별자리, 북한에서 발견한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 청동기 시대의 실제 하늘의 별자리 배치와의 상호 유사성을 검토·측정함으로써 이 구멍들이 북극 근처의 별자리를 나타내고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아득이 고인돌의 별자리 검증

7) 이용조, 1978, 앞의 보고서.

8) 김일권, 1998, 앞의 논문.

아득이 고인돌이 축조된 시기는 청동파편, 가락바퀴, 돌끌, 흙날석기, 민무늬토기 등 부장품의 성격으로 보아 청동기 시대의 중기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⁹⁾ 탄소연대측정으로 시대가 알려진 고인돌들부터 우리나라에서 고인돌이 축조된 시기는 서기전 약 3000년대부터 서기 2세기 사로이라고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는 탄소연대측정을 통해 고인돌 축조 시대가 평안남도 증산군 룡덕리 고인돌의 경우 서기전 약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춘천 중도나 고창 운곡리 고인돌처럼 서기 2세기까지 늦게 축조된 고인돌이 남한에서 발견된 바도 있다.¹¹⁾

아득이 고인돌에서 출토된 돌판에는 흙(성혈)이 65개 새겨져 있다. 그림 2에 흙들의 위치를 재현해서 그렸고, 그림 3에는 크기 분포를 그렸다. 이 돌판은 사암질 퇴적암으로 대략 가로 23cm, 세로 32cm, 그리고 두께가 3.5cm 정도로서 직사각형 모양의 판상을 이루고 있다. 일부 모서리에서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 돌판의 일부를 떼어 낸 것으로 보인다.

별자리를 새긴 앞면은 평평한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상태로 보아 이것은 인위적으로 연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뒷면은 돌의 조각을 떼어내면서 거칠게 가공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돌판의 앞면은 오랜 세월 동안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수에 의해 전체 표면이 침식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한 쪽 방향(그림 1의 상단 우측)으로 그 침식의 정도가 약간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갈라진 틈새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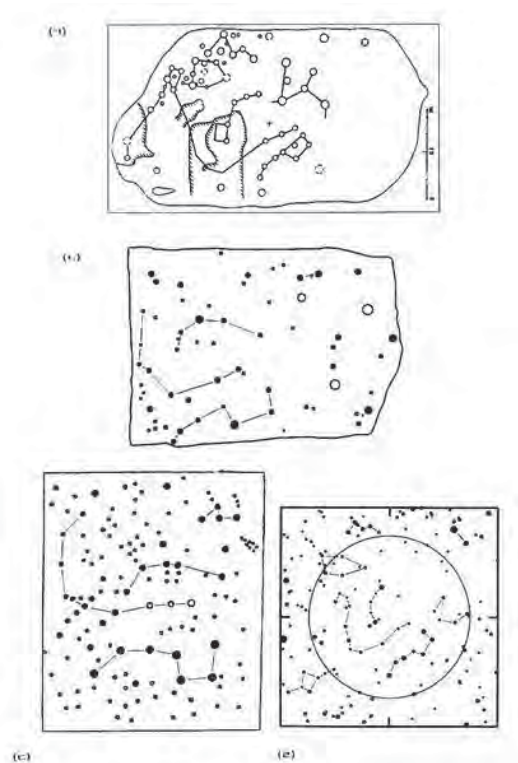
앞면에 새겨진 작은 흙들의 중심 부분은 대부분 정교하게 연마되어 있다. 그 특징으로 보아 흙의 대부분은 끝이 뾰족한 금속성 송곳으로 세심하게 가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별로 보이는 흙들은 깊이와 크기가 각기 다른 것으로 보아 별의 밝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흙들의 깊이를 네 종류로 분류하여 측정하고, 각 흙의 지름을 2-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해 보았다. 그 결과 각 흙의 깊이와 별의 밝기와는 관계없어 보였다.(중략)

흙의 지름은 대응하는 별의 밝기와 약간의 관련성이 있다(그림 4 참조). 이 흙들 중에서 특이한 것은 쪼아서 새긴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 세 개는 깊이가 매우 얇으나 크기는 다른 흙에 비하여 대단히 크다(그림 2 참조).

9) 이웅조 · 우종윤 편저, 1998, 『선사유적 발굴도록』 (충북대학교 박물관).

10) 조선기술발전사 편찬위원회, 1997, 앞의 책.

11) 임효재 · 양성혁, 1999, 『강화도 고인돌군 - 정밀지표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그림 4]

(ㄱ) 함경남도 함주군 지석리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 (ㄴ)반전시킨 아득이 돌판 구멍 분포 그림.
(ㄷ) 평양시 무진리 진파리 4호분의 별 그림. (ㄹ) BC 500에 북극 근처의 4.5등급보다 밝은 별들

아득이 고인돌 돌판의 구멍들이 별자리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종류의 비교 자료를 선정하였다. 첫째는 이미 별자리임이 확인된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벽화와 북한 고인돌 덮개돌에 새겨진 별그림이다. 이들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까닭은 천구 상에서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별들 중에 고대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며, 무덤에 기록될 만한 별들은 아무래도 이미 확인이 된 고대인들의 별자리 선택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시대와 청동기 고인돌 시대가 약 500년에서 2,000년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현존 자료로서는 고구려의 고분 별자리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청동기 시대에 가장 가까운 시대의 고대천문지식이기 때문에 비교할 가치가 있다. 또한 북한에서 보고된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들과 비교하는 것도 동시대의 별자리들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아득이 고인돌 돌판의 구멍들의 분포를 비교할 대상으로 당시 별들의 실제 위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구멍들이 실제 하늘에서의 별 분포를 반영하는지 직접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교 대상으로 이용하려는 고구려 고분 별자리의 동정이 북두칠성과 같은 일부 분명한 별자리 이외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비교 별자리로 이용할 고구려 진파리 4호 고분 별자리 그림에 대해 북한의 리준걸은 이것이 28宿를 모두 그려 넣은 그림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득이 고인돌의 돌판 구멍들이 진파리 4호 고분 별자리와 유사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북두칠성 이외의 다른 별들이 실제로 어떤 별자리인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학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문제는 고대 유물에 그려진 별자리의 모양과 분포를 실제 별자리와 직접 비교함으로써 해답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득이 고인돌 돌판 구멍들과 실제 별들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하여 서기전 500년에서의 별들의 위치를 계산하여 이용하였다.¹²⁾

그림 4에 (ㄱ) 함경남도 함주군 지석리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와 (ㄴ) 반전시킨 아득이 돌판 구멍 분포 그림, (ㄷ) 평양시 무진리 진파리 4호분의 별그림, 그리고 (ㄹ) BC 500에 북극 근처의 4.5등급 보다 밝은 별들의 모습을 비교하였다. 서기 약 6세기에 축조된 진파리 4호 고분 천장에는 약 136개 별들이 그려져 있다.¹³⁾ 별그림이 이미 많이 훼손이 되서 금분이 떨어져 나간 작은 별들은 속이 빈 원으로 표현하였다. 이 별들은 서로 다른 크기로 그려졌으며, 별 사이의 연결선이 없다. 이 그림이 별자리를 나타낸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유별나게 크게 그려진 북두칠성 때문이다. 별그림이 밀집되고 연결선이 없이 그려진 까닭에 북두칠성 이외의 다른 별들에 대한 동정은 쉽지 않은데 리준걸은 이 별들이 28수를 간략한 방법으로 그려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⁴⁾

황도 주변의 주요 별자리 28개를 선정하여 하늘을 28개 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중국에서 이미 서기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고구려 고분의 별자리 그림이 중국 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근거는 4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는 여러 벽화고분의 별자리 그림에서 28수의 한자 이름과 각 별자리를 그려 넣은 방위와 연결선 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¹⁵⁾ 그러나 진파리 4호 고분의 별자리 그림은 천장 전면에 글이나 연결선 없이 그려 넣은 것으로써, 이러한 주장은 28수 별자리를 진파리 4호 고분의 별들과 무리하게 동정한 결과일수도 있다.

아득이 고인돌 돌판에 새겨진 홈들의 분포에서도 북두칠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림 2에 나타난 구

1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제 별자리 모습은 세차운동과 함께 고유운동도 고려하였다. 별자리의 모양은 별들의 고유운동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나 그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축조시기에 대한 가정은 본 연구의 별자리 同定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 리준걸, 「28수를 다 그린 진파리 4호 무덤」, 『역사과학』 1981-3, p. 46; 리준걸, 「고구려 벽화무덤의 별그림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9, 1984, p. 2.

14) 리준걸은 이 고구려 별자리 지식을 조선 초에 만들어진 석각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와 연관시켰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쓰인 양촌 권근의 도설에 따르면 이 천문도는 원래 고구려 천문도이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천문도의 원 관측시점이 고구려 초기인 서기 약 1세기임이 최근 발견되었다. 박창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그림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20, 1998, pp. 113-149.

15) 6세기 경에 지어진 평남 대동군 덕화리 2호분이 대표적 예이다. 리준걸, 「덕화리 2호 무덤의 별그림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1-1, 1981.

멍들의 분포에서 왼쪽 아래에 북두칠성과 같은 배열을 이루는 별 7개를 볼 수 있다. 이 배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의 북두칠성의 모습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별자리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투영하는 방법은 고구려나 고려 고분 별자리 그림에서부터 조선말까지 자주 사용되어 왔던 투영법이다.

예를 들면 조선말 남병길은 별 목록 검 성도를 편찬했는데 그 이름이 성경星鏡이다. 이 이름에서도 별그림은 하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본 것이라는 개념이 예로부터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천 성도를 천구 바깥에서 내려다보는 투영법으로 그린 조선말의 주천성수도周天星數圖, 고려말 권준의 묘인 서곡리 벽화묘(1352) 천장에 모습이 반전되어 그려진 북두칠성, 안악 1호분(4C말-5C초), 덕흥리(408년), 약수리(5C초) 고분 같은 초기 고구려 벽화고분들의 반전된 별그림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반면에 그림 4ㄷ의 진파리 4호 고분(6C초)의 천장 별그림의 북두칠성은 하늘을 바로 올려다보았을 때의 모습이다.¹⁶⁾ 따라서 두 그림을 쉽게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4ㄴ에 아득이 돌판의 별그림을 뒤집어 그렸다.

그림 4에서 지석리 고인돌과 아득이 고인돌, 진파리 4호분 별그림들을 비교하면 세 그림에서 별들의 분포의 유사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있는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북두칠성을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열을 이루는 3-5개의 별, 다시 그 위에 C자 꼴을 이루는 5-6개의 별, 북두칠성의 두 끝 별을 연장하였을 때 돌판 중심 바로 옆에 있는 별, 그 별의 위에 있는 일군의 별들이 완벽한 일대일 대응은 아니지만 우연으로 보기 힘들 정도의 일치치를 보인다. 이들은 그림 4ㄷ과 비교하면, 각각 용자리·작은곰자리·북극성·케페우스나 카시오페아 자리 등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¹⁷⁾

돌판의 흠들을 실제 별들과 명확히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별자리를 나타낸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별이 없어야 하는 지역이 일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림 4를 보면 북두칠성과 용자리, 작은곰자리, 케페우스, 카시오페아 자리의 오른 쪽의 약간

16) 한편 고구려 벽화 고분에서 별자리 투영법은 한 별그림에서도 별자리마다 다른 투영법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북두칠성과 남두육성 중에 남두육성을 뒤집어 그림으로써 두 별자리가 서로 마주보도록 그린 경우이다 (각주 17 참조).

17) 한편 북두칠성만을 보았을 때 아득이 돌판의 구멍 분포에서 북두칠성을 그림 4ㄴ에 그린 연결선과 같이 동정을 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은 실제 모습에서는 약간 앞쪽으로 꺾여졌다가 맨 끝 별은 다시 뒤로 꺾여져 있다. 그러나 손잡이 부분을 국자 부분에 대하여 앞 쪽으로 꺾지 않고 곧게 그리거나 뒤쪽으로 꺾어 그린 북두칠성은 그림 4에 함께 보인 지석리 고인돌이나 진파리 4호분에서 뿐만 아니라 고구려 벽화고분의 별자리 그림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덕화리 1호와 2호분(5C말-6C초)이 그 대표적 예이며, 안악 1호분, 약수리 고분, 삼실총(5C 전반), 천왕지신무덤(5C 중엽), 장천 1호분(5C 중엽), 대안리 1호분(5C 후반), 쌍영총(5C 말), 수렵총(5C 말), 집안 오회분 4호묘(6C 전반), 통구사신총(6C 후반) 등 북두칠성이 그려진 고구려 고분의 반 이상에서, 그리고 전 기간에 걸쳐 발견된다.

북두칠성에 대한 동정은 그 주변 별자리와의 상대적 형태를 고려하면서 수행할 때 그림 4에 보인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그림 4에서와 같은 동정은 다음 절에서 컴퓨터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수행한 동정과도 일치한다.

길쭉한 지역에는 밝은 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4ㄴ의 아득이 돌판에서도 같은 위치(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의 길쭉한 지역)에 흠들이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그림4ㄴ에 보인 아득이 돌판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별들은 별자리 모양을 이용하여 동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이 부분이 침식이 많이 된 부분이고, 그 의미가 확실치 않은 쪼아서 새긴 아주 큰 별들이 세 개(속이 빈 원들로 표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오른쪽 끝의 중앙에 있는 두 밝은 별은 마차부 자리에, 이 별들과 북두칠성 사이에 있는 일련의 별들은 큰곰자리에서 곰의 머리와 앞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진파리 4호분의 별그림에는 지름이 3.5cm에서 0.7cm 사이인 별들이 약 136개 있다.¹⁸⁾ 그러나 크기가 아주 작은 별들을 무시하면 그림4ㄴ에 비교한 것처럼 북극 근처의 별들의 분포와 매우 비슷하다. 리준걸은 이 별그림의 별들 모두를 간략화한 28수 별자리들로 동정하였다. 그러나 별자리의 형태 문제 이외에도 이러한 주장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첫째는 리준걸의 동정에 따르면 진파리 4호분의 별그림에서 28수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분포하게 되는데 이는 실재와 반대 방향이다. 둘째로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이 함께 그려진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는 예외 없이 남두육성이 크게 강조되었으며, 반드시 북두칠성의 맞은편에 나타난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남두육성을 반전시켜 북두칠성과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하였다.¹⁹⁾ 따라서 리준걸의 동정에서처럼 남두육성이 매우 작은 별자리로서 북두칠성의 뒤에 나타나는 경우는 고구려 별그림의 기본 형식에서 크게 어긋난 것이다. 또한 리준걸이 진파리 4호분에서 동정한 28수들은 별자리의 상대적 크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별의 크기와 대응 별들의 실제 밝기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로부터 볼 때 리준걸의 28수 동정은 진파리 4호분의 별 그림을 천상열차분야 지도와 관련지으려는 무리한 의도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B. 고구려 고분 벽화의 주요 별자리

「고구려 고분벽화의 북극성 별자리에 관한 연구」에서 김일권은 고구려 고분의 주요 별자리를 북두칠성, 북극3성, 남두육성 등으로 보고하였다.²⁰⁾ 다음은 위의 논문에서 발췌한 일부분이다.

18) 리준걸, 1981과 1984, 앞의 논문.

19) 이러한 예는 덕흥리 고분(북두칠성과 남두육성 둘 다 반전), 각지총(남두육성만 반전), 삼실총(남두육성만 반전), 덕화리 1호분과 2호분(모두 정상), 집안 오회분 4호와 5호묘(남두육성만 반전), 통구사신총(남두육성만 반전) 등이다. 김일권(1996, 백산학보, 제47호, 62)의 고구려 고분 별그림 참조.

20)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북극성 별자리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 5집 (고구려 연구회, 1998, 6)

1. 고구려의 「북극3성 · 북두칠성」 그림 형식

한국의 고구려시대에 그려진 별자리²¹⁾ 그림에는 북두칠성과 함께 북극성좌로 생각되는 3성이 그려져 있다. 이런 「북극3성 · 북두칠성」 형식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고구려 고분벽화 중 집안 오회분 4호묘 · 5호묘 및 통구 사신총의 북쪽 별자리로 그려진 “북두칠성 - 대소 3성” 체제이다. 대소 3성은 가운데 별이 좌우별보다 더 크게 강조되어 있으며, 이 세 고분에 똑같은 구도로 북두칠성과 함께 그려져 있다. 또한 소위 사방위 표지 체제인 북두칠성 · 남두육성 · 일상 · 월상과 같은 칸이 아니라 가운데 천정 막음돌의 북쪽 부분에 그려져 있어 북극성 별자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운데 큰 별이 아마 북극성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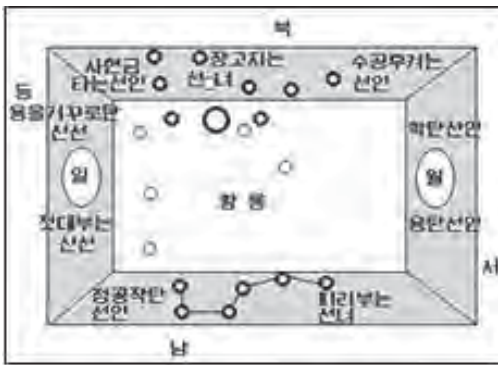


그림 1 집안오회분4호묘 안칸 천정 성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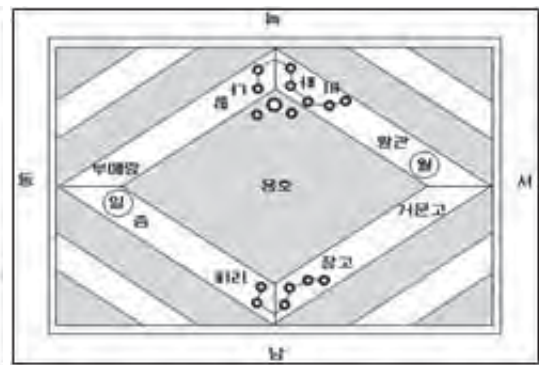


그림 2 집안오회분5호묘 안칸 천정 성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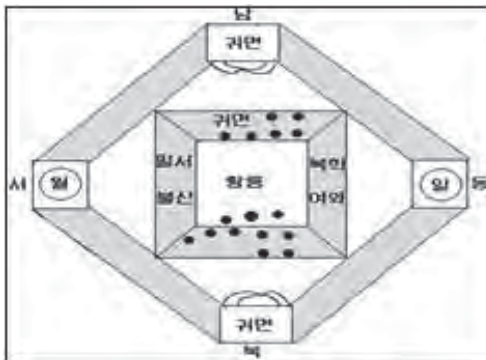


그림 3 통구사신총 안칸 천정 성수도



그림 4 약수리고분 북벽별자리 및 현무도

21)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 그림 考定」(김일권, 1996)

이 집안 지역의 세 고분 별자리는 동쪽의 일상과 서쪽의 월상 및 북쪽의 북두칠성, 남쪽의 남두육성이라는 동일한 구도의 천문 방위 표지 형식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들이다. 여기서와 같이 남두육성을 남방 지표로 삼는 체계는 중국이나 일본의 성수도에는 보이지 않는 고구려만의 특징적인 형식이다.²²⁾ 이 일월과 남북두 별자리 외에 북쪽 북두칠성 아래쪽에 그려진 삼성 형식 또한 세 고분에 공통적인데, 역시 고구려에만 보이는 형식이다.

이 때 북극3성 배치 모양은 일직선 배열(집안오호분 4호묘, 통구사신총)이기도 하고, 삼각형 배열(집안오호분 5호묘)이기도 하다. 이중 삼각형 배치의 3성은 이들 고분보다 앞선 시기의 약수리 고분(5C초) 북쪽 북두칠성 아래에 그려진 3성(연결선이 있는 고갈 모양)과 서로 통하는 구조이다. 약수리 고분의 이 ㄸ모양 3성을 직녀성이라고 한 연구가 있으나,²³⁾ 직녀성이 북두칠성과 함께 북쪽에 출현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극3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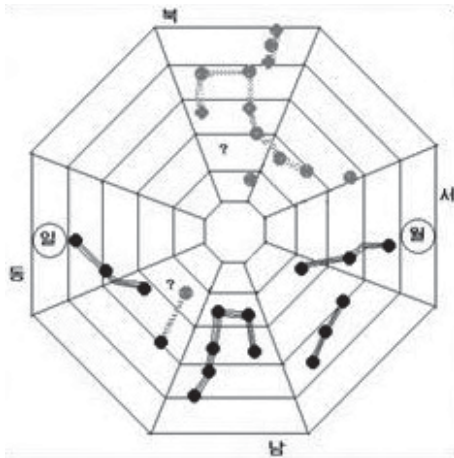


그림 5 각저총 안칸 천정 성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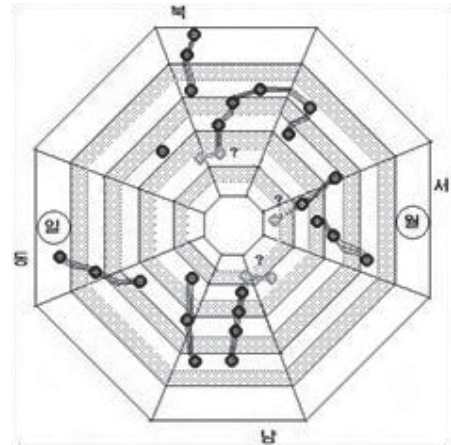


그림 6 무용총 안칸 천정 성수도

또한 일직선 배열의 3성 형태는 각저총, 무용총에서 북두칠성 아래쪽에 그려진 북쪽의 3성 별자리와 같은 구조로 생각된다.²⁴⁾ 이때까지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한 바가 없었으나, 위에서 제시한 6개 고

22)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진단학보』 82호, 진단학회, 1996년);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思想 특징」(『고구려연구』 3집, 고구려연구회, 1997)

23) 리준걸, 「고구려 벽화무덤의 별그림에 대한 연구」(『고고민속논집』 9, 1984), p.34

24) 리준걸(『고구려 벽화무덤의 별그림에 대한 연구』, p.38)은 이 3성 별자리를 翼宿라고 동정하였지만, 무용총과 각저총의 남북 방위를 전도시킨 채 진행한 작업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묘사 방위 오류문제에 관해서는 「고구려 고

분의 별자리 그림을 비교할 때 북극3성으로 고정된다.

이렇게 되면, 각저총이나 무용총의 별자리 그림들의 의미가 대체적으로 밝혀지는 셈이다. 동남 방향의 일상 윗부분에 그려진 쌍삼성(각저총의 경우 퇴색이 심하여 현재 2성 정도만 보인다. 아마 원래는 3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과 서남 방향의 월상 윗부분에 그려진 쌍삼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미 동서 방위를 표지하는 방위 별자리일 것으로 천착한 바 있다.²⁵⁾ 그 다음 남쪽의 남두육성(무용총의 경우 「자 모양이어서 국자(斗) 모양은 아니지만 각저총과의 전체 별자리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 또는 그 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남두육성 관념이 매우 발달한 점 등을 근거로 남두육성 별자리로 파악하였다.)과 북쪽의 북두칠성 역시 남북의 방위 별자리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천착하였다.²⁶⁾ 여기에 덧붙여 북두칠성 윗쪽의 일직선 형태의 3성은 이제 북극3성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결국 아직 고정되지 않은 것은 북두칠성 자루 주변에 연결선이 없이 독립되어 있는 홀별들 3개(각저총은 2개, 무용총은 1개)이다. 이 중 각저총의 경우 북두칠성 자루 부분의 홀별 하나를 보성(자루 부분의 2번 째 별이 쌍성인데서 연유한 별)으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그 외 각저총과 무용총에서 북두칠성 자루 끝 바깥에 유사한 위치로 그려져 있는 홀별이 무슨 별인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Ⅲ.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유물 고인돌

A. 우리나라의 고인돌

고인돌은 선사시대 돌무덤 유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만주, 일본, 유럽, 북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분포한다. 고인돌을 지석묘支石墓나 거석巨石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지석묘支石墓, 중국에서는 석봉石棚, 대석개묘大石蓋墓, 기타 유럽지역에서는 돌멘Dolmen, 거석Megalith 등으로 부른다. 고인돌은 땅속이나 땅위에 주검을 안치하고 그 위에 돌을 얹는 방식의 무덤 또는 제단의 일종이다.

국내의 고인돌은 돌칼, 화살촉, 토기 등의 부장품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철

분벽화의 별자리그림 考定(김일권, 1996ㄱ)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25) 그 중 동쌍삼성은 전갈자리의 心宿와 房宿로 동정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김일권, 1996ㄴ) 및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思想 특징』(김일권, 1997)

26)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김일권, 1996ㄴ),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思想 특징』(김일권, 1997) 참고

기시대 초기에 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고인돌은 북유럽, 서유럽, 지중해연안, 인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등 거의 세계 전역에 분포하는데, 그 중 동북아시아의 중국에는 절강성에 40여 기와 요령성에 300여 기가 있으며, 일본에는 600여 기, 한반도에는 3만여 기가 분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고인돌의 대표적인 나라의 위치를 점한다.

국내의 고인돌은 북방식, 남방식, 개석식 등으로 나뉜다. 북방식은 넓고 편편한 2~4개의 판석을 땅 위에 세워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방을 만든 다음 시신을 안치하고 그 위에 덮개돌을 얹는 식이다. 책상을 닮았다 하여 탁자식으로도 부른다. 외삼미동의 고인돌이 여기에 속한다.

남방식 고인돌은 먼저 묘실墓室을 지하에 만들고 그 주위에 4~8개의 받침돌을 놓은 뒤 커다란 돌로 덮는 것으로, 바둑판 모양이라 하여 기반식碁盤式으로도 부른다.

개석식 고인돌은 지하에 만든 무덤방 위에 바로 덮개돌을 놓은 형식이다. 금암동의 고인돌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북방식 고인돌은 한강이남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전북 고창에서 발견된 북방식 고인돌이 최남단의 것이다. 남방식 고인돌은 전라도 지방에 밀집 분포하며, 경상도와 충청도 등 한강이남 지역에서도 많이 보인다. 한편, 개석식 고인돌은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선 1910년 일본인 도리이에 의해 매장지로 밝혀진 이래,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평안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국의 고인돌은 형태에 따라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구분된다. 북방식은 탁자형으로, 장방형의 판석 4~5 개를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대형 뚜껑돌로 덮은 것이다. 그리하여 묘실이 지상에 나와 있다.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청동기시대, 일본은 조몬 후기에서 야요이 중기까지, 동남아시아는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에 이르는 시기, 서유럽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시대 초기까지 많이 나온다. 인류가 거석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남기게 된 것은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한 재료로서 거석을 이용하였다는 점 외에도 거석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다는 의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거석에는 정령이 있으며 인간의 길흉화복이 정령에 의하여 좌우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다. 이렇듯 거석을 숭배하는 의식이 고인돌 축조의 바탕에 자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석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의식, 또는 거석을 숭배하는 것을 만물숭배신앙Animism이라고 하는데 고인돌은 선돌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석문화의 요소이며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강화도에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인 고인돌 무덤이 80여 기가 분포되어 있다. 강화도 하점면

부근리를 중심으로 거의 강화 전역에 남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강화도가 일찍부터 인류가 생활하기에 적당한 기후조건, 기름진 토양을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3천 년 전쯤, 청동기를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 만주와 몽고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들은 목축과 농사짓는 기술이 발달해 있었고, 잉여농산물을 축적할 줄 알았으며, 자연 집단과 조직이 이루어져 계급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계급이 높은 족장이나 지배자가 죽으면 당연히 많은 공력을 들여 무덤을 만들었다. 이때의 무덤은 죽은 이에 대한 숭배와 신전의 기능까지 겸했다는 학설이 가능하다.

이들의 무덤은 대개 고인돌, 독널, 독무덤 등이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이며 대표적인 무덤이 고인돌무덤이고, 이는 다시 북방식 남방식 개석식으로 구분된다.

북방식 무덤은 일단 그 모습이 씩씩하고 장쾌하다. 4개 혹은 2개의 높은 궂돌을 세운 위에 하나의 평평한 덮개돌을 얹었는데, 시신이 매장되는 돌방을 지상에 노출시킨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방식 고인돌은 평안남도, 강화도 하점면 부근리, 황해도 은율군 재령강 황주천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남방식은 낮은 몇 개의 밑돌을 놓고 둥그런 윗돌을 얹는데, 마치 얹은뱅이책상과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바둑판식이라고도 불린다.

북방식과 남방식을 쉽게 구분하자면 긴 탁자 다리 모양으로 궂돌이 위로 올라온 것은 북방식, 짧은 다리에 윗돌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남방식으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시신을 주로 지하에 안치하는 남방식 무덤은 전북 고창 아산면 상갑마을을 비롯한 호남지방과 경상도지방 등 주로 한강 이남에 분포하고 있는데, 강화도에는 북방식과 남방식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어떤 것은 형식이 모호한 것도 있다.

개석식은 돌방사이에 받침돌이 없이 지표면에 덮개돌이 올라앉은 형식이다. 이를 '무지석식' 또는 '농인 형 고인돌'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장 간편한 방식인 개석식은 한반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고인돌의 형태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은 집을 연상시키는 만큼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집을 지을 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다. 또 고인돌무덤은 대개 긴 쪽을 정면으로 삼아 남쪽을 향하고 있어 이미 방위를 구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시신을 안치할 때 부장품을 함께 묻기도 한 것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강화도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에서 북쪽으로 약 150m 쯤 떨어진 곳에도 고인돌이 하나 있다. 본래 사적 제137호의 고인돌무덤과 한 쌍이었으나 석재가 모두 파손된 채 궂돌 하나만 남아 있다. 또 하점면 삼거리에 닿기 전의 논 한가운데에도 매우 크고 잘 생긴 고인돌무덤이 있어 만나 볼만하다. 강화도는 고인돌 무덤만 찾아다녀도 하루해가 짧을 만큼 고인돌 무덤의 분포도는 넓고 그 수가 많다.

고인돌 무덤에서 돌검과 화살촉이 주로 출토되는데, 충북 제원군 황석리 고인돌에서 발견된 돌검은 세형동검보다 연대가 앞선 것으로 알려져 고인돌은 금석병용기의 모체가 아니라 청동기시대의 모체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 외에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만 축조가 가능했으리라고 볼 때, 고인돌은 고대국가 발생 이전의 계급사회인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족장사회의 공동묘지이며 세습신분까지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고인돌은 바위틈이나 인공적인 구멍에 나무썰기를 박아서 물로 불려 큰 바위에서 떼어낸 돌이나 자연암석 그대로를 사용하여 지렛대와 밧줄과 수로를 이용, 운반하고 뚜껑돌을 들어 올릴 때는 받침돌을 세우고 그것과 같은 높이의 봉토를 쌓아 경사면을 만들어 끌어올린 후 봉토를 제거하는 방법을 써서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에서 고인돌의 기원은 시베리아 카라스크 돌널무덤 계통의 거석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북방설, 세골장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보는 남방설, 한반도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자생설 등이 있으나 아직 확실한 정설은 없다. 한편 한반도 북부에서 북방식 고인돌이 먼저 나타나서 그것이 점차로 남부로 퍼지고, 이어서 개석식 고인돌이 파생하였으며 또 남부에만 있는 남방식 고인돌은 말기적 형식으로 보는 설이 있다. 그러나 개석식 고인돌을 원초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북부에서는 북방식 고인돌로, 남부에서는 남방식 고인돌로 발전하였다고 하는 다른 설도 있다.

고인돌은 거석문화巨石文化의 하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거석문화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고대 인류의 무덤으로서의 고인돌은 지상이나 지하의 무덤방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덮은 것이다. 더러는 자기 영역의 경계를 나타내거나 강성한 힘을 외부에 표시하는 표석 상징물이기도 하다. 또한 종족이나 집단·사회의 모임장소이기도 하고 의식을 행하는 제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선돌立石, 열석列石, 돌널무덤石棺墓, 돌무지무덤積石墓 등 다양한 형태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고인돌은 다른 어느 민족이나 나라보다 그 수효가 많다.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으로써 우리 민족 활동무대 전역에 걸쳐 분포한다. 한반도에만 하더라도 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동강유역과 전남지방에서 가장 밀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방의 경우 2천 2백여 곳에서 모두 1만 9천여 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으며 대동강 유역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남과 황해도 일대에 1만여 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전북에서도 고창지역의 1천 2백여 기를 포함하여 1천 8백여 기에 이른다. 이외 지역에서는 1백 내지 2백여 기의 고인돌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유럽 전 지역에서는 약 5만 5천여 기가 발굴되었고 그 중에서도 순수 고인돌은 수천 기에 지나

지 않는다. 동남아에서는 그나마도 수백 기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해 보면 고인돌이 3만여 기에 이르는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조밀한 분포권을 보여주는 고인돌의 전시장인 것이다.

신석기시대까지 인류 사회는 원시공동체 사회였다. 모여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똑같이 나누어 쓰던 사회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사람이 따로 없었다. 그러나 농업의 발달로 생산물이 증가하면서 자기 것이 생기게 되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권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B. 선사문화와 국가 형성

우리나라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생활을 개선해 나갔다. 그리하여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사회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구석기 시대에는 채집과 사냥을 주로 하면서 무리 생활을 하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시작되었으며,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서 움집을 짓고 정착생활을 하였다. 신석기 시대의 사회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부족사회였으며, 평등 사회였다.

청동기 시대는 BC 10세기경으로 사회적 변화와 전문적 분업 형성, 사유 재산과 계급의 발생의 시기였다. 이 당시의 유물은 석기, 청동기, 토기, 무덤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석기에는 반달돌칼, 바퀴날 도끼 등이 있고, 청동기에는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화살촉 등이 있으며 토기에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등이 있으며 무덤에는 고인돌, 돌무지, 무덤, 돌널무덤이 대표적이다.

청동기 시대의 생활은 생산 경제의 발달로 흙자귀, 반달 돌칼 제작, 벼농사가 시작되었고 가축사육 증가와 주거지 직사각형의 움집에서 지상 가옥화, 가족 단위의 가옥이 모여 취락 형성되었으며 사회 변화 남녀의 역할 분화 남성 중심의 경제 활동, 사유 재산세로 계급 분화축진으로 군장 사회의 출현과 선민사상, 고인돌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청동기 시대의 예술의 특징은 예술과 종교의 밀착, 주술 의미의 신앙이었으며 청동제 의기와 토우는 장식 용도와 주술적 의미를 가졌고 바위그림으로 올주 반구대의 풍성한 수확 기원, 고령 바위그림의 동심원 태양 숭배, 풍요의 기원이 주류를 이루었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의 학술 가치로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무덤을 들 수 있다. 비파형 동검은 요녕식 동검이라고도 하며 이 동검은 요령, 길림을 포함한 중국 동북지방에서 한반도 전역에 걸쳐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한반도와 요령 지방은 같은 청동기 문화권으로 중국과는 구별되는 문화권임을 알려주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문화권은 동이문화권의 동이계東夷系이

고 중국의 문화권은 서이문화권의 서이계西夷系로 분류하기도 한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무덤은 고인돌인바, 그 성격은 지배층의 경제력과 정치권력 반영이며 시대가 흐를수록 무덤의 구조가 지하로 들어가고 여러 개의 받침돌이나 돌무지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청동기를 가진 지배 부족은 자신들이 천신天神의 후예임을 내세워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는 토착 부족을 다스리기 위해 선민사상을 내세웠다.

청동기 시대는 그 전 단계인 신석기시대와는 사회적 구성단위가 많이 달라졌다. 씨족 사회의 구성단위가 정착생활과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중심의 부족사회로 변모하였다. 또한 청동기 문화의 발달로 인한 생산력의 향상은 계급을 발생시켰고 우수한 청동제 무기의 출현은 부족 간의 전쟁을 유발하여 새로운 예속관계를 초래했다.

청동기의 보급이 북부지방으로부터 전래됨에 따라 한강 이북 지방에서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통치자가 지배하는 부족국가가 탄생, 발생하였으며 청동기의 전래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남부지방은 강력한 부족국가의 출현을 더디게 했다.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사회상을 대변하는 것이 고인돌이다.

탁자 모양의 북방형 고인돌은 중국 요하 동쪽부터 한반도 중부 이북지방에서 주로 발견되며 대개 전망 좋은 언덕에 한두 기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그 모양은 고임돌이 크고 높은 것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자식 고인돌이다.

바둑판형의 남방식 고인돌은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주로 발견되며 야트막한 구릉에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그 모양은 고임돌이 작고 낮은 것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둑판형 고인돌이다.

청동기 전래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북부지역은 강력한 통치자가 존재하는 선진적인 곳으로 많은 인력동원과 경비를 들여 탁자모양 고인돌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지역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위치했던 지역과 일치하고 있어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남부지방은 청동기의 전래도 늦었고 사회적 변화도 뚜렷하지 않았다. 북부지방과 같이 위협적으로 축조하지 않고 한 곳에 여러 기의 고인돌이 발견된다. 이런 점으로 보아 소수의 권력자나 공동체의 일반 성원들이 일종의 품앗이 형태로 고인돌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C. 강화도의 고인돌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황해도 은율군, 경기도 강화군에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강화도는 우

리나라 북방식 고인돌의 보고寶庫이다. 그 중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소재의 고인돌 사적 137호는 그 규모에서 단연 압권이다. 청동기 시대 족장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강화도의 고인돌군은 해발 436m의 강화도 고려산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대략 130여기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적 137호로 지정된 강화도의 고인돌은 그 중 북방형 탁자식 고인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덮개돌의 무게만도 8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인 장정 200~300명이 필요하므로 이 지역에 강력한 정치권력을 가진 부족국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지석묘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의 하나로서, 이것은 탁자 모양의 북방식 지석묘이다. 북방식 지석묘는 강화, 인천, 수원, 이천을 연결하는 선을 한계로 그 북쪽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 지석묘는 높이 2.6m, 개석의 길이 7.1m, 너비 5.5m나 되는 거석으로 되었다. 크기로 볼 때 남한 최대의 것이다. 강화도 고인돌에 묻힌 사람은 당시의 족장이거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강화도 하점면 부근리에 들어서면 밭 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고인돌이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 이를 반긴다. 이 고인돌은 북방식 무덤인데 우리나라 고인돌 중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이며, 씩 잘 생긴 고인돌이다. 비스듬히 경사를 이룬 궂돌 위에 거대한 화강암 덮개돌을 올렸다. 길이 7.1m, 너비 5.5m에 50톤 무게의 덮개돌이다.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장정 500명은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렇다면 당시 장정 한 사람이 거느린 가족을 5명으로 잡아도 이 무덤의 주인은 2,500명 이상을 거느린 막강한 족장쯤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래 두 개의 석실이 있었으나 모두 없어졌다.

강화도에는 선사시대 유물 유적이 풍부하다. 그 중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처음 발견된 곳은 하도면 동막리이며 1916년의 일이다. 이후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빗살무늬토기가 이곳 하점면 삼거리 양도면 도장리 등지의 해안에서 발견되었다.

강화도 고인돌의 궂돌은 대부분 동서남북의 4개이다. 동쪽과 서쪽에 세로로 세운 2개의 궂돌은 덮개돌을 받치는 역할을 하고 남북에 세운 2개는 벽을 막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오산시 외삼미동 고인돌의 궂돌은 2개이다. 동쪽과 서쪽에 가로로 누인 2개의 궂돌은 덮개돌을 받치는 역할을 하고 남북을 막아 세운 궂돌은 보이지 않는다. 본래 남북을 막아 세운 2개의 궂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다.

다음은 강화도 고려산의 탁자식 고인돌과 오산시 외삼미동의 탁자식 고인돌이다. 두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를 뚜렷이 알 수 있다.



도4. 강화도 고려산의 탁자식 고인돌



도5. 오산시 외삼미동의 탁자식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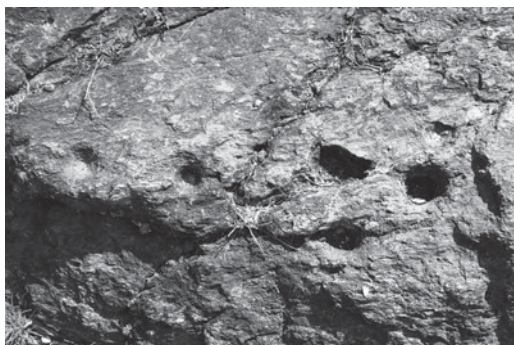
D. 제천시 청풍면 황석리의 고인돌

충청북도 제원군 청풍면 황석리 일대도 대표적인 고인돌 지역이다. 남한강 상류지역인 청풍면은 과거 수려한 경관과 전통을 자랑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이 고장의 역사와 자취는 수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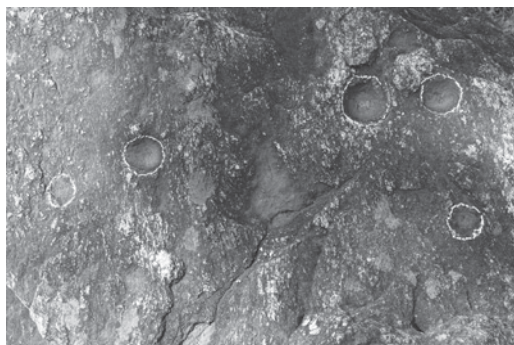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몰 위치에 있던 이 고장의 유적들은 청풍 문화재 단지로 옮겨 보전하고 있다. 수몰되기 전 이곳의 드넓은 계곡에는 수많은 개석식 고인돌이 줄을 이었다. 이곳의 남한강 옆 충적대지 위에 2줄로 46기 이상의 고인돌이 있었다. 1962년, 국립박물관에서 2차에 걸쳐 18기를 발굴 조사하였고, 1982~1983년에는 충주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로 충북대학교 팀이 8기의 고인돌을 발굴하였다.

청풍면 황석리에서 발견된 개석식 고인돌의 특징은 덮개돌에 별자리 문양의 성혈이 있다는 것이다. 그 형태는 북두칠성 문양의 별자리 성혈이다.

다음은 오산시 외삼미동 고인돌의 성혈과 흡사한 제천시 청풍면 황석리 고인돌이다. 두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별자리 성혈이 맞는다는 공통점을 알 수 있다.



도6. 제천시 청풍면 고인돌의 성형



도7. 오산시 외삼미동 고인돌의 성형

IV. 우리나라 하늘의 주요 별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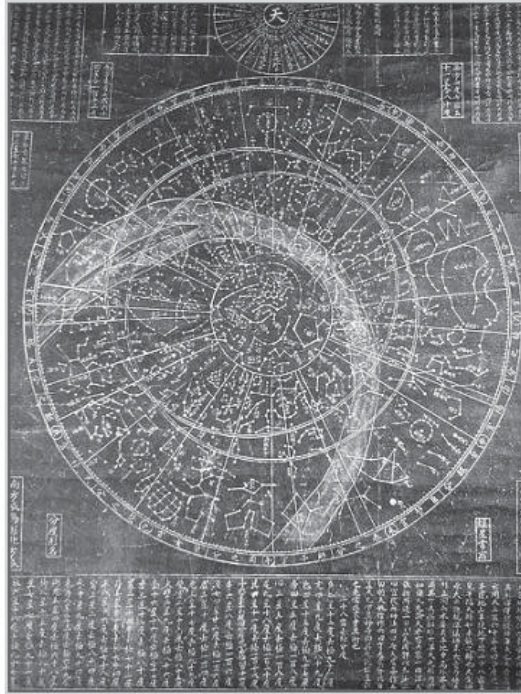
A.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²⁷⁾가 전시돼 있다. 1395년 권근(權近)이 제작한 조선시대의 천문도이자 고구려의 천문도이다. 가로 123cm×세로 210cm 크기의 이 천문도에는 북두칠성 등 290개의 별자리에 1,469개의 별이 새겨져 있고, 적도와 북극, 은하수까지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하단부에는 평양성이 함락될 때 강물에 던져버린 고구려 천문도 탁본을 토대로 일부 달라진 별자리를 수정 보완해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어떻게 이런 정밀한 천문도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대동강에 빠졌다는 천문도 원본을 찾지 못해 짐작하기 어렵지만, 고구려 고분의 별자리 그림을 보면 고구려 천문학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구려 벽화고분 95기 가운데 22기의 천장에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것이다.

무용총의 경우 벽면에 고인의 영생을 상징하는 사신도와 일월, 천장에 여름 밤 남쪽하늘에서 관측되는 남두육성을 비롯한 26수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고구려인의 독특한 천

27)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9.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문사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수년 전 일본에서 공개된 기토라 고분 천문도가 고구려인의 작품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제기된 일이 있다. 7세기의 고분 천장에 그려진 고구려 천문도의 동쌍삼성 서쌍삼성 자리가 천상열차분야지도와 똑같고, 관측지점이 평양과 같은 북위 39~40도로 밝혀진 점이 그 근거다. 평양천문대에서 관측한 것으로 추정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세계 최고인 중국 순우천문도(順祐天文圖, 1247년)에는 없고 천상열차분야지도에만 있는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토라 고분에 고구려 고분벽화의 특징인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졌다는 점도 근거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달된 고구려 천문학의 뿌리는 어디인가? 일단의 학자들은 청동기시대의 고인돌과 고인돌 유적에서 나온 갈돌판에 새겨진 별자리 그림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 서울대학교 박창범 서울교육대학 이용복 교수 등은 1978년 대청댐 수몰지역인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아득이 마을 고인돌에서 나온 돌판에 새겨진 65개의 성형 구멍이 북두칠성 주변 별자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 동내동과 각산동 민가 마당에 있는 고인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황석리에
서 발견된 고인돌 등에서도 이미 복두칠성 별자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적은 우리나라 청
동기시대 고조선 문명의 실체를 밝혀줄 연구 자료로 보인다.

앞장에서 소개한 논문

「청원 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²⁸⁾

「고구려 고분벽화의 북극성 별자리에 관한 연구」²⁹⁾

는 오산시 외삼미동 북방형 탁자형 고인돌에 새겨진 성형의 정체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 주
는 근거 자료이다.

B. 별자리

별자리constellation는 하늘의 별들을 찾아내기 쉽게 몇 개씩 이어서 그 형태에 동물, 물건,
신화 속의 인물 등의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다. 성좌星座라고도 한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국제천문연맹(IAU)이 공인한 88개의 별자리가 쓰이고 있다.

별자리는 본래 약 5,000년 전 바빌로니아 지역에 해당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
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떼를 지키면서 밤하늘의 별들의 형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데서 유
래하였다고 한다.

BC 3,000년경에 만든 이 지역의 표석에는 양, 황소, 쌍둥이, 게, 사자, 처녀, 천칭, 전갈, 궁
수, 염소, 물병, 물고기자리 등 태양과 행성이 지나는 길목인 황도黃道를 따라 배치된 12개의
별자리, 즉 황도 12궁을 포함한 20여 개의 별자리가 기록되어 있다.

또 고대 이집트에서도 BC 3,000년경에 이미 43개의 별자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 후 바빌로
니아, 이집트의 천문학은 그리스로 전해져서 별자리 이름에 그리스신화 속의 신과 영웅, 동물
들의 이름이 더해졌다.

케페우스, 카시오페이아, 안드로메다, 페르세우스, 큰곰, 작은곰 등의 별자리가 그러한 것
들이다. AD 2세기경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리스천문학을 집대성하여 쓴 저서 「알마게스트」에
는 북반구의 별자리를 중심으로 48개의 별자리가 실려 있고, 이 별자리들은 그후 15세기까지
유럽에서 널리 알려졌다. 15세기 이후에는 원양항해遠洋航海의 발달에 따라 남반구의 별들도

28) 김일권, 『고구려연구』 5집 (고구려 연구회, 1998, 6)

29) 박창범, 청원 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 한국과학사학회, 제23권, 제1호 (2001)

다수가 관찰되어 여기에 새로운 별자리들이 첨가되기에 이르렀다. 공작새, 날치 자리 등 남위 50°이남의 대부분 별자리가 이때에 만들어졌다. 또 망원경이 발명된 후 근대 천문학의 발달과 더불어 종래의 밝은 별자리 사이에 있는 작은 별자리들이 몇몇 천문학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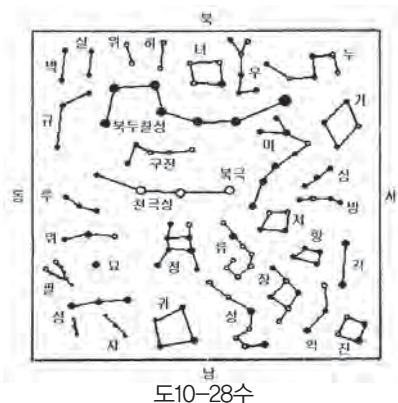
한국의 옛 별자리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초에는 별자리 이름이 곳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그 경계도 학자마다 달라서 자주 혼동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많았다.

그래서 1922년 국제천문연맹(IAU) 총회는 하늘 전체를 88개의 별자리로 나누고, 황도를 따라서 12개, 북반구 하늘에 28개, 남반구 하늘에 48개의 별자리를 각각 확정하고, 종래 알려진 별자리의 주요별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천구상의 적경赤經, 적위赤緯에 평행인 선으로 경계를 정하였다. 이것이 현재 쓰이고 있는 별자리이다.

C. 동양의 별자리 28수

중국과 인도 등 동양의 고대 별자리는 서양의 것과는 전혀 계통을 달리한다. 중국에서는 BC 5세기경 적도를 12등분하여 12次라 하였고, 적도부근에 28개의 별자리를 만들어 28수(二十八宿)라 하였다. 대체로 중국의 별자리들은 그 크기가 서양 것보다 작다. 이십팔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동방칠수(東方七宿)	북방칠수(北方七宿)	서방칠수(西方七宿)	남방칠수(南方七宿)
각 항 저 방 심 미 기	두 우 녀 허 위 실 벽	규 루 위 묘 필 자 삼	정 귀 류 성 장 익 진
角亢氐房心尾箕	斗牛女虛危室壁	奎婁胃昂畢觜參	井鬼柳星張翼轸



AD 3세기경 진탁陳卓이 만든 성도星圖에는 283궁(궁이란 별자리를 뜻한다) 1,464개의 별이 실려 있었다고 한다. 28수는 중국에서 쓰인 적도대赤道帶의 별자리 구분법이다.

별자리는 성수星宿라고도 한다. 달이 매일 유숙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달의 항성에 대한 공전주기가 27.32일이라는 데서 적도대를 28의 구역으로 나눈 것 같다. 이 각 구역이 각각 수宿이다. 그러나 각 수의 폭은 모두 다르다. 수에는 거성距星이라고 하여 가장 밝은 별이 그 수의 가장 서쪽에 있고, 그 동쪽으로 몇 도 몇 분의 위치에 어떤 별이 있다고 표현한다. 이와 같이 수는 현재 쓰이고 있는 적경의 구실을 한다.

28수의 기원에 관하여는 BC 2,400~BC 1,100년 즉 요堯~주周대 초기인 듯하다. 어떤 사람은 인도로부터 들어왔다고 하는 설도 있고, 바빌로니아로부터 전해왔다는 설을 말하기도 한다. 각수角宿의 거성 스피카는 처녀자리의 주성으로 광도 1.2등급의 백광을 내는 밝은 별이다. 적경 13h6m, 적위 -10.9° 되는 위치에 있는데, 황도에서 $1^{\circ}2'$ 떨어져 있고, 지구로부터 250광년의 거리에 있다. 이 별의 북쪽 30° 의 위치에 목자자리의 주성 아르크투루스가 스피카보다 밝게 빛나고 있다.

여름 초저녁에는 남천 지평 위에 전갈자리가 나타난다. 전갈의 심장에 해당하는 안타레스는 대화大火라고 하는 별이다. 심수心宿의 거성은 이 안타레스에 거의 접근되어 있는 작은 별이다. 미수尾宿는 전갈의 꼬리 부근에 있다. 안타레스의 동쪽 35° 부근에는 남두육성이 있고, 두수斗宿는 이 여섯별에 속한다. 염소자리의 서쪽 끝에 뿔이 나온 곳, 여기가 우수牛宿이며 염소도 소에 통하는 듯하다.

봄 초저녁의 중천에는 페가수스의 큰 사각형이 눈에 뜨인다. 이 사각형의 남쪽 변의 서쪽 끝 페가수스 α 별은 실실이고, 동쪽 끝 γ 별은 벽수壁宿이다. 정사각형의 구역에 벽을 바르고, 침실을 만든 모양이라 할 수 있다. 황소자리의 좀생이는 묘수昴宿라고 하여 예전부터 잘 알려졌고, 주성 알데바란 부근의 별들은 필수畢宿라고 하여 첻다리 그물 모양으로 끈다.

오리온자리의 머리의 위치는 자수籬宿가 차지하고, 삼태성에는 삼수參宿가 인도하고 있다. 서쪽 쌍둥이의 왼쪽 발목에 정수井宿의 거성이 있다. 게자리의 등에는 귀수鬼宿의 거성이 자리잡고 있다. 유柳, 성星, 장張의 각수는 바다뱀의 상반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익수翼宿와 진수軫宿는 각각 작은 별자리인 컵과 까마귀 속에 들어 있다. 이 두 수는 처녀자리의 스피카의 서쪽에 가까이 있고, 추분점의 남쪽 18° 부근에 있다.

D. 북극성

지금부터 5,000년 전의 청동기시대의 북극성北極星, Polaris은 지금의 별이 아니었다. 작은곰자리를 감싸고도는 용자리의 α 성이었다. 현재는 작은곰자리의 α 성을 북극성이라 한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북신北辰이라고도 한다. 대략적인 위치는 적경 1h 48.4m, 적위 $+89^{\circ}2'$ 으로, 천구북극에서 불과 1° 떨어져 있으며, 천구북극을 중심으로 작은 반지름으로 일주운동을 하고 있다. 안시등급 2.5등의 비교적 밝은 별인데, 옛날부터 방위의 기준으로, 항해자나 나그네의 친근한 벗이 되었다.

지구에서의 거리는 약 800광년, 분광형 F8의 초거성이다. 또한, 주기 3.97일의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2.5등에서 2.64등 사이를 오르내린다. 그러나 지구의 세차운동 때문에 자전축의 방향, 즉 천구북극이 서서히 이동하므로, 작은곰자리 α 성은 천구북극에서 점차 멀어지고, 1만 2000년 후에는 거문고자리의 α 성인 직녀성(Vega)이 북극성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5,000년 전에는 용자리 α 성이 북극성이었다.

자미동원의 좌추성	용자리Dra δ Eldsich	3.29	5.10°	84.90°	B.C. 4710년	선사시대
자미서원의 우추성	용자리Dra α Thuban	3.65	0.10°	89.90°	B.C. 2800년	고대이집트

E. 큰곰자리

밤하늘의 많은 별들 중에서 북두칠성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별은 없다. 북두칠성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별들이 거의 매일 밤 북쪽 하늘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주극성周極星이라는 데 있다.

큰곰자리의 β 별 메라크(Merak)와 α 별 두브헤(Dubhe) -북두칠성의 살발 끝부분- 를 이어서 5배 정도 연장하면 밝은 별이 하나 보인다. 이 별이 바로 하늘의 북극을 나타내는 작은곰자리의 북극성(Polaris)이다.

이런 연유로 하여 큰곰자리의 α 별과 β 별을 지극성(Pointers)이라 불러 지며 북극성을 찾는 지표로 이용 되어왔다.

ζ별인 미자르(Mizar) 바로 옆에 위치한 알콜(Alcor)은 시력검사의 별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고대 로마에서 군인을 뽑기 위한 시력검사에 이 별을 이용한데서 그 연유가 비롯된다. 이 두

별 알콜과 미자르를 구별하여 볼 수 있으면 합격을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당시에 비해 두 별의 간격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해도 두 별을 구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아라비아와 중국에서는 북두칠성을 인간의 죽음을 결정하는 별로 여기고 있다. η별을 '파군성破軍星'이라는 불길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옛날 아르카디아(Arcadia)에 칼리스토(Callisto)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다. 칼리스토는 비록 여자였지만 남자 못지 않은 훌륭한 사냥꾼이었으며, 처녀신 아르테미스(Artemis)의 추종자이기도 하였다. 그녀는 결코 남자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동료들과 아르테미스에게 맹세까지 할 정도로 아르테미스에 대한 충성심이 깊은 여자였다.

어느 여름날 오후, 그녀가 숲속에서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신들의 왕 제우스(Zeus)가 우연히 그녀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게 되었다.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에 대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제우스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일이 아르테미스의 다른 추종자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칼리스토를 신의를 저버린 못된 여자로 취급하였다.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버린 칼리스토는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리고 거기서 제우스의 아들 아르카스(Arcas)를 낳았다.

제우스의 부인이자 질투의 화신인 여신 헤라(Hera)는 이 사실을 알고 칼리스토를 찾아내 제우스와의 사랑의 별로 칼리스토를 흰곰으로 만들어 버렸다. 다행히 아르카스는 어느 농부의 손에 키워졌고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했다.

어느 날 숲속에서 아르카스가 사냥을 하던 중 뜻밖에 흰곰으로 변한 칼리스토를 만나게 되었다. 칼리스토는 자신이 흰곰인줄 알고 아들을 안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아르카스는 어머니인줄 모르고 흰곰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여 활시위를 당기고 말았다. 그러나 이 순간 제우스가 그녀를 구해주었고 헤라에게서 이들 모자를 지키기 위해 큰곰과 작은 곰으로 변하게 하여 하늘의 별자리가 되게 하였다.

칼리스토가 하늘의 별자리로 변하여 곰으로 되기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되자, 질투의 여신 헤라는 몹시 못마땅하였다.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Poseidon)에게 이들이 바다에 들어가 물을 마시지도 목욕도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결국 이들은 북극의 하늘만을 맴돌게 되었다.

그후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포세이돈이나 헤라 중 누군가의 화가 누그러져 북극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서 큰곰자리의 위치가 낮아지게 되었고 칼리스토는 물을 통과할 때 꼬리를 물속으로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불쌍한 아르카스는 아직도 휴식없이 계속 수면 위만을 돌고 있다.

F. 작은곰자리

작은곰자리 Ursa Minor의 대략적인 위치는 적경 15h 40m, 적위 +78°로 1년 중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신화에서는 큰곰자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 새끼 곰의 하나라고 한다. 북극성을 포함한 7개의 별은 북두칠성 北斗七星을 큰 국자로 비유할 때 작은 국자로 비유된다.

α 성은 광도가 2.1등으로 주기 약 4일의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8등의 동반성 同伴星을 가진 쌍성이기도 하며, 2000년 동안 북극에 가장 가까운 휘성 輝星인 북극성으로서 알려져 왔다.

지축이 약 2만 6,000년을 주기로 팽이의 머리 같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도 이동하는데, 작은곰자리 α 성은 현재 하늘의 북극에서 약 1°벗어나 있으며, 2,100년에는 약 0.5°까지 다시 접근하고, 그 이후는 다시 멀어져 나간다. 그후 1만 2,000년 후에는 거문고자리의 α 별인 베가(직녀성)가 북극성으로 된다고 한다. 6월 밤에 남중한다.

G. 용자리

용은 전설적인 동물로 옛날부터 잘 알려진 별자리이다. 용자리 Draco는 사각형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꼬리는 북쪽 하늘을 휘어 감고 있다. 용자리는 3~4 등급의 어두운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어두운 별들을 하나하나 찾아 보면 꿈틀거리는 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백조자리 감마별(γ)과 델타별(δ)을 연장하면, 약 2등급의 감마별(γ)을 찾을 수 있고 감마, 베타, 크시, 뉴별(γ, β, ξ, ν)로 용머리를 찾을 수 있다. 다음 3등급의 델타별(δ)– 4등급의 엡실론별(ϵ)순으로 ㄷ자 모양으로 한 용자리를 찾을 수 있다.

용자리는 북쪽하늘의 별자리이며 매우 큰 별자리 중 하나로 북두칠성자리와 작은곰자리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성도에서 보면 이 용은 몸이 매듭이 지어진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α Dra

이름 : Thuban

거리 : 309 $\pm$ 15

등성 : 3.67

투반(Thuban)은 Al Thuban이라는 아라비아어에서 온 말로 "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얀색의 투반은 태양보다 약 260배의 밝은 빛을 낸다고 한다.

γ Dra

이름 : Eltanin

거리 : 147.6 ± 3.1

등성 : 2.24

엘타닌(Eltanin)은 아라비아어의 Al Ras al Tinnin에서 온 말로 "용의 머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오렌지색의 엘타닌은 직경이 태양의 약 25배이고 태양보다 약 200배의 빛을 낸다고 한다.

H. 카시오페이아

카시오페아 별자리는 7월의 밤하늘에 이미 보이기 시작하여 가을이 깊어질수록 더욱 높이 떠오른다. 이 별자리는 '은하수'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많은 별들 속에 묻혀있는 작은 진주알 같은 W자를 보게 된다. 이들의 모양을 아름다운 이디오피아의 왕비로 보았던 옛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상상하기 힘든 별자리이다. 이 별자리는 왕비가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려보자.

카시오페아 별자리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여 북두칠성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 북두칠성이 보인다면 손잡이에 위치한 미자르와 북극성을 잇는 선을 같은 길이만큼 연장한 곳에서 카시오페아 별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

1572년 이 별자리에는 금성보다 더 밝은 초신성이 나타났었다. 이 별은 이 초신성을 관측 연구한 티코 브라헤(Tycho Brahe, 1546-1601)의 이름을 따서 티코의 별이라고 불려졌다. 현재 이 초신성은 카시오페아 A라고 불리는 강한 전파성으로 남아 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카시오페이아(Cassiopeia)는 이디오피아의 왕 케페우스(Cepheus)의 부인이었다. 지금도 케페우스는 카시오페이아의 옆에 위치하여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딸인 안드로메다(Andromeda) 공주와 사위인 페르세우스(Perseus)도 그들의 뒤에 위치해 있어 가을철 북쪽하늘은 온통 이 집안 사람들로 채워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카시오페아는 허영심이 매우 많은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너무 과시한 나머지 바다의 요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된다. 그리하여 바다의 신 포세이돈(Poseidon)이 보낸 괴물고래(Cetus)에게 딸을 재물로 바쳐야 하는 불운을 겪는다. 물론 그의 딸 안드로메다는 페르세우스(Perseus)에 의해 구출되지만, 이 일은 여자의 허영심에 경각심을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후 카시오페아는 포세이돈에 의해 하늘에 올려져 별자리가 되는데 그 허영심에 대한

별로 하루의 반을 의자에 앉은 채 거꾸로 매달려 있게 되었다.

J. 케페우스자리

카시오페아 별자리의 윗부분에 오각형으로 이루어진 별들이 보인다. 이 별들이 이디오피아의 왕이었던 케페우스의 별자리이다. 사실 이 별자리는 어떻게 보아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제일 밝은 α 별알데라민(Alderamin)은 오른쪽 팔에 위치하며, β 별 알피르크(Alfirk)는 왕의 허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각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γ 별 엘 라이(Er Rai)는 다리에 해당 한다.

케페우스 자리는 5각형의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특징지어진다. 카시오페아의 α 별과 β 별을 잇는 선을 3배정도 연장하면 케페우스의 오각형과 만나게 된다.

케페우스는 카시오페아의 남편인 이디오피아의 왕이었다. 아름다우나 허영심이 많은 부인 카시오페아와 예쁘고 마음씨 고운 딸 안드로메다 공주를 사랑한 케페우스는 죽은 후 이들 과 같이 하늘의 별자리로 남아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카시오페아자리의 신화와 같다.

I. 남두육성

남두육성南斗六星은 북쪽 하늘의 대표적 별자리인 북두칠성과 대비되는 남쪽 하늘의 별자리이다. 남두육성은 서양의 별자리 궁수자리에 속하는 6개의 별로 남쪽 하늘의 대표적인 별자리이다.

여름도 끝날 무렵, 남쪽 하늘 아래에 은하수가 아주 짙게 보이는 곳이 있다. 이곳이 바로 반은 사람이요, 반은 말 형태를 한 케이론을 형상한 별자리로서 궁수자리이다.

이 별자리는 전갈자리의 바로 동쪽에 자리잡고 있어서 찾기가 쉽다. 또한 태양의 겉보기 궤도인 황도黃道の 제9번째의 별자리로서 옛날부터 잘 알려진 별자리이다.

이 별자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북두칠성과 아주 닮은 물주걱 모양을 한 남두육성南斗六星이다. 젓먹이 아기가 사용하는 스푼을 닮았다고 하여, 유럽에서는 밀크 디퍼(Milk Dipper)라고도 한다.

난폭하고 거친 반인반마半人半馬의 켄타우루스족 가운데서 아주 우수한 학자였던 케이론. 그는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와 용장이었던 아킬레우스, 영웅 헤르쿨레스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어느 날 헤르쿨레스가 켄타우루스족과 싸우고 있을 때, 그가 쓴 물뱀 휴

도타의 독이 든 피를 묻힌 화살이 잘못되어 케이론의 무릎에 맞았다. 케이론은 불사신이었지만 이 독화살의 아픔은 대단하여 의술에 능한 케이론의 약을 써도 효력이 없었다. 그래서 하수는 없이 케이론은 자신의 몸을 거인 신인 플로메테우스에게 양도하고 죽고 말았다. 제우스신은 그의 위대했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활을 쏘는 반인반마의 케이론을 하늘로 올려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한다.

9월 하순경에 남쪽 지평선 가까이 은하수를 끼고 전갈자리와 대치하는 모습을 옛날 사람들은 아주 늠름하다고 봤을 것이다. 11월 23일~12월 21일에 탄생한 사람이 이 궁수자리에 속한다. 이 별자리에서 탄생한 사람들은 속박 당하기를 싫어하는 자유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목적이 정해지면 그것을 얻기 위해 직선적으로 달려만 간다고 한다.

남두육성은 중국에서 유래된 용어로 북두칠성은 「죽음」을 다루는 별자리요, 남두육성은 「삶」을 다루는 별자리라고 생각해왔다.

중국 위나라에 관로管輅라고 하는 점성술의 대가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남양현 시골마을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안초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얼굴을 보니 곧 죽을 운명이었다.

"아아, 안타까운 일이다. 이 소년은 20살 까지 밖에 수명이 없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소년의 부친은 이 소식을 듣고 관로에게 찾아와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관로는 안초를 불러 말했다.

"집에 돌아가서 청주 한 말과, 말린 육포를 안주로 준비하여 묘일卯日에 자네 밭의 남쪽 끝 뽕나무 아래에 가면 두 사람의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을테니, 그 들 옆에 술을 따르고 육포를 놓아두면,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육포를 먹을 것이네. 그들이 잔을 비우면 술을 따르고 이렇게 해서 술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게. 만약 그들이 무어라고 말을 하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저 머리 숙여 인사만 하면 되네. 그러면 그들이 자네를 구해줄 걸세"

안초는 관로가 일러준 대로 남쪽 끝의 뽕나무 아래에 가보니, 과연 두 사람의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안초는 그들 앞에 가만히 술과 안주를 놓아두었다. 두 노인은 바둑에 빠져 무의식중에 술과 고기를 먹었는데, 술이 몇 순 배 돌자 북쪽에 앉아있던 노인이 안초를 보고 꾸짖듯 말했다.

"이런 데서 뭘 하는 게야. 저리 가거라."

그러나 안초는 머리 숙여 인사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남쪽에 있던 노인이 말했다.

"방금 우리가 이 청년이 가져온 술과 안주를 먹었으니, 너무 무정하게 대하면 안 되지."

그러자, 북쪽의 노인은

"이 소년의 수명은 태어나서부터 정해져 있네. 지금 와서 어쩔 수는 없는 일이네."

하고 말했다. 남쪽의 노인은 북쪽의 노인에게 명부命簿를 빌려 받아 소년의 이름을 살펴보았다. 이윽고 소년의 이름을 찾아 수명이 19세에 불과한 것을 보고는, 붓을 들어 글자를 뒤집는 표시(十九 → 九十)를 하였다. 이로써 소년은 90살까지 살 수 있게 되었다. 안초가 돌아와 관로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

"북쪽에 앉은 선인은 북두칠성의 정령이고, 남쪽에 앉은 선인은 남두육성의 정령일세. 북두는 죽음을 관장하고, 남두는 삶을 관장하지.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 갇들면 남두육성은 탄생일을 기록하고 북두육성은 사망일을 기록하지. 그러니 빌 것이 있으면 북두칠성에게 빌게나."

이렇게 말하고는 관로는 멀리 떠났다는 것이다.

V. 오산시 금암동의 개석식 고인돌

A. 금암동의 개석식 고인돌

오산시 금암동에는 경기도 기념물 112호 지정된 9기의 고인돌이 있다. 이 외 고인돌로 추정하는 2개의 고인돌이 더 있다. 금암동에 위치한 9개의 고인돌은 모두 꺾임돌이 없는 개석식이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인 금암동 고인돌군의 특징은 모암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 바윗돌을 떼어 냈던 2개의 모암母巖과 청동기나 철제기구로 뚫은 흔적인 수직형 성혈性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인돌 전후기의 연구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1. 고인돌 1호

이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개석식이다. 금암동이 아파트단지와 고인돌공원으로 개발되기 전 오산시 금암동 164번지 한윤수 씨 집안에 있었다. 크기는 400×280×110cm로 대형이며 개석식이다. 방향은 E-W 선상에서 북쪽으로 약 16°가량 기울어져 있다. 이 고인돌의 전체

적인 모양은 거북이 앉아 있는 형상인데 북쪽 끝이 남쪽 끝보다 넓고 상부의 경사도 남쪽이 북쪽보다 급하게 만들어져 있다. 개석의 사방에는 치석治石을 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데 특히 남쪽은 나중에 깨어진 흔적이 남아 있다. 성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도11. 고인돌 1호

2. 고인돌 2호

이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개석식이다. 1호 고인돌에서 서쪽으로 약 30m 떨어진 밭둑에 놓여 있었다. 크기는 $210 \times 195 \times 70$ cm이며 개석식이다. 고인돌이 놓인 방향은 E-W에서 북으로 15° 가량 기울어져 있어 1호 고인돌과 거의 비슷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인 모양은 둥근 형상을 하고 있는데 개석 사방에는 둥글게 치석을 한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있다.

이 고인돌 개석의 상부에는 4개의 성혈이 있다. 그 크기는 지름 3~5cm 정도인데 성혈이 수직으로 10~15cm 깊이로 파들어 갔다는 점이 여타 고인돌의 성혈과 다르다. 대개의 성혈이 위는 넓게 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의 형상이나 이 성혈은 아래와 위의 너비가 꼭 같은 것이다. 이러한 성혈은 석기石器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청동靑銅 또는 철기鐵器와 같은 예리한 금속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이 고인돌이 가장 후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도12. 고인돌 2호

3. 고인돌 3호

이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개석식이다. 2003년에는 마을의 동북쪽 논 한가운데 있었다. 지금은 공원에 조성된 연못 속의 수초에 가려져 있다. 크기는 $500 \times 300 \times 100\text{cm}$ 으로 대형 고인돌이다. 남방식 바둑판형이다. N-S에서 동쪽으로 약 35° 기울어져 있다.

개석의 사방에는 치석을 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나 성혈은 발견되지 않는다.



도13. 고인돌 3호

4. 고인돌 4호

이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개석식이다. 마을의 북쪽 산기슭에 놓여 있었다. 크기는 $200 \times 144 \times 43\text{cm}$ 이며 개석식이다. 이 고인돌은 N-S에서 동쪽으로 30° 가량 기울어져 있다. 이 고인돌은 금암동 고인돌 중에서는 소형에 속하는 것인데 개석의 사방에는 치석을 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특히 개석의 상부에도 정교하게 다듬은 흔적이 역력하다.



도14. 고인돌 4호

5. 고인돌 5호

이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개석식이다. 4호 고인돌에서 북으로 약 50m 떨어진 산기슭에 있다. 크기는 $205 \times 136 \times 50\text{cm}$ 이며 개석식이다. 이 고인돌은 N-S에서 동쪽으로 약 30° 가량 기울어져 있다.

이 고인돌은 개석이 절반가량 떨어져 나간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의 개석은 지금보다 훨씬 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15. 고인돌 5호

6. 고인돌 6호

이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개석식이다. 마을 뒷산의 구릉에 있었다. 크기는 $190 \times 120 \times 30\text{cm}$ 이며 개석식이다. 이 고인돌은 N-S에서 동쪽으로 36° 가량 기울어져 있다. 이 고인돌은 하부가 땅속에 묻혀 있어 지금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이 고인돌도 전체적인 모양이 거북이 형상과 비슷한데 개석의 상부에는 암석의 박리작용에 의해서 파충류의 비늘 모양으로 여러 겹으로 떨어져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도16. 고인돌 6호

7. 고인돌 7호

이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개석식이다. 마을에서 서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농로 옆에 놓여 있었다.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이 고인돌의 크기는 $290 \times 220 \times 70\text{cm}$ 로 개석식이다. 이 고인돌은 N-S에서 동쪽으로 36° 가량 기울어져 있다.

이 고인돌의 개석이 동쪽은 땅에 붙어 있으나 서쪽은 땅에서 떨어져 있어 하부구조는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석의 상부는 둥그스름하게 다듬은 흔적이 있고 사방에도 정교하게 치석을 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도17. 고인돌 7호

8. 할아버지 바위

이 바위는 고인돌이 아니다. 일명 할아버지 바위이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크고 보기가 좋다고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크기는 $700 \times 500 \times 260\text{cm}$ 로 대규모이다. 이 바위는 N-S에서 서쪽으로 약 10° 가량 기울어져 있다. 모암 주변에 고인돌로 쓰려고 떼어냈던 바윗돌 2개가 보인다. 그러므로 고인돌을 떼어내던 모암 1호로 추정한다. 바위 부근에 신목神木으로 보이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었다. 지금은 고사하여 흔적만 남았다. 2008년 금암동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고사목이 있던 자리에 어린 은행나무를 대목으로 심었다.



도18. 할아버지 바위(모암 1호)-남쪽 모습



도19. 할아버지 바위(모암 1호)-동쪽 모습

9. 할머니 바위

이 바위는 고인돌이 아니다. 일명 할머니 바위이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크고 보기가 좋다고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크기는 $600 \times 550 \times 210\text{cm}$ 로 대규모이다. 이 바위는 E-W에서 북쪽으로 약 10° 가량 기울어져 있다. 고인돌을 떼어내던 모암 2호로 추정한다. 모암 주변에 고인돌로 쓰려고 떼어냈던 바윗돌 1개가 보인다. 모암 1호인 할아버지 바위와 나란히 앉아 있다.



도20. 할머니 바위(모암 2호)-동쪽 모습



도21. 할머니 바위(모암 2호)-남쪽 모습

Ⅵ. 오산시 외삼미동의 탁자식 고인돌

A. 외삼미동의 탁자식 고인돌

1. 외삼미동 고인돌 1호

오산시 외삼미동에는 경기도 기념물 211호로 지정된 2기의 고인돌이 있다. 하나는 북방형 탁자식 고인돌이고 다른 하나는 후기의 개석식 고인돌이다. 외삼미동의 탁자식 고인돌과 금암동의 개석식 고인돌은 형태면에서 크게 다르다. 금암동의 고인돌은 꺾임돌이 없는 것이지만 외삼미동의 고인돌은 꺾임돌이 있는 고인돌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암동의 고인돌에는 없지만 외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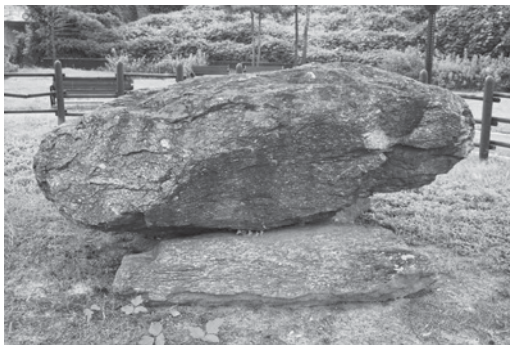
미동의 고인돌에는 별자리 성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꺾돌이 없는 금암동의 개석식이 먼저 만들어 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삼미동의 탁자식 고인돌이 금암동의 개석식 고인돌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황구지천에 가까운 이 지역이 고대인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

외삼미동의 탁자식 고인돌에는 15개의 성혈(性穴)³⁰⁾이 있어 흥미롭다. 필자는 오산시 외삼미동의 탁자식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 문양의 성혈(性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³⁰⁾이 기록한 성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혈(性穴)이란 자연 암반 표면에 흠처럼 파인 구멍을 말한다. 거석 신앙을 대표하는 고인돌이나 선돌에 파여 있다. 민간에서는 성혈이 파여 있는 바위를 알바위, 알터, 알구멍, 바위구멍이라고도 한다. 크기는 지름 5~10cm에 깊이 3~5cm 내외가 대부분이나, 지름이 15~20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외삼미동의 북방형 탁자식 고인돌의 꺾돌은 2개이다. 강화도 고인돌에는 대부분 동서남북 사방을 막았던 꺾돌이 4개 있다. 그러나 외삼미동의 고인돌은 2개 뿐이다. 남북을 막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꺾돌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고인돌은 강화도의 탁자형 고인돌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꺾돌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30~40cm 내외로 강화도 고인돌의 꺾돌의 높이 보다는 낮다.



도22. 외삼미동 고인돌 1호 - 동쪽면, 꺾돌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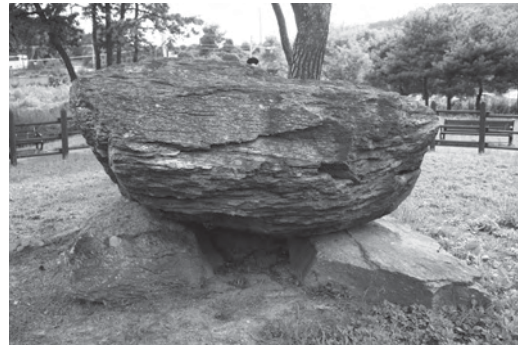


도23. 외삼미동 고인돌 1호 - 서쪽면, 꺾돌이 있음

30) 성혈(性穴), 『디지털한동문화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2016



도24. 외삼미동 고인돌 1호-남쪽면



도25. 외삼미동 고인돌 1호 북쪽면

이 고인돌의 덮개돌의 크기는 가로 260cm×세로 230cm×높이 90cm로 장축 방향은 N-S에서 동쪽으로 약 10° 기울어져 있다. 설명을 덧붙이면 자북(磁北, 나침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북(眞北, 북극성)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 고인돌의 덮개돌은 단단한 화강암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모양이 아주 매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개석의 사방 모서리에는 치석을 한 흔적이 매우 뚜렷하게 남아 있다.

덮개돌의 상부에는 지름 3.0-10cm, 깊이 2-3cm정도 되는 크고 작은 별자리 문양의 성혈(알터)이 무려 15개나 산재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 별자리 문양의 성혈을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아주 매끈하고 정성스럽게 다듬어 갈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덮개돌을 받치고 있는 켜들은 개석과 같은 화강암인데, 동서 켜돌 모두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동쪽 켜돌은 가로175cm×세로75×높이30cm의 크기이다. 서쪽 켜돌은 가로180cm×세로80cm×높이40cm로 반월형이다. 두 개의 켜돌 중에서 서쪽 켜돌은 반월형으로 정교하게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비해서 동쪽의 켜돌은 판석을 대강 다듬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형식은 남한에서 조사된 탁자식 고인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외삼미동의 고인돌 1호는 이곳 주민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장소를 매우 신성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 어느 곳이나 고인돌이 있는 마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자연물 숭배사상인 거석 기념물 토테니즘(Totemism)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 세워 놓은 안내 표지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고인돌이 있는 이곳은 해발 30~50m 되는 기다랗게 뻗어 내린 구릉의 남쪽 대지이며 이 고인돌을 마을 사람들은 ‘거북바위, 장수바위’라고 부른다.

덮개돌의 재질은 화강편마암이고 크기는 260cm×230cm×90cm이다. 덮개돌의 가운데

를 거북등모양으로 손질하여 멀리서 보면 마치 거북을 연상하게 한다. 덮개돌 위에는 지름 6~7cm 되는 구멍이 15개 파여 있다. 덮개돌 아래에는 동쪽과 서쪽에 킴돌이 자리한다. 길쭉한 판자돌인 킴돌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눕혀져 있는 독특한 모습이다. 이렇게 킴돌을 세우지 않고 눕혀 놓은 것은 고인돌의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모습의 고인돌이 황구지천 상류인 화성시 병점동과 수기리 유적에서도 조사되었다.

이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3.5m 떨어진 곳에 개석식 고인돌의 덮개돌로 보이는 넓적한 돌이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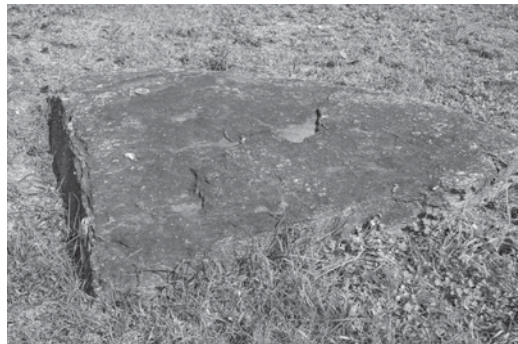
B. 외삼미동 고인돌 2호

이 고인돌은 덮개돌만 있는 개석식이다. 탁자식 고인돌 1호의 곁에 놓여 있다. 불과 3.5m의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다. 개석의 상부에는 지름 3.0cm정도 크기 성혈 3개가 발견된다.

이 고인돌은 가로 170cm×세로 140cm×두께 46cm의 크기이다. 석질은 외삼미동 고인돌 1호와 같은 화강암이며 돌의 사방을 치석한 방식도 비슷하다.



도26. 외삼미동 고인돌 2호 동쪽면



도27. 외삼미동 고인돌 2호 서쪽면



도28. 외삼미동 고인돌 2호 남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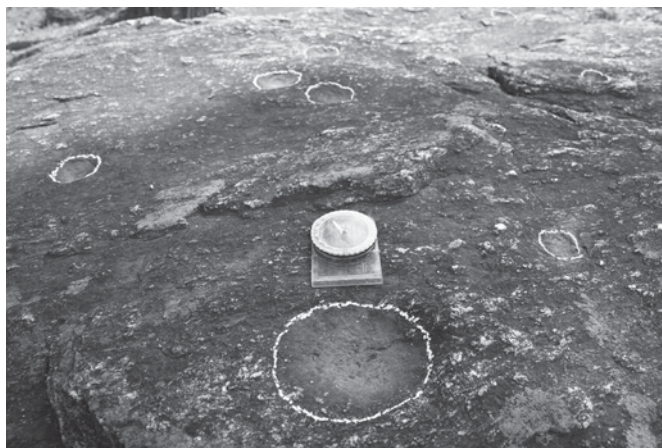


도29. 외삼미동 고인돌 2호 북쪽면

VII. 외삼미동 고인돌의 별자리 성형

A. 외삼미동 탁자식 고인돌에 새겨진 성형

필자는 <청원 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와 <고구려 고분벽화의 북극성 별자리에 관한 연구>에 근거하여 ‘오산시 외삼미동의 탁자식 고인돌에 새겨진 성형의 정체’를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전단계인 우리나라 별자리로 규정한다.



도31. 외삼미동 고인돌 별자리 성형

1. 아득이 고인돌 갈돌판에 새겨진 별자리 문양과 유사하다.

오산시 외삼미동 탁자식 고인돌의 성형에서 연결되는 것은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북극성 등의 별자리이다. 이는 1990년대 후반 북한학자 리준걸, 김동일 등이 고인돌, 갈돌판 등에서 4,000~5,000년 전의 북두칠성, 작은곰자리, 카시오페이아, 케페우스, 기린자리, 용자리, 목동자리, 은하수 등을 동정해 논문을 발표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충북 청원 아득이 고인돌의 부장품으로 출토된 갈돌판을 별자리판으로 규정한 박창범(서울대), 이용복(서울교대) 교수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들은 2,000년 10월 20일 충남대 한국우주과학회와 한국천문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충북 청원 아득이 고인돌 갈돌판의 문양을 북두칠성, 케페우스, 목동자리 등 일부 별자리를 동정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외삼미동 고

인돌에 새겨진 성혈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2.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별자리 문양과 공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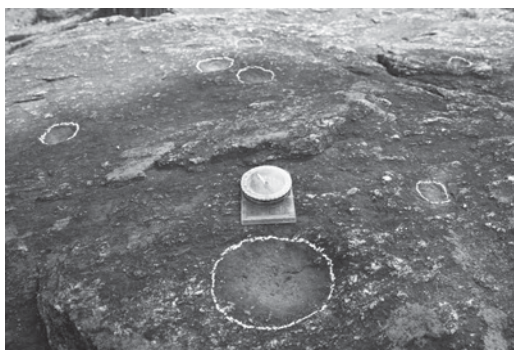
고구려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별자리는 북두칠성北斗七星, 남두육성南斗六星, 동삼성東三星, 서삼성西三星, 북극삼성北極三星이다.

북두칠성은 고구려 국내성의 고분벽화 ‘다섯 무덤 4호’에 북두칠청北斗七靑이라는 묘지 목서명墨書名과 함께 그려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두칠성과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별자리는 북극삼성北極三星이다. 그런데 외삼미동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 성혈은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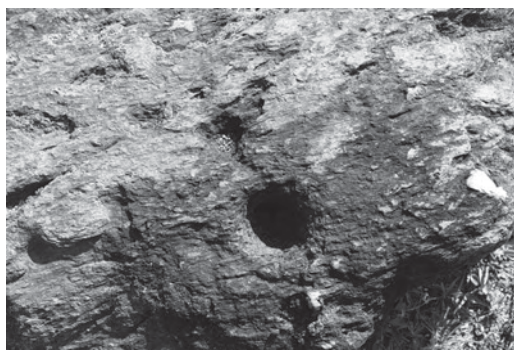
3. 외삼미동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 문양의 성혈은 15개이다.

a. 북극성(北極星)

진북辰北 방향의 제일 높은 곳에 가장 크게 그린 성혈은 북극성에 비정된다. 이 성혈의 크기는 15개 성혈 중에서 가장 크다. 성혈의 지름 9.5cm이다.



도31. 외삼미동 고인돌의 북극성 별자리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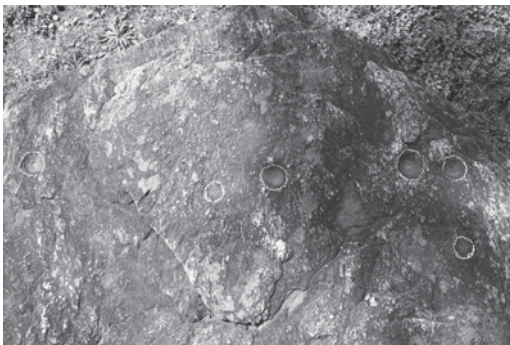


도32. 청풍면 고인돌의 북극성 별자리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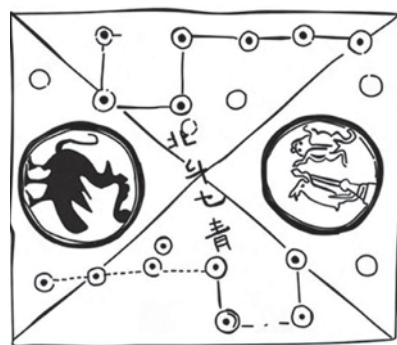
b. 북두칠성(北斗七星)

고인돌 중앙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국자모양의 성혈은 북두칠성에 비정된다. 이 별자리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북두칠청과 거의 같은 형태이다. 7개 성혈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성혈의 지름은 4.5 — 4 — 3 — 5 — 5.5 — 3 — 3cm 이다. 크기의 순서는 사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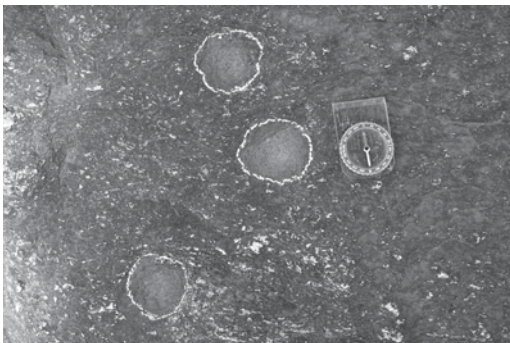
도33. 외삼미동 고인돌의 북두칠성 별자리 문양



도34. 고구려 고분벽화의 북두칠성 문양

c. 동삼성(東三星)

고인돌 북동쪽에 그려진 △자형 3성은 카시오페아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 별자리로 동삼성이다. 성혈의 크기는 지름 6.5—6.5—5.5cm이다. 사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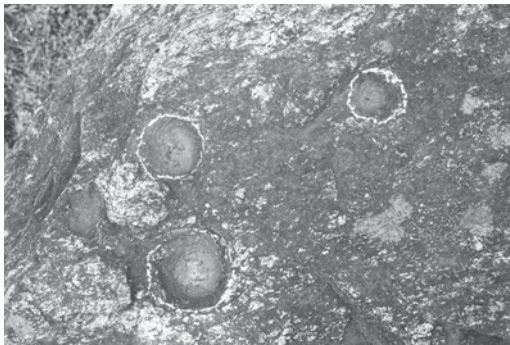
도35. 외삼미동 고인돌의 동삼성(카시오페아?) 별자리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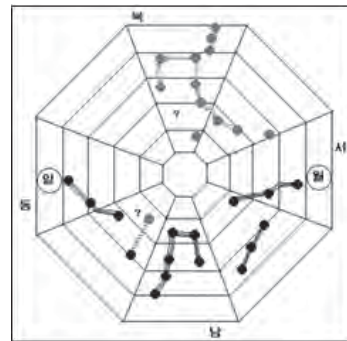
도36. 약수리고분 북벽별자리 및 현무도

d. 서삼성(西三星)

고인돌 북서쪽에 그려진 △자형 3성은 케페우스 별자리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 별자리로 서삼성이다. 삼성(三星)의 형태는 고구려 고분 벽화 ‘각저총 안칸 천정 성수도’의 3성 별자리의 그림과 일치한다. 성형의 크기는 지름 4—5.5—7.5cm이다. 사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읽는다.



도37. 외삼미동 고인돌의 서삼성(케페우스?) 별자리 문양



도38. 각저총 안칸 천정 성수도

B. 제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매우 신비로운 존재다. 고인돌이 단지 부족장의 무덤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천문관과 천문학은 매우 독창적이었다.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고구려고분 벽화의 별자리와 고구려 천문도, 신라의 첨성대, 고려 고분 벽화의 별자리, 조선의 관상감과 천상열차분야지도로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는 인문분야는 물론 자연과학분야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천문학의 역사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별자리에서부터 조선시대의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고고학, 천문학, 종교학 등 학제 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한에 흩어져 있는 고인돌과 고구려 고분을 보유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오산시 외삼미동의 탁자식 고인돌’은 매우 소중한 문화재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하늘의 별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고인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삼미동의 탁자식 고인돌의 성형은 고구려 천문도의 전 단계인 문화재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 오산시는 청동기시대의 별자리 하나를 고스란히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고인돌의 대표적인 고인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고장 ‘오산시 외삼미동 탁자식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 문양’에 대한 천문 관련 학계와 문화재 당국의 큰 관심을 기대한다.

새롭게 기억하고, 기록되어야 할 오산이야기(Ⅱ)

남 경 식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상임위원

목 차

- | | |
|--|---------------------------------------|
| 1. 머리말 | 6. 숯대 |
| 2. 오산시민의 행복과 독산성문화제
성공을 위한 독산천신고유제 | 7. 오산(烏山)지역의 무가(巫歌) |
| 3. 독산천신고유제 홀기
(禿山 天神告由祭 笏記) | 8. 백범 김구의『백범일지』속 오산지역
발자취 |
| 4. 2016년 오산시정월대보름큰잔치
기원문 | 9. 오산화성궐리사 춘추제향 홀기
(烏山華城闕里祠春秋祭享笏記) |
| 5. 역사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표지석(판)이 설치되는 장소(Ⅱ) | 10. 떡점거리(떡골, 병점골, 餅店) |
| | 11. 4대 전통의 오산할머니집 |
| | 12. 오산오매장터의 지명 이야기 |

집필자
남 경 식

경기역사문화연구소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 백

1. 머리말

이 글들은 필자가 정리한 오산의 이야기들로서 잘못 기술되어 잘못알고 있는 부분, 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나 사실, 새롭게 발굴된 이야기, 오산시에서 추진된 사업에 관한 내용 등등을 모은 글이다. 사실에 기초해서 씌어졌으며, 이곳의 글들이 오산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쓴 글이다. 2015년 『오산문화총서 제1집 오산학연구』 「새롭게 기억하고, 기록되어야 할 오산이야기(Ⅰ)」에 이어 정리, 기록한다.

2. 오산시민의 행복과 독산성문화제 성공을 위한 독산천신고유제 (주최: 오산시, 주관: 오산문화재단 / 오산문화원)

(1) 독산천신고유제 유래

오산시는 독산성문화제 성공을 위한 천신고유제를 독산성문화제 기간 중에 오산시 독산에 있는 독산성에서 지내오고 있다. 오산시 독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성되었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산성이다. 삼국시대는 물론 고려 조선을 이어 현재까지 원형에 가깝게 보존 유지되며 존재하고 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선조25년) 12월에는 권율장군이 독산성을 공격하려는 왜군을 맞아 물리친 곳으로, 권율장군은 물이 부족한 독산성에서 쌀로 말을 씻겨 왜군으로 하여금 독산성에는 물이 많다고 인지하게 해 철군하게 한 기지를 발휘한 곳이다. 훗날 정조대왕 때에는 국방상 중요한 곳으로 판단, 사용하지 않아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토지신에게 고유제를 지냈는데, 오산시에서는 이 고유제를 차용하여 독산성문화제의 성공을 위한 고유제를 독산(성)에서 지내게 된 것이다. 다른 점이라면 천신에 고유하며 독산성문화제 성공과 오산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독산천신고유제로 지내게 된 것이다. 이 천신고유제에 맞추어 독산성문화제 성공을 위한 독산천신고유제 홀기와 천신고유문도 제정하였다. 이 홀기에 따라 오산시장을 초헌관으로 삼고, 아현은 오산시의장이 맡으며, 오산문화원장이 종헌관을 맡았다. 현재 독산천신고유제는 퍼포먼스적 성격을 띠도록 만들어졌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차용하여 전통도 살리고, 교육적 효과와 오산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제례이며, 오산시독산성문화제 때 재현 시행해 오고 있는 제례이다.

(2) 제7회독산성문화제 독산천신고유 축문(2016년 10월 08일 독산성)

천신이시여!

2016년 10월 8일 오산시장 광 상 옥은 독산성에서
천신에게 제7회 독산성문화제 개최를 고합니다.

이곳 독산성은 하늘이 처음 열린 후부터
옛 백제의 웅지가 서린 요충지로서 임진왜란 때는
관율장군의 슬기로운 지혜로 왜적을 크게 무찌른 장소로
우리 오산시의 번영을 이룩해 온 역사의 출발지였습니다.

오랜 세월 부침하는 역사의 풍진에 묻혀 있었으나,
이제 밝은 새날의 광명을 맞아 자랑스러운 옛 선인들의 넋을 기리고,
그 얼을 찬양하고자 22만 전 오산시민의 뜻을 모아 제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천신이시여!

우리 오산시민의 무궁한 태평과 위상과 번영이 하늘에
떨치게 하시옵소서.

소통과 참여의 도시, 능동적 변화를 추구하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중심의 도시, 자라나는 오산의
초중고 젊은 학생의 미래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혁신 교육의 도시,
그리고 오산시의 정체성이기도한 충효예의 도시,
이 모두를 위해 화합하는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이 되게
하시옵소서.

천신이시여!

제7회독산성문화제의 성공과 오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무궁히 내려주시옵소서.

오산시민의 정성이 담긴 술과 안주로 제를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3) 제7회 오산시독산성문화제 성공을 위한 천신고유제 참가하시는 분의 역할

- 초헌관 - 첫 번째 잔을 올리는 분
- 아헌관 - 두 번째 잔을 올리는 분
- 종헌관 - 세 번째 잔을 올리는 분
- 알 자 - 행사를 도와 전 고유제 행사를 안내하고 이끄는 분
- 대 축 - 제사 때 축문을 읽는 분
- 당상집례 - 한문홀기를 읽어 진행하는 제관
- 당하집례 - 한문홀기를 한글로 읽어 일반인이 이해하도록 하는 제관
- 관 세 - 제사 때 손을 씻는 것을 돕는 분
- 전 작 - 헌관이 주는 술잔을 받아 신위 앞에 드리는 것을 돕는 분
- 봉 로 - 향로를 헌관에게 올리는 분
- 봉 향 - 헌관이 분향할 때 오른편 옆에서 향합을 받는 분
- 봉 작 - 술잔을 헌관에게 올리는 분
- 사 준 - 제주 단지에서 술을 술잔에 따르는 분
- 작 세 - 술잔을 닦는 분

(4) 제7회 오산시독산성문화제 성공을 위한 천신고유제 진행에 참가하셨던 분

- 초헌관 - 박상욱 오산시장
- 아헌관 - 손정환 오산시의장
- 종헌관 - 공창배 오산문화원장
- 알 자 - 공준식 성균관유도회 화성궐리사 지부장
- 대 축 - 하영일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

- 당상집례 - 남덕우 화성궐리사 부도유사
- 당하집례 - 박성애 오산문화원 운영위원
- 관 세 - 김도은 오산문화원 TF팀 부팀장
- 전 작 - 최성복 오산문화원 운영위원
- 봉 로 - 허광식 오산시산악연맹 회장
- 봉 향 - 원유배 오산문화원 운영위원
- 봉 작 - 신명수 오산문화원 운영위원
- 사 준 - 허은희 오산예절원 원장
- 작 세 - 강남숙 오산예절원 선생님
- 행 사 총 괄 - 김종욱 오산문화원 사무국장
- 행 사 자 문 - 남경식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상임위원
- 사 회 - 박성애 아나운서

3. 제7회오산시독산성문화제 성공을 위한 독산천신고유제 홀기

(禿山天神告由祭笏記)

(주최 : 오산시, 주관 : 오산문화재단 / 오산문화원)

- 지금부터 오산시의 번영과 오산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발전되어 가는 교육도시를 위하여 제7회독산성문화제의 성공을 위한 범시민적인 천신고유제를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나오신 현관 및 집사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초현관: 곽상욱 오산시장, 아현관: 손정환 오산시의장, 종현관: 공창배 오산문화원장, 알자: 공준식 성균관유도회 화성궐리사 지부장, 대축: 하영일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 당상집례: 남덕우 화성궐리사 부도유사, 당하집례: 박성애 오산문화원 운영위원, 관세: 김도은 오산문화원 TF팀 부팀장, 전작: 최성복 오산문화원 운영위원, 봉로: 허광식 오산시산악연맹 회장, 봉향: 원유배 오산문화원 운영위원, 봉작: 신명수 오산문화원 운영위원, 사준: 허은희 오산예절원 원장, 작세: 강남숙 오산예절원 선생님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현관 및 집사 분들은 알자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남덕우님께서 집례를 맡아 제7회독산성문화제 성공을 위한 독산천신고유제를 거행하겠습니다.

序立(서립)

謁者引初獻官亞獻官終獻官位祭壇前西向序立

(알자인초헌관아헌관종헌관위제단전서향서립)

알자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을 인도하고 제단 앞 서쪽을 향해 서시오

諸執事及諸生俱祭壇前北向以次序立

(제집사급제생구제단전북향이차서립)

모든 집사와 유생은 다 같이 제단 앞 북쪽을 향하여 차례로 서시오

謁者引初獻官祭壇前尊所點視祭壇祭物訖還出立

(알자인초헌관제단전준소점시제물홀환출입)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제단 앞에 있는 준소와 제단 제물을 점검하고 도로 나와 서시오

參謁(참알)

執禮及大祝謁者祭壇前拜位北向立

(집례급대축알자제단전배위북향립)

집례와 대축 및 알자는 제단 배위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시오

大祝詣祭壇前明燭還出拜位北向立

(대축예제단전명촉환출배위북향립)

대축은 제단 전에 나아가 촛을 밝히고 배위로 나와 북쪽을 향해 서시오

執禮 大祝 謁者 跪 拜~興 拜~興 拜~興 平身

(집례 대축 알자 꿇 배~흥 배~흥 배~흥 평신)

집례와 대축 알자는 꿇어앉으시오 배~흥 배 ~흥 배~흥 평신

執禮祭壇之東西向立

(집례제단지동서향립)

집례는 제단 동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大祝祭壇之西東向立

(대축제단지서동향립)

대축은 제단 서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시오

謁者引諸執事及諸生祭壇拜位北向跪皆三拜 拜~興 拜~興 拜~興 平身

(알자인제집사급제생제단배위북향궐개삼배 배~흥 배~흥 배~흥 평신)

알자는 제집사와 유생을 인도하고 제단 배위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배~흥 배~흥 배~흥 평신

집사배치(執事配置)

盥洗就盥洗位之東西向立

(관세취관세위지동서향립)

관세는 관세위 동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謁者引大祝及諸執事詣盥洗位盥洗訖

(알자인대축급제집사에관세위관세흘)

알자는 대축과 제 집사를 인도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차례로 관세 하시오

司尊就尊所之西側東向立

(사준취준소지서측동향립)

사준은 준소 서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시오

奉香就祭壇拜位右側西向立

(봉향취제단배위우측서향립)

봉향은 제단배위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奉爐就祭壇拜位左側東向立

(봉로취제단배위좌측동향립)

봉로는 제단배위 좌측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시오

奉爵尊所之北南向立

(봉작준소지북남향립)

봉작은 준소 북쪽으로 나아가 남쪽을 향해 서시오

奠爵就祭壇拜位左側西向立

(전작취제단배위좌측서향립)

전작은 제단배위에서 좌측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爵洗尊所之東西向立

(작세준소지동서향립)

작세는 준소 동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진설(陳設)

大祝就祭壇拜位點視祭物訖降復位

(대축취제단배위점시제물홀강복위)

대축은 제단배위로 나아가 제물을 확인하고 나와 제자리에 서시오

行祀事(행사사)

謁者進初獻官之左請行事

(알자진초헌관지좌청행사)

알자는 초헌관 왼쪽으로 나아가 행사를 청하십시오

(이제부터 천신고유제를 시작하겠다고 초헌관에게 고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獻官皆跪 拜~興 拜~興 拜~興 平身

(헌관개례 배~흥 배~흥 배~흥 평신)

헌관은 다 꿇어앉아 절하시오 배~흥 배~흥 배~흥 평신

行參神禮·降神禮(행참신례·강신례)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盥洗訖就祭壇拜位前北向跪

(알자인초헌관에관세위관세흠취제단배위전북향례)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를 하고 제단배위 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奉香奉香盒詣獻官之右西向跪

(봉향봉향합예헌관지우서향례)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헌관 오른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奉爐奉香爐詣獻官之左東向跪

(봉로봉향로예헌관지좌동향례)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헌관 좌측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獻官三上香

(헌관삼상향)

헌관은 세 번 향을 올리시오

奉香奉爐還置盒爐於故處各降復位

(봉향봉로환치합로어고처각강복위)

봉향과 봉로는 향합향로를 본자리에 놓고 나와 제자리에 서시오

爵洗取爵洗訖還置尊所

(작세취작세흠환치준소)

작세는 잔을 씻어 준소 제자리에 놓으시오

奉爵取爵司尊舉龍勺斟酒

(봉작취작사준거용작집주)

봉작은 잔을 들고 사준은 용작을 들어 술을 떠 부으시오.

奉爵奉爵獻官之右跪授爵獻官

(봉작봉작헌관지우궤수작헌관)

봉작은 잔을 받들고 헌관 우측으로 나아가 잔을 헌관에게 주시오

獻官執爵三祭酒于茅上訖授爵奉爵

(헌관집작삼제주우모상홀수작봉작)

헌관은 잔을 들어 세 번 재주를 하고 다시 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受爵置於尊所降復位

(봉작수작치어준소강복위)

봉작은 잔을 받아 준소에 놓고 제자리에 서시오.

獻官俯伏興平身降復位

(헌관부복흥평신강복위)

헌관은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 가시오.

行初獻禮(행초헌례)

謁者引初獻官詣尊所西向立

(알자인초헌관에준소서향립)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준소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奉爵取爵司尊舉龍勺斟酒

(봉작취작사준거용작집주)

봉작은 잔을 들고 사준은 용작을 들어 술을 잔에 부으시오.

奉爵以爵受酒立

(봉작이작수주립)

봉작은 잔으로 술을 받으시오

謁者引初獻官 祭壇前北向跪

(알자인초헌관 제단전북향궐)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제단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奉爵奉爵獻官之右西向跪

(봉작봉작헌관지우서향궐)

봉작은 잔을 받들고 헌관 오른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奠爵獻官之左東向跪

(전작헌관지좌동향궐)

전작은 헌관 왼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奉爵授爵獻官

(봉작수작헌관)

봉작은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爵獻爵仍授奠爵

(헌관집작헌작잉수전작)

헌관은 잔을 들어 헌작하고 곧 전작에 주시오

奠爵受爵奉奠于祭壇西端第一站

(전작수작봉전우제단서단제일점)

전작은 잔을 받아 제단 서단 첫 자리로 올리시오

奉爵奠爵降復位

(봉작전작강복위)

봉작과 전작은 제자리에 서시오

獻官俯伏興少退跪

(헌관부복흥소퇴궤)

헌관은 한발 뒤로 물러서 꿇어앉으시오

大祝獻官之左執祝版東向跪讀祝

(대축헌관지좌집축판동향궤독축)

대축은 헌관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앉아 독축하시오.

大祝訖置祝版於故處降復位

(대축홀치축판어고처강복위)

대축은 축판을 제자리에 놓고 나와 서시오

獻官俯伏興平身降復位

(헌관부복흥평신강복위)

헌관은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行亞獻禮(행아헌례)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盥洗訖引詣尊所西向立

(알자인아헌관예관세위관세홀인예준소서향립)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하고 준소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奉爵取爵司尊舉龍勺斟酒

(봉작취작사존거용작집주)

봉작은 잔을 잡고 사존은 용작을 들어 술을 잔에 부으시오

奉爵以爵受酒立

(봉작이작수주립)

봉작은 잔에 술을 받으시오

謁者引亞獻官祭壇前北向跪

(알자인아헌관제단전북향궐)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제단 앞에서 북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奉爵奉爵獻官之右西向跪

(봉작봉작헌관지우서향궐)

봉작은 잔을 받들고 헌관 우측에서 서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奠爵獻官之左東向跪

(전작헌관지좌동향궐)

전작은 헌관 왼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奉爵授爵獻官獻官執爵獻爵授奠爵

(봉작수작헌관헌관집작헌작수전작)

봉작은 잔을 헌관에게 드리고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곧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受爵奉奠于祭壇西端第二站

(전작수작봉전우제단서단제이점)

전작은 잔을 받아 제단 서단 둘째 자리에 드리시오

奉爵奠爵降復位

(봉작전작강복위)

봉작과 전작은 제자리에 서시오

獻官俯伏興平身引降復位

(헌관부복흥평신인강복위)

헌관은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行終獻禮(행종헌례)

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盥洗訖引詣尊所西向立

(알자인종헌관예관세위관세홀인예준소서향립)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하고 준소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奉爵取爵司尊舉龍勺斟酒

(봉작취작사존거용작침주)

봉작은 잔을 들고 사존은 용작을 들어 술을 잔에 따르시오

奉爵以爵受酒立

(봉작이작수주립)

봉작은 잔에 술을 받으시오

謁者引終獻官祭壇前北向跪

(알자인종헌관제단전북향궐)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고 제단 앞에서 북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奉爵奉爵獻官之右西向跪

(봉작봉작헌관지우서향궐)

봉작은 잔을 받들고 헌관 오른쪽에서 서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奠爵獻官之左東向跪

(전작헌관지좌동향궐)

전작은 헌관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奉爵授爵獻官獻官執爵獻爵引授奠爵

(봉작수작헌관헌관집작헌작인수전작)

봉작은 잔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곧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受爵奉奠于祭壇西端第三站

(전작수작봉전우제단서단제삼점)

전작은 잔을 받아 제단 서단 세 번째 자리에 드리시오

奉爵奠爵降復位

(봉작전작강복위)

봉작과 전작은 제자리에 서시오

獻官俯伏興平身引降復位

(헌관부복흥평신인강복위)

헌관은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 가시오

行受胙禮(행수조례)

謁者引初獻官詣受胙位東向跪

(알자인초헌관예수조위동향궐)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해서 수조위에 나아가 동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大祝祭壇前取爵一器脯一器詣 獻官之前西向立授獻官

(대축제단전취작일기포일기에 헌관지전서향립수헌관)

대축은 제단 전에 잔 하나 포 하나를 들고 헌관 앞에 나아가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受之置脯於席上左端執爵祭酒訖

(헌관수지치포어석상좌단집작제주홀)

헌관은 받아 포상을 자리 좌단에 놓고 잔을 들어 음복을 하시오

大祝奉爵及脯還置楹下西邊降復位

(대축봉작급포환치영하서변강복위)

대축은 잔과 포를 들어 기둥 서쪽에 놓고 제자리에 서시오

獻官俯伏興平身引降復位

(헌관부복흥평신인강복위)

헌관은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 가시오

獻官及諸生皆跪 拜~興 拜~興 拜~興 平身

(헌관급제생개례 배~흥 배~흥 배~흥 평신)

헌관과 제생은 모두 삼배하시오. 배~흥 배~흥 배~흥 평신

行望瘞禮(행망예례)

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北向立

(알자인초헌관예망예위북향립)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망예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시오

大祝祭壇前幣篚及祝文瘞坎焚祝

(대축제단전폐비급축문예감분축)

대축은 제단 전에 폐비와 축문을 들고 망예에서 분축 하시오

獻官及大祝仍降復位

(헌관급대축잉강복위)

헌관과 대축은 곧 제자리에 가서 서시오

◎ 주변환경상 분축은 생략하겠습니다.

闔門掇簋荳禮(합문철변두례)

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

(알자진초헌관지좌백예필)

알자는 초헌관 왼쪽에 나아가 예필을 고하시오

(행사가 끝났다는 예를 올리는 의식이 있겠습니다.)

謁者引初獻官及亞獻官終獻官諸生次出

(알자인초헌관급아헌관중헌관제생차출)

알자는 초헌관 아헌관 중헌관 제생을 인도하고 차례로 나아가시오

大祝及諸執事皆祭壇拜位皆跪 拜~興 拜~興 拜~興 平身

(대축급제집사개제단배위개괘 배~흥 배~흥 배~흥 평신)

대축과 모든 집사는 모두 제전 배위에서 삼배 하시오 배~흥 배~흥 배~흥 평신

◎ 이것으로 천신고유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16년 오산시정월대보름큰잔치 기원문

오산시 토지신명과 천지신명, 일월상신, 오산시 산천초목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선망선조 제위들께 삼가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은 하늘에 가득하고 행복과 희망의 염원은 가슴마다 넘칩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국운이 날로 번창하고 남북이 평화 통일되어 분단의 아픔과 불행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경제도 무궁히 발전하여 온 국민의 생업이 풍요로우며 질병과 재난이 없는 평온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산시민이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며, 편견과 독단, 반목과 질시를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탄탄한 신뢰의 끈으로 오산시민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고통과 슬픔은 서로 나누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행복도 서로 나누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서로의 기쁨과 행복이 배가됨을 알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웃으며 이웃과 함께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산시의 무궁한 발전과 태평과 안녕이 하늘에 떨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산시민 모든 분들 가정엔 건강과 행운이 집집마다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2016 오산시 정월대보름 큰잔치를 펼치오니 참석하신 모든 이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
소서. 병신년 정월 대보름날을 기하여 비옵나이다.

2016년 2월 21일
대한노인회장 박신영

5. 역사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표지석(판)이 설치되는 장소(Ⅱ)

(2차분 6곳이 오산시 문화체육과 문화팀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2016년 9월)

최초 화성등기소와 오산시법원 자리 - 독립청사 / 오산시 오산동 884-11

오산시는 수원지방법원 부동산등기와 관할이었는데, 1980년 9월 8일 대법원 규칙 제719호 (1980년 5월 28일 공포)에 의거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로 관할이 이전되었다. 화성등기소는 당시 화성군 오산을 오산리 573-1에 개청하였다가 이후 1983년 10월 10일 오산시 오산동 884-11(오산로 183-5)의 독립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처리했다. 오산시법원은 1984년 9월 27일 대법원 규칙 제886호에 의거 1985년 1월 1일에 설치된 화성순회심판소의 명칭이 1995년 9월 1일에 변경(1994년 7월 27일 공포된 법률 4766호에 의거)된 것으로 용인시법원의 상주 판사가 안성군법원과 함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1996년 3월 1일 오산시법원이 승격되어 판사가 상주하였고 안성군법원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같은 해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생기면서 오산시와 화성군만을 관할로 하게 되었다. 현재 화성등기소와 오산시법원은 2003년 11월 15일 오산시 궐동 662(법원로 65)의 신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운암들은 오산동과 부산동 사이의 넓은 들판이었다. 운암들은 오산을 대표하는 쌀 생산지였는데 현재는 운암들의 반 이상이 택지로 개발(운암택지지구)되어 오산의 중심 주거지와 상업지로 변하였다. 이곳에는 오산시청, 오산시의회, 화성동부경찰서, 중앙도서관, 오산문예회관, 오산스포츠센터, 오산종합운동장, 전화국, 운암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서 있다. 운암들이라는 지명은 <운암들전설> 속의 운암(雲岩)이라는 사람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운암들전설>

아주 오랜 옛날, 오산천에는 제방이 없어 장마만 지면 물이 범람하여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제방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고민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던 과객이 금암마을 어느 진사의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과객은 구척장신에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과객이 며칠 동안을 무위도식하며 지내다 하루는 진사에게 신세를 많이 졌으니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물어 진사가 오산천 범람에 대해 말하였다. 과객은 딱한 사정을 듣고 내가 제방을 쌓아줄 테니 몇 월 며칠 보름날까지 큰 가래를 하나 준비하고, 통돼지 일곱 마리와 술 일곱 동이를 준비해 달라하였다. 진사는 어이가 없었으나 과객의 인물됨이 범상치 않아 사람을 시켜 광고산에서 큰 물푸레나무를 하나 베고, 수원의 대장간에서 큰 가래를 만들어 소로 끌고 오산으로 왔다.

드디어 약속한 날짜에 과객이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는 저녁에 일어나 진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니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아무도 밖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이른다.” 진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하였으나 너무 궁금하여 마을 주민들과 몰래 숨어서 과객의 하는 짓을 보니 과객은 그 큰 가래를 한 손으로 들고 오산천 개천 바닥의 흙과 모래를 떠서 왼쪽에 쌓고, 또 떠서 오른쪽에 쌓으니 순식간에 제방이 생겼다. 한참을 그렇게 일을 하더니 통돼지 한 마리를 먹고는 술 한 동이를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제방을 쌓는데 새벽이 되어 동이 틀 무렵에는 오산천의 제방이 다 쌓여졌다고 한다.

밤새도록 오산천의 제방을 쌓는 일을 마친 과객은 진사에게 떠나겠노라 인사를 드리니 진사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사례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절하고 유유히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고 한다. 주민들이 과객의 이름을 물었으나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과객이 오산을 떠나 한양을 향해 현 화성시 동탄면 미륵덩이를 지나 영천리로 가다가 길 가운데 나무 두 그루가 과객을 가로막자 돌아가지 않

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놓고는 그 나무에 운암발목(雲岩拔木)이라 써놓아 주민들이 그때서야 그 객의 이름이 운암(雲岩)인 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그때부터 오산천변의 들판을 운암들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오산장(오매장터 + 오산오색시장)의 유래-설치장소

동서남북 중 남쪽과 북쪽 출입구

‘오산(烏山)장’은 현재 ‘오매(烏梅)장터’와 ‘오산오색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753년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 오산장(鰲山場)으로 기록이 처음 등장하였으며, 1792년(정조16년)에 발간된 『화성궐리지』와 1863년(철종14년)에 발간된 『대동지지』, 1899년 발간된 『수원군읍지』에도 기록이 되어있다. 오산장은 1911년에 간행된 『한국수산지』에 3일과 8일로 기록되어 있어 5일장임을 알 수 있는데, 이후 1914년 12월 25일 조선총독부는 경기도고시 제71호와 시장규칙 제27조에 의거 수원군 성호면에 ‘오산시장’의 명칭으로 상설시장이 개시되어, 5일장과 상설시장이 병행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현재에도 오산장은 인근 지자체를 아우르는 넓은 상권과 젊은 소비자가 많은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에 힘입어 2013년 1월 시장경영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에서 전국 1,511개 시장 중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활성화와 운영이 잘되는 전통시장의 하나이다. 오산오색시장은 1914년 개시된 오산시장을 잇는 100년 전통의 시장으로 명칭이 2010년에 오산중앙전통시장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년 5월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오산오색시장’으로 변경되었고 위치는 오매장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오매장터는 『택리지(擇里志)』의 오산장을 잇는 260년 전통의 옛 장이다. 2013년 8월 옛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오산천의 옛 명칭인 오매천(1789년 간행된 『수원부읍지』 기록)의 오매를 따서 오매장터로 명명하였다. 위치는 오산오색시장의 북쪽인 옛 오산장터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당굿과 이용우 선생 그리고 경기재인청 - 설치장소 / 부산동

경기도당굿(京畿都堂굿)은 1990년 10월 10일에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로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목적으로 매년 혹은 그 이상의 해를 거르며 정월 연초나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행해지던 것으로 호남지방의 당산굿이나 동해안의 별신굿과 함께 세습무가 맡아 행하는 대표적인 마을굿이다. 경기도당굿은 무악을 연주하는 화랑, 줄타기·물구나무서기 등의 곡예를 하면서도 무악을 연주하는 재인, 예능인이며 무악을 연주하는 광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축제분위기를 돋우는 다양한 연희 종목을 보유했으나, 현재는 광대 소리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의 승무, 태평무, 도살푸리춤, 줄타기 등의 민간 무용과 전통연희의 소리와 춤사위가 모두 경기도당굿에서 연유한다. 즉 한국전통예술의 모태가 되는 것이 경기도당굿이다. 이 경기도당굿의 대표적 연행자인 이용우(李龍雨-1899~1987)선생은 옛 수원군 성호면 부산리(오산시 부산동) 출신의 이름 높은 화랑이었다. 이용우는 8도 도대방인 이종하(李鍾河)의 장자로 태어났으며, 그의 증조부 이광달, 조부 이규인도 8도 도대방이었고 일제강점기 때 오산에서 수집한 오산12제차를 제공한 이종만(李鍾萬)의 조카이기도 하다. 선생은 8세 무렵부터 판소리를 익혀 서울 단성사와 지방을 순회하며 공연을 하기도 하였는데, 29세 때 목이 부러져 끝내 판소리를 포기하고 무업을 다시 계승하였다. 경기재인청이 폐청된 후에도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며, 경기도당굿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1980년에 부천의 조한춘을 만나 경기도당굿 활성화를 시도했고, 1982년에는 국립극장에서 오수복(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기능보유자)과 함께 공연하기도 하였다. 이용우 선생은 경기도당굿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1987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경기재인청은 춤과 노래, 재담, 놀이 등을 연행했던 예인들을 총괄하던 단체로 옛 수원시 성호면 부산리 웃말(오산시 부산동)에 위치하였으며 이종하의 집에서 보유한 『경기도 창제도청안』1책, 『경기도 재인청 선생안』1책, 『경기도 창재청』2책이 있어서, 최소 1784년부터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20년대 일제가 강제로 폐청시킬 때까지 130여 년에 걸쳐 재인청이라는 무인의 제도가 존속했음을 알 수 있으며, 폐청 당시에도 회원이 4만 명이나 되는 기구였다.

탐동의 지명유래 - 설치장소 / 탐동

탐동에는 탐에 대한 전설이 남아있는데, 현재는 아무 흔적도 없어, 위치나 탐의 형태, 층수, 재질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 다만, 탐에 대한 전설과 오랜 세월 탐동으로 불리어지는 것으로 볼 때 탐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탐동 전설〉

고려 초 개성에서 남쪽으로 진격을 하던 고려군은 음력 그믐밤 광고산을 넘을 때, 가까운 거리도 이동하기가 어려워, 일부 척후병만이 사주 경계를 하면서 광고산 정상에 올라가 전방을 바라보았으나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 잠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전방이 멀리까지 환해졌다고 한다. 척후병들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 불빛이 비치고 있는 곳을 찾아가보니 땅에 박힌 바위에서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상부에 보고하니 곧바로 지휘관은 진격 명령을 내리고 오산(구수원) 쪽을 향해 진군하였다고 한다.

고려군은 천우신조로 얻은 기회를 놓칠세라 일사천리로 오산(구수원)읍내까지 당도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읍탐에서 남쪽으로 서광이 비치니 지휘관은 즉시 진격을 명령하여 계속 남진하였다고 한다.

이윽고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되어 고려 태조 왕건이 광고산에 있었던 일을 듣고 명하기를 멧부리에서 서광이 비쳤으니 그 산 이름을 광악산(光 빛광嶽 멧부리 약)으로 이름을 짓고 그 산에 산신제를 크게 지내도록 하라고 명하였다고 한다. 또한 오산(구수원) 읍탐의 이야기를 듣고 탐을 위해 천지신명께 해마다 제를 올리고 백성들에게 소원성취를 하려거든 탐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빌도록 하라고 방을 써 붙였다고 한다. 어찌된 일인지 많은 백성들이 돌기 시작하였고, 소원을 빌기만 하면 어김없이 성취되었다. 이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자 찾아오는 백성이 많아졌고 주야로 탐돌이 하는 수효가 많아 줄을 이었다고 한다.

6. 솟대

솟대 - 설치장소 / 시청광장(2015년 오산시 공보관실 공보팀에 의해 설치)

민간신앙을 목적으로 또는 경사가 있을 때 축하의 뜻으로 세우는 긴 대.

오산을 상징하는 까마귀

- BCE 7197년 바이칼호변에 인파견 환인이 환국(동서 4대 문명의 시원 처)을 세웠다.(7대 환인 3301년)
- BCE 3897년 백두산 아래 커발한 환웅이 신시개천(10 · 3일, 개천절) 홍익인간 통치 이념으로 배달(겨레)국을 세웠다. (18대 환웅 1565년간)
- BCE 2333년 아사달(하얼빈)에 단군왕검이 (단군)조선의 문을 열며 배달국을 계승했다. (47대 단군 2096년간)
- BCE 239년 북부여 고구려로 이어진 역사는 대진국(발해), 통일신라(남북국시대)-고려-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KOREA) 국호가 광명을 상징한다.
- 까마귀(삼족오)는 하늘의 광명을 인간세계에 내려주는 빛의 전령자로 배달국 이래 한민족 6천사를 관통하는 광명문화의 상징이며 봉황새의 원형이다.
- 오산시의 상징새인 까마귀는 대한민국 바른 역사의 자존심이며 왜곡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아 줄 것이다.

(출처 : 『삼성기 상 · 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고조선시대부터 전해져 오다 삼한시대에 보편화된 우리의 가장 오래된 문화인 솟대는 중앙아시아 알타이지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되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남아 전해지고 있다.

삼한시대의 솟대는 신을 모시는 장소인 소도지역의 표식으로 세웠으며, 그 후엔 마을의 안녕과 그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도 만들어져 세웠다고 한다. 지금도 우리 주변엔 많이 만들어져 동네 어귀나 집 뜰에 세워지고 있고, 장독대 위에도 올려놓고 있다.

고대인들은 새를 인간과 하늘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존재로 여겼다. 솃대도 인간세계와 신의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여기는 인간의 의식이 형상화로 나타난 것이다.

솃대 위에 올려진 나무로 만든 세 마리의 새가 어떤 새인지 정확하게 특정되어 전해진 것은 없다. 그렇지만 길고 넓적한 부리의 새는 오리로 추정하고, 가는 목을 지닌 새는 황새나 기러기 등으로 추정하나,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신성한 새로 까마귀를 의미한다는 설은 이론이 없다.

오리를 새긴 솃대는 농경과 관계있는 의미로, 기러기를 새기는 솃대는 서열과 위계질서를 지키며 사회를 원만하게 영위하게 하는 의미를, 까마귀를 새긴 솃대는 인간이 사는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신성한 새로 영적인 신성의 의미를 갖는다.

7. 오산(烏山)지역의 무가(巫歌)

오산지역에서 행해졌던 무속은 현대 한국 전통음악과 전통무용의 근원 역할을 하고 있다. 오산열두거리(烏山十二祭次), 오산지두서, 시루고사, 삼신축원 등 오산의 무부들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연행된 무가들인데, 이 중에서도 대표적 무가인 오산열두거리와 오산지두서를 현대 세습무속의 원형인 오산무부(烏山巫夫) 이종만(李鐘萬), 이종하(李鐘河)의 구전(口傳)으로 체험해본다.

『오산열두거리(烏山十二祭次)』¹⁾

〈烏山巫夫 李鐘萬 口傳〉

1. 「부정(不淨)」

서울은육조말연, 시골은륙방말연

1) 오산시, 『烏山市史 下』, 1998. 632~672쪽.

팔도방백각도각읍, 차례로말연할제
 일품을말연할제
 광해일품, 광주이품, 수원정삼품
 금과천, 꽃대주, 양안성(陽安城)
 군수수령차례로말연하고, 면으로단이며
 수원군성호면오산리, 리씨가중에
 이정성들이려고, 임의여름지여내여
 색먹고색쓰고, 그저잇슬수업사와
 이정성을들이라고
 텨하궁텨대박수(天下宮天大博士), 디하궁공무당(地下宮公巫堂)
 날근책력(冊曆)치쳐놋코, 핵책력펼쳐놋코
 일상생기(一上生氣), 이중텨의(二中天宜), 삼하절체(三下絕體), 사중휴혼(四中遊魂), 오상화해
 (五上禍害), 육중복덕(六中福德), 칠하절명(七下絕命), 팔중귀혼(八中歸魂)
 남생기(男生氣), 녀복덕(女福德), 녀생기(女生氣), 남복덕(男福德)
 조흔날갈라잡아, 문우에붓쳐놋코
 조라치성(神泗致誠) 들이려고
 압내물길너가니, 학이놀아우리영정
 공중에소슨물, 신일굽시물한박떼내여
 상탕에머리감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열손발원, 시위송신주단마(侍衛頌神綢段麻), 신연백모(神輦白茅)
 안ㅅ당밧ㅅ 당내제당, 두렛이고여놋코
 단골만신청좌(丹骨萬神晴坐)하야, 제관집사(祭官執事)시워놋코
 먼저오시는님신, 부정님이오실 때
 부정님본은어대가본일느냐
 부정님아버지는텨하궁대장군(天下宮大將軍)
 부정님어머니는디하궁디탈부인(池下宮池脫夫人)
 혼인동주(婚姻同住)인연매져
 석달에피를모고, 다섯달반짐바다
 열달에나어노니, 초가망의초두부정
 둘째로나어노니, 이가망의이두부정

셋째로나어노니, 삼가망의삼두부정
 마루놀든부정, 재로놀든부정이요
 아기나산수부정, 개나서월수부정
 동방에청색부정, 남방에적색부정
 서방에백색부정, 북방에흑색부정
 중앙에황색부정, 소죽어우마부정
 흙달어코살부정, 남게목살부정
 청색무색팔어듣고
 통비단설쥬(通緋緞雪紬)팔아들든부정(不靜)이요
 술의쥬잔익즌물팔아들든부정은
 마량(馬糧)으로물니치고
 삼신데석(三神帝釋)에팔아들든부정
 상상미로물니치고, 산물하자
 상청설혼여덜수비, 중청스믈여덜수비
 하청은열여덜수비, 유증강남수비
 좌증강녀수비, 벼루잡던수비
 책잡든수비, 먼길객사수비
 여러수비다왔거든, 만이먹고물러가거라
 륜갑(六甲)으로만이먹고도라가거라
 여율령(如律令)사바하***

2. 「시루말」

앓가몬져놀아나신님신은
 시골은부정가망, 서울은영정가망
 영부정상가망질거이놀아나고
 금이좃쳐오시는님은시루성신이오실적에
 동두칠성, 남두칠성, 서두칠성, 북두칠성
 태일성, 태백성, 견우직녀성

당칠성업위왕님오실적에
 이때는어느때인고
 떡갈남게떡이열고, 쌀이남게쌀이열고
 말머리에뿔이나고, 쇠머리에갈기나고
 비금주수(飛禽走獸)말을하고
 인간은말못하든시절이라
 텃하궁당칠성이디하궁당날여와서
 가구적간인물추심(家口籍簡人物推尋)단이실제
 동영에소슨달이서역강에일몰하고
 길즈생날버리지는제집차저들어가고
 갈곳이전혀없어
 한곳을바라보니, 난데없는불빛이보이거늘
 들으랑이들어보고, 살피랑이살펴보아라
 불이어인불이나
 매화뜰매화부인의집이로소이다
 당칠성일은말삼, 말머리를돌리여라
 매화뜰당도하니, 매화부인거동보소
 쇠직이쇠열어라, 문직이문열어라
 동성방서리차고, 남성방하귀하고
 자리업시한자리, 벼개업시한벼개
 그날밤을류식(留息)할때, 자리동품하실적에
 초경녁에꿈을꾸니, 오른억개하가듯고
 이경녁에꿈을꾸니, 왼억개에달이듯고
 삼경녁에꿈을꾸니, 청룡황룡얼켜어져
 텃하궁에올나가보이거늘
 하룻밤을지낸후에, 동영이발가오니
 당칠성(堂七星)이같야하니, 매화부인하는말이
 꿈해몽을하야주고가소샤
 당칠성이하는말씀
 해가도다뵈는것은나의직성이요

달도다뵈는것은부인의직성이요
 청룡황룡뵈난것은귀자형테(貴子兄弟)날 것이요
 당칠성간연후에, 그달뵈터태기(胎氣)잇어
 석부정부좌하고, 이불청음성하고
 목불시이색하고, 활부정불식하고
 침불침좌불변하고, 십삭만에나아노니
 먼저난이선문이요, 뒤에난이후문이요
 성은성신이라
 한두살에거름배고, 사오세에말을배워
 십여세당도하야, 글방에느엇드니
 글동접아해들이아비업는자식이라하기로
 그말이듯기실혀
 어머니, 날버리지길증생도아비성본잇다는데
 날갓흔자식은아비성본업사오니가
 매화부인하는말이
 너의형데낫튼해에
 텃하궁당칠성이디하궁에날여와서
 가구적간인물추심단이다가
 서산에일모히니, 우리집와서수인후로
 너의형데난것이다
 저애기그말듯고, 못할저조(才操)전혀업서
 텃하궁에을나갈제, 검은구름노를저어
 무지개로다리눅코, 셋별(啓明星)로원앙달아
 흰구름잡어타고, 텃하궁을나가서
 아비본차질적에, 당칠성하는말삼이
 너의모친이너의형데낫슬제
 성은무엇이라하며, 일흠은무엇이라하시든야
 먼저난이선문이요, 뒤에난이후문이라하옵디다
 성은성신이라하는이다
 먼저난이선문이는대한국을진여먹고

뒤에난이후문이는소한국을진이실제
 옛날시절에는달도두분이도드시고
 해도두분이도드실제
 철궁에서윗살뻘여들고
 해하나쏘아데석궁(帝釋宮)에걸어들고
 달하나쏘와내여명모궁(明圖宮)에걸어두고
 가증불전에들어갈제
 남북해동조선국, 아모면아모동리
 아모성씨한가중, 수명장수하옵기를
 친밀축수정성이로소이다***

3. 「데석(帝釋)」

이곳이늪곳이나, 아황여영(娥皇女英)곳이로다
 데석님본을풀면, 게이되가본일논야
 데석님의아버지는해수뜰에수선비(海水先輩)
 데석님의어머니는룡궁뜰룡녀부인(龍女夫人)
 혼인동주인연모아, 한두달에피를모고
 다섯달에반짐바다, 여섯달에찬짐바다
 일곱여덟달에팔삭बाट고, 아홉달에젓줄먹어
 십삭만에나아노니, 저애기의거동보아라
 팔자하나기바하며, 사쥬하나불길하야
 다섯살이되든이만, 모사망을하얏고나
 여섯살이되든이만, 부사망을하얏고나
 갈바이전혀업서, 아잡삼춘집이가서
 고공살이하는구나
 아저비는내아저비, 아주머님남의전쳐
 정월이라초하룻날은밥땡이토장땡이
 여기저기던져주며

그밥먹고나무가라
 저애기저동보아라
 눈물을먹음고서, 새낫갈어손에들고
 편승마질바랑은허리아래질끈매고
 대문간에썩나서서
 아랫동내머슴들아, 옷동내머슴들아
 나무가자나무가자, 암만서서외여친들
 정월하라초하룻날그뉘라서나무갈야
 청금산황금산기실기로, 차즘차즘을나가니
 위퍼진떡갈나무, 아래멸숙광대쌀이
 한단비고한숨짓고, 두단비고탄식하니
 로산수하빛긴길로, 중하나가날여온다
 그중이하는말이, 안아이애야말을못자
 너는늬집애기기로, 날도만코달도만컷만은
 정월이라초하룻날, 남글비러왔단말가
 그애해엿자오되
 사주팔자기박하야, 부모조실일즉하고
 갈발이업삽기로, 아잡삼촌집에가서
 고공살이하노라니, 남글가라왔나이다
 그중상하는말이
 그나무를하지말고, 나를딸아절(寺)에가자
 저아기그말듯고, 중을딸아가는고나
 그중이하는말이, 아나이어야말들여라
 글을먼저배려는야, 경(經)을먼저배려는야
 글에조친경이웁고, 경에조친글이안이오니
 글을먼저배우겟소
 천자(天子), 유학(幼學), 동몽선습(童蒙先習), 통감(通鑑)한길, 소학(小學), 대학(大學), 시전(詩傳), 서전(書傳)읽어내니
 양반의글로서는, 대과급제할글이요
 중인의글로서는, 문신급제할글이라

중의글씨본을뒀네, 경문(經文)이나배워볼가
 하나님께는축수경(祝壽經), 땅에법화경(法華經)
 나라에는충신경(忠臣經), 부모에게는효성경(孝誠經)
 일가에는화목경(和睦經), 동기간에는 우애경(友愛經)
 동네는화우경(和友經)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읽어노니, 중의도법(道法)완연하다
 당금뜰당금아기, 인물좃타나라가득
 저질(才質)좃타국가득, 구경차로가는구나
 훗일곱에절에올나, 열일곱에삭발하고
 당금아기보려하고, 데석뜰로날여갈제
 열두골선배님네, 당금애기보려하고
 나귀에짐을실고, 압문전에다다르니
 압문에서삼년살고, 뒷문에서 삼년살고
 석삼년훗아홉해, 유리정성들이여도
 움도싸도못보왔는데, 포진장강놓히치고
 바둑장기두실적에, 중하나이진나간다
 선배님네하는말이, 패심헌저중놈아
 그중이하는말이, 이중저중말으시오
 념불공부(念佛工夫)힘을써서, 열두골신임살든중일은이
 당금뜰당금아기씨, 인물좃타날아가득
 저질좃타세계가득, 구경차로왔나이다
 선배님네하는말이
 우리들이못본각씨, 중이엇지본단말가
 그중이하는말이
 선배님네못본각씨, 소승불수잇나이다
 산중의도사로서, 비린것도 일금하야
 그아기를보난이다, 선배님거동보소
 바둑장기거두시고, 소승절에나올나와서
 소승거동보옵시되
 소승이당금각씨(檔儉閣氏)못보면은

선배님네댁에가서, 든안살이하오리다
 중의고름선배맷고, 데석들로날여갈제
 저중상거동보소
 실굴갓, 총감토
 손연당성빋난한옥, 양귀밋헤떡붓치고
 백포장삼(白布長衫)떨쳐입고, 구리백통반은장도
 갓고름에빅겨차고, 자지바랑둘너미고
 데석들로올나가니, 집체레도웅장(雄壯)허다
 안채는기역자요, 행랑채는입구자라
 집치레가저러하니, 화초인들업슬손야
 압혜는로송이요, 뒤편은반송이요
 이가지저가지, 녹아지상나무, 왜철죽진달래
 맨들암이봉선화, 가지가지봉오리라
 화원에연못파고, 테세방에방아걸고
 옥당방에우물파고, 그런것이전혀업다
 이문안에들어가서, 념불소래정정하니
 담금애기(檀儉童女)거동보아라
 턴하만치벧틀놓고, 디하만치잉아(綜絲)걸고
 드나드니는북소래라
 화당통탕소리난다
 석새가문어지고, 다섯새가문어진다
 담금애기운연이안젖다가
 옥단춘아단단춘아, 어서빳비나가보아라
 이곳이라하는데는
 날김생길버러지도근접지를못하거든
 인간소리원일이냐, 중의소리원일이냐
 저중이하는말이, 정월이라대보름날
 아직재미(齊米)간데업서, 저녁재미를돌아왔소
 저녁재미간데업서, 아직재미돌나왔소
 담금애기하는말이

아버지도안계시고, 어머니도안계시고
 아홉오라버니도안계신데
 재미동냥달나는야
 저중이하는말이
 너이어머니계시기로, 뒤의로적(露積)나를주며
 너아버지계시면은, 압해로적나를줄야
 만이주면서되서흡, 작게주면한되서흡
 그러치아니하면, 한줌두줌줄것인데
 당금애기그말듯고
 저아버님바라뛰에, 우의ㅅ 쌀을밀어놋코
 속의ㅅ 쌀을떠다주니, 저중상의거동보소
 주는재미안이밧고, 우정뜰가운데쏘다노니
 당금애기깜짝놀나
 옥단춘아단단춘아, 이쌀주어저중주어라
 저중이하는말이
 우리절부처님이령험이지중하야
 비린것일금하고, 누린것도일금이오니뒤ㅅ동산에올나가서, 광대쌀이비여다가
 한알두알주어달나
 한참이리하올적에, 쌀세알을집어주며
 당금애기보고하는말이
 이쌀을너먹으면, 이중이간다하니, 그중보낼 욕심으로, 쌀세알을입에넋코
 요리조리짓씹다가, 그만생켜버렸구나
 저중의거동보소
 나간지석달만에, 나간자최잇슬이라
 안이나달으ندا, 그중간지석달만에, 밥에서는생쌀내요, 물에서는해금내라
 압산이놉하지고, 뒷산이놉하지거든
 나를차저절(寺)로오라
 저어머니오시든이
 아가아가당금아가, 네병이원일이냐
 귀신이준병이냐, 인간이준병이냐

바른대로말하야라, 당금아기하는말이
 난데업는중이와서, 재미달나하옴기로
 재미준죄밧게업나이다
 부인이하는말이
 두루넬니사주보매, 중사위를어들이라든이
 중사위를어뎃구나, 너갈데로네가거라
 저아기할일업서
 옥단춘이압스거라, 단단춘이뒤스거라
 산으로가자하니, 바람겨워못가겟다
 골길로가자하니, 심겨어못가겟소
 비산비낭길로걸어, 한곳을다달으니
 모란석바위꽃헤, 꽃세송이피엿드라
 꽃한송이꺼꺼내어, 머리우에곱게꽃고
 또한송이꺼꺼내어, 품속에고히품고
 또한송이꺼꺼내어, 옥단춘이주며하는말이
 이꽃을낭네가지고, 나본듯이내여보아라
 청금산괴슌으로, 황금산괴슌으로
 길을차저올나가니, 일국지명산이요
 제불지대찰이요, 국가의원당(願堂)이라
 큰법당삼층이요, 작은법당이층이라
 찬란현연화당속에
 금부처님주줄이안지시다
 저중의거동보소, 불법책을외시는데
 난데업는인간꽃이법당안에피는구나
 상제야나가보아라
 상제가나가보고, 스승전에알외오대
 조고마헌녀자하나, 스승님을찾나이다
 저중의거동보소, 버선발로뛰어나와
 너의집에갓슬적에, 원갓학대만튼이만
 이절에외왔는야

증보자고내가왔나
 뱃속에들은아기성명알자왔나이다
 저중이하는말이
 첫재로나스커들낭대해랑(大海郎)이라일흠짓고
 둘째로낫커들낭칠비동산이라하소
 칠년대한감을기로, 대천바다말을손야
 구년지수장마진들, 칠비동산문혀질가
 첫재난이는대암데석(大庵帝釋), 둘째난이는 소암데석
 아들아기나으시면, 명가사(命袞婆)늘여주고
 둘째난이소암데석(小庵帝釋), 재불제던(諸佛諸天), 락산관악(洛山觀音)
 석가여래성인데석(釋迦如來聖人帝釋), 부귀공명수명장수(富貴功名壽命長壽)
 아모면아모동리, 아모성시한가중
 수명장수하옵기를
 친밀축수정성이로소이다***

4. 「손긔(痘神賽神)」

강남은홍씨손임, 우리나라리씨손임
 열편은도한수(都元帥), 나라막이손임이요
 시위막이손임일세
 뗏분이나오시든야
 신세분나오시다
 남의나라성가지고, 내나라를바릴손야
 신세분나오시다, 신분은들어가고
 단세분이나오실제, 남손임치레보소
 물스결갓흔외올망건, 대모관자달아쓰고
 삼백대통갓에밀화갓끈달아쓰고
 방초바지통행전에, 남수아주집저고리
 몸에맞게지여입고

홍대단자락턴룩, 광대우띄눌너매고
 녀손임치레보소
 우의로둘너보니, 삼스단갓흔헛튼머리
 반달갓흔왜로시로빋겨낼여
 전반갓치넙게따아, 금봉채가로꽃고
 한금단덧조고리매화단초딜어입고
 홍대단잔살치마맵씨잇게떨쳐입고
 물명주고장바지, 삼팔주단속숫것을
 몸에맛게입으시고
 백삼싱버선을외씨갓치신으시고
 만석당혜접쳐신고
 가마치장둘러보니
 먹공단가마휘장둘너치고
 가마얼기는백방수아주얼기
 모초단가마주렴은은금전지로물니엿고
 가마꼭씨는주홍칠하고
 압혜는밀하님, 뒤에는달하님
 불나듯이나오신이
 오실 때, 어둠나라침침나라
 산을넘고물을건느시는그나
 마타령, 마치령, 장포산, 장덕산넘우시고
 물흔메물건느시고
 압혜압로강, 뒤로뒤로강, 의주월강다다르니
 사공아배대여라
 사공이하는말이, 배도업고닷도업소
 옛날병란시에나무배는떠나가고
 돌배는갈아안고, 흙배는 풀어지고
 배도업고닷도업소
 네배업다고, 손신별상(痘神別星)뭇갈손야
 수양버들홀터내, 두넙데역꺼마주잇고

배도모고땃도모고, 그깊흔맑은여울
 제손의거동보소, 신고낙귀하고건너을물
 한심도안뭇고, 나느듯이건너를온다
 세손임거동보소
 사공맏딸잡아내여, 상하님삼으시고
 사공아들잡아내여, 종별감삼으시고
 셋재아들잡아내여, 하정수비삼으시니
 사공이생각하고
 상탕에머리감고, 중탕에목욕하고
 하탕에손발씻고, 정안수밧쳐놋코
 비난이다비난이다, 손임전에비난이다
 상냥하신손임마마
 셋재아들맏아들을돌우살녀내여주고
 이자식들은네자식들이나
 셋재아들맏아들을돌우살녀내여주고
 이자식들은네자식들이나
 셋째자부는하청수비삼어노라
 거기섯다내달아, 조선으로나오실제
 골골이진갈너놋코, 가중마다궁중마다
 영검(靈驗)자최보이실제
 남자손녀자손을영검자최보이시니
 하루잇틀머리알녀, 사흘나흘보람주어
 닷세엿세소실신두, 일헤여들해부툏스시루
 아흐레열흘검은시루바드실때
 영검자취이러하고, 괴염자취이러하니
 손임이엿슬손야
 정성이지극하면, 정성덕입사웁고
 치성이지극하면, 치성덕입는이다
 중단호구상단호구, 호구푸리하웁소서***

5. 「군웅청배(軍雄淸拜)」

하날은언제나며, 땅은언제나게신고
던디읍신지라, 한괴운뿐이로다
태극이어린후에
음양이모호하야, 디리(地理)가생긴지라
수화금목토, 오행이상생하야, 만물이생긴지라
곤륜산제일봉은산악지조종이요
산제릉흘니들어, 텃하구조되엿세라
텃하가적단말삼, 우리는몰으노라
텃문을바라보고, 디리를굽어보니
태양이현무되고, 홍산이주작이요
텃태산이청룡되고, 금각산이백호로다
진시황의만리장성, 벼리를삼어두고
남경은웅텃부요, 북경은순텃부라
동남한실이간데업고
오희는어대가고, 지당은어대갓노
세간문물이남아일뫼이라
우조(宇宙)에빚기누어, 상고사를생각하니
삼조선치국시에넙군이늪시든고
도당씨시절에는단군천년이요기자천년이라
첫서울치국은경상도경주는
금비대왕(金毗大王)치국이요
두번스재치국은평양은반서울
기자천년, 단군천년, 이천년년치부이요
세번재치국은가성부덕물산
신덕물후덕물, 왕근태조, 최일장군치국이요
네번재치국은시지한양터를
계늪라서잡으섯나
강남서나온무악이걸녕쇠띄여놋코

팔도강산을력력히살펴보니
 경상도태백산은락동강이돌너잇고
 전라도지리산은백마강이돌너잇고
 충청도계룡산은공주검강이돌너잇고
 황해도구월산은세류강이돌너잇고
 함경도백두산은두만강이돌너잇고
 평안도잠물산은대동강이돌너잇고
 경기도삼각산은림진강이돌너잇고
 대궐터잡으실때
 서문안대궐터는금계포란형이요
 배오개대궐터는장군이등마형이요
 경복궁새대궐을차레로마련하고
 왕십리청룡이요, 만리재백호로다
 부악은억만봉이요, 우리금주님만만세
 육조를마련하고, 동부서부북부남부
 한성부를마련하고
 시골은적다하고, 육방을마련할제
 일품을마련할제
 광해일품, 광주이품, 수원은정삼품
 팔도방백각도각읍, 차레로마련하고
 아모고을아모면, 아모동리아모성
 한가중이정성들이려고
 텃하궁텃대박수(天下宮天大博士), 디하궁공무당(地下宮公巫堂)
 천세력(天歲曆)내어놋코
 일상생기(一上生氣), 이중텃의(二中天宜), 삼하절체(三下絕體), 사중유혼(四中遊魂), 오상화해
 (五上禍害), 육중복덕(六中福德), 칠하절명(七下絕命), 팔중귀혼(八中歸魂), 대주는명을엇고,
 괴주는복어들날
 정성으로갈여내여, 문우에붓쳐놋코
 문전에황토피고
 정현인간들어오고, 부정인간나갈세라

단골만신청좌하야, 제관집사세워놔코
 조라정성들이려고, 은박아지놋동이엿헤끼고
 압내물길너가니, 학이놀아누리영정
 뒤스내물길너가니, 룡이놀아비리영정
 공중에소순물, 세닐곱스물한박떼내여
 상탕에머리감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열손발원, 시위송신쥬단마(侍衛頌神緇緞麻)
 신연백모(神輦白茅) 들어놔코
 먼저오시는님신, 어는님신이오시든야
 초가망에초두부정, 이가망에이두부정
 마루넙튼부정, 재로넙튼부정
 질거이놀아나고
 고미조차오시는님신, 시루당칠성
 업위대왕오실때, 대시루열두돌림
 소시루다섯돌림, 명전(命錢), 나전(年錢), 상미에발심지
 차례로노은후에, 질거이단여가지고
 고미쫓차오시는님신, 데석이아니오라
 데석은삼불데석, 대왕은육대왕
 아들아기나면명가사(命袈裟), 딸아기나면복가사(福袈裟)
 명과복을가득소복점지해주시든양위데석
 질거이바드시고
 고미쫓차오시는님신, 손신이오실적에
 강남은홍씨손임, 우리나라리씨손임
 나라막이손임, 세위막이손임
 한점에일흠적여, 두점에점적여
 패점락점연지도분, 임의로하시든손임
 질거이바드시고
 고미쫓차오시는님신, 군웅이오시다
 강남은홍씨군웅, 우리나라리씨군웅
 아래로오실적에, 군웅이라하는이는

옛날서성정봉(徐盛丁奉), 을지문덕(乙支文德)
 관운장(觀雲張), 마초(馬超)갓흔이가죽어, 군웅이되는이라
 군웅님치레보면, 화려하고장엄하다
 어충단더충단, 매미탕견해오라비
 상살피치리마저듯는 듯
 깃밋흘볼작시면, 물결갓흔인모망건
 당팔사당쫄달어쓰고
 외곶갓흔금관자양귀밋헤떡부치고
 정주탕건가덕치뒤로눌너쓴연후에
 삼백뎡동양진사립, 대모갓끈달어쓰고
 백방소아주고장바지, 남수주집조고리
 몸에맛게입우시고
 풀으다청포천륙, 놀으다황포천륙
 대귀똥, 광대우똥, 흥복통을눌너매고
 삼승목달이통행전, 태사당혜신으시고
 거름조흔호달마에순금안장지여타고
 물미듯이나오실제, 대장청도들어올제
 대장이라일등패, 오칠장창우기병(五七長槍右騎兵)이요
 이등패, 육팔장창좌기병이라
 삼사낭상, 구십당파, 수만흔정병이라
 각방에표를하되, 동방칠면에청기를세워
 각방저방심미기(角亢氐房心尾箕)로둘엿이꼬자놋코
 남방칠면에적기를세워쓰되
 두우여허위실벽(斗牛女虛危室壁)
 둘엿이꼬자놋코
 서방칠면에백기를세웁스되
 규루우묘필자삼(奎婁胃昂畢觜參)둘엿이꼬자놋코
 북방칠면에흑기를꼬자스되
 정규유성장의진둘엿이꼬자놋코
 한가운데황신대기

이십사방을응하야둥두렷이꽃고
 대장청도버렸다
 대장이라일등패, 오칠장창우괴병
 룡팔장창좌괴병, 삼사낭상구십당과
 수만흔정병이라
 대장청도들어올제, 청도한쌍홍도한쌍
 저한쌍바라한쌍, 회적한쌍나팔한쌍
 고등한쌍시악두쌍, 포미한쌍금고한쌍
 뇌고함창취태하니, 텃디가뒤놓는듯
 물미듯이들어올제
 주인대주님이웃갓을입으시고
 아해야불으시니, 무엇을하시랴오
 제스상을들여놓코, 면지를편연후에
 삼색실과가진포에, 어동육서좌포우혀(漁東肉西左脯右醢)
 차례로논연후에
 압산에소를니여, 압다리선각이요
 뒤스산의 소리르니여, 뒤스다리후각이며
 생돗잡아큰칼꼬자, 기는듯이논연후에
 왼갓술을다들었다
 청유리병, 황유리병, 묵음친자라병
 도연명(陶淵明)의 국화주, 연엽주, 포도주, 감홍로
 늙지안는불로초, 죽지안는불사약
 록용인삼너은술을군웅님잡수시고
 또한잔팔어내여, 주인대주님께올리고
 정성이지극하니, 술한잔먹게되면
 자손만당, 부귀공명, 백세장수하리로다
 질거이단여가시고, 그밋쫓차오시는님신
 야모성원근조상님네, 굿바더잡수시러
 차례로들어오실제
 무상님본은게어디가본일은야

하계영 산본이로다
 하계영산(霞溪靈山)이본안이라, 여심산(麗深山)이본이로다
 아모택조상무상님네
 굿바더잡술여고, 차레로들여오실제
 저승삼천지부왕께서
 아모성망재야, 느의자손들과
 원갓귀신사이에, 마지정성들인다고하고
 식칼말미사홀줄것이니
 굿바더먹고오라하니
 아모성아모택, 원근부리조상님네
 굿바더잡수러오실제
 젊은이혼신보스 짐을지고
 늙은이혼신쥬량집고
 등밀건이배밀건이청산을넘느리고
 백옥산넘느리며, 계오실적에
 울어넘든청산고개씨러저넘어오고
 씨러넘든청산고개우러너머오실때
 만리산장포산들어가니
 문우에문비(門婢)요, 문안에봉비(奉婢)로다
 시왕반달입네주불(主佛)로안지시엿고나
 여러왕이허는말이
 너의자손들과원갓귀신사이
 마지정성시에, 염라대왕명을바더
 굿바다먹고오면, 시왕으로보내줄것이니
 정성으로바더먹고오라
 망재씨백배사레하고, 조선으로나오실제
 잡귀잡신들이길을막거들랑
 진언(眞言)을외여가소
 애단진언(開檀眞言), 지단진언(指檀眞言), 중구업진언(淨口業眞言), 증삼업진언(淨三業眞言)
 오방내위안토진언(吳方內位安土眞言), 마하수리사바하

어둡든길도밝어오고
 무거웁든다리도가벼워오라는진언이요
 오래뜰도에단이든오래뜰이요
 산도예단이든산이요
 물도예단이든물이로다
 집도에잇든집이로다
 마태마랑으로노리뜰삼으시고
 단골만신عن들이태증(大鉦), 몸거울(身鏡)삼으시고
 장고열채소리로곤고와들어오소사
 안스당에정좌하고
 한잔술은봉턴쥬(奉天酒)로감하시고
 한귀편은봉천금(奉天金)으로감하소사
 못다먹고도라간명복(命福)은자손에게전장하고
 질거이단여가실때, 어느임신아오시리
 아모성원근부리, 좌우조상님네오실때
 십대조하라버니내외분영가(靈駕)시요
 팔대조하라버니내외분영가시오
 육대조하라버니내외분영가시오
 오대조붓텀봉사(奉祀)라
 오대조하라버니내외분영가시오
 사대조하라버니내외분영가시오
 삼대조하라버니내외분영가시오
 이대조붓텀부인대주님
 아버지열두훈백, 어머니신아흙영천
 엇그제살어집줄는이
 길아래송풍재손임되야
 오시니오는줄알며
 가니가는줄뉘알손야
 자손질갓지어덩곳이라하니
 굿바더잡수시고, 왕생왕생수왕생되여

구품연화대로왕생금하옵소서
 질거이단여가시고, 그밋좃차오시는님
 신촌의난사촌, 사촌의난오촌
 오촌의난륙촌, 육촌의난칠촌
 칠촌의난팔촌, 팔촌의난구촌
 구촌의난십촌, 열의열무생
 말안에들든무생, 말박게나든무생
 만이먹고돌아가소사
 그밋좃차오시는남신, 어느임신이안이오랴
 금성대국(錦城大國)오시는데, 압바다더덕대구
 뒤스바다줄기대구, 문문이단단이
 소미나거완, 대미나거완
 왕열기세열기, 두지독차독
 넘치는데소치도록, 가득소독버려주든
 금성대국마누라, 질거이놀아가시고
 그밋좃차오시는님신은성주(成造)가오신다
 성주는지아버니, 지신(地神)은지어머니
 오방오토수륙대장군(五方五土水陸大將軍)마누라
 질거이단여가시고, 그밋좃차오시는님신
 어느님신이아니올이, 결립(乞粒)이오신다
 압문성수결립(星數乞粒), 뒤스 문설수결립(舌數乞粒)
 안어들이든결립, 저들이든결립
 안올닌병거지, 섭수과자(攝袖快子)전대떡
 질끈눌너떡고, 버려주고도와주든
 금성대국마누라질거이놀아나고
 그밋좃차오시는님신, 터주(基主)가오신다
 아희터주, 어룬터주, 남터주, 녀터주
 물아래김참봉, 물우의김도령
 안각씨터주, 지각씨터주, 질거이단여가시고
 시왕(十王)수비(隨陪)안이올야

상청수비설혼여덜, 중청수비스물여덜
 하청수비열여덜, 우중강남수비, 좌중강녀수비
 벼루잡든수비, 책잡든수비
 만이먹고놀아나고, 아모성대한가중
 수명장수, 부귀공명, 자손창성하옵소사
 당공수라(端嚴修羅), 대암데석(大庵帝釋), 소암데석(小庵帝釋), 재불제던(諸佛諸天)
 락산관악(洛山觀音), 석가무니성인데석(釋迦牟尼聖人帝釋)
 무엇무엇바드시든고, 산에올나산데석은
 놓은남게황밤대초, 나즌남게머루다레
 감자실과바드시고, 들로날여룡왕데석님은
 미나리강희바드시고
 정성이지극허니, 정성덕을입혀주고
 지성이지극허니, 지성덕을입혀주마***

6·7. 「조상(祖上)·안ᄃᆡ당국(內堂賽神)」

조상님원근무상님하직하고나는간다
 니의자손사랑동아, 귀동아들귀동딸아
 애중현머느리며, 원근니웃백년친구
 모다이리오너라, 인제가면언제오나
 사람이죽어지면은, 살아올길전혀업다
 해도젓다다시돛고, 달도젓다다시돛것만
 사람한번죽어지면, 다시한번못오는이
 하날이놓다하야도, 삼사오경에이슬이오고
 강남땅이멀다하야도, 별상행차가왕래하고
 대국이머다하야도, 사싱행차가왕래하고
 꽃도젓다다시피고, 입도젓다피건만은
 사람은한번죽어지면, 살아올길전혀업네
 석가세존님이인간제도하옵실제

사람이죽어지면은, 삼년효도소대상과
 백날종지거상법과, 새명일길제사에
 정초한식단오추석, 신사이바지고간직적
 정성으로잘하오면, 어둡든길도밝아지고
 무겁든다리도가벼지고
 팔만사천제지옥을모조리면하시고
 시왕세계(十王世界)로버서나서, 득턴당헌다하옵기로
 아모성조상님네가, 신제신사이바지바더
 반거라잡수시고, 시왕으로들어가실제
 못다먹고못다쓰고, 돌아가신명복을낭
 자손에게전장하고, 시왕세계구품연화대(十王世界九品蓮花臺)로
 부처님제자되여가실제
 십장엄(十莊嚴)을오여가소사
 극락세계십종장엄(極樂世界十種莊嚴), 법정서원수인장엄(法藏誓願修因莊嚴)
 사십팔원원역장엄(四十八願願力莊嚴), 미타명호수광장엄(彌陀名號壽光莊嚴)
 삼태상관보성장엄(三大士觀寶像莊嚴), 미타하토극락장엄(彌陀國土極樂莊嚴)
 보화청정적수장엄(寶河清淨億水莊嚴), 보진여의누각장엄(寶殿如意樓閣莊嚴)
 삼종의공덕장엄(三種益功德莊嚴)
 아모성조상님네, 십종장엄외운후에
 법리(法理)를알고가소사
 법성원유무인성(法性圓融無二相), 제법불통본직(諸法不動本寂)
 무명무상적니체(無名無相絕一切), 진지소지비여경(證智所非餘境)
 지성심심구미묘(眞性甚深極微妙), 부주자성수인성(不守自性隨緣成)
 일정일척다직일(一中一切多卽一),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일엽지심무량원(一亦如是無量遠), 겁칙기거일엽직(劫卽是劫一念卽)
 구세십세호상직(九世十世互相卽), 인불잡능직불상(俱佛雜亂隔別成)
 초발심신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생사열반상공하(生死涅槃常共和)
 이사명연무분별(理事冥然無分別), 십불보현대인경(十佛普賢大人境)
 능이하인사매중(能仁海印三昧中), 번치리중불사의(繁出如意不思議)
 이위부의쌍만(以雨寶益生滿), 허공중생숙귀득(虛空衆生隨器得)

귀가수부특자랑(歸家隨分得資糧), 이다란이무진보(以陀羅尼無盡寶)
 장안벽계실보진(蔣嚴法界實寶殿), 구자실라중도생(久坐實際中道床)
 구래부득명의불(舊來佛得名爲佛), 구래부득명의불(舊來佛得名爲佛)
 구래부득명의법(舊來佛得名爲法), 구래부득명의승(舊來佛得名爲僧)
 아미타불진금생(阿彌陀佛眞金色), 사오단명무등유(相好端嚴無等倫)
 가목증친사대보살(紺目矧淸四大菩薩), 무수억당중화불(巫數億光中化佛)
 영무변사사십원(亦無邊四四十願), 사십팔도중생원(史十八道衆生願)
 공벽계제중생원(嚴法界濟衆生願), 공벽계제중생제불보살(嚴法界濟衆生諸佛菩薩)
 십종대는서가세존임이념불로강(講)을바드시고
 구품연화대(九品蓮花臺)로득턴당하옵소사
 나무서방정토극락세계발원(南巫西方淨土極樂世界發願)
 도슬내의상(兜率來儀相), 비남강생상(毘覽降生相)
 산문우견상(四門遊觀相),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선산수도상(雪山修道相), 수화행마상(樹下降魔相)
 녹원증법상(鹿苑轉法相), 쌍림얼반상(雙林涅槃相)
 극락당친만호룡(極樂堂煎滿月容), 오호차색도허공(玉毫紫色照虛空)
 약인일협칭영한(若人一念稱名號), 직각원산무량공(頃刻圓成無量功)
 동심이대원해(同心意大願海), 원앙원앙(願往願往), 자밋타호중자(在彌陀會中座),
 수집행화상공향(手執香華常供養), 원왕생원왕생(願往生願往生), 회공만장국기별(擴蒙摩頂授
 記別)
 왕생화자열화기(往生華蔣蓮花界), 자탈일심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
 왕생하자열화기이(往生華蔣蓮花界位)
 모생조상님, 팔상을자자이외오시며
 구품연화대로왕생극락하시옵소사***

8. 「성주पुर(成造神歌)」

어라하만수, 어라하대신
 성주본향이어대매인고

경상도안동땅에제비원이본이라
 제비원의술시를바더, 룡문산(龍門山)에던것들이
 그술씨가잘아날제
 밤이면이슬맺코, 낮이면은벗뉘를쏘여
 추월춘풍눈비마저, 황장목이되엿구나
 아라하만수, 어라하대신
 이성쥬를지으라고, 설흔세명역군들
 옥둔피들너미고, 만첩청산을나가
 노구제를지낼제, 누구시루늦코
 백지삼장소지(燒紙)하고, 손곳추와빌을때
 날근집에새재목사들이나
 새집에날글재목사들이나
 뉘도탈도보시지말고, 외방돌아주실황데
 설설이나리소사
 연자목을내려하고
 음디에슨나무는음디목이라못쓸너라
 양디에슨나무는양디목에라못쓸너라
 그안산을바라보니, 연자목이서잇스되
 금띄띄고옥띄띄고, 은근이씻는나무
 독끼로팡팡버혀내니, 엇지아니조홀손야
 아라하만수, 어라하대신

나무를버혀내여, 급한데는궁굴니고
 평디에는끌어낼여, 떼를모와양구양천
 홀으는물로설설이날이소사
 이택으로끌어들여, 김지우며리지우가
 작은나무굽다듬고, 굽은나무는жат다듬어라
 아라하만수, 어라하대신

압동내역군들아, 뒷동네역군들아

조반밥을일즉먹고, 은가래에는놋줄걸고
 놋가래에는은줄걸어
 이택집티다듬어라, 어라하만수, 어라하대신
 동편쥬초첫재간에청룡한쌍이들어있고
 남편쥬초둘재간에홍룡한쌍이들었스니
 알어가며다지여라, 어라하만수어리하대신
 서편쥬초셋재간에백룡한쌍이들었스며
 북편넷재간에흑룡한쌍이들어있고
 한가운데들보에는황룡이놀으시니
 알어가며다지여라, 어라하만수, 어라하대신
 이택성쥬지으려할제, 쥬초놋코기둥세우고
 립쥬상량헌연후에, 연자걸고새위언고
 기와를올닐적에, 아련기와자련기와
 광대기와올닐후에, 안벽치고밧벽치고
 벽대장군(壁大將軍)이놀으소사, 어라하만수, 어라하대신

립춘서(立春書)는립춘대길건양다경(立春大吉建陽多慶)
 문우에붓쳐있고
 당상부모천년수(堂相父母天年壽)요, 슬하자손만세영(膝下子孫萬世榮)
 둘엿이붓쳐있고
 광문벽을바라보니
 왕모는조금뎡(王母調金鼎)이요, 턴비봉옥반(天妃奉玉盤)을
 화기자생군자실(和氣自生君子室)이요, 춘광선도길인가(春光先到吉人家)라
 등불엿이붓쳐있고
 개문하니만복래(開門萬福來)요, 소디하니황금출(掃紙黃金出)이라
 응턴상지삼광(應天上之三光)이요, 비인간지오복(備人間之五福)이라
 자자손손계승승, 둘엿이붓쳐스니
 엿지아니조홀손야
 명당방(明堂方)에사당짓고, 생문방(生門方)에문을내고
 복덕방(福德房)에곡간짓고, 현무방(玄武方)에새암파고

부귀공명하오지다
 대문에을지문덕(乙支文德)진숙보(陳淑寶)
 설주의구절이구절구절양양가(壤壤歌)
 왕발(王勃)의등왕각서(滕王閣書), 죽림칠현(竹林七賢)도연명을
 둥돌엿이붓쳐스니, 엿지안이조홀손야
 에야지야신이야
 턴상옥경요대상, 오만신선이놀아잇고
 악양루(岳陽樓)눅은집에리덕선(李謫仙)이놀아잇고
 룡궁에문안갓다가, 약주를취케먹고
 석교상봄바람에성진화상(性眞和尚)이놀아잇고
 남악산위부인(魏夫人)은팔선녀(八仙女)
 반야산바위밑에숙랑자(淑娘子)놀아잇고
 턴태산마고선녀(麻姑仙女), 채약화초놀앗구나***

9. 「선왕굿(城隍賽神)」

선왕님이들어오실제
 곤륜산일지맥이조선이생것는데
 백두산의네린줄기, 태백산이생것서라
 경상도태백산선왕님, 전라도지리산선왕님
 충청도계룡산선왕님, 강원도금강산선왕님
 경기도삼각산선왕님, 함경도백두산선왕님
 평안도자모산선왕님, 황해도구월산선왕님
 아모도아모군아모면아모동리
 아모성대주사는압주산뒷주산선왕님
 화의바더집터하나어덧구나
 집터좌향바라보니, 거나룻이분파하야
 천리행공오는맥이, 하도락서분명하다
 건곤간선기봉(乾坤艮巽起峯)하야

팔남득거문파(八男得巨門破)는당대발복날것이요
 백호안의옥녀봉은녀자자손이발복이요
 그뒤쌍복석은대대영화날이로다
 이런터에집을질제
 강남은형세잇서
 늦쇠가래늦줄매고
 우리나라형세업서
 시우쇠가래에집동아줄매여들고
 놉은테를파네리여, 김흔테를메여내고
 평반(平盤)에물담은듯
 고루곶게닥거늦코, 지경을닷는다
 아랫동리머슴들아, 웃동리머슴들아
 지경이나다아주요, 어기영차지경이야
 동방닥는지방네야, 청한쌍뿔첫으니
 학머리닷칠세라
 남방닥는지방네야, 적학한쌍뿔첫으니
 학의머리닷칠세라, 가만가만다저주오
 서방닥는 지방네야
 백학머리닷칠세라, 가만가만다저주오
 북방닥는지방네야, 흑학한쌍뿔첫으니
 흑학머리닷칠세라, 가만가만다저주오
 한가운데닥는지방네야, 금뿔겹이무뎛스니
 뿔겹이머리닷칠세라, 가만이가만이다지여라
 지경을다닥근후에, 주춧돌을놓는구나
 아린주추, 자린주추, 둥굴둥굴수박주추, 청옥주추, 백옥주추, 드둔듬성버려늦코
 대산에대목내고, 소산에소목내고
 궁글뿔어떼를모와, 양구양천흐르는물에
 어라둥실떼워늦코
 이물의이사공아, 고물에고사공아
 허릿간의화장아해, 물때가느저기가는고나

압강에대여놔코, 이택으로실어들여
 삼간대청상각곳집, 오십여간지인후에
 물님퇴를덜그릇게지엿는데, 집치레가장이쫓타
 마당가운데연못파고, 속석으로면을맞추어
 네귀번듯진연후에
 대접가튼금붕어는히뜻번듯농쳐놀고
 보기조흔저연화는너울너울춤을춘다
 한가헌백두루미난간담을넘으려고
 징검징검소래허니, 그구경도장이쫓타
 미루치레더욱쫓타
 금상화류복판하고, 대모(玳瑁)로귀를하야
 먼뎃사람얼는얼는, 파리발이드퇴는 듯
 문위를살펴보니, 립춘(立春)을다붓쳤다
 립춘대길건양다경(立春大吉建陽多慶), 춘만건곤복만가(春滿乾坤福萬家)라
 부모는천년수요, 자손은만세영이라
 여기저기붓쳐잇고
 방문열고들어가니, 방안치장더욱쫓타
 치여다보니금반자, 내려다보니각장장판
 백능화지로도배하고, 청능화지로띄들으고
 방안시간더욱쫓타
 룡장봉장금장, 자개함룡, 반다지요
 요강타구재터리를여기저기벌여잇고
 삼층장문열고보니, 원갓비단다들었다
 소간부상(笑看扶桑)삼백척에번듯소사월광단
 악양루고소대에적선하니일광단
 태백이괴경비상턴하니, 간담풍월한단이며
 동정명월화창헌데, 장부잘손금단이며
 등태산소턴하의공부자대단이며
 남양초당경조흔데, 턱하영웅와룡단(天下英雄臥龍緞)과
 넘불타렬긴새면, 춤잘추는장단이며

소아주가겨주가접침들어있고
 원갓명주다들었다
 성천명주, 철원명주, 영흥명주, 창호주
 내주분주하나가득다들었다
 원갓미명다들었다
 경상도남해목, 전라도강진목
 원갓모시다들었다
 전라도장성모시, 충청도한산모시
 접침접침들어있고
 부엌시간더욱쫓타, 채칼, 모판, 국수판
 이남박, 조리, 쪽박, 도마, 팻맷돌, 용수, 챗반
 은두명도죽죽이요, 놋두명도죽죽이요
 무쇠두명어루쇠받쳐, 담방국이띄여있고
 원갓서책이다잇도다, 소학대학론어맹자
 서전시전주역이며, 칠언편, 전등신화, 적벽부
 등황각서, 고문진보, 사략, 통감
 임진록, 소대상전가득이싸여있고
 산수털병거지에큰활중활편전
 가는대방망이하나갓뜯들었스니
 이것이모도뉘덕이나, 팔도선왕님덕이로다
 마당은아홉마당, 로적은열두로적
 로적(露積)우에부엉덕새
 한나래를들어치면, 금장도새로히고
 또한나래를들어치면, 보배장도새로히고
 누른이금관자(金貫子)요, 희다고옥관자(玉貫子)라
 흥패사화실은바라이택으로들어오니
 엇지안이조홀손야
 주인괴주님은청사초마느러치고
 육간대청널은마루이리저리왕래하고
 남종하나뵈갈니고, 녀종하나물길니고

자손창성부귀영화, 만대유전하옵시니
 그게모도뉘덕인고, 이신사지난후에
 안당의조부조상, 삼불데석손신별상
 안당데석팔도선왕, 터주지신동발동심하야
 마음대로뜻대로, 모도다일우워주니
 엇지아니조홀손야
 지성이면감툼이라, 그는그러하거니와
 일년도액막어낼가
 정월에드는홍액(橫厄)은대보름에막어내고
 삼월에드는홍액은삼월삼진날막어내고
 사월에드는홍수(橫數)사월초파일막어내고
 오월에드는홍수오월단오에막어내고
 유월에드는액은유월유두일막어내고
 칠월에드는액은칠석날막어내고
 팔월에드는액은팔월가위에막어내고
 구월에드는액은구월구일에막어내고
 시월에드는액은음인날(年月)막어내고
 동짓달에드는홍수동짓날막어내고
 섣달에드는홍수섣달금음날막어내고
 정칠월이팔월삼구월, 사시월오동지육섣달
 내내돌아갈지라도, 안과태평하옵기는
 단골만신고사덕담(丹骨萬神告祀德談)하는고로
 마음에먹는대로뜻대로, 점지하야주옵소사***

10. 「계면굿」

돌너가자돌너가자
 성우님이돌턴계면, 아우님이아니돌냐
 뒷동산에벽오동심엇드니, 그남기점점잘아

소부동이되엿구나, 대부동이되엿구나
 그나무를비여내여, 북장고맨들어놋코
 벽상에심은록죽비여
 피리젓대해금맨들어
 풍류를갓추어가지고, 어신전대(娛神錢袋)를 둘러매고
 경상도칠십일조, 가중마다계면돌고
 전라도오십삼관, 가중마다계면돌고
 충청도오십삼관, 가중마다계면돌고
 강원도이십삼관, 골골이계면돌고
 함경도이십사조, 골골이계면돌고
 평안도사십이조, 골골이계면돌고
 황해도로들여가서, 골골이계면돌고
 경기도삼십육관, 가중마다계면돌고
 대시루열두돌림, 중시루일곱돌림
 소시루다섯돌림
 삼색실과오색탕, 가진실과다차릴제
 어동육서좌포우혜, 흥동백서찰여놋코
 가(家)중마다중(庭)마다
 아들이아기나시면은명가사로점지하고
 따님이아기나시면은복가사로점지하고
 부모는천년수요, 자손은만년수라
 만복을점지하시도록, 축원정성발원이외다
 수명장수만대유전, 덧덧부귀하시기를
 천만축복발원이요
 이가중에이신사지낸후에
 우환재란관재실물(憂患災難官災失物)닐리닐리제살하고
 안과태평(安過太平)하시기를하나님께축수하나이다***

11. 「터쥬굿(基主賽神)」

애해터쥬어룬터쥬, 남터쥬너터쥬
물아래김참봉, 물우의김참봉
아각씨터쥬지각씨터쥬, 김참봉만이먹고
아모성대한가중, 아모성계주님량위부처
사랑동아들금자동팔아기수명장수하고
소를먹이면약대되고, 말을먹이면용마되고
개를먹으면사자되고, 닭을먹이면봉이되고
넘치는데숫치도록, 점치아야주옵시고
눈크고발큰도적
하리가땅을멀이소멸하고
명복만이점지하고
올나가는병조출양, 내려가는돈천량
압문으로저들이고, 뒷문으로저들이게
점지아야주옵소사***

12. 「마당굿(廷賽神)」

상청설흔여덜수비(隨陪), 중청스물여덜수비
하천은열여덜수비
우중강남수비, 좌중강녀수비
벼루잡든수비, 책잡든수비
만이먹고가거라
군웅왕신(軍雄王神)수비(隨陪)왔거든, 만이먹고네가거라
손신별상(客神別星)수비왔거든, 만이먹고네가거라
해산영상(解産靈山)에간수비오거든, 만이먹고네가거라
수살영산(水殺靈山)간수비왔거든, 만이먹고네가거라
먼길객사간수비왔거든, 만이먹고네가거라

언덕아래락상수비, 만이먹고네가거라
 염병질병돌아간수비, 만이먹고네가거라
 쥐통객사간수비왔거든, 만이먹고네가거라
 꽃불간괴에간수비왔거든, 만이먹고네가거라
 열삼애삼에간수비왔거든, 만이먹고네가거라
 여러각항수비들아, 만이먹고네가거라 ***

『오산지두서(烏山指頭書)』²⁾

〈烏山巫夫 李鐘萬 · 李鐘河 口傳〉

하날은언제나며, 땅은언제나계신고
 텨디(天地)업슨지라, 태극(太極)이어린후에
 음양(陰陽)이모호하야, 디리(地理)가생긴지라
 수화금목토는일인지오행이라
 오행(五行)이생생하야, 만물이생길세라
 텨황아씨는텨하마련하고, 디황씨는디황마련하고
 테호(太昊)복히씨(伏羲氏)황테(皇帝)현원씨(軒轅氏), 수인씨(燧人氏)는물을내고
 화덕씨(火德氏)는불을내고, 목텨씨(木德氏)는남글내고
 신농씨(神農氏)는농사마련할제
 구백곡식씨를텨저, 성실이지어내여
 공산에섯는나무옥도로비어내여
 강태공의조작방아, 찌여내니옥미로다
 메한그릇지어내여, 금주님께올인후에

2) 오산시, 『烏山市史 下』, 1998. 664~668쪽.

그남은살은이수인간먹게말연하야오실적에
 곤륜산데일봉은산악지조종이라
 산제룡홀너들여, 텃하구조되엿어라
 텃하가적단말삼공자의대권이요
 로국이적단말삼우리는몰으노라
 텃문(天文)을바라보고, 디리(地理)를굽내보니
 태양(太陽)이현무되고, 홍산이주작(朱雀)이라
 텃태산이청룡이요, 금곽산이백호로다
 진시왕만리장성벼리를삼어두고
 남경은응텃부(應天府)요, 북경은순텃보(順天府)라
 동남한실이간데엮고
 오희(娛姬)는어디가며, 디당(地塘)은어디간고
 세간문물이남가일뭉이라
 우조에빋기누어, 상고를생각하니
 삼조선치국시에임군이늬기든고
 단군천년기자천년, 합이천년치국이요
 강남땅돌우잡어
 아흔아홉방성(防城)이요, 아흔아홉도장(都場)이라
 조선국돌아잡어
 홋여덜방성이요, 홋여덜도장이라
 첫서울치국은
 경상도경주금비대왕치국이요
 두 번째치국은전라도전주공민왕의치국이요
 세 번째치국은
 충청도라부여백제왕의치국이요
 네 번째치국은평양은반서울
 기자천년단군천년, 이천년이치국이요
 다섯 번째치국은개성부덕물산
 선덕물후덕물, 왕근태조최일장군
 위월도, 삼지창, 비수금바더오시고

여섯번째치국은시지한양아태조등극
 계뇌라잡으섯나
 강남서나온무악이근령쇠띠여늑코
 산천경계를둘너보니, 넉넉히살펴보니
 경상도태백산은낙동강이 둘러잇고
 전라도지리산은백마강이둘너잇고
 충청도계룡산은공주김강이둘러잇고
 강원도 계룡산은 룰흥강이둘러잇고
 평안도잠물산은대동강이둘러잇고
 황해도구월산은세류강이둘너잇고
 함경도백두산은두만강이둘너잇고
 평안도잠물산은대동강이둘너잇고
 경기도삼각산은림진강이둘러있는데
 부악은억만봉인데, 우리금주님만만세라
 대궐터잡으실때
 새문안대궐터는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요
 경복궁대궐은장군이대좌형이요
 동관대궐은옥녀탄금형이요
 한강이조수되고, 동작이수기막어
 아랫대궐옷대궐, 경복궁새대궐
 차래로말연할때
 역으로역마늑코, 촌으로기복마늑코
 서울은육조말연할제
 정승은삼정승, 판서는육판서
 도감은오도감, 낭청은팔낭청
 동부서부남부북부한성부를말연하고
 팔도방백각도각읍차래로말연할제
 서울은크다하고, 육조를말연하고
 시골은적다하야, 육방을말연할제
 경상도칠십일관, 문경이도외관이요

대구감영말연하고
 전라도오십삼관, 여산이도외관이요
 전주감영말연하고
 충청도오십삼관, 직산이도외관이요
 공주감영말연하고
 강원도이십육관, 철원이도외관이요
 원주감영말연하고
 함경도이십육관, 덕원이도외관이요
 함흥감영말연하고
 평안도쉬인세골, 성천이도외관이요
 평안감영말연하고
 황해도사십육관, 금천이도외관이요
 해주감영말연하고
 경기도삼십육관, 죽산이도외관이요
 새문박경기감영말연하고
 각골육방말연하고, 일품을단여보자
 광해일품광주일품, 수원은정삼품
 차례로말연할제, 남양은제명장
 금과천꽃대주, 양안성, 군수현령
 차례로말연할제
 모군모면모리거주모씨이정성을들일적에
 임의여름지여내야
 그저먹고그저쓰기에는어렵고돌엽사와
 텃하궁을나가텃대박수, 디하궁공무당
 날근책역젯쳐놋코, 햇책역내여놋코
 일상상귀, 이중텃의, 삼아절체, 사중유혼
 오상화해, 육중복덕, 칠아절명, 팔중귀혼
 남생기녀복덕, 녀생기남복덕
 조혼날을갈여내여, 문우에붓쳐놋코
 조라치성들이려고

새박아지새동이엮헤끼고
 공중에소슨물셋일곱스물한박떼내여
 상탕에머리감고, 중탕에목욕하고
 하탕에손발발원시위손의상에
 진주단말신여백마정성으로들여놋코
 단골만신청좌하야
 계관집사사지성방세워놋코
 이정성을들일때에
 처음에오시는님신어는님이오시는야***

8. 백범 김구의『백범일지』속 오산지역 발자취

『백범일지』「삼남견문록」에서

“그날로 동적강(銅赤江)을 건너 삼남지방으로 향했다. 그때 내 마음이 매우 울적하여 승방(僧房)들
 에서부터 폭음을 시작했다. 밤낮으로 계속 술을 마셔대면서 과천을 지나 겨우 수원 오산장(烏山場)
 에 도착하자 한 집이나 되었던 노자가 다 떨어지고 말았다.

오산장 서쪽 동네³⁾에 김삼척(金三陟)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주인 영감은 전에 삼척영장(嶺
 將)⁴⁾을 지낸 사람이었다. 아들 여섯이 있었는데, 그중 맏아들⁵⁾이 인천항에서 상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관계로 인천감옥에서 한 달가량 고생한 적이 있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몹시 사랑하였
 는데, 자기가 방면될 때에도 차마 헤어지기 힘든 마음에 뒷날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한 터였다.
 그 집에 찾아가서 그들 여섯 형제와 같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며칠을 보냈다. 약간의 노자를 얻
 어가지고 공주(公州)를 지나 은진(恩津) 강경포(江景浦)에 있는 공중열(孔鍾烈)의 집에 찾아 들어갔
 다.”

*1914년(39세) : 인천 감옥에 들어감.

*1915년 8월(40세) : 가출옥함.

3) 동네 이름은 잊었다한다. 필자는 오산장 서쪽 동네를 오산시 남촌동의 남촌마을로 보고 있다.

4) 영장은 감영이나 병영에 딸린 각 진영의 무관직 벼슬인 진영장의 준말이다.

5) 국사 원본은 김삼척의 맏아들 이름을 김동훈이라고 적고 있다.

참고문헌

• 김구,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2002.

9. 오산화성궐리사 춘추제향 홀기(烏山華城闕里祠春秋祭享笏記)

序立(서립)

謁者引初獻官贊引引亞獻官終獻官俱就門外位西向立

알자는 초헌관 찬인은 아헌관 종헌관을 인도하고 다 같이 문외위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諸執事及諸生俱就門外北向以次序立

모든 집사와 유생은 다 같이 문외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차례로 서시오

謁者引初獻官由東門入升東階詣尊所點視祭物訖還出立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동문으로 들어가 동계에 있는 준소에 나아가
제물을 점검하고 도로 나와 서시오

參謁(참알)

執禮及典祀謁者由東門入就階前拜位北向立

집례와 전사 및 알자는 동문으로 들어가 계전 배위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시오

典祀詣神位前明燭還出拜位北向立

전사는 신위 전에 나아가 촛을 밝히고 배위로 나와 북쪽을 향해 서시오

執禮 典祀 謁者 跪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집례와 전사 알자는 꿇어앉으시오 배흥 배흥 배흥 배흥 평신

執禮升東階就尊所之東西向立

집례는 동계로 올라가 존소 동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典祀升東階就尊所之南西向立

전사는 동계존소 남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謁者引初獻官贊引引亞獻官終獻官由東門入就東階下西向序立

알자는 초헌관 찬인은 아헌관 종헌관을 인도하고 동문으로 들어가 계단 아래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립하시오

贊引引大祝及諸執事諸生由東門入就階前拜位北向跪皆四拜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찬인은 대축과 제집사 및 유생을 인도하고 동문을 통해 계단앞배위로 나아가 북향궐하고 다같이 배하시오
배흥배흥배흥배흥평신

집사배치(執事配置)

盥洗就盥洗位之東西向立

관세는 관세위 동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贊引引大祝典祀及諸執事詣盥洗位盥洗訖

찬인은 대축과 전사 및 제 집사를 인도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차례로 관세 하시오

贊引引大祝自東階升就西階上東向立

찬인은 대축을 인도하고 동계로부터 서계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시오

陳設自東階就東夾門右側西向立

진설은 동계로부터 동협문 우측으로 나아가 서향립 하시오

司尊升東階就尊所之南側西向立

사존은 동계로 올라가 존소 북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奉香自東階就東夾門右側西向立

봉향은 동계로 부터 동협문 오른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奉爐自東階就西夾門右側北向立

봉로는 동계로부터 서협문 우측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시오

奉爵升東階就尊所之西東向立

봉작은 동계로 올라가 존소 서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시오

奠爵自東階就西夾門右側北向立

전작은 동계로부터 서협문 우측으로 나아가 북향립 하시오

爵洗自東階就尊所之西側東向立

작세는 동계로부터 존소 서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시오

望瘞就望瘞位西向立

망예는 망예위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謁者升西階上左側東向立

알자는 서계 좌측으로 올라가 동쪽을 향해 서시오

大祝由西夾門入啓展 神位降復位

대축은 서협문으로 들어가 신위의 개독을 하고 제자리로 나와 서시오

진설(陳設)

陳設由東夾門入啓籩豆訖降復位

진설은 동협문으로 들어가 변두를 열어놓고 나와 제자리에 서시오

典祀由東夾門入點視祭物訖降復位

전사는 동협문으로 들어가 제물을 점시하고 나와 제자리에 서시오

行祀事(행사사)

謁者進初獻官之左請行事

알자는 초헌관 왼쪽으로 나아가 행사를 청하십시오

獻官皆跪 拜興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헌관은 다 꿇어앉아 절하십시오 배~흥 배~흥 배~흥 배~흥

行奠幣禮(행전폐례)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洗訖由東夾門入詣 神位前北向跪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를 하고 동협문으로 들어가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궐 하시오

奉香由東夾門入奉香盒詣獻官之右西向跪

봉향은 동협문으로 들어가 향합을 받들고 헌관 오른쪽으로 나아가 서향궐 하시오

奉爐由西夾門入奉香爐詣獻官之左東向跪

봉로는 서협문으로 들어가 향로를 받들고 헌관 좌측으로 나아가 동향궐 하시오

獻官三上香

헌관은 세 번 향을 올리시오

奉香奉爐還置盒爐於故處各由夾門降復位

봉향과 봉로는 향합향로를 본자리에 놓고 각 협문으로 나와 제자리에 서시오

爵洗取爵洗訖還置尊所

작세는 잔을 씻어 준소 제자리에 놓으시오

奉爵取爵司尊舉龍勺斟酒

봉작은 잔을 들고 사준은 용작을 들어 술을 떠 부으시오

奉爵奉爵由正門詣獻官之右跪授爵獻官

봉작은 잔을 받들고 정문으로부터 헌관 우측으로 나아가 잔을 헌관에 주시오

獻官執爵三祭酒于茅上訖授爵奉爵

헌관은 잔을 들어 세 번 채주를 하고 다시 잔을 봉작에 주시오

奉爵受爵由東夾門出還置於尊所降復位

봉작은 잔을 받아 동협문으로 나아가 존소에 놓고 제자리에 서시오

獻官俯伏興少退跪

헌관은 뒤로 물러가 꿇하시오

大祝詣尊所奉幣篚由正門詣獻官之右西向跪授獻官

대축은 존소에 나아가 폐비를 받들고 정문으로부터 헌관 오른쪽으로 나아가 서향궐하고 헌관에 폐비를 주시오

獻官執幣獻幣大祝興詣獻官之左東向跪

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궐 하고 대축은 일어나 헌관 왼쪽으로 가서 동향궐하시오

獻官授幣篚于大祝

헌관은 폐비를 받들어 다시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受幣篚奉奠于兩牲之中由西夾門降復位

대축은 다시 폐비를 받아 양쪽 생 가운데 놓고 서문으로 나아가 제자리에 서시오

獻官俯伏興平身由東夾門降復位

헌관은 평신하고 동협문으로 나아가 제자리에 서시오

行初獻禮(행초헌례)

謁者引初獻官詣尊所西向立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존소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奉爵取爵司尊舉龍勺斟酒

봉작은 잔을 들고 사준은 용작을 들어 술을 잔에 부으시오

奉爵以爵受酒立

봉작은 잔으로 술을 받으시오

謁者引初獻官升由東夾門詣 神位前北向跪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동협문으로부터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게 하시오

奉爵奉爵由正門詣獻官之右西向跪

봉작은 잔을 받들고 정문으로부터 헌관 오른쪽으로 나아가 서향게 하시오

奠爵由西夾門詣獻官之左東向跪

전작은 서협문으로부터 헌관 왼쪽으로 나아가 동향게 하시오

奉爵授爵獻官

봉작은 잔을 헌관에 드리시오

獻官執爵獻爵仍授奠爵

헌관은 잔을 들어 헌작하고 곧 전작에 주시오

奠爵受爵奉奠于 神位前西端第一站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 전 서단 첫 자리로 올리시오

奉爵奠爵各由夾門降復位

봉작과 전작은 각기 협문을 통해 나와 제자리에 서시오

獻官俯伏興少退跪

헌관은 한발 뒤로 물러서 꿇어앉으시오

大祝由西夾門詣獻官之左執祝版東向跪讀祝訖置祝版於故處降復位

대축은 서협문으로 들어가 헌관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앉아 독축하고 축판을 제자리에 놓고 나와 서시오

獻官俯伏興平身由東夾門引降復位

헌관은 부복 후 평신하고 동협문으로부터 나와 제자리에 서시오

行亞獻禮(행아헌례)

贊引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洗訖引詣尊所西向立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하고 준소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奉爵取爵司尊舉龍勺斟酒

봉작은 잔을 잡고 사준은 용작을 들어 술을 잔에 부으시오

奉爵以爵受酒立

봉작은 잔에 술을 받으시오

贊引引亞獻官升由東夾門詣 神位前北向跪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협문으로 들어가 신위 앞에서 북향궐 하시오

奉爵奉爵由正門詣獻官之右西向跪

봉작은 잔을 받들고 정문으로 들어가 헌관 우측에서 서향궐 하시오

奠爵由西夾門詣獻官之左東向跪

전작은 서협문으로부터 헌관 왼쪽으로 나아가 동향궐 하시오

奉爵授爵獻官獻官執爵獻爵授奠爵

봉작은 작을 헌관에 드리고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곧 전작에 주시오

奠爵受爵奉奠于 神位前第二站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 전 둘째 자리에 드리시오

奉爵奠爵各由夾門降復位

봉작과 전작은 각기 협문으로 나와 제자리에 서시오

獻官俯伏興平身由東夾門引降復位

헌관은 일어나 동협문으로 나와 제자리에 서시오

行終獻禮(행종헌례)

贊引引終獻官詣盥洗位盥洗訖引詣尊所西向立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하고 준소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奉爵取爵司尊舉龍勺斟酒

봉작은 잔을 들고 사준은 용작을 들어 술을 잔에 따르시오

奉爵以爵受酒立

봉작은 잔에 술을 받으시오

贊引引終獻官升由東夾門詣 神位前北向跪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고 동협문으로 들어가 신위전에서 북향께 하시오

奉爵奉爵由正門詣獻官之右西向跪

봉작은 잔을 받들고 정문으로 들어가 헌관 오른쪽에서 서향께 하시오

奠爵由西夾門詣獻官之左東向跪

전작은 서협문으로 들어가 헌관 왼쪽에서 동향께 하시오

奉爵授爵獻官獻官執爵獻爵引授奠爵

봉작은 잔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곧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受爵奉奠于 神位前第三站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 세 번째 자리에 드리시오

奉爵奠爵各由夾門降復位

봉작과 전작은 각기 협문을 통해 제자리에 서시오

獻官俯伏興平身由東夾門引降復位

헌관은 일어나 동협문을 나와 제자리에 서시오

行受胙禮(행수조례)

謁者引初獻官詣受胙位東向跪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 해서 수조위에 나아가 동향께 하시오

大祝由西夾門詣 神位前取爵一器脯一器詣 獻官之前西向立授獻官

대축은 서협문으로 들어가 신위전에 잔 하나 포 하나를 들고 헌관 앞에 나아가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受之置脯於席上左端執爵祭酒訖

헌관은 받아 포상을 자리 좌단에 놓고 잔을 들어 음복을 하시오

大祝奉爵及脯還置楹下西邊降復位

대축은 잔과 포를 들어 기둥 서쪽에 놓고 제자리에 서시오

獻官俯伏興平身引降復位

헌관은 일어나 제자리로 와서 서시오

獻官及諸生皆跪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헌관과 제생은 모두 4배하시오. 배~흥 배~흥 배~흥 배~흥

行望瘞禮(행망예례)

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北向立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망예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시오

大祝由西夾門入取 神位前幣篚及祝文由正門出詣瘞坎焚祝

대축은 서협문으로 들어가 신위전에 폐비와 축문을 들고 정문으로 나와 망예에서 분축하시오

獻官及大祝仍降復位

헌관과 대축은 곧 제자리에 가서 서시오

闔門掇籩豆禮(합문철변두례)

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

알자는 초헌관 왼쪽에 나아가 예필을 고하시오

謁者引初獻官及亞獻官終獻官諸生由東門以次出

알자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제생을 인도하고 동문으로부터 차례로 나아가시오

大祝由西夾門入闔 神位門引掇籩豆

대축은 서협문으로부터 들어가 신위문을 가리고 변두를 거두시오

大祝及諸執事皆降階前拜位皆跪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以次出

대축과 모든 집사는 모두 계전 배위에서 사배 하시오 배~흥 배~흥 배~흥 배~흥

執禮典祀謁者皆降階前拜位皆跪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闔殿門後出

집례 전사 알자는 계전 배위로 내려가 사배 하시오 배~흥 배~흥 배~흥 배~흥 감실 문을 닫고 뒤로 나아 가시오

참고문헌 및 자료

• 오산화성필리사 춘추 제향 홀기

10. 떡점거리(떡골, 병점골, 餅店)

우리가 먹는 떡거리 중에서 곡식을 가지고 만드는 것 중에 떡이 있다. 떡에는 우리의 전통과 풍속이 배어 있다. 새수원(읍치가 화산에서 화성행궁으로 이전된 이후의 수원, 옛수원은 오산 이 화산 읍치 주변을 아우르던 지역이며 중심지인 수원부)때 떡으로 유명한 곳이 있었는데, 현재 화성시의 병점(떡점거리)이다. 이곳은 옛수원(오산)과 새수원(화성안의 현 수원)의 정 중간 지점이기도 하다.

병점은 옛날부터 서울에서 남쪽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였고 교통이 불편하였던 시절 섬 터역할을 해왔다. 나그네들이 길을 걷다 요기와 휴식을 할 수 있었다. 보부상, 우마차를 끌던 마부, 그리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던 선비, 상인들 등.

일제강점기 중기 때만해도 큰 거리에 떡집이 즐비하였는데,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에 배급 쌀제도가 시행되면서 한집, 두 집 뒷길로 이전하면서 떡점거리는 쓸쓸해졌다. 한참 북적거릴 때는 떡집마다 먹고 가는 사람, 부모나 처자식에게 주기 위해 싸가지고 가는 사람, 잔치나 돌을 맞은 집안에서 맞추고 가는 등 많은 사람들로 인해 장터를 방불케 할 때도 있었다. 마을 사정이 변해가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전국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지게 되고, 각 지방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와 구경하고 사먹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떡의 종류를 보면, 고급스럽게 만든 양반떡이 있는가하면, 밑천이 짧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사먹을 수 있는 떡도 있는데 쉬운 말로 쌀 게 비지떡과 도깨비떡이란 말이 이곳에서 생기었다. 일반사람들은 이곳을 가리켜 오병오색이 있는 곳이라고도 하였는데 다섯 가지 떡과 색깔도 다섯 가지가 모두 다르다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시루떡-누런색, 인절미-노란색, 송편-푸른색, 백설기-흰색, 무지개떡-홍색의 떡이다.

새수원으로 읍치를 옮기고 떡점거리가 처음 생겼을 때는 남쪽으로 20리가면 구수원(오산)이요, 북쪽으로 20리가면 새수원(현재 수원)이니 두 읍을 아우르는 동리라 하여 아우를 병(并)자를 썼다고도 전한다.

1941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친일파 박흥식은 재빠르게 오산비행장 공사를 착공하였고 전국에서 많은 일꾼이 몰리게 되었으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다. 한 가지 문제는 일꾼들의 간식이었다. 중요간부들은 왜인이었고, 배급 쌀을 지급할 때라 새참(간식)거리가 아무 것도 없어 작업진도가 지지부진하였다. 이 상황을 알아챈 떡점골 어떤 한 사람이 농촌에 가서 찹쌀을 사다 인절미를 만들어 나무자배기에 담아 작업장 근처로 가서 팔기 시작하였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어주면 칼로 가격만큼 큰 덩어리를 썰어주는 방법으로 팔았는데 불티날 듯 아주 잘 팔리자 날이 갈수록 떡장수가 늘어났다. 공사가 완료되자 박흥식은 조선총독부에 바치고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 씩씩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 김동복, 『옛수원 새수원』, 이화출판사, 2011.

11. 4대 전통의 오산할머니집

오산시의 맛집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설령탕집(소머리국밥집)인 오산할머니집은 문을 연지 70년이 넘는 식당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 질박한 푹배기에 뽕양게 울어난 장터의 국밥은 바로 우리 전통시장인 5일장의 대표적 먹거리였다. 오산장(烏山場)에 장보러 나온 이웃 마을의 주민들과 그리고 오산의 주민들이 5일에 한번 나와 물건을 흥정하고 사며, 장에 나온 김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잔 들이키면 허기진 속을 채우고 입담 정겨운 오산 옥쟁이 할머니의 묵직한 옥 한 사발 덩으로 마실라치면 어느덧 시골집의 명석에 앉아 정겹게 농치며 먹고 마시던 영락없는 시골 잔치 집에서 먹던 국밥인 것이었다.

오산장이 처음 문헌에 나타난 것은 1753년 이증환이 쓴 『택리지(擇里志)』에 나타나는 오산장(鰲山場)이다. 이 택리지에 오산장이 3일과 8일에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문헌상 이 기록이 최초이며, 실제로는 그 이전 오래전부터 장이 열렸을 것이다. 이 오산장의 위치에 오매(烏梅)

장터라는 새 명칭으로 오산장의 역사를 잇고 있으며 현재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오산할머니집은 이 오매장터의 진전골목에 위치해 있었다. 음식은 마음과 정성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식당만이 오랜 기간 살아남는 것이다. 이렇게 세월을 넘어 역사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산할머니집은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말경인 1943년쯤에 1대 이일봉할머니 때 <신진옥>이란 상호로 식당을 연 이후 며느리인 조명분(1903~1987)할머니가 2대 할머니로 이어받아 본격적인 오산할머니집의 부흥을 이뤘다. 이때 상호도 1970년대에 <오산할머니집>으로 바꿨다. 조할머니는 음식 솜씨는 물론,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로 걸쭉한 입담과 친근하면서도 회초리 같은 욱을 섞어 단골들을 휘어잡으며, 그 손님들은 할머니의 이러한 입담과 욱을 구수하게 받아들이는 정감 있는 식당으로 모두들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조할머니의 며느리가 송옥순 할머니로 3대 째 식당을 운영하셨다. 지금은 고령이라 며느리인 박명희 여사가 4대째 식당 운영을 맡고 있다.



오산할머니집, 사진 신명수



2대 조명분 할머니, 할머니집 제공

오산할머니집은 설령탕이 주 메뉴이다. 설령탕의 주재료인 소머리는 매일 인근 도축장에서부터 신선한 고기를 받아 준비해 놓기 때문에 묶은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국물도 그날 들어온 사골과 머리뼈를 8시간 이상 정성을 들여 고아서 만든다고 한다. 옛날 방식 그대로 우려내고 있다. 4대째 한결 같은 정성을 담아 설령탕을 만드는 오산장의 깊은 역사와 함께 하는 맛집이다. 특히 2대 할머니인 조할머니의 욱은 ‘욕쟁이 할머니’란 별명으로 소문이 자자하여 <오산할머니집>은 몰라도 욱쟁이할머니가 경영하는 설령탕집, 이 정도로만 알고도 찾을 수 있는 식당이었다.

3대 할머니 송옥순 할머니에 의하면 “욕하는 것도 재주지, 욱도 구수해서 모두 욱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정도의 친밀감으로 여겼지. 욕을 듣지 못하고 가면 할머니와 가깝지 못한 것으로 여기기도 했어. 손님들은 모두 욕은 단골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지. 좋은 시절이기도 했어. 그런데 나는 욕을 한마디도 할 줄 몰랐지. 그래서 여느 손님들은 우리 어머니를 꼭 찾아 물어 보았어. 욕을 같이 먹지 못하고 가니 허전하다고...”

1970년대에는 사냥꾼과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 주었고, 1980년대에는 일요일이면 이 지역 근처에 골프장이 많아 골퍼와 캐디, 갤러리들이 많이 찾았다. 이러한 영업도 요즘에는 뜸해지는 경향이 있다. 오산시와 인근 지자체에 넓게 상권이 형성되면서 옛날보다는 영업 실적이 저조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단골들은 꾸준히 찾고 있으며, 4대를



4대 박명희 사장님(좌), 3대 송옥순 할머니(우), 사진 신명수

이어서 70년을 이어온 오산할머니집 설렁탕 전문점은 변함없을 것이며, 비록 1대 할머니와 2대 할머니는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3대와 4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갈 것이다. 오산장의 오매장터가 2018년까지 재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데, 정비가 끝나면 이곳 오매장터는 새로운 활력으로 활성화될 걸로 추정되며, 그 옛날 장날이면 바글바글하던 장터의 손님이 찾아주는 곳 역사와 예술, 이야기 넘실대는 오매장터로 변신하게 되면서 현대적인 성격도 가미하며 새롭게 태동할 것이다. 이 변화에 맞추어 오산할머니 집도 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송옥순, 박명희 인터뷰 채록.

12. 오산오매장터의 지명 이야기

장터란 장이 서는 터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을 사고파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오산장은 예로부터 장세가 큰 곳이었다. 오산은 1989년 1월 1일에 오산시로 승격되면서 6개동을 갖는 독자적 행정체계를 이룬다. 오산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화성군에 속했고, 이전에는 수원에 속했던 곳이다. 5일장으로서의 수원, 화성에서도 가장 큰 장이었다. 현재도 경기 남부에서는 가장 큰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오산장은 원래 위치에서 남쪽으로 이전되어 100년의 전통으로 홍보하는 오산오색시장과 문헌상 최초로 오산장이 기록되어 있는 1753년 이증환이 쓴 『택리지』의 기록으로 살펴봐도 최소 260년이 넘는 전통의 오매장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원래 오산장 터에 옛 영화로운 장터로 복원하기 위해 오산시와 오매장터운영위원회 회원들이 절치부심 노력 중에 있다.

오매장터정비사업지구는 정비구역 내 도로를 정비하고, 추억의 음식골목, 오매광장, 커뮤니티센터, 전당대, 공방촌, TV미술세트장, 치킨거리, 이장회 광장, 공원 등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 속 스토리가 녹아 있는 장터로 거듭나는 중에 있다. 이 모든 것을 주민 모두가 힘을 합해 만들어 가고 있다. 오매장터 내에 있는 추억이야기가 남아있는 지명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상골밭이 있다. 예전에 오산천변 일대에 뽕나무밭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선독은 오산천변의 마을로 현재 시민회관이 있는 독 위에 있던 마을로 독방이라 불렀다. 마장터는 현재 시민회관 맞은편 남쪽마을로 예전에 말들의 마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싸전골목은 미시장이라고 불렀으며, 오매장터 내에 있었으나, 현재는 1919년도에도 우시장이었던 곳이 현재 싸전시장으로 되었다. 구장터라는 지명은 현재의 오산의 가장 오래된 오매장터를 이르는 말이다. 진전골목은 주로 기름집과 생선전이 있었던 곳으로 할머니집 옆으로 난 장터 이름이다. 고술막거리는 고수막거리라고도 불리었는데, 장터의 좁은 골목에 있었으며 주로 술을 파는 주점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가마니전이 있었는데 주로 가마니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또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보게 되면 1915년 8월 이후 김구선생이 오산장에 도착하자 노자가 떨어져, 오산장 서쪽 동네에 살던 김삼척의 집에서 며칠 머물게 되었는데, 김삼척의 맏아들인 김동훈과 인천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알게 된 인연 때문이었다. 김동훈의 여섯 형제와 며칠을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보냈다고 하니, 추측컨대 오매장터 내 고술막거리 어느 술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김삼척의 집이 있던 마을을 남촌마을로 보고 있다.

오산장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장이고, 문화와 예술, 역사 스토리가 살아 있는 젊은이들의

장터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오매장터의 명명 유래는 오매장터가 2013년 8월 경기도가 공모한 맞춤형 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된 것이 시초이다. 오매장터의 오매(烏梅)는 매화나무의 파란 열매를 뜨거운 열기로 건조시키면 까만 색 매실 마른열매가 되는데 이것을 이른다. 오매는 한약재로 쓰인다. 오매가 오산장에 많이 거래됐거나, 생산됐기에 지명에도 반영되어 200여 년 이상이나 오산동은 오매리로 오산천은 오매천으로 불렸던 것이다. 오산은 까마귀와도 관계가 되어 있지만, 매화와도 많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헌기록은 1789년 『수원부읍지』, 『여지도』, 『화성지』, 『여도비지』, 1910년 『사선읍지』에도 기록되어 있어 오매장터는 오산시가 이러한 문헌 속의 오매를 차용하여 옛 오산장터의 이름으로 명명한 것이다.

참고문헌

-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 하』, 오산시, 1998.
- 남경식, 『오산역사문화 e-book』, 우리동네사람들, 2016.

여 백

일제강점기 신문과 잡지 기사로 보는 오산인의 삶

김 종 욱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 I. 머리말
- II. 오산 관련기사
- III. 마무리

집필자
김 종 욱

오산문화원 사무국장

여 백

I. 머리말

일제강점기 오산의 신문과 잡지 기사를 통하여 그 당시 오산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보고자 한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식민지하의 오산 생활 속에서 독립을 갈망하는 오산사람들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철도와 자동차를 통한 교통수단도 개설되는 과정을 단편적이지만 볼 수도 있으며, 그 교통수단을 가능케 하는 도로 개설에 관한 기사도 보인다. 무엇보다 화재 사건이 빈발했으며, 기차로 인한 사망사건도 심심찮게 보인다. 그 당시는 오산에 비 피해로 철로 독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범람의 결과가 오래전부터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이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러한 제방 유실은 오산 운암들전설을 탄생시켰으리라 유추하게도 된다. 오산지역이 지금의 오산지역보다도 더 활발하게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을 보면 오산지역이 경제적, 사회적 비중이 컸음을 알 수도 있었다.

일제식민지치하이지만 학교가 개설되었고, 지역민의 자본으로 학교가 개설되는 기사도 보인다. 한때 나라를 이민족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지만, 이러한 민족 교육을 통한 힘을 키워 조국의 독립을 이루려는 의지를 엿볼 수도 있다. 텍스트로 삼은 저본은 오산문화원에서 발행한 『오산신문·잡지 기사 자료집』¹⁾이다. 1900년부터 1960년까지의 기사가 번역되어 실려 있는데, 이중에서 1907년부터 일제강점기 기간인 1910~1942년까지 기간이며, 중요 기사를 연대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의 어법을 오늘의 어법에 맞게 바꾸어 엮되, 가급적 당시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전달되는 어법 전환은 최소한으로 바뀌 적는다.

II. 오산 관련기사

대한매일신보 제105호 1907년 10월 3일. 지방소식.

30일에 일본군 일개 부대가 안성군의 서쪽으로 십리 되는 오산에서 한국군대를 염탐하는데

1) 이도남·김용국, 『오산신문·잡지 기사 자료집』, 오산문화원, 2009.

의병 70명과 오산지역병 50명이 습격하였고, 또 그날 밤에 의병이 다시 모여 접전하였는데 의병 7명이 죽었고, 당월 1일에 일본군 1소대는 수원으로부터 급히 갔다하고...

〈참고자료〉

당시 약6개월 전『東京朝日新聞』1896년 3월 31일자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수원의 위급… 경기도 안성, 장호원, 평택, 충청도 온양, 목천 등지에서 봉기했던 폭도는 그 세를 오미장에 집중해 광주, 즉 남한산성의 적도와 기맥을 통해 상합하여 장차 수원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있다. 이보다 먼저 강화도의 지방병 200여명은 수원에 와서 그 방비에 임하고 있으나… 수일 전 수원은 이미 적수에 함락됐다는 소문이 있다.” 이 기사의 오미장은 현재의 오산장(오매장터)을 의미한다. 또 오산지역의 의병활동은 1907년부터 1909년까지 계속되며 오산지역에서 의병들의 활동은 드높았는데, 의병활동 중 큰 사건만을 살펴본다면, 1907년의 오산역습격사건, 1908년 3월 원동 일본인 마을을 습격하여 일본인 살해 등, 1909년 문시면의 의병장 안춘경이 체포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대한매일신보 제184호 1908년 1월 12일. 잡보.

〈수원군수의 보고〉

수원 청호면 오산리 사립 명진학교는 지역 시민들이 협의하여 설립하였는데, 학도가 날마다 더하여 매우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 있으나 경비가 넉넉지 못 한고로 당해 지역 장사에서 소를 매매하였는데, 매필의 이십 전씩만 수합하여 학교에 보용하겠다고 시민 박성배 등이 군수에게 청원한고로 군수가 학부에 보고하였더라.

대한매일신보 제348호 1908년 8월 1일. 잡보.

〈철도파괴〉

그저께 밤에 비가 와서 수원, 오산의 정거장, 철로 다리가 끊어져서 경부차가 그저께부터 통행치 못한다하더라.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10월 27일.

〈조선총독부고시 제321호〉

명칭 : 오산학교조합 설치인가

지구 : 경기도 수원군 청호면 오산동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9일.

소사우편소(경기도 부평군 석천면 소사), 오산우편소(경기도 수원군 청호면 오산), 군포장우편소(경기도 과천시 남면 군포장), 추풍령우편소(충청북도 횡간군 금소면 추풍령), 횡간우편소(충청북도 횡간군 군내면 마산리)에서는 오늘부터 전신사무 및 전화통화 사무를 개시하다.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4월 4일.

진교공립심상소학교(하동군 동면 상평동), 평양공립고등여학교(평양부 남산정), 오산공립보통학교²⁾(수원군 청호면 오산동)의 설치 및 선천공립심상소학교에 고등소학교 교과병치를 인가하다.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4월 16일.

〈조선총독부고시 제108호〉

학교명 : 오산공립보통학교 설치인가

위치 : 경기도 수원군 청호면 오산동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6월 23일.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창고영업규칙의 발효로 오늘부터 다음 역에서 영업을 개시하다.

경부선 : 경산, 대구, 왜관, 김천, 대전, 조치원, 천안, 오산

경의선 : 개성, 금교, 한포

경원선 : 연천, 철원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11월 16일.

진위우편국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오산우편소에

2) 현재의 성호초등학교 전신

동아일보 1922년 8월 2일.

〈철도공전의 사고〉

선로 파손된 곳이 이십여 곳

앞뒤의 손해는 삼백여 만원

지난 29일 새벽부터 경부선 연선에 큰물이 나서 충청북도 조치원으로부터 북으로 경기도 군포장까지 사이에 찾길이 이십여 곳이나 파손되어 경부선 직통열차는 4~5일을 운전치 못하게 되었는데 이번 철도의 손해에 대하여 철도 당국의 말을 들으면, 이번과 같이 손해가 많은 때도 없었고, 직통열차가 4~5일을 운전치 못함은 조선에 철도가 놓인 후 처음 있는 일이라 하며 차는 운전치 못하여 벌이는 없고 복구공사에 탄 돈만 쳐들이게 됨으로 가공사와 본 공사를 마치기까지 하면 대략 삼백만원의 손해를 당하게 되었다더라.

〈도보연락〉

오산역의 승객은 모두 걸어서 연락

큰물로 인하여 철도 독이 터져서 기차가 오도 가도 못하고, 물속에서 있다함은 이미 보도한 바로 경부선 오산정거장에는 봉천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지난 29일 아침 9시에 정지된 이후 어제까지 개통이 되지 못하였으며, 철도당국에서는 경성방면에서 인부를 데려다가 밤낮을 계속 해야 응급공사를 하는 중이나, 일기의 관계로 도저히 5일내에 개통될 희망은 없게 되었다. 29일부터 오도 가도 못하고 차속에 갇혀 있는 승객들은 아침에는 저녁에나, 저녁에는 내일 아침에나 개통이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감옥 같은 답답한 차안에서 콩밥보다 심한 통나락과 모래가 반절이나 되는 현미밥을 한 덩이씩 얻어먹고 지냈으나 정거장 사람이나 철도 관계자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분명한 점이 없고, 비는 여전히 개지 않음으로써 할 수 없이 걸어서라도 서울로 향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 그 차에는 조선으로 야구경기를 하러온 동경에 있는 법정대학 야구단 일행 17명이 타 있었다. 그들은 본래 이십구일 아침에 경성에 도착하여 그날 오후부터 경기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일행의 준비비³⁾ 하는 모양은 참아볼 수 없었는데 삼십일 아침이 됨에 비는 여전히 퍼부어 나리고 물은 점점 늘기 시작하나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이 난다는 인도자의 말에 의하여 일행 17명은 비를 맞으며 떠났다. 이와 같이 야구단이 떠나는 것을

3) 준비비 : 조가 마음대로 비벼지지 아니하여 조급하고 초조해진다는 뜻으로, 마음을 몹시 졸이거나 조바심을 냄을 이르는 말.

본 승객 중에는 나도 너도 하여 30일 오후에는 100여 명이 떠나고 150명만 남게 되어 철도에 서는 주먹밥 만드는 수고가 덜게 되었더라.

〈수원까지 개통〉

그믐날 오후부터

이와 같이 비를 맞고 떠난 승객들은 오산에서 세 정거장을 가서 군포장 정거장에서야 다시 차를 타게 되었는데, 30일이 됨에 “오늘 오후에는 차가 수원정거장까지 올 수가 있다.”는 역장의 보고가 있음으로 이제는 40리만 걸으면 차를 탈 것이라 하여 어제까지도 걸기를 주저하던 노인과 여자까지 나서게 되었다. 31일 오후 한시까지에 승객은 거의 다 떠나고 차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일본인 한 사람뿐이었었으며, 오산역에서 남으로 평택, 성환 두 곳에도 오산과 같이 차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음으로 그곳에서도 승객이 다수 걸어와서 찾길 위에는 장사꾼과 같은 사람으로 예정과 같이 그날 오후 2시 45분부터 차는 수원까지 개통되었으므로 도보한 승객도 모두 연락을 하게 되었더라.

〈열차불통구역〉

수원에서 성환까지

31일 오후부터 남대문에서 수원까지는 기차가 통하게 되었으며 그날 형편으로는 공사를 급히 하기만 하면 늦어도 8월 6일내에는 전부 개통이 될 모양이었으나 어제에 이르러 다시 큰비가 왔음으로 선로의 공사는 어찌할 수 없이 중지가 되었고, 설혹 중지하지 아니한 곳이라도 비가 오는 관계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아니 하였으며 새로이 상하는 곳도 생기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경부선의 통제 못하는 구역을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더라.

수원오산간

오산성환간

오산에서 수원까지

도보연락의 주의

대황교가 큰 위험

이와 같이 승객의 도보 연락은 아직도 며칠 동안은 계속할지 모르게 되었는데, 위에서 본사 기자가 실제로 걸어온 오산과 수원 사이의 파괴된 정황을 보도하면 먼저 오산천의 철교가 위태하나 그곳은 그다지 큰 파손은 없었고 응급공사를 하였음으로 안심하고 건널 수가 있으나

오산에서 약 십리를 오면 차길에 246마일이라는 부산에서부터 해인 마일표가 있는 곳에 사태가 나서 벌진 흙으로 차길을 십여 칸이나 덮혀놓았다. 산길로 돌아서 다시 차길로 접어들면 대여섯 길이나 되는 높은 차길이 좌우로 무너지고, 선로가 삼십 칸 가량이나 뒤집히어 걸어가기에 위험한 곳이 있다. 이곳을 지나서 병점까지 가기에는 그다지 위험한 곳이 없으나 떡점거리를 지나면 이번 수해 중에 제일 심히 상한 곳이라 하는 대항교가 나선다. 철교의 가운데로 받침쇠 세 개가 물에 밀리어 내려앉고 오직 선로만 줄 매어 놓은 것 같이 구뭇하게 되었다. 응급공사로 침목을 써서 차로 운반하려 하는 중이나 아무리 하여도 완전히 고치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게 되었는데 도보로 연락하는 승객이 만약 잘못하여 이 다리로 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라 할 것이다. 병점부터는 신작로로 접어들어 화산 솔밭가로 가야되는데 화산 앞에 있는 냇물이 넘쳐 그 길도 상한 곳이 많고 제이화산고가 무너져서 발을 빼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게 되었다. 이로부터 그다지 위험한 곳이 없이 수원정거장까지 가게 되는데, 누구나 도보로 연락하는 승객은 수원 대항교 근처에 가서는 신작로로 가기를 주의함이 좋겠더라. -이하 생략-

동아일보 1922년 8월 5일.

〈6일 개통〉

병점오산간의 경부선은개통

경부선 철도가 불통되는 곳 중 병점과 오산 사이는 삼일 오후부터 전과 같이 다니게 되었으나 오산과 서정리 사이에는 진위와 성북천 두 곳을 걸어서 차와 연락하게 되었으므로 5일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6일 아침에 한번 도보로 그 사이를 연락하면 6일 오후에는 전부 개통되리라는데, 6일 아침에는 우편물 수하물, 신문 등을 부치게 할 터이요, 오후부터는 전과 같이 차가 다니게 되리라더라.

동아일보 1925년 5월 25일.

오산대성학원 낙성 겸 학예회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대성학원은 궤리로부터 오산신축교사로 이전한 이래 아직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학원 내에서 낙성식 겸 학예회를 열고 성황리에 진행한바 공석정씨가 사회를 맡고, 경과와 결산보고가 있는 후 내빈 축사 후 학예회를 재미있게 마

치고 오후 3시에 개최하였고, 유지들의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기부금 내역...생략.(오산)

동아일보 1925년 5월 25일.

광성학원 후원회

수원군 성호면 세교리 광성학원은 창립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성적이 양호한바 차제에 학부형 측에서는 일층 분발하여 완전한 아동교육기관을 만들고자 지난 22일 하오 3시에 학원에서 후원회를 조직하였는바 피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오산)

회장 최준민, 간사 최무희, 김기항, 한철수, 고문 홍정협, 서기 홍은표, 회계 홍순극

동아일보 1925년 8월 12일.

〈오병축구시합〉

8월 8일 오후 4시 반부터 오산공보교 그라운드에서 전오산군과 전병점군 축구시합을 개최하였는데 쌍방의 응원대는 부실부실 나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부르짖은 가운데서 각선수도 역시 용감한 기세로 전투하였으나 최후 대승은 오산군에게 귀하였다.(오산)

동아일보 1925년 8월 12일.

〈오산동창회〉

경기도 수원군 오산공립보통학교 급 오산공립농잠보습학교 졸업생 동창회 제8회정기총회를 다가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모교 내에서 개최할 터이므로 일반회원은 출석하기 바란다고(오산)

시대일보 1925년 12월 30일.

〈야소성탄과 기념〉

오산

수원군 성호면 오산예배당에서는 지난 23일 동 예배당 주최로 구주성탄 축하회를 개최하였는바 천진스러운 유년들은 순서대로 찬송가, 기도, 성탄취지, 합창, 연설, 담화 등으로 일반 관객에게 많은 흥미를 주었다 한다.

시대일보 1925년 5월 4일.

〈오산공립 도 맹휴〉

야만이라고 생도 구타하고 망곡 제지한 고산 훈도 배척

(오산전)오산공립보통학교 6학년생도 70여 명은 3일부터 돌연이 동맹휴학을 하였다는데 원인은 그 학교 훈도 고산이라는 사람이 생도에게 대하여 항상 “너희들은 야만이라”고 하여 생도들은 불평을 품고 오든 바 일전 순종황제 성복날에 망곡을 하려고 가는 것을 제지하다가 박승도라는 학생을 구타하여 상처까지 내었음으로 생도들은 더욱 분개하여 고산 훈도를 해임하기 전은 등교치 아니한다고 결속을 단단히 하였다고.

동아일보 1927년 6월 14일.

〈오산군대승〉

수원공보교 주최의 제1회 우승기쟁투 정구대회는 지난 12일 오전 9시부터 수원공보교 제1, 제2코트에서 접전케 되었는바 수원, 용인, 진위, 시흥 4군에서 모여온 40여조의 맹사들의 분투는 넓은 운동장에 가득찬 관중으로 하여금 많은 취미를 주어 오든바 최후 결승전에 들어가 안중군대오산군의 맹전으로 명예스러운 우승기는 오산군에게 돌아가고 말았다더라(수원)

동아일보 1927년 12월 22일.

운송합동반대로 익명조합을조직, 오산에서 계획중

경부선 오산역의 집산하물 운송취급은 운송합동에 의하여 일수취급으로 되었으나 종전부터 취급이 불친절하고 수수료도 고올이었음으로 동지 거주 유지 40여명의 발기로 독점의 폐해와 불편을 제거할 수단으로 아래와 같은 익명조합의 조직에 분주 중인바 ...생략.

동아일보 1928년 3월 1일.

양차화소된 대성학원준공

사월이내에 완성하기로 청동의 필사적활동

경기도 수원 오산에 있는 대성학원은 5개년 동안을 오산사-궐청년동맹에서 경영하여 많은

무산아동을 교양하여 오든바 불행히 작년도에 이르러 불의의 화재를 당하여 무참히 전소의 비운을 두 번이나 만나게 되었음으로 동 청년동맹에서는 대성학원중건회를 조직하고 전조선에 명함을 판매하여 그 기본금모집에 노력한다함은 이미 보도한 바이니 동 중건회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부터 대성학원중건회 제일회 임시총회를 열고 각반사항을 토의하였다는데 대성학원중건회 내무유지에 관한 건에 이르러 장시간 토의한 결과 내무를 수원성내에 두게 되었든 것을 오산으로 옮기기로 하고 임시사무소를 사-궐청년동맹에 두고 동 동맹에서 전책임을 지고 오는 4월말일 안으로 동학원 불탄자리에 건축하여놓기로 결의하였다하며 다시 사고에 의하여 사면하게 된 위원을 보선한 후에 이어서 오산에다가 동회영리부를 설치하고 오산전시에 석유를 판매하여 그 이익을 대성학원 중건에 충용키로 하였으며 동청년 동맹원 일동이 오는 5일부터 활동을 개시하리라는데 보선된 위원은 아래와 같다더라(오산)

위원대표 공석정, 내무 이대남, 외무 박규희, 검사 박근실, 김기향, 영리 한상록, 검사 강우형

동아일보 1928년 3월 1일.

오산에 기우제, 이양은 불과3항

경기도 수원부 일대에는 23개 월동안 기근이 극심하여 수답의 이종이 불과 3항에 지나지 않는 중 근일에는 이양한 것이나마 고사케 되었음으로 인심은 극도로 흉흉하며 주야로 하늘만 치어다보고 비를 기다리다 못하여 최후 기망으로 기우제나 행하여 보려고 지난 3일 오전 8시에 당지 오산리 신사에 제단을 베풀고 성호면 직원 일동과 지방유지 등이 모여 기우제를 행하였다더라(오산)

동아일보 1929년 1월 22일.

오산에 소화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경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382번지 이남수의 집 온돌에서 발화되었던바 오산소방조원의 출동으로 동 6시경에 진화되어 요행이 큰 손해는 없었으나 때마침 오산 장날이었음으로 밀려드는 사람으로 인하여 길거리는 대혼잡을 이뤘다더라(수원)

동아일보 1929년 1월 22일.

오산에 화재 손해백여원

지난 3일 오후 1시에 경부선 오산역전에 있는 이학수의 집 아궁이에서 불이 일어나서 동 2시에야 소방대의 총출동으로 겨우 진화되었다는데, 원인은 동가에 있는 여자가 빨래를 삶고 아궁이 불주의를 잘하지 못한 탓이라 하며 손해는 백여원이라더라(오산)

동아일보 1929년 2월 17일.

오산소화

경부선 오산역전에 있는 이모씨의 잡화점에서 지난 14일 오후 6시 반경에 불이 나서 7시에 진화되었는데 원인은 쥐구멍에서 발화한 듯하다 하며 손해는 십여원이라더라(오산)

동아일보 1929년 3월 12일.

오산역전 합동운송, 인부 동맹파업

역장의 무리사역에, 회사 측은 전부를 해고

경부선 오산역전에 있는 합동운송점의 인부 이십여 명은 지난 9일 아침에 회사에 이르러 우리는 오산역전의 무리한 사역에 견딜 수 없어 일할 수 없으니 역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기 전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총파업을 단행하였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산역장 강산통남(岡山通男)씨가 월 여전에 신입되어 오면서부터 운송점의 인부를 무리하게 사역하여 왔다는바 정거장의 사무실과 변소 등의 소제는 물론이요 심지어 자기 주택의 변소 소제까지 시켜서 이에 분개하여 그와 같이 총파업에까지 일으켰다 하며 실상 운송점과는 하등의 불평이 없이 파업을 하여 손해가 적지 안타하며 회사 측에서는 이십여 명 전부에게 해고를 하였다더라(수원)

(운송점담)

별항 맹파에 대하여 인부 전부에게 해고를 한 운송회사 사장대리 김학배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 우리 회사로서는 도무지 모르는 일입니다. 더구나 변소 소제까지 시켰다는 것은 우리도 분개합니다. 그렇다고 운송점의 일까지 하지 않는 것은 불가한 줄 압니다. 요사이 역에서 좀 일을 시킨 것은 우리도 압니다. 운송점과 역은 한가정과 같으니 그런 일쯤이야 어찌 아니 할 수 있습니까? 몇 번 불려 말을 해도 듣지 않기에 그러면 전부 쓸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김사장답)

“저는 금번 일이 일어나면서 곳 사직하였습니다. 도무지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새로 역장이 오면서부터 회사에는 말도 없이 정거장 일을 자꾸 시키게 되어 저로서는 처지가 딱하게 되었습니다. 역장은 일을 시키라하고 인부들은 왜 그런 일까지 하도록 하느냐고 나만 보고 말들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네 변소 소제까지 시키니 인부들인들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십장으로 근 10년이나 일을 해 왔습시다마는 처음 당하는 일입니다.”하더라.

중외일보 1929년 4월 13일.

오산천 개수공사착수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에 있는 오산천 수리공사를 지난 3월 26일부터 시작한 바 약 2개월은 걸릴 터이며 공사비용은 13,000원가량이라는데 그에 대하여 인부 임금을 매 평에 80전 이상을 준다는데 이제 들은즉 어떠한 사람은 종일해도 340전밖에 받지 못함으로 임금문제에 대하여 일반의 비난이 적적하다더라(오산).

중외일보 1929년 5월 8일.

6단체연합 어린이날 기념 경기도 오산에서

경기도 오산에서는 5월 첫 일요일 어린이날을 당하여 별나라사, 신간회오산지회, 오산청년동맹과 조선, 동아, 중외 3지 분국 주최 하에 오전11시부터 전 대성학원 운동장에서 기념식을 거행하여 유지 제씨의 의미심장한 축사가 있었고, 시내를 일주한 후 오후 2시 무사 폐회하였다는데, 30여 어린이기와 신간회 오산반과 조선, 동아, 중외 3지 분국에서는 수천 명의 선전비라를 산포하였다더라.(오산)

중외일보 1929년 5월 8일.

오산발안간 신도로개통 한해구제사업

경기도 오산 발안간의 교통 상태는 도로가 매우 협애하여 초부, 목동이 통행하는 지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산 발안 사이에 있는 불천은 하계에 범람이 잦아 교통에 큰 불편을 느껴 오던 터인데, 도당국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현지 한재민 구제책으로 신도로 개축공사에 착수하여 불천교까지 거대하게 가설하여 다가오는 15일경이면 완성될 듯하다는데, 종래 인적 두

절 상태에 한적을 느끼듯, 이곳에도 신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교통이 대단히 편리케 됨에 따라 수원화성자동차부에서는 자동차의 개통운전까지 하고자 방금 허가원까지 제출하는 중이라더라.(수원)

동아일보 1929년 6월 4일.

오산에 또 화재

(오산) 5월 31일 오후 6시경에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민대식씨 집에서 불이 나서 100여원의 건물과 가구 얼마를 태우고 동 7시경에 겨우 진화되었다는데 원인은 저녁밥을 짓다가 외출한 사이에 그만 실화가 된 것이라더라.

동아일보 1929년 6월 13일.

오산에 공원 설치코자 준비

(오산)수원군 성호면 오산시장은 수원군에서 제일가는 시장으로 교통이 사통팔달에 거객래객이 많이 날로 번잡하여 가는 지방이되 아직까지 공원이 없으며 운동장이 없어 현 사회에 수치됨을 일반은 많은 유감으로 지내던 중 마침 금년에 와서 한재구제사업으로 오산 하천개수공사를 시작하여 근일 공사가 필하게 됨에 11,000여 평의 공지가 생기게 되어 이를 기회로 성호면장 심세택씨가 도청으로 전기 공지 사용허가를 제출하는 일편으로 공원설계안을 방금 작성 중이라더라.

중외일보 1929년 7월 1일.

싸흠말리다가 자기가 중상

수원군 동탄면 방교리 이종대(43세)는 지난 6월24일 오산장에 왔다가 자기 동리에 사는 모영칠(48세)이가 동탄면 마내에 사는 송달현(22세)이라는 사람과 서로 술이 취하여 싸움하는 것을 말리려고 한즉 송달현이가 이놈은 웬놈이나 하고 다리를 들어 떼밀어서 왼팔이 부러졌으므로 오산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더라.(오산)

동아일보 1929년 8월 3일.

오산한글강습 성황 중 진행

(오산)경부선 오산역전에서 경성 연희전문학교에 재학하는 이성모군은 금번 하기 휴학을 이

용하여 오산근방에 산재한 무산아동을 가르치고자 지난달 29일부터 수원청년동맹성호지부회관에서 제1회 하기 한글강습회를 열고 무료 교수한다는데 회원은 40여 명에 달하여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더라.

동아일보 1929년 8월 18일.

입직경기대회 수원에서 개최

(오산)지난 십일 오전 10시에 수원군 성호면 금암리 모범부락에서 입경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32여 대의 입적기를 설치하고 관공 유지가 다수히 참석하여 금융조합장 김철현씨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경기를 개시한 결과 대성황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곡물검사소오산지소에서는 심사가 있는 후 입직 성적대로 상품수여식을 거행하였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1등 김영하, 2등 김영근, 3등 김계호

동아일보 1929년 9월 9일.

오산발안간 자동차개통

(오산)경부선 오산역전에 있는 수원화성자동차주식회사오산지점에서는 오산 발안간 정기운전허가원을 경기도에 제출하고 오랫동안 준비에 분망 중 지난 7월말로 허가가 되어 오는 10일부터 운전을 개시한다는데 임금은 오산 발안간 일원이며 시간은 오전 9시 5분과 오후 2시 20분 오산발과 오후 0시 20분과 동 5시 발안발이라더라.

중외일보 1930년 1월 21일.

오산화재 1호전소

방화인 듯하다. 지난 18일 오후 9시 반경에 수원군 성호면 부산리 485번지 이흥우(45세)의 집에서 돌연 발화하여 집 한 채를 전소하고 오산소방조의 출동으로 11경 다 되어 진화되었는데 그 원인은 아직 모르나 들은 바에 의하면 이흥우의 집은 약 1개월 전에도 화기가 조금도 없는 곳에서 발화한 일이 있었음으로 혹은 방화냐 아니냐하여 오산주재소에서는 방금 그 원인을 조사중이라더라.(오산)

동아일보 1930년 4월 13일.

오산소맹창립 13일에 대회

(오산) 경부선 오산역전에 있는 수원청년동맹오산지부 소년부에서는 오랫동안 소년동맹 창립대회를 준비하여 오던바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드디어 오는 13일에 오산사회단체연합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는데 각처 우익단체의 성원이 있기를 바란다 한다.

중외일보 1930년 5월 2일.

오산 박씨가를 수원서서 수사

지난 27일 수원경찰서 형사 3명이 돌연 오산에 와서 조선일보지국을 세세히 수색하였다 함은 기보한 바와 같거니와 그 후 전기 형사들은 수원청년동맹 집행위원장 박승극씨의 집을 발안 양감 양지의 주재소원과 같이 가택을 집까지 모조리 수색하였는바 소득은 하나도 없었다더라.(오산)

중외일보 1930년 5월 26일.

오산4단체 연합회관 오는 1일 낙성

수원군 오산에는 4개 단체가 있으나 집회할 회관 한 곳이 없어, 많은 불편을 느낌으로 지난 달바 작년 10월에 각 단체 위원들의 주선으로 오산사회단체연합회관 건축기성회를 조직하고 일반회원들의 의무적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돌파하고 지난 5일에 12칸반의 건물이 완성되었으므로 오는 6월 1일에 낙성식 겸 총회를 개최하리라는 바 일반사회에서는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란다더라.(오산)

〈수원무산아동 교육기관 순방(5) 수원지국 기자〉

■ 오산야학당

성호면 오산리에 있는 오산야학당을 순방키로 한 기자는 경부선 오산역에서 하차하였다. 역전시가를 통과하여 먼저 조선일보 조선지국을 방문케 된 바 지국장이며 수원청맹오산지부집행위원장인 변기재씨의 따뜻한 악수로 반가이 맞아주는 후의는 진실로 기쁨에 넘치는 우의를 발현함에 따라서 역시 감격의 정회가 끊임없었다. 필자의 내방을 안 변군은 야학당이 있는 시가를 향하여 동반의 고생을 아끼지 않는다. 이곳은 옛적부터 유명한 시장으로 육산해물의 집산지대가 되어서 상업이 실로 은성되어 있다. 그리고 신간수원지회오산분회, 수원청맹오산지부, 수진농민조합, 수원소년회오산지부 등 각 사회단체가 있어서 현 무산계급과 소작농민 급노동계를 위하여 맹렬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세가 참으로 우리 생활을 얼마만큼 보

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운동선상에 한 모범이 되어 있다고 한다. 신간지회장 김기환씨의 인도를 거듭 힘입어서 야학당 앞에 당도하자 여러 학생들의 학과 감독하는 소리는 어둔 장막에 잠기어 적막하게 된 밤공기를 깨트리고 있다. 교실 안에 있는 등불의 광선이 유리창으로 흘러 희미하게 비치는 중에 보이는 ‘오산사회단체연합회관’이란 간판 옆에 차제로 걸려있는 연합회 각 단체 간판은 보는 자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느낌을 갖게 하며, 20여 평의 신축된 회관도 펍 훌륭하게 보인다. 이 학당 설립의 유래를 들어보건대 작년 하기에 조선일보사의 주초인 ‘한글보급반’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에 여기에서도 ‘한글’보급을 이, 황 양 군의 열성으로 인도하던바 따라 집합된 학생들을 그대로 계속하여 각 학과를 교수시키다가 금년 봄에 이, 황 양 군이 일본 유학을 떠난 후 전기 청맹지부에서 경영자가 되어 가지고 여러 직원들의 열심 활동으로 성황 중에 진행된다고 한다. 교사는 이수경, 이원식, 조명재 제씨이고 학과는 보통학교 과정을 준치한다 하며 학생은 남녀80명인 바 급수는 4급에 분하였으며, 경비는 경영편에서 지불한다.

■삼미의숙

성호면 외삼미리에 있는 삼미의숙은 1922년 4월분에 그 동리 윤씨종중에서 설립한 바, 그들의 종계 적립금을 각출하여 수십 간의 양철제 교사까지 건축한 기초가 튼튼케 된 무산아동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다. 현재 임원은 원장 윤국영, 교사 윤주영, 윤만영, 유기만씨 등으로 다대한 열성의 활동으로 생도 60여명이 열심 주공하는 중이며 학과는 보통학과와 같이 한다고 경비는 후원회비와 학생 월사금 외 특별히 윤씨 종중에서 보조하여 주는 약간의 금전으로 충당한다는바 급수는 4학급이고, 여기에 특이한 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무산아들 중에도 극빈으로 취학치 못하는 자에게는 그 학부형에게 소작지를 얻어 주어서 그것의 수확으로 학비를 충당케 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우리 무산자의 자녀를 교육시키고 저 하는데 한 규범이 될 만한 것이다.

동아일보 1930년 9월 3일.

야학에 동정금

(오산) 경부선 오산역전에 있는 수원청년동맹오산지부에서 경영하는 노동학원은 현재 100여명의 무산아동을 교수하여 오는 바 근일에는 더욱 물질에 곤란을 받는다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유지 김종두씨가 자진하여 금일봉을 동정하였다 한다.

동아일보 1930년 9월 9일.

야학에 종 기증

(오산) 수원군 오산시장에 있는 수원청년동맹오산자부에서 경영하는 노동야학은 100여 명의 무산아동을 교수하는바 요사이에는 경비가 극히 곤란한 중에 있다는 말을 들은 동지 김모가 금일봉을 자진 동정하였다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이 소식을 들은 당지 김현숙씨도 자진하여 동 야학에 종 1개를 기증 하였다 한다.

중외일보 1930년 9월 10일.

교종기증

경기도 오산에 있는 노동학원은 수원청년동맹오산지부 경영으로 경제상 관계로 교종이 없 이 지내던 바 이 말을 들은 당지 유지 김현숙씨가 교종 1개를 (대금 4원 가량) 기증하였다는데, 일반의 칭찬이 자자하다더라.(오산)

동아일보 1930년 9월 11일.

오청월례회 금지

(오산) 경기도 오산에 있는 수원청년동맹오산지부에서 지난 7일 오후 8시부터 당지 사회단 체연합회관내에서 정기월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당지 경찰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구 실로 집회를 금지 하였다 한다.

동아일보 1930년 10월 30일.

수원서형사대가 오산서연일활동

수원격문사건으로인하여 단체간부필적조사

(오산) 지난 12일에 수원성내에 모종의 격문이 첨부되어 수원청년동맹 집행위원장 박승극의 5인이 검거되어 이래 취조를 받다가 돌연 경기도 경찰부로 비밀리에 압송되었다함은 누차 보도하였거니와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 후 동서에서는 연일 진범을 수색코자 지난 24일에 고등 계 형사가 오산에 출장하여 사회단체연합회관을 비롯하여 간부 제씨의 가택을 엄밀히 수색한 후 또 다시 지난 26일에도 동서 고등계 형사 2명이 오산주재소에 나타나서 사회단체연합회관을 재차 수색하는 동시에 수진농민조합 집행위원 이원식씨의 가택을 수색하고 문부 등 다수한

문서를 압수한 후 오산사회운동자조명재, 박부산, 박정오, 이원식, 이덕만, 이수경, 김기환 등 제씨를 호출하여 일일이 필적을 조사한 후 석방하였는데, 이와 같이 연일 경찰의 활동이 계속 됨으로 인심은 불안하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0년 12월 12일.

장호원범인필경출현

오산역에 괴한 청년 권총으로 경관 위협

전화 거는 사이에 종적 잃어 “몸에 손대면 사살한다.”

(오산에서 특파원 김병호 전화)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 경관주재소 총검 도난사건이 발생한 이래 3일간을 지난 10일 오후 6시에 경부선 오산역에 검은 두루막을 입고 일본 ‘다비’를 신은 나이 37~8세 가량의 수상한 조선인 청년 한명이 나타나 경성행 열차를 타려는 것을 마침 경계중이던 오산주재소 순사가 발견하고 단장으로 옷을 제치며 신체 수색을 하자 육혈포를 발견하여 전기 진범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체포하려 하였으나, 이 청년은 “내 몸에 손을 대면 쏘아 죽이겠다.”고 호언을 함으로 즉시 용원을 구하고저 주재소에 전화를 거는 사이에 이 청년은 즉시 이튿을 타서 어디론지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소방대까지 총출동, 구금산 포위수사

이 급보를 접한 수원경찰소에서는 때를 옮기지 않고 비상소집을 하여 전부 오산에 집중하는 한편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시내 각서로부터 5명씩의 용원경관대를 비상소집하여 무장을 시켜 수색한 결과 11일 오전 2시에 수원군 동탄면 오산리 ‘구금산’중으로 잠복한 것이 판명되어 경관대는 물론이요 소방대까지 총출동을 시켜 이 산을 포위 수색중이나 아직까지(11일 오전 6시)체포치 못하였으며 지금 같아서는 산밧만 싸고 전위대가 추격하는 중.

구금산수사결과 범인의 그림자도 묘연

뒤따르던 경관은 헛물만, 신출귀몰의 그 종적

(김특파원 오전 9시 40분 발전) 장호원 무기 도난사건의 범인이 어제 오후 6시에 오산정거장에서 형사에게 발견되어 구금산 속으로 범인이 몸을 감추어 버린 까닭에 60여 명의 경관대는 구금산을 에워싸고 11일 새벽까지 수사하였으나 범인을 발견치 못한 까닭에 수사본부를 수원군 성호면 내삼미리와 외삼미리로 옮기고 또 주재소에다가 두고 범인 수사에 힘을 쓰는

중이다.

오산방면으로부터 주범은 경성에 잠입?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버리고 잠적, 시내경찰도 대활동

장호원 도난사건의 범인으로 시내 익선동에서 체포된 이규항은 이 사건의 종범인 모양이며 이 사건의 주범인 듯한 자가 오산 방면으로부터 자전거를 타고 경성을 향하여 오는 형적을 발견한 경관대는 맹렬히 그 뒤를 추격하였던바 범인은 형세가 급했던 까닭인지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내어버리고 몸을 감춰버렸는데, 아마도 경성으로 들어온 것 같다하여 시내 각 경찰서에서는 대활동을 하는 중이라 하며 범인이 탔던 자전거는 27,062호라 한다.(이하호외재록)

공포 발사코 잠영, 병점에 홀연홀물

구금산 벗어나 병점으로, 경찰대는 또 놓치어

(오산서 특파원 이길용 전화) 진범이라고 추측되는 범인이 용인군⁴⁾ 오산역에서 순사 고종욱에게 발견되자 고순사는 그 신체를 수색하려할 즈음 그는 돌연 두루마기 속으로부터 권총을 꺼내어 공포 2발을 발사하였으므로 고순사는 경악하여 즉시 응원을 청하려 몰려서는 사이에 그 범인은 교묘히 몸을 피하여 수원군 성호면 부산리 183번지 정대련의 주막집 앞에서 주저하다가 박영효씨 별장 뒷산 '구금산'으로 들어가 버렸으므로 수원경찰서에서는 즉시 전중(田中)서장이하 서운이 총출동하고 소방대원까지 비상소집하여 그 산을 포위하고 날 밝기를 기다려 11일 미명부터 대수색하였으며, 또 경성으로부터 온 응원대까지 70여명이 설 새 없이 수사를 하였으나 오후 1시 반까지 범인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야단하는 사이 범인은 벌써 그 산을 피해 달아나서 병점 부근에서 경계하던 수원서원 3인과 상충되었으나, 서원은 무심히 놓치어 버렸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1년 1월 3일.

이위씨 특지 -가족을 살려

(오산) 경부선 오산역전에서 어물상을 경영하며 일상 사회사업에 무한한 동정을 하여 오산

4) 수원군의 오기인 듯

사회에서 명성이 자자한 이위씨는 또다시 지난 25일에 동리 임은순이란 60이 넘는 노파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엄동에 갈 곳이 없어 노상에서 방황하게 된 것을 가궁이 생각하고 금 100원을 동정하여 식구 4사람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한다.

동아일보 1931년 2월 24일.

보수도 없이 600명의 환자 치료

정초에 남다른 선물, 오산 노의사의 특지

(오산) 본적을 황해도 사리원에 두고 경기도 오산에서 작년 9월 초순에 백제병원을 개업하고 지난 1월 1일부터는 한약부를 도 확장하고 일반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동의원장 노진하씨는 농촌 농민이 제일 한가한 지난 음력 정월 기회로 빈한한 가정에서 은근한 병으로 고초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가하여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에 14면 62동리에 573명 환자에게 무료로 수술 치료 시약을 하였다는바 그중에 위병 환자가 제일 많았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2년 2월 4일.

극빈자 약가 500원 탕감, 오산 강대식씨

(오산) 오산보강의원장 강대식씨는 개업한 지 15년 동안에 일반환자를 친절히 취급함은 물론 극빈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치료하여 준 일이 많음으로 호평이 자자하든바 금번 개업 만 15주년을 기념하고자 불행에 처한 일반 빈민동포 357인에 대한 약값 592원 94전을 전부 면제 탕감하였다 한다. 일반 인사들은 탕감 특지를 감사히 여긴다고 한다. 그리고 극빈자에게는 정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규정액의 3할에 치료를 하리라 한다.

동아일보 1932년 2월 16일.

오산제2금융조합설치

(오산) 경기도 수원군 오산에 오산제2금융조합을 설치하고 1월 2일부터 사무를 취급한다고 하며 역원은 다음과 같다.

조합장 한필호, 이사 이등치웅, 감사역 구영희, 산전현의, 권오상, 평의원 임승민, 변학기, 문전정지조, 우덕현, 남주희, 공재순, 이사대리수석 김종협, 서기 장준식, 이규선

동아일보 1932년 2월 24일.

500년전 고분에서 석관 등 발견

(오산) 지난 16일에 수원군 성호면 원리 71번지 이일만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동리 뒷산에서 석관을 발견하였다는데, 그 돌함의 길이가 2척 1촌이고, 높이가 1척 5촌, 넓이가 1척 5촌이나 되고 고려자기로 된 대접 5개는 직경이 각 5촌 5푼이 되며 옛날 수저도 한 개가 있는데 그 길이가 7촌 7푼이 된다는데 500여 년 전 고분이라 하며 그 고물은 발견한 사람이 보관중이라 한다.

동아일보 1932년 9월 7일.

오산각희대회

(오산) 수원군 오산시 오산상인 일동 주최로 오산 시구 개정 완성 축하를 위하여 3일과 8일 양일간 오산시장에서 각희대회를 개최한다는데 다수히 참가하기를 바란다 하며 시일과 상품은 다음과 같다.

상품 1등 황우 1두, 2등 소우 1두, 3등 안동포 1필 기타, 4등 은망사 기타, 5등 일용품 다수.

동아일보 1933년 3월 2일.

수원군 궐리사 중건

오산 1기자

전조선 사림 일반은 거의 다 짐작될 줄 안다. 이곳은 공자의 진상을 봉안하고 후손인 공씨와 각 사림의 성의로 춘추석제를 지내오는 터이다. 전조선 각 지방에 공자 향교가 없는 곳이 없으나 이 궐리사만은 보관물을 참고 하건데 공자의 행적도를 목각하여 보관하여 쌓은 것이 백여 건이요, 궐리지라는 책을 많이 만들어서 유림과 본손들이 각각 중요품으로 보존한다고 한다. 그 책에서 참고하여보면 정묘조 17년 임자에 정묘조 특명하에 궐리사를 전남 노성⁵⁾ 과 수원 옛 지명 구정촌에 실시했던 것인데, 그때는 위패만 봉안하였고, 유래에 폐허가 되었다가 고종 갑오년 춘3월에 유림 심근암씨와 서야감씨 두 분이 폐허에 단을 모으고 강당을 건축하고 경학을 강론하며 춘추제향을 지내오다가 고종 신미년에 김상현씨가 중국 사신으로 가서 공자행적에 진상을 배래하였다고 한다. 그 성상의 진가를 알게 됨은 중국 당송시에 인물화가로 명성이

5) 노성은 현재 충남에 속한다.

높던 오도자필이라는 증인이 희미하게 남았고, 석비에 각화를 박아온 것 인만큼 연구세심하여 좀이 나고 완폐할 지경이 되어 책자에 넣어 보관할 뿐이라 한다. 향촌에 수간 모옥일망정 경학 원이니 명륜당이니 성묘를 건설함이 현대에 별반 새로운 사업은 될지 모르나 시소위 문맹 퇴치를 부르는 등사에도 해는 없을 줄 안다. 그러나 고적 보존으로 본대도 대대 계속적으로 보존 숭배하는 궤리사만은 호풍양숙이며 농후한 고풍이 남아서 자손신양도 특히 다른 점이 많으나 성묘 재임에도 노쇄하고 빈한한 관계로 이만한 처지에 유지를 당하게된바 퇴락한 묘당과 강당을 증건기로 재임일동과 전조선을 통하여 일반 유림에 성원을 모집하는 한편에 완폐한 성상까지 중수하게 된다하니 일반 인사의 분발을 바란다.

동아일보 1933년 3월 2일.

천연두 오산

(오산) 각지를 엄습하는 천연두는 필경 오산부근에도 침입하고 말았다. 지난 13일 수원군 성호면 원리 377번지 양원덕에 장손 함률삼의 사내아이 1명이 천연두에 걸린 것을 오산주재소에 서 발견하였다. 임시 중두를 3일간에 3,800명에게 시행하였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3년 3월 2일.

오산에도 수해, 60호 침수

(오산)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에는 연일 강우로 증수되어 지난 30일 오전 9시경부터 오산보 통학교⁶⁾ 부근 전부가 침수되고 우시장⁷⁾ 부근 가옥도 전부 침수되어 농작물 피해가 무수하다.

조선중앙일보 1934년 6월 5일.

정수가, 밤에 독극물로 돌변

(오산)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일명 셋탄말)554번지 우++의 집 아래에 있는 우물은 근처 10여 호가 공동 사용하는 우물로 지난 6월 2일 아침 5시쯤 되어 그 동리 김덕현의 처 허

6) 현 성호초등학교의 전신. 현재 성호초등학교는 오산오색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당시에는 현재 성산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7) 이 당시의 우시장은 현재의 만세거리라고도 불리는 싸전시장에 소재하였다.

씨가 아침밥을 하려고 쌀을 씻으려 하는바 물이 밋긴밋긴하고 쌀빛이 누르게 물들음에 깜짝 놀라 곧 동리사람들에게 알리었던바 그 동리 장시옥의 처 외 2명은 그 물을 맛보다가 업혀갔다 전하는바 오산주재소에서는 그 물을 분석 조사하는 중이라며 그 물을 사용하는 가족 수는 50여 가족이나 된다는바 어떠한 자가 양젖물을 넣은 것이 아닌 가 일반은 의심한다고 한다.

조선중앙일보 1934년 6월 13일.

오산시장에서, 장질부사 예방

(오산)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 오산주재소에서는 예년과 같이 장질부사 예방주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리라 하며 일반은 반듯이 진단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시행시일 6월 20일 오전 8시부터 6월 25 오후 4시까지

장소 오산시장

구역 부산리, 궤리, 오산리, 청학리, 가수리, 서리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5일.

오 · 서간 야구시합, 오산 야구 패승

(오산) 지난 7월 22일 경기도 진위군 송탄면 서정리 보통학교 그라운드에서 오후 3시부터 오산야구단과 서정리야구단의 시합이 있었다는데 결국 8대 4로 오산군이 패승하였다 한다.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5일.

오산에 시내전화

(오산)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에서 전부터 숙제로 되어있던 시내전화는 요즈음 임성욱, 어정, 고압, 전중 등 4인의 발기로 오산시내 전화가설기성회를 조직하고 운동한 결과 벌써 신청자가 20여명에 달하여 지난 7일에 전화국에 임시 제출을 하였다는이래 10월말일경에는 가설될 것으로 가설비는 185원이며 사용료는 매 6원 가량이라 한다.

동아일보 1934년 9월 12일.

오산 안성간 도로기성회 조직

(오산)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안성간의 도로는 지극히 불편하여 주민들은 매우 유감

으로 여기고 지난 7일 오산여관에 유지들이 회합하여 오산과 안성간의 도로기성회를 조직하고 도 당국에 진정하기로 되었다 한다.

동아일보 1935년 5월 7일.

농잠실습교 1년제로 단축

경기도내 장단, 양평, 오산 3개 처에 있는 농잠실습학교는 2년제의 수업정도인 것을 1년제 수업으로 단축하고 농업실습학교로 개칭하리라 하며 전부 신축 이전까지 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5년 7월 6일.

오산시내전화

(오산) 날로 발전되어가는 경기도 오산 시내에 유지 제씨가 활동한 경과 시내전화가 완성되어 6일부터 개통하기로 되었다 한다.

동아일보 1935년 8월 13일.

오산체육회 창립, 8월 18일에

(오산) 지난 10일 오후 8시에 수원군 오산 우희영 집에서 오산체육회 창립대회를 열고 임시 의장에 공석환씨가 피선되어 의사를 원만히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정하고 동 11시경에 무사히 폐회하였다 한다.

회장 박성덕, 부회장 홍정현, 간사 공석환, 한동수, 감사 강우일, 이인호, 운동부장, 김오룡, 서기 겸 회계 김경기

동아일보 1940년 3월 8일.

초등교의 입학난, 수용아동은 반분에도 미급

(오산) 수원군 성호공립심상소학교 금년 봄 입학 지원 아동 수는 남녀 600명이나 되는데 수용력은 남녀 합 250명이라 한다. 나머지 350여 명은 갈 곳이 없이 방황할 처지에 놓여있다. 12,000의 인구를 포용한 성호면에 교육기관이 이와 같이 빈약함은 면민이 다 같이 유감으로 여기거니와 해마다 입학난은 심각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소학교 증설은 급무 중에도 급무가 아닐 수 없다. 이점에 대하여 당국은 물론 일반 유지들도 협력하여 초등교육의 입학난을

하루속히 없애도록 힘써야 할 것은 통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 1940년 5월 7일.

극빈아동에게, 학자를 보조

(오산) 원적을 수원군 성호면 세교리에 두고 현재 경성 황금정에서 중앙전기공작소를 경영하는 원제완(25세)군은 고향에 있는 사립 광성학원에 찾아와서 학동 중 극빈한 생활로 인하여 정학 처지에 있는 아동을 조사하여 당장 면학치 못할 아동 열 명의 학자금을 담당하고 상경하여 신학기분부터 금10원을 학원으로 보내고 “앞으로도 극빈한 생활로 인하여 정학을 당하게 되는 아동이 있거든 바로 기별하여 주면 전부 자기가 담당을 하겠다.”고 굳센 의지의 말로 편지를 하여 동 학원에선 이 원군의 독지에 감격하여마지않을뿐더러 일반에선 칭찬과 감사의 한 화제가 되어 있다. 이에 혜택을 받을 아동에게는 얼마나 한 서광이 빛이라! 보아라. 쌍수를 거야 군호를 늘려 감사를 올리는 동시 유익의 인재가 되기를 빈다. 이것이 원군에게 보은이 될 것이다.

Ⅲ. 마무리

일제강점기의 오산사람들의 삶은 매우 다이내믹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기사에서 보듯이 의병 활동이 오산에서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오산이 활동의 중심이었다는 점인데, 오산지역의 의병활동은 1907년부터 1909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오산지역에서 의병들의 활동인 1907년의 오산역 습격사건, 1908년 3월 원동 일본인 마을을 습격하여 일본인 살해 등 많은 활동이 있었다. 이 의병 활동은 1909년에 문시면의 의병장 안춘경이 체포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의병 10명이 일본군 1명을 이기지 못하는 빈곤한 무장력이었지만 민중들에게 철저한 민족적 각성을 불러일으킨 점에서 민중운동사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으로 평가된다. 이 당시에는 비 피해가 자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비로 1908년, 1922년에 오산철교가 끊어져 경부선 열차의 운행이 오랜 기간(복구 추정 4~5일이나 완전한 복구 추정은 몇 달이 걸릴 예정) 멈추기도 하였다. 1913년에는 현 성호초등학교인 오산공립보통학교가 개설되었으며, 1922년에는 오

산주민과 함께 윤씨 종중에서 삼미의숙을 세웠는데, 현 삼미초등학교가 이 학교이다. 1928년에는 비가 23개 월동안 오지 않아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1912년에는 오산우편소가 청호면 오산에 설치되기도 한다. 축구대회가 오산-병점팀, 오산-서정리팀 간에 열리기도 하였다. 이 당시에는 화재사건도 빈발하였으며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보인다. 오산역의 합동운송점의 사장과 직원 간의 갈등으로 사직 공방이 일어나 홍역을 치루기도 하였다. 1929년에는 오산천 개수 공사가 있었으며, 한편 1929년 오산에서 별나라사오산지사, 신간회오산지회, 오산청년동맹, 조선, 동아, 중외신문 3지국 주최 하에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한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제강점기 때 제정하였다. 오산-발안 간 도로의 개설도 이루어졌음이 기사에 보인다. 오산시장(오산장)은 수원군에서 제일가는 시장으로 교통이 사통팔달 뻗어있고, 거래 내객이 많은 곳이나 그 당시 주민들이 설 곳이 없었다. 오산하천개수공사를 시작하여 1929년 6월 13일에 한재구제사업이 끝나게 됨에 11,000여 평의 공지가 생겨 오산에 공원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는 기사도 보인다. 간혹 주민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 오산의원 등 병원에 입원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병원도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산보강의원장 강대식은 무료시술과 친절 그리고 할인된 진료비를 받아 칭찬이 자자하였다. 경성 연희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무수학 무산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글무료강습회도 연다. 또, 일제경찰은 언론지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선인의 동향을 감시하였지만 혐의를 잡지 못했다는 기사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독립운동 등 일제를 거스르는 동향을 감시하는 눈을 늘 주민들에게 주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가 되면 오산의 사회단체의 행사를 금지하는 일제의 강압이 눈에 띄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민과 단체를 탄압하는 일제의 강압정치는 더욱 심해진다. 1932년이 되면 오산에 제2금융조합이 설립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금융거래도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1933년에도 큰 물 피해를 당하여 오산보통학교와 우시장(현 싸전시장) 부근 가옥도 모두 침수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1934년 오산-안성 간의 도로가 지극히 불편함을 오산여관에 주민과 유지들이 모여 도 당국에 진정하기도 한다. 결국에는 1937년에 개설된다. 1935년이 되면 오산체육회가 창립되며 체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극빈 아동에게는 학자금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 당시 오산인들도 현재의 오산인들처럼 마을과 가정, 공동체의 단합을 위해 힘을 합하여 나라를 찾으려는 의식이 주민 모두의 내면에 잠복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0년 이후가 되면 신문, 잡지의 기사의 수가 갑자기 줄어 일제의 탄압이 날로 늘어 보도도 용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오산인의 삶도 피폐되어 가고 있다고 봐진다.

여 백

경기재인청과 오산시독산성문화제 전통 연희(演戲)

박 문 정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⑦ 군웅·쌍군웅춤 |
| II. 경기재인청과 경기도당굿 | ⑧ 장고무 |
| 1. 경기재인청 | ⑨ 검무 |
| 2. 경기도당굿 | ⑩ 한량무 |
| III. 경기재인청 사람들 | ⑪ 진쇠춤 |
| 1. 도당굿 화랑이 이용우 | 2. 전통놀이 |
| 2. 재인청 춤꾼 이동안 | ① 줄타기 |
| 3. 재인청 스승 김인호 | ② 버나돌리기(접시돌리기) |
| 4. 살풀이 예능보유자 김숙자 | ③ 죽방울받기 |
| 5. 도당굿 예능보유자 오수복 | ④ 방울쳐올리기 |
| IV. 경기재인청의 전통 연희(演戲) | ⑤ 솟대타기(쌍줄백이) |
| 1. 춤과 장단 | ⑥ 발탈 |
| ① 기본무 | ⑦ 무동놀이(새미놀이) |
| ② 살풀이 | ⑧ 산대놀이 |
| ③ 도살풀이 | ⑨ 땅재주 |
| ④ 태평무 | ⑩ 유술(요요기) |
| ⑤ 승무 | V. 나오며 |
| ⑥ 엇중모리 신칼대신무 | * 참고문헌 |

집필자
박 문 정

경기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오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여 백

I. 들어가는 말

2010년 시작된 오산시의 대표축제인 독산성문화제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의 독산성 세마병법과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대왕의 효성, 백성을 사랑하는 위민사상 등을 테마로 한 문화축제다. 독산성문화제는 과거의 에피소드를 소재로 한 문화축제인 만큼 오산시 주민들이 진행해온 전통놀이나 의식 등을 발굴하고, 발굴한 콘텐츠를 주민들의 손에 의해 문화제에서 시연되도록 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독산성문화제에서 행해지고 있는 금암마을의 거북놀이나 산신제 등이 이러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오산시 부산동에 조선시대에서 1920년대까지 존속했던 ‘경기재인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리고 그 ‘경기재인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용우(李龍雨 : 1899~1987) 선생과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인 경기도당굿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독산성문화제에서 ‘이 시대의 마지막 예인, 이용우 선생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고, 1년 후인 2016년 독산성문화제에선 재인마당을 만들어 ‘엇중모리 신칼대신무’ 등 재인청 춤과 풍물, 줄타기 등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앞으로도 독산성문화제에서 ‘경기재인청’을 주제로 오산시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해 대표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재인청’을 독산성문화제의 대표 콘텐츠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재인청’의 이론적 기틀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축제 기획자 입장에서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보면서 알게 된 ‘경기재인청’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다.

II. 경기재인청과 경기도당굿

1. 경기재인청

일본인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 1888~1954)와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 · 1886~1960)는 서울대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재직(아키바 1926~1945, 아카마쓰 1927~1941)하며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의 研究)』 상·하권을 1937~38년 공동으로 발간한다. 특

히 아키바 다카시는 각 지방에 있는 무단(巫團) 조직인 스승청(북부지방), 순방청(제주도), 승신인조합·신청(전라남도), 재인청(경기도), 풍류방(노량진) 등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조선무속의 연구』 하권 제11장 「무의 사회생활」에 ‘경기재인청’을 비롯해 무단 조직의 일부를 기록하는데 이 기록물이 ‘경기재인청’의 존재를 알리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책에 기록된 ‘경기재인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 부산리의 한촌에 거주하는 무부 이종하의 집에는 『경기도창재도청안(京畿道唱才都廳案)』 1권, 『경기재인청선생안(京畿才人廳先生案)』 1권, 『경기도창재청선생안(京畿道唱才廳先生案)』 2권이 있는데 1784년부터 1920년까지 130여 년간에 걸쳐 재인청이라는 무단이 존속함을 알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융희(隆熙) 2년(1908년) 도산주를 지낸 이종만의 말을 빌려 “재인청은 광대청(廣大廳)·화랑청(花郎廳)으로도 칭하며 경기·충청·전라 삼도의 각 군에 존재하는데 각 도마다 도청(都廳)이 있고, 그 장(長)을 대방(大房)이라 했으며, 대방 밑에는 두 사람의 도산주(都山主)가 있었다. 한 도를 좌우로 나누고, 좌도 도산주와 우도 도산주를 두어 관할했다. 산주는 대방을 보좌하며 중요 사항을 평의(評議)했다. 그 밑으로 집강(執綱) 네 명, 공원(公員) 네 명, 장무(掌務) 두 명이 있었는데, 집강과 공원은 간사에 해당하며 장무는 서무에 해당했다. 이에 비하여 군 재인청의 장은 청수(廳首)라 했고, 그 밑에도 공원과 장무가 있었다. 계원은 단골집, 즉 세습무만 한하며 전적으로 무악(巫樂, 굿 음악)을 연주하는 화랑, 줄타기·물구나무서기 등의 곡예를 하면서도 무악을 연주하는 재인, 가무 예능인이며 무악을 연주하는 광대를 포함했다”고 경기재인청의 조직 등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무속의 연구』에서 인용한 『경기도창재도청안』 훈서에 따르면 “대개 우리들이 맡은 것은 나라에서 칙사시에 조산위희하는 것이다. 저 사람들에게 영합하여 청에 참석하고 공역에 응하여 관가에 이바지하고, 사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 자신을 살찌우니 대개 천한 장부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갑진 이전의 칙행조산 시에는 맡은 바가 스스로 중하였으나 갑진 이후에 조산의 규칙이 깨지자 우리 무리들도 곧 한산해지게 되었다”(委任,在 國則勅使時造山爲戲媚於彼人參廳後應役以爲番供於 官家,在私則事於人肥於己,蓋賤丈夫之所爲也,然甲辰時以前,勅行造山時,則所任自重矣甲辰以後既罷造山之規則,吾輩便同閑散矣)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칙행조산의 이전 이후인 갑진년이 정조 9년인 1784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조선무속의 연구』에서 경기재인청의 출발점을 1784년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무속의 연구』를 통해 재인청의 규범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소개하고 있다. 선생안에 따르면 제재의 방법으로 타이름, 결태(結苔), 손도(損徒·오륜에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을 그 지방에서 내쫓음), 벌금 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기재인청에 소속된 계원이 4만여 명에 이르렀으며, 재인청 재정의 입계금과 유교의례를 모방한 선생안제를 한성에서 3년에 한 번씩 도청 총회와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방(大房) 선거방식도 기록하고 있는데 수망·부망·말망의 후보자 3명을 열거해 놓고 그 성명을 종이쪽지에 써서 출석계원으로 하여금 그 아래에 점을 찍도록 하여 점의 수가 많은 사람을 당선자로 했다. 이러한 선거법을 권점(勸點)이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종하·이종만 형제의 증조부 이계명의 효도에 관해 관(官)에 출원한 표창방 내용을 담은 무단의 문서를 싣고 있다.

『조선무속의 연구』에서 1784년을 재인청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으나 이보다 40년 뒤인 1824년(순조 24년)을 성립 시기로 보는 의견도 있다. 그 주장의 근거로 순조 24년 호조에서 처분된 「갑진완문」을 들고 있다. 완문(完文)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발급하던 일종의 증명서를 말한다. 완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른쪽 완문은 거행하는 일의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팔도 재인들은 병자년(인조14년, 1636) 이후로 칙명을 가져오는 사신의 행차를 위해 좌우 산대를 거행한다. 재인 중에는 도산주라 불리는 소임을 가진 자가 있는데 각도와 읍에서 재인들이 도산주를 취하여 올려 보낸다. 이들 각각에게 맞는 마땅한 준비로 무사히 행사를 받들게 하여야 한다. 갑진년(정조9년, 1784) 이후 좌우 산대가 설행되지 않은 까닭에 지난 칙행 시에 나누어 맡은 예에 따라 각도의 재인들이 그 도의 소임으로 여러 관아에서 대기하고 있는바 팔도 재인 중 소임에 따른 명칭을 허락하여 소임들이 너무 많아 매번 착란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 법을 개선하여 준수하도록 할 계획으로 팔도 도령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 (산대) 설행을 위한 대방 회의 후, 각도의 소임일 뿐이나 한 명씩 차별을 두어 정하기로 하였다. 공청도(충청도) 예인 중에서 팔도 도산주 겸 도대방 소임을, 경기도 재인 중에서 팔도우산주 겸 도집강을, 전라도 재인 중에서 팔도좌산주 겸 도집강을, 경상도 재인 중에서 팔도도공원 겸 경상도의 도대방을, 강원도 재인 중에서 팔도도공원 겸 강원도 도대방을, 황해도·평안도·함경도 세 도의 재인 중에서 도장무와 도색장, 그리고 각도의 도대방 소임을 갖게 하겠다”(右完文爲知悉舉行事 八道才人等 丙子以後勅行而設 爲左右山舉行有才人中 都山主爲稱所在任煮 各道各邑才人等都取上來 各各差備當爲無事奉行矣去 甲辰年以後 左右山不爲設行是乎乃 前例所載勅行時何必分付是乎喻 各道才人等者其道所任廳等待是乎則 八道才人中許名稱所任多多是乎所 每故錯亂故 之于今古法更爲遵行之計 八道都領位所任者 設行房會後 各道所任只爲一名式差定爲乎矣 公清道才人中 八道都山主兼都大房所任 京畿道才人中 八道右山主兼都執綱所任 全羅道才人中 八道左山主兼都執綱所任 慶尙道才人中 八道都公員兼本道都大房所任 江原道才人中 八道都公員兼本道都大房所任

黃海道平安道咸鏡道三道段 都掌務都色掌 各各本道都大房). 갑신년 오월 완문으로 호조의 처분 「갑신완문」(1824) 팔도재인. (강영화의 「한국전통예술신문」 기고 중).

재인청 성립을 1824년으로 주장하는 강영화는 “조선은 건국과 함께 고려의 팔관회, 연등회와 같은 불교색의 가례를 폐하고 벽사진경의 차원에서 나레만 지속시킨 왕조다. 게다가 전문예인들 모두가 팔천(八賤)의 하층민으로 분류된 마당에 전문예인들이 주체가 된 국가의 공식 기구는 상상조차하기 어렵다. 더구나 나레마저 인조(재위 1623~1649)에 이르러 사신맞이 산대희와 같은 대외적 필요를 제외한 국내용 산대희는 모두 폐하고 만다. 팔도를 아우르는 ‘재인청’의 성립 근거로 보고 있는 「갑신완문」의 경우를 보더라도 조선 후기는 칙명을 가져오는 사신 행차를 제외하고는 산대 설행과 같은 국가 차원의 축제가 사라진 상황이었으므로 굳이 국가 공식 기관으로서의 ‘재인청’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 재인청의 성립을 1824년으로 잡고 있는 이유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가 제시한 「갑신완문」의 “인조 14년 칙명을 가져오는 사신의 행차를 위한 산대만 개최하고(중략), 이 산대는 정조9년(1784년) 폐지한다”고 한 부분은 아키바 다카시의 『조선무속의 연구』 「경기도창제도청안」에 실린 대방 박성국(朴聖國)의 근서 내용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신완문」에 나오는 도대방이나 도집강·도장무·도공원 등의 직위와 역할 등은 이종만이 밝힌 재인청의 조직과는 너무 다름을 알 수 있다.

『조선무속의 연구』 기록만으로 볼 때 ‘경기재인청’과 관련해 밝혀진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재인청의 계원은 반드시 단골집, 즉 세습무가 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오로지 무악(巫樂)을 반주하는 화랑, 줄넘기 등의 곡예를 연기하며 동시에 무악 연주자인 재인, 가무를 하는 예인, 무악을 하는 광대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런 만큼 ‘경기재인청’은 세습무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세습무, 즉 화랑이가 도맡아 하는 마을굿인 경기도당굿과 경기재인청의 관계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인청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신이 왔을 때의 산대 설행과 고을 수령 부임 환영연, 장원급제 등 양반들의 대소 축하연이었던 것으로 볼 때 재인청은 전통무용(궁중무용, 민속무용)뿐만 아니라 국악기 연주와 땅재주, 줄타기 등의 교육 등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종합예술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왕권이 강화되고, 국제관계가 변화하는 정조시대에 와서 산대가 폐지되는 등 재인들이 활동하기에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경기재인청은 주 역할이 경기도당굿 연행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서 전통적 무부 세력과 전문적 예인 세력의 갈등도 야기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갑오경장(1894년)으로 인한 신분제 철폐도 비록 1920년대에 재인청이 폐청되지만 재인청의 결속력을 현저히 떨어뜨렸을 것이다.

재인청의 성립 시기와 재인청 조직 및 역할 등은 어느 정도 규명이 됐으나 이론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경기도당굿

‘경기도당굿’은 마을공동체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행해지던 굿으로 세습무인 화랭이(산이)들이 주로 오산·수원·소사(부천)·인천·시흥·안산·광주 등지를 단골판으로 활약하였다. 경기도당굿을 하는 무(巫) 집단은 세습무 집안이 중심이 되며 남무인 화랭이와 여무인 미지로 구성된다. 1945년 전까지만 해도 도당굿에는 먼저 화랭이들이 줄을 타고 기생의 소리와 춤들이 곁들여져 축제 분위기가 강하였다. 199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되었다. 상·하권으로 이루어진 아카마쓰 지조, 아키바 다카시의 『조선무속의 연구』를 살펴보면 상권은 주로 경성을 비롯하여 중부지방(경성·오산)과 제주도의 무가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간단한 해제와 주석을 붙여 정리한 것이다. 하권은 전국 90여개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발표한 논문들과 새롭게 작성한 글을 모은 것이다. 상권 제2장에 경기도 오산에서 채록한 12제차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무속의 연구』에 따르면 오산 12제차는 경기재인청 도산주였던 이종만이 구술한 것을 채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12제차가 경기도 오산에서 행해지던 도당굿이다.

『조선무속의 연구』에서 조선 무속의 기원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당시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무의 시조(始祖)에 관한 전설이 기원이라 생각했다. 이를 ‘무조(巫祖)의 신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네 가지를 보면 지리산의 성모대왕(聖母大王), 중국의 제녀(帝女), 조선의 왕녀나 귀족의 여성, 왕명을 받은 무녀 등이다. 무조전설 가운데 ‘왕녀무조전설(王女巫朝傳說)’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넓은 분포와 지역적으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경기도 오산에서는 요왕의 공주로서 아황공주(娥皇公主)가 영험을 크게 나타내 대대로 무인들 사이에서 그녀를 무조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종만의 구술로 채록된 오산의 12제차는 ①부정(不淨) ②시루말(飮詞) ③데석(帝釋) ④손굿(痘神賽神) ⑤군웅청비(軍雄淸拜) ⑥⑦조상-안스당굿(祖上-內堂賽神) ⑧성주푸리(成造神歌) ⑨선왕굿(城隍賽神) ⑩계면굿 ⑪터주굿(基主賽神) ⑫마당굿(庭賽神)으로 이뤄졌다(『조선 무속의 연구』에 한글로 채록된 부분을 그대로 옮김).

12제차는 큰 굿에서 불리는 각 거리의 무가(巫歌)를 일컫는데 특히 각 거리 중 두 번째 ‘시루말’은 오산 지역의 도당굿에서만 나타나는 본풀이를 지칭한다. ‘시루말’은 창세신화(創世神話)

를 담고 있는 경기도 유일의 무가다. ‘시루말’이란 명칭은 시루를 앞에 놓고 굿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시루말’은 크게 네 부분의 사설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천지개벽과 혼돈의 시절, 둘째 천부지모(天夫地母)의 결연담, 셋째는 인간세상 시조의 출생과 좌정, 넷째는 일월(日月)의 조정담이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세 때 자연상태에서 채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비금주수(飛禽走獸)가 말을 하고 인간은 말을 하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다. 이후 천하궁 당칠성이 인간세상에 인물추심(人物推尋)을 다니다가 지하궁에 내려와 매화부인과 결연한 뒤 해몽을 해주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 후 매화부인은 혼자 선문이와 후문이 두 아들을 낳는다. 두 아들이 천하궁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자 당칠성은 선문이에게 대한국, 후문이에게 소한국을 각각 차지하게 한다. 그 당시에는 해와 달이 각각 두 개여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다. 형제는 활을 쏘아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애고 오늘날과 같은 인간세상을 만들었다.”

오산의 ‘시루말’ 신화는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와 함께 우리나라 창세신화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다. 천상계의 남신과 지상계의 여신이 결합하여 인간계의 시조신을 출생시킨다는 내용으로 보아 ‘단군신화’나 ‘주몽신화’ 등 건국신화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시루말’에 이은 ‘제석’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는 제석신의 유래를 이야기한 무속신화이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설화이기도 하다. 한강이남 중부지방에선 스님이 쌀 세 알을 ‘당금애기’에게 주어 이것을 삼킨 ‘당금애기’가 잉태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야기가 생산을 주관하는 생산신 신화로 형성된 것은 인간의 출산과 농작물의 결실을 유추시킨 것으로 보인다. ‘당금애기’의 각 편은 전국적으로 60여 편이 채록돼 있는데 가장 먼저 채록된 것이 오산의 이종만본 ‘제석’이다. 그만큼 오산의 12제차는 우리나라의 무속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서 밝혔지만 경기도당국은 세습무인 화랭이들이 연행했던 곳이다. 경기도당국은 전라도 당산(堂山)곳이나 동해안 별신(別神)곳과 함께 세습무가 맡아서 하는 마을곳의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이종만의 12제차는 경기도당국이지만 마을곳보다는 무악 측면에서 가정곳(집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아카마쓰 지조와 아키바 다카시가 12제차를 채록했던 1930년대에는 어느 정도 가정곳이 성행했던 시기로 봐야 한다. 또한 1980년대에 이종만의 조카이자 제자였던 이용우가 연행했던 인천 동막도당곳과 중요무형문화재 조한춘과 이용우의 제자 오수복 등이 연행했던 부천 장말도당곳이 이종만 12제차와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밝힌 연구논문도 있다. 이종만의 곳거리와 이용우의 곳거리가 일정한 관계가 있으며 경기도 일대의 동일한 곳이 행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당국의 문화예술적 특징을 1980·90년대 연행된 도당곳을 예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

다. 다음은 1984년 인천 동막에서 화랭이 이용우, 조한춘과 조한춘의 장모 미지(巫女) 서간난 등이 연행했던 도당굿이다.

①당주굿(서간난, 조한춘) ②거리부정(서간난, 조한춘) ③부정굿(서간난) ④도당모시기(서간난) ⑤돌돌이(조한춘) ⑥시루말(이용우, 서간난) ⑦제석굿(이용우, 서간난) ⑧신장굿+손굿+공굿(남무) ⑨본양굿(조한춘) ⑩터벌림(이용우, 조한춘 등) ⑪군웅굿(서간난, 조한춘, 이용우) ⑫도당할머니 모시기(서간난, 조한춘) ⑬중굿(조한춘) ⑭뒗전(이용우, 조한춘).

위에서 보듯 경기도당굿의 절대적 연행자인 화랭이가 터벌림(터잡이)이라는 굿거리를 거행한다. 터벌림은 굿판이 좁아진 굿터전을 벌린다는 의미다. 다음에 이어질 손굿과 군웅굿 등 큰 굿거리를 시작하기 전에 굿터를 벌여 놓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터벌림에서 화랭이들이 갖가지 재주와 기예를 자랑한다. 솜씨 좋은 팽과리 연주가 터벌림의 주요 재주로 등장한다. 예전에는 이 터벌림이 화랭이들의 굿판 데뷔 무대였으며, 줄타기나 땅재주 등이 행해졌다. 터벌림은 화랭이의 참여와 관중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결합되던 굿거리였던 것이다. 관중의 입장에서는 공짜 구경거리이기에 터벌림을 ‘공거리’ 또는 ‘공새면(공삼현의 와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손님굿에서 손님은 마마, 즉 천연두 신을 말한다. 손님굿에서는 천연두 신을 물리치는 형상이 깨김으로 놀아진다. 깨김은 지역신과 외부에서 온 신과의 투쟁과 만남을 의미한다. 화랭이들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씨름을 하듯 싸운다. 그러다가 외부에서 온 신이 이기고 나면 손님노정기, 나귀치장타령, 배타령 등을 부른다. 군웅굿은 경기도당굿에서 가장 큰 거리로 여긴다. 군웅상을 높이 차린 뒤 군웅청배와 쌍군웅춤(방수밟기)을 추고, 군웅노정기를 부른다. 여기서 손님노정기와 군웅노정기는 손굿과 군웅굿에 딸린 굿거리로 미지는 간단하게 주된 내용을 연행하지만 화랭이(산이)는 판패개제(도당굿에서 화랭이들이 부채를 들고 판소리처럼 소리를 하는 것) 성음으로 길게 노정기를 놀면서 중국 강남에서 굿판까지 오는 과정을 묘사하며 관객과 더불어 놀이를 벌이게 된다. 경기도당굿의 손님굿과 군웅굿은 소리와 재담, 놀이가 곁들여지면서 엄숙한 신성성과 달리 신명난 놀이판이 되는 것이다.

경기도당굿에서 마지막에 행해지는 굿거리는 ‘뒗전’이다. ‘뒗전’은 화랭이 두 명과 북잡이 한 명 등이 어울려서 재담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재담 중간중간에 장단이 구분되고 변화되는 소리를 하면서 연극적인 놀이를 전개하는 독창적인 굿거리다. 화랭이가 굿꾼과 깨김꾼으로 나뉘어 손님굿처럼 깨김을 한 뒤 굿에 따라 들어온 커다란 짚 인형인 ‘정업이’와 깨김을 하여 쓰러뜨리고는 불에 태우면서 도당굿은 마무리된다.

Ⅲ. 경기재인청 사람들

재인청 출신 재인이나 예인의 기록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구한말 협률사나 단성사에서 활동했던 재인들의 명단은 알 수 있었으나 그들의 경력이나 출신 성향 등으로 미뤄볼 때 재인청 출신이란 근거도 확실하지 않았고, 그들과 관련한 자료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 앞으로 재인청 실제 규명 못지않게 재인들에 대한 발굴과 기록도 중요하리라 본다.

1. 도당굿 화랑이 이용우

이용우는 1899년 경기도 수원군 청호면 부산리(현 오산시 부산동)에서 전통적인 세습무인 이종하(李鍾河)와 미지(巫女) 사이에 태어났다. 8세 때 부친의 소실 경상도 김해 태생 박금초(朴錦草)에게 판소리 창을 학습했다. 이때 부친과 소실 박금초가 이끄는 창극단을 따라 전국을 유랑했다. 명창 송만갑(宋萬甲)·이동백(李東伯) 등도 같이 다녔다고 한다. 이 창극단이 13세에 해산하자 15세까지 통도사에 들어가 독공을 하고, 스님에게 역학을 배웠다. 15~20세에 광무대(光武臺)·단성사(團成社) 등을 따라 평양·함경도 등을 유랑했다. 20세에 고향 경기도 오산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장가를 갔다. 그 무렵 독학으로 대금을 불었다고 한다. 22세 무렵부터 숙부 이종만에게 6년간 당굿을 배웠다. 29세에 경기도 광주에서 경기도당굿에 입문했다. 30세 무렵 창극단을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방에도 다녔으며, 틈틈이 당굿에도 참석했다. 그 때 창극인 임춘앵과 4년 동안 같이 다니기도 했다. 이용우는 만혼을 해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다. 88세인 1987년 5월 6일 경기도 안성의 한 저수지에 낚시를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달리했다.

생전에 도당굿을 연행하던 이용우의 모습을 지켜본 김현선 경기대교수는 “이용우는 ‘터벌림’ ‘손님노정기’ ‘군웅노정기’ ‘뒷전’을 직접 집전하던 빼어난 화랑이었다. 터벌림에서 보여준 진쇠장단, 모리장단에 따른 터벌림춤은 그윽하고 단아한 멋이 있었다. ‘군웅노정기’에서는 변화무쌍한 장단에 맞춰 마달(문서)을 엮어나가는 솜씨가 일품이었다. 뒷전에서는 품위 있는 깨김춤과 다양한 춤사위, 발림, 마달의 짜임새가 탁월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의 뛰어난 재주를 높게 평가해 누차에 걸친 무형문화재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나 끝내 문화재 지정은 받지 못했다. 그의 죽음으로 오산의 이용우 예술은 전승이 끊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화랑이패의 전통도 사라지게 되었다”며 그를 회상한다. (『한국 화랑이 무속의 역사와 원리 I』 중)

이용우의 가계는 아키바 다카시, 아카마쓰 조지 두 일본인이 현지조사를 통해 저술한 『조선 무속의 연구』에 드러나는데 재인청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인 『경기도창재도청안(京畿道唱才都廳案)』 『경기재인청선생안(京畿才人廳先生案)』 『경기도창재청선생안(京畿道唱才廳先生案)』 등을 이용우의 부친 이종하가 보관하고 관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집안의 내력을 말해준다. 또 이용우의 고조부인 이계명(李啓明)의 효행을 표창하기 위한 표창방(表彰方)의 문건과 아키바 다카시가 말한 “이용우의 부친 이종하는 11대 세습무이고 무녀 5명, 재인 6명으로 구성돼 세 집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내용도 이용우 가계가 정통성 있는 세습무 집안이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이용우의 가계

세대	성명	재인청 직위	이용우와의 관계
1	이계명(李啓明)	표창방(表彰方)	고조부
2	이광달(李光達)	팔도도대방(八道都大房)	증조부
3	이규인(李奎仁)	팔도도대방(八道都大房)	조부
4	이종하(李鍾河)	팔도도대방(八道都大房)	부
	이종만(李鍾萬)	도산주(都山主, 1908)	숙부
5	이용우(李龍雨)		본인



『조선무속의 연구』 상·하권에 실린 ‘무(巫)의 가족’ 사진. 경기도 오산이란 표기와 ‘앞 열 중앙의 노부부는 재인단골이라 불리는 무(巫) 부부이고, 아들 부부도 마찬가지로’라는 뜻의 일본어 설명이 있다. 이종하·이종만 형제와 관련 있는 사진으로 보인다. 오른쪽 끝 양복차림의 남자가 아키바 다카시로 추정된다.

2. 재인청 춤꾼 이동안

이동안은 재인청과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우리의 전통춤과 재인청 춤을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동안은 1906년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송곡리에서 아버지 이재학(李在學)과 어머니 해주 오씨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이재학은 경기재인청(이동안과 관련 자료를 찾아 보면 화성재인청으로 많이 나오나 경기재인청으로 표기함) 소속 재인이었다. 그의 할아버지 이화실은 단가와 피리의 명인이었고, 작은할아버지 이창실 또한 줄타기의 명인이었다. 이동안은 12세에 남사당 광대 김석철을 따라 가출해 황해도 황주에서 새미(무동) 노릇을 하며 임종성에게 줄타기와 땅재주를 배웠으나 아버지에게 집으로 잡혀와 임상문과 줄타기를 한다. 14세 이던 1920년 두 살 위 연화와 혼인을 하나 장가든 지 사흘 만에 무작정 상경해 용산의 한 담뱃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던 중 황해도에서의 줄타기를 본 사람이 알아보고 광무대로 데려갔다고 한다. 1930년 5월 광무대가 불타 소실될 때까지 과천 김관보(金官甫)에게 줄타기를, 이날치의 제자 김인호(金仁浩)에게 춤을 배우고, 발탈의 명인 박춘재(예명 朴八封), 남도 잡가 소리꾼 조진영, 새남(태평소)의 명인 방태진, 대금과 피리·해금의 명인 장점보 등을 스승으로 모셨다. 1929년 대동가무단을 조직해 임방울·이화중선과 만주·중국·러시아 공연을 가기도 했다. 1937년 12월 조선음악무용연구회에서 한성준(韓成俊)의 부탁으로 춤을 가르쳤는데 이때 최승희에게 승무·장고무·태평무·진쇠춤 등을 가르쳤다 한다. 1948년 대한민국악음악무용전문학원을 설립하고 김백봉을 제자로 맞기도 했다. 1952년 유기룡·박현봉·박석희 등과 함께 대한민국악원 창립위원이 된다. 1981년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 뉴욕 카네기홀에서 하보경·공옥진·이매방과 공연을 한다. 1983년 6월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예능보유자로 지정된다. 1995년 6월 20일 90세로 생을 마감한다.

이동안의 생애는 우리나라 춤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재인청 재인인 김인호에게 배운 춤 종류만도 30가지가 넘는다 한다. 그러나 이동안은 춤이 아닌 발탈로 예능보유자가 된다. “내가 안 하면 끊긴다고 해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았지만 사실 나는 춤꾼이지 발탈 재주꾼이 아니야”라던 이동안은 끝까지 ‘전통춤의 산증인’으로 불리길 원했다고 한다. 이동안은 평생 많은 제자들을 배출한다. 선생의 제자들을 면면이 살펴보면 최승희·김백봉·장월중선·김백초·최경애·김덕명·김진홍·최현·문일지·배정혜·정승희·신순심·오은희·정경파 등 보기에도 쟁쟁하다. 이외에 김명수·이승희·윤미라·정주미·박경숙·안효순·박윤경·박정임·조

영숙·최병기·송영탁·홍경희와 줄타기에 김대균·문정순·김정순 등이 있다.

이동안의 자료를 보다보면 부친 이재학이 어린 이동안에게 도대방 자리를 물려줘 이동안이 마지막 도대방이었다거나 이동안의 직계 선조들 대부분이 경기재인청의 최고 우두머리인 도대방을 맡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 내용은 화랭이 이용우 가계와 상충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이동안 선생은 시기적으로나 성장 과정상 공식적으로 도대방을 지낼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 그 부친인 이재학 역시 도대방직을 기피했다는 점에서 도대방이 아니었다고 본다. 그러나 단가와 피리의 명인 조부 이화실, 줄타기의 명인 증조부 이창실의 경우는 속단하기 어렵고, 생전에 이동안 선생의 일관된 진술도 무시하기 어렵다. 무부 집안과 순수 예인 집안이 재인청 내부에서의 동거가 깨지면서 서로의 자존심이 빚어낸 결과로 보인다”는 강영희의 말(『용인신문』 내용 발췌)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하겠다.

3. 재인청 스승 김인호(金仁鎬·1855~1930)

이동안에게 재인청 춤 30여 가지를 전수한 스승이다. 김인호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 또는 백암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인생 말년에 ‘김량장 할아버지’로 불렸다 한다. 김인호는 온갖 민속예능에 두루 능했으며 한말에는 궁중 출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1년 3월 발간된 『춘추』에 소개된 이동백과 한성준이 나누는 대화를 옮기면 “김인호가 두꺼비 재주를 넘다 바로 순종 무릎에 떨어지자 기쁘게 웃으셨죠. 원각사에서 형님(김인호)이 소리할 때면 전화통에 귀를 대시고 듣기까지 하셨으니깐요”라는 대목이 이를 입증한다. 김인호는 1902년 문을 연 협률사의 단원으로 전국을 유랑하기도 했다. 1914년 2월엔 광무대의 구극(舊劇)에서 땅재주·재담으로, 그리고 같은 해 6월과 7월 광무대에서 웃음거리·탈놀음으로 출연했다. 1915년 2월 김인호학교(金仁鎬學校)를 평양부 기생학교의 하나로 설립하기도 했다. 그해 3월 26일 설립된 경성구파배우조합(京城舊派俳優組合)의 부조합장으로도 활동했다. 김인호는 1930년까지 광무대에서 중타령·주리타령 등의 노래, 중춤·법고 등의 춤, 땅재주·탈놀음, 재담과 화극까지 공연했다고 한다.

4. 살풀이 예능보유자 김숙자(金淑子 · 1927~1991)

전통무용가. 호는 매헌(梅軒).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곡천리에서 출생했다. 김숙자의 조부 김석창(金碩昌)은 경제(京制, 서울·경기 지방의 독특한 시조 창법) 명창이었고, 부친 김덕순(金德順)은 판소리·경기무악·민속악의 재인으로 경기재인청과 안성 신청에 속했으며, 모친 정귀성(鄭貴星)은 세습무였다. 6세부터 아버지에게 판소리와 춤, 무속을 배웠으며, 11세부터는 줄타기도 배워 17세까지 줄을 탔다. 1942년 안성 어녀리굿판 이후 굿이 금지되면서, 숨어 다니면서 아버지에게 기예를 배웠고 수원권번 소리선생 조진영(趙鎭英)에게 소리와 춤도 배웠다. 1963년 서울에 김숙자민속무용학원을 열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1976년 정병호·심우성의 주선으로 올린 공간사랑의 공연에서 올림채·터벌림·진쇠·제석춤·부정놀이·군웅춤을 추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1979년 한국무속예술보존회를 창립해 본인은 물론 무속예능인의 공연을 매년 무대에 올렸다. 199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경기도당굿 도살풀이)’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김숙자의 춤은 무대 쪽에서 보면 굿판에 가깝고, 굿쪽에서 보면 무대와 가깝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다.

5. 도당굿 예능보유자 오수복(吳壽福 · 1924~2011)

오수복은 경기도 용인군 역북리(용인시 역삼동) 해주 오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오찬용이고, 모친은 한언년이다. 18세 때 용인군 기흥면(용인시 기흥구) 용수골에 있는 경주 김씨 집안으로 출가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29세 되던 해에 남편이 병을 앓다 죽자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한 오수복은 31세 때 올케인 이갑오 만신에 의해 무당이 되었다. 이갑오는 구한말 협률사에서 줄타기로 유명했던 재인 이봉운(이봉의라고도 한다)의 딸이며, 수원 영동시장 거북당 도당굿을 맡아서 할 정도로 큰 만신으로 활약했다. 이갑오와 오수복은 신딸과 신어머니의 관계를 맺고 굿을 하다 오수복이 43세 때 이갑오가 죽자 경기도당굿의 명인 이용우에게 굿의 차서와 어정 및 법도를 배우면서 재주와 기예를 익혔다. 이용우와 오수복은 인천·부천·용인·시흥·화성 등 경기도 산이제 굿판 일대에서 활약했다. 오수복은 서사무가를 구송하는 제석본풀이·성주풀이 등을 잘하고, 이용우와 짝을 이뤄 쌍군웅을 할 정도로 경기도당굿의 연행 능력이 뛰어났다. 오수복은 1990년 조한춘과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당굿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오수복은 세습에 의한 무녀가 아니라 서른이 넘어 내림굿을 받은 강신무이지만 올케이자 신어머니인 이갑오 만신에게 도당굿을 배우면서 세습

무의 길을 걷게 됐다. 오수복은 세습무가 출신으로 친정어머니가 큰 단골 만신이었으며 시어머니, 큰 동서, 삼촌과 사촌 오씨네들이 다 단골만신이다. 오수복과 같이 세습무가 출신이면서 신내림으로 무녀가 된 경우를 통해 세습무와 강신무의 구분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Ⅳ. 경기재인청의 전통 연희(演戲)

1. 춤과 장단

① 기본무

재인청의 기본무는 기본수련으로 마음을 모아서 발을 떼고 발디딤하는 법과 팔을 들고 팔놀림하는 법 등 기초 춤사위를 익히는 교본이다. 처음에 장단을 먹은 다음 무릎에 오금을 죽이고 살리며 호흡하다가 두 발을 가지런히 모아 발뒤꿈치를 붙이고 두 팔은 뒷짐을 진다. 장단에 맞춰 발디딤으로 오금을 죽이고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며 앞으로 네 장단, 발 떼고 걸어가고 뒤로 네 장단, 물러가면서 발디딤한다. 그리고 팔놀림 춤사위를 붙여 반복한 뒤에 기본무인 타령춤과 굿거리춤으로 나아간다. 기본무는 춤사위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장단에 맞춰 분류되어 있으며 갑작스러운 춤사위의 변화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춤사위가 끝나면 장단에 맞춰 그 춤사위와 이어지는 춤사위가 마치 얘기를 주고받듯 이어지는 어름새는 재인청 기본무만의 매력이다. 장단은 타령-굿거리다.

② 살풀이

민속춤의 하나로 살을 푼다는 의미의 춤이다. 교방에서 기생들이 추었던 여성홀춤이기도 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액을 풀기 위해 굿판을 벌이고 살을 푸는 춤을 추었다. 무당들은 신격자로서 신무(神舞)를 추고 사람들은 오신(娛神)하거나 살을 풀기 위해 춤추고神明(神明)에 도달함으로써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살풀이춤의 시원은 이러한 굿판의 춤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는 살을 풀기 위한 종교적 춤보다는 살풀이 가락에

맞춰 추는 무대화된 전통춤으로 발전했다. 대표적으로 살풀이춤은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이매방(李梅芳)류는 동작이 섬세하고 교태미를 강조하며, 한영숙(韓英淑)류는 품위가 있고 정숙하다. 한성준에게 배웠다. 김숙자류는 도살풀이춤이라 하는데 경기도당굿의 굿장단에 맞추어 추며 매우 긴 수건을 양 손에 들고 추는 것이 특징이다.

③ 도살풀이

살을 푸는 민속무용의 일종으로 경기도 지방에서 살풀이춤을 일컫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로 지정됐다. 경기도 살풀이춤 또는 도살풀이춤이라고 하면 흔히 김숙자(金淑子)류의 살풀이춤을 가리킨다. 재인청 살풀이는 처음에 살풀이 수건 한 장으로 추다가 잦은 살풀이에서 다른 수건을 저고리 소매에서 꺼내 두 장으로 추는 게 여느 살풀이와 다르다. 삼현육각(피리 2, 대금 1, 해금 1, 장구 1, 북 1)의 반주에 구음이 따르기도 한다. 살풀이장단은 3박, 4박으로 12/8의 일정한 가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음악을 장구, 가야금, 피리, 아쟁, 대금, 해금 이렇게 삼현육각으로 연주하면 시나위라 부른다. 장단은 살풀이-살풀이 모리-늦은 굿거리-굿거리-자진 굿거리다.

④ 태평무

20세기 초 경기무악장단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한성준이 무대화한 춤이고 ‘왕꺼리’라고도 한다. 198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됐다. 초연은 1938년 조선음악무용연구회의 발표에서 이강선과 장홍심이 추었고, 작품설명에는 태평성대에 질탕한 음악에 맞추어 흥겨운 춤을 추어 일월성신과 더불어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940년부터 한영숙과 강선영(姜善泳)이 추었는데, 왕과 왕비의 역으로 각각 왕과 왕비의 옷차림이었다. 터벌림까지는 같이 추고 다음은 왕이 의자에 앉고 왕비가 추었다고 한다. 음악은 낙궁장단-터벌림-올림채-도살풀이가락의 경기무속장단으로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다.

김인호가 이동안에게 전승한 재인청의 태평무는 춤 장단이 무속적 성격을 갖고 있다. 춤사위는 춤꾼의 다양한 발디딤과 세밀한 팔놀림을 강조한다. 담백하면서도 무겁고 몸의 중심이 바위같이 단단히 자리잡고 있는 듯하면서도 자유롭다. 하체에서 나오는 힘이나 기가 팔, 손끝,

한삼을 거쳐 무한으로 뻗어나가면서 춤사위가 하나로 움직이는 한삼놀이 테크닉이 어렵고 까다롭다. 춤복으로는 남색 관복에 바지저고리를 입는다. 무구는 관모·각대·목화·망건·탕관·한삼을 착용한다. 장단은 낙궁-부정놀이채-반서림-엇중모리-올림채-돌림채-터벌림채-넙김채-자진 굿거리로 변한다. 한국춤 중에 가장 장단 변화가 크다.

⑤ 승무

196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었다.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독무(獨舞)로, 한국무용 특유의 ‘정중동(靜中動)·동중정(動中靜)’의 정수가 잘 표현되어 민속무용 중 가장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원(舞員)의 복장은 대개 날렵하게 걷어 올린 남색 치마에 흰 저고리, 흰 장삼을 걸쳤고 머리에는 흰 고깔을, 어깨에는 붉은 가사를 입었으며 양손에는 북채를 든다. 연원은 현재 크게 두 가지 설로 나뉘는데 그 첫째가 불교의식과 연관시킨 불교의식 무용설이다. 세존께서 영취산(靈鷲山)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 천사색(天四色)의 채화(綵花)를 내리시니, 가섭(迦葉)이 이를 알아차리고 빙긋이 웃으며 춤을 추었다고 하여 후세 승려들이 이를 모방하였다는 설이다. 또한 중국 위(魏)나라의 조자건(曹子建)이 연못가에서 노는 고기떼의 모양을 본떠지었다는 설도 있다. 둘째는 민속무용으로서의 유래설로 황진이가 지족선사(知足禪師)를 유혹하려고 춘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 상좌승이 스승이 나간 틈을 타서 평상시 스승이 하는 기거(起居) 범절과 독경설법(讀經說法)의 모습을 흉내 낸 동작에서 유래한다는 설, 파계승이 번뇌를 잊으려고 북을 두드리며 추기 시작한 춤이라는 등 여러 설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불교의식 무용 중 법고(法鼓)춤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승무의 아름다움은 정면을 등지고 양팔을 서서히 무겁게 올릴 때 생기는 유연한 능선 및 긴 장삼을 열기설기하여 공간으로 뿌리치는 춤사위와 하늘을 향하여 길게 솟구치는 장삼자락 등이 볼 만하다. 그리고 비스듬히 내딛는 보법(步法)이며 미끄러지는 듯 내딛다가 날듯 하는 세련미는 거추장스런 긴 장삼을 더 할 수 없이 가볍게 만들어준다. 재인청 승무는 북 장단을 두드린 뒤에 장삼과 고깔을 고이 벗어 북틀 위에 올려놓고 마무리하는 춤사위가 특색이다. 반주하는 악기는 삼현육각이며, 장단은 엮불-도도리-타령-굿거리·당악-살풀이다.

⑥ 엇중모리 신칼대신무

옛날에 왕이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니 공주가 슬퍼서 하얀 지전을 단 신칼을 들고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춤을 추었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춤이다. 삶의 회한을 표현한 춤으로 슬픈 가

락에 한이 서려 있다. 엇중모리 장단에 맞춰 추기 때문에 엇중모리 신칼대신무라 한다. 호흡을 먹는 춤사위가 특징이다. 신칼을 어깨에 걸치고 애절하게 내딛는 발디딤새와 온몸으로 하는 깊은 호흡, 잦은 팔놀림을 통해 액과 재난을 소멸하고자 사방을 향해 뿌리는 춤사위가 매우 상징적이다. 구음에 맞춰 삼현육각이 반주한다. 춤복은 하얀 당의에 하얀 죽두리다. 무구는 긴 대나무 두 대에 한지를 묶는다. 장단은 중모리-엇중모리-자진모리다.

⑦ 군웅 · 쌍군웅춤

경기도당곳의 가장 중요한 굿거리인 ‘군웅굿’거리에서 추는 춤. 군웅춤은 경기도당곳에서 숭배대상인 군웅신과 관계된 춤으로 군웅신을 맞이하여 즐겁게 위무하는 춤이다. 무관다운 풍모를 보이면서도 역동적이고 활달한 동작으로 춘다. 마지막에 화랭이와 무녀가 쌍군웅춤을 추는데 서로 대칭되게 서서 쌍으로 춤추며 돌아갈 때는 팽팽한 대칭의 역학관계를 드러내면서 신명이 고조된다. 군웅춤은 징을 ‘뽕뽕뽕’ 세 번 친 다음 부채방울을 들고 네모진 굿상을 한 바퀴 돌면서 절하는 춤으로 시작하여 흥철릭 소매를 제치고 옆으면서, 또는 어깨에 걸치고 돈다. 활춤은 활을 사방으로 겨누고 마지막에 화살을 쏜다. 쌍군웅춤에서 화랭이는 쇠를 치면서 막춤을 추고 돌아가고 여자 무당은 철릭을 너울거리면서 상 주위를 돈다. 춤사위는 징을 들고 추는 징춤, 부채와 방울을 서로 좌우·상하로 교차하면서 추는 부채방울춤, 활을 들고 추는 활춤 등이 있다. 군웅신은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군웅춤을 추며 마을 사람들에게 태평을 가져다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모셔진 신의 성격처럼 춤 또한 위풍당당한 장군이나 영웅의 면모를 드러낸다. 군웅춤의 장단으로는 진쇠-터벌림-올림채가 있다.

⑧ 장고무

상심한 임금을 달래기 위해 공주가 장구를 둘러메고 춘 춤이라 전해진다. 일명 장고춤으로 불린다. 농악의 장고놀이 중에서 재미나는 여러 부분을 떠다가 무대화시킨 장고무는 농악 쇠가락의 변화시킨 리듬과 함께 무용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재구성한 무용이기 때문에 민속무용의 중요한 종목의 하나로 널리 공연되고 있다. 농악놀이의 연풍대·자반뒤지기·까치걸음 등의 재주도 장고춤에 곁들여졌으므로 장고무는 전통의 현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꼽힌다. 단순하고 단아한 춤사위에 멋들어지고 절제된 춤사위가 이 춤의 특징이다. 춤복으로 남색치마와 하얀 저고리에 허리띠를 맨다. 무구는 흥장구와 장구채. 장단은 휘모리-늦은

곳거리-자진 곳거리다.

⑨ 검무

칼을 휘두르며 추는 춤으로 검기무(劍器舞) 또는 칼춤이라고도 한다. 『동경잡기(東京雜記)』와 『증보문헌비고』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소년 황창(黃昌)이 백제에 들어가 칼춤을 추다가 백제의 왕을 죽이고 자기도 죽자, 신라인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그 얼굴을 본떠 가면을 만들어 쓰고 칼춤을 추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동경잡기』 「관창조(官昌條)」에 고려 말 및 조선 초 사람인 이첨(李詹)이 변백(변명)하기를 “을축년 겨울 계림(鷄林)에 객으로 갔을 때 부운 배공(裴公)이 향악을 베풀고 위로했는데, 가면을 쓴 동자가 뜰에서 칼을 들고 춤을 추기에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신라에 황창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15, 16세 정도이나 춤을 잘 추었다”라고 한 기록에서 고려 말까지 가면을 쓰고 칼춤을 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첨은 같은 책에서 황창이라 한 것은 관창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성종 때 편찬된 『악학궤범』에 수록돼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는 성행하지 않은 듯하다. 그 뒤 숙종 때 김만중(金萬重)의 「관황창무(觀黃昌舞)」라는 칠언고시에 따르면 기녀들이 가면 없이 연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춤꾼의 숫자도 4인무에서 영조 때 2인무로 줄었고, 순조 때까지만 해도 긴 칼을 사용했다. 경술국치 이후 관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녀들이 민간사회로 나와 그들에 의해 계속 추어졌으나 본래의 형태로부터 많이 축소되어 왔다. 현재 비교적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진주검무’가 있는데,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됐다. 춤복으로 남색치마, 노랑 저고리, 검정 껌자, 홍색 전대를 입고 철릭을 쓴다. 무구는 칼 두 자루다. 장단은 허튼 타령-자진타령이다.

⑩ 한량무

한량무는 조선 중엽 이후에 남사당패에 의해 처음 연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중엽은 중인 계급의 사람들이 후원하여 광대예술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기다. 그러나 고종(재위 1863~1907) 때 정현석의 『교방가요』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 말엽에 유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1910년 이후에는 기방(기생집)에서 성행하였다. 한량무에는 악사·한량·승려·색시·주모·별감·상좌·마당쇠가 등장하는데, 배역에 따라 성격이 다른 춤사위와 옷차림으로 구성된다. 한량의 경우에는 도포에 정자관을 쓰고, 별감은 궁중별관복을 입고, 색시는 궁중기생

옷으로 몽두리에 색한삼을 끼고 족두리를 쓴다. 승려는 승복에 가사를 매고 작은 방갓을 쓴다. 내용은 타락한 선비, 파계한 중, 정조 없는 색시, 게으른 관리 등을 응징하는 조선시대의 퇴폐성을 풍자하고 있다. 한량무는 우리나라 가면극 중 기녀계에서 연희되던 최초의 극형식 춤으로 역동성, 남성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남성춤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궁중계의 춤도 아니고 순수한 민속춤도 아닌 교방계류의 무용극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⑪ 진쇠춤

경기도당굿의 진쇠장단에 맞춰 추는 남자의 춤이다. 경기도 남부지방의 무당이나 재인청 출신의 광대들에 의해 전해온다. 문헌기록은 없으나 구전에 따르면 나라에 경사가 났을 때, 풍년이 들었을 때 왕이 각 지방의 원님을 불러 향연을 베풀고 만조백관이 보는 가운데 원님들에게 춤을 추게 했는데, 이 춤이 진쇠춤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훗날 경기도 지방의 도당굿에서도 굿사이에 추게 되었고, 또 재인청 광대들에 의하여 경기도 지방의 민속춤으로 남게 됐다. 진쇠춤은 무속의식의 춤 중에서 유일하게 궁중무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춤사위가 비교적 우아하고 유연하여 마치 궁중무용의 한삼춤에서 볼 수 있는 기법과 비슷한 동작이 나타난다. 이 춤은 도당굿 중 군웅굿에서 군웅마마에 정교할 때 추어진 춤으로 일종의 오신(娛神)행위로 군웅에게 바치는 춤이다. 춤복으로 원님의 관복인 구군복을 입고 팽과리채를 든다. 팽과리채에 오방색 끈을 늘어뜨리고 목화를 신는다. 장단은 부정놀이채-반서림-반서림 모리-올림채 모리-돌림채 모리-진쇠-엇마치기-터벌림채-자진 굿거리다.

2. 전통놀이

① 줄타기

줄타기는 예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민간 연희 중 하나로 일명 승도(繩渡)·주색(走索)·색상재(索上才)라 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로 지정되어 있다. 줄타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대령광대(待令廣大: 궁궐이나 관아에 소속된 광대) 계열의 ‘광대줄타기’와 ‘남사당패’ 등 유랑예인(流浪藝人)계열의 ‘얼음’이라고도 하는 ‘뜯광대줄타기’다. 우리나라의 줄타기는 연희 장면에 적합한 가요와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재담이 다양한 기예와 어우러져 관중의 흥미와 탄성을 자아내는 고난도의 전통연희다. 현재까지 발견된 줄타기에 대한 가장 이른 시

기의 기록은 고려 때 이규보(李奎報 · 1168~1241)가 오세문(吳世文)의 「삼백운시(三百韻詩)」에 화답한 시다. 여기서는 민간에서 ‘은하수에 닿을 정도로 줄을 높이 매달고(戲索高連漢)’ 고난도의 줄타기를 연행했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나례(難禮)에서도 각종 연희가 연행되었다. 또한 중국 사신 영접행사, 문희연(聞喜宴), 지방관 환영행사, 사대부가의 잔치 등에서 줄타기가 풍성하게 공연되었다. 이익(李瀾 · 1629~1690)은 『성호사설』을 통해 원래 중국으로부터 한반도에 전래된 줄타기는 수준 높은 쌍줄타기였고, 당시 조선의 줄타기 역시 매우 뛰어나서 중국 사신들이 찬탄해 마지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될 때 문화사절의 일원으로 줄광대도 파견돼 조선의 줄타기가 일본에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희연에서 펼쳐진 전통연희의 연행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송만재(宋晩載 · 1788~1851)의 ‘관우희(觀優戲)’다. 관우희는 줄타기의 도입과정, 줄타기의 연행시간, 연행 공간, 관객, 기예, 중놀이, 살판에 대한 내용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조선 후기 감로탱(甘露幐)의 하단부에는 유랑예인집단의 공연 장면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감로탱에 보이는 줄타기는 줄에 밀착된 듯 붙어서 거미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찬사를 불러올 만큼 매우 실감 나고 수준 높은 것이다. 감로탱에는 외줄타기와 쌍줄타기가 함께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 줄타기의 역사적 전개 양상에 보이는 고유한 특징이다. 남사당패 출신의 이수영(1940~2007)의 쌍줄타기는 솟대쟁이패가 하던 쌍줄백이 솟대타기와는 다른 것으로 자신이 어려서 봤던 쌍줄의 높이는 현재의 줄타기보다 높았고 이를 ‘개고’라고 불렀다고 했다. 조선 후기 들어 줄타기는 줄 아래 어릿광대를 두고 재담을 서로 주고받고 삼현육각의 탄탄한 음악 반주에 맞춰 풍성한 기예 · 재담 · 가요를 연행할 수 있는 ‘판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줄타기가 기예 중심의 줄타기를 벗어나 연희 중심의 줄타기로 발전했다는 연희사적 의미를 지닌다.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근현대 줄타기 연희자의 계보 중 최고의 연희자는 김상봉(金上峯)이다. 김상봉은 200여 년 전의 인물로 그에 의해 줄타기가 최상천-김관보-김영철 · 이동안-김대균으로 이어지게 된다. 20세기 광대줄타기 전승 계보의 중심에는 김관보가 우뚝 서 있다. 김관보는 1910~1930년대까지 과천을 본거지로 삼아 세습무 집단 내에서 줄타기를 전수했다. 김관보의 문하에서 김봉업 · 임상문 · 이일문 · 이정업 · 이생민 · 이복남 · 이돌개 · 오돌끈 · 이동안 · 김영철 등 남성 줄광대와 박명옥 · 임명옥 · 임명심 · 전봉선 · 한농선 같은 여성 줄광대들이 배출되었다. 이동안은 재인청의 여러 연희 종목에 능했고 줄타기 기예와 재담에도 뛰어났다. 김영철(金永哲 · 1920~1988)은 경기도 과천의 세습무계 출신으로 일곱 살 때부터 김관보에게 줄타기를 배웠다. 김영철은 평생 난장, 명창들과의 극장 공연, 유랑극단 공연에서 줄타기를 연행했고 1976년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김영철은 뛰어난 기예를 보

였지만 전통적인 형태의 판줄이 아닌 20세기 들어 극장 공연에 맞게 변화된 도막줄을 연행하고 있었다. 현재는 김영철과 이동안의 제자인 김대균(金大均·1967~)이 판줄을 복원하여 광대줄타기 예능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랑예인 계통 어름줄타기는 남사당패에 의해 전승되다가 1988년 중요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에 포함되었다.

② 버나돌리기(접시돌리기)

남사당패의 두 번째 재주로 대접과 첻바퀴·대야 등을 앵두나무 막대기로 돌리는 놀이.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됐다. 버나는 지름 30~35cm, 두께 3~4cm쯤 되는 첻바퀴로 양쪽에 형짚을 여러 겹 덧바르고 가운데에는 가죽을 둥글게 오려붙인 것이다. 버나놀이에서는 주로 버나를 돌리므로 놀이 자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연희시간은 30분 내외인데, 버나뿐 아니라 대접이나 대야 등을 막대기나 담뱃대·칼·얼레 등에 얹어 돌린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막대기와 담뱃대를 이어 붙이고 그 위에 물건을 얹어 돌리는 묘기를 보이기도 한다. 놀이는 먼저 덩더궁이 장단을 2~3분 친 뒤에 버나잡이와 상대역 소리꾼인 매표씨(어릿광대)가 ‘매화타령’을 부르고, 이어서 버나·대야·대접 등을 돌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버나를 돌릴 때에는 그 동작에 따라 열다섯 가지의 사위가 있는데, 각 사위가 바뀔 때마다 버나잡이와 매표씨는 재담을 주고받아 흥취를 돋운다. 열다섯 가지 사위 이름은 다음과 같다. ① 던질 사위 ② 때릴 사위 ③ 다리사위 ④ 무지개사위 ⑤ 자새 버나 ⑥ 칼 버나 ⑦ 바늘 버나 ⑧ 도깨비 대동강 건너가기 ⑨ 정봉산성 ⑩ 단발령 넘는 사위 ⑪ 삼동 ⑫ 낫대야 돌리기 ⑬ 낙화사위 ⑭ 꼬바리 사위 ⑮ 물주리 사위 등이다. 한편 반주음악으로 덩더궁이와 자진가락이 연주되며, 소리로 산염불이나 매화타령을 부른다. 반주에 사용되는 악기는 쟁과리·징·북·장구·날라리 등이며, 놀이기구는 버나 외에 굽이 달린 낫대야·백자대접·얼레·담뱃대·앵두나무막대기·창칼 등이 있다. 버나 돌리기는 중국인들이 하는 접시돌리기와 비슷하지만, 단순히 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버나잡이와 매표씨가 서로 주고받는 재담과 창에 극적 성격이 담겨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③ 죽방울받기

장구모양으로 깎아 만든 나무공을 공중에 치올려 기예적(技藝的)으로 받아치는 놀이. ‘죽방울놀리기’ ‘죽방울치기’ ‘죽방울돌리기’라고도 한다. 중국의 공죽(空竹), 일본의 윤고(輪鼓)에 해

당하는 연희다.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향악잡영(鄕樂雜詠)」 다섯 수 중 금환(金丸)에 “몸을 휘두르고 팔뚝을 뻗쳐 금환을 놀리니 달이 구르는 것 같고 별이 뜨듯이 눈에 치더라”고 한 구절을 보면 이 놀이가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놀이는 조선시대까지는 전국 곳곳에 전승, 유포되었으리라 생각되나 현재는 전라남도의 일부지역에서 무당들이 고향 때 유일하게 활용하고 있다. 죽방울은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인데 풍물에 쓰이는 장구와 비슷하며, 마치 두개의 팽이를 뽀족한 부분끼리 잇대어놓은 것 같은 형상이다. 죽방울받기놀이는 이 죽방울을 죽방울채로 감아서 이리저리 돌리며 노는 것이다. 죽방울채는 1m 정도의 노끈 양쪽에 30cm 가량의 나무를 묶은 것으로, 이 나무가 손잡이가 된다. 이 나무를 양손으로 잡고 죽방울의 들어간 부분을 노끈에 걸쳐 중심을 잡은 다음 양손을 상하로 움직여 돌리다가 차차 노끈을 수평으로 만들어 공중으로 치올렸다 받았다 한다. 이때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죽방울을 받을 때 죽방울의 중심을 노끈으로 받아야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땅에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누가 오랫동안 몇 번 치올렸다 받았다 하였느냐에 따라 승부를 가른다. 황해도 지방에서는 아이들이 놀았다고 하는데, 크기가 작았으며 공중에 치올리기보다는 노끈으로 그냥 굴리며 놀았다고 한다.

④ 방울쳐올리기

방울쳐올리기는 장구모양의 도구를 양손에 하나씩 쥐고 한 개 이상의 방울을 이 도구로 쳐올리기를 반복하는 방식의 연희다. ‘은영연도’ ‘감로탱’ ‘기산풍속도첩(箕山風俗圖帖)’ 등의 그림에서 방울쳐올리기의 연행 장면을 찾아 볼 수 있다. 과거 관련 행사인 은영연을 묘사한 ‘은영연도’에서 접시돌리기·땅재주와 함께 방울쳐올리기 연행 장면이 나타난다. 감로탱 하단부에서는 방울쳐올리기의 연행 장면이 자주 발견된다. 감로탱에서는 방울쳐올리기가 남사당패·사당패·초라니패 등 다양한 연희지들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1개에서 3개의 방울을 사용했다. ‘기산풍속도첩’의 ‘**숫대쟁이**놀고’에서는 숫대를 타는 연희자 옆에서 두 명의 연희자가 마주보고, 한 사람은 죽방울받기를 다른 한 사람은 방울쳐올리기를 연행하고 있다.

⑤ 숫대타기(쌍줄백이)

숫대타기란 숫대타기 연희자(숫대쟁이)가 어릿광대를 대동하고, 숫대와 같은 장대 위에 올라가거나 신체의 일부로 숫대를 지탱하며 곡예를 하는 연희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도로

심장(都盧尋幢), 도로장(都盧幢), 상간(上竿), 간희(竿戲), 장간희(長竿戲) 등의 용어를 사용했으며 명나라 동월의 『조선부(朝鮮賦)』에서는 솟대타기를 섭독교(躡獨橋)라고 표현했다. 조선 숙종대 간행된 『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는 솟대타기를 상간, 연간(緣竿)이라 불렀다. 솟대쟁이패 출신으로 남사당패의 일원이 되었던 송순갑(宋淳甲·1912~2001)의 증언에 따르면 솟대쟁이패의 공연 종목은 풍물·땅재주·얼른·줄타기·병신굿·솟대타기 등의 여섯 가지였다. 그 중 솟대타기는 조선 후기 쌍줄백이라고도 불렀는데, 높은 장대 위에 오늘날의 평행봉 너비의 2가닥 줄을 양편으로 장치하고 줄 위에서 물구나무서기, 두 손 걷기, 한 손 걷기, 고물 묻히기(줄 위를 빙글빙글 구르기) 등의 기예가 있었다고 한다. 쌍줄백이는 줄을 매는 장대도 다르고 줄에서 하는 기예도 다르다는 점에서 오늘날 줄타기와는 구별된다. 솟대타기의 줄 기예가 쌍줄백이로 불린 이유는 솟대에 연결된 두 줄이 연희공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쌍줄백이와 쌍줄타기는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연희다. 첫째, 줄을 매고 있는 장대의 높이가 다르다. 쌍줄백이의 경우 한쪽을 짧게 하여 연결된 줄이 솟대를 땅에 고정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비해 쌍줄타기는 장대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쌍줄백이는 솟대와 줄을 한 번에 묶어 연희공간으로 삼기 때문에 장대가 하나지만 쌍줄타기는 평행한 쌍줄 위에서 연기하는 것이므로 줄의 높이가 다르면 쌍줄타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장대 꼭대기의 형태가 다르다. 쌍줄타기는 장대 위에 도르래를 설치하여 기예에 따라 줄의 길이를 조절하게끔 했다. 장대 위에는 연희자가 올라갈 곳이 없다. 연희자가 기예를 펼칠 공간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쌍줄백이는 솟대 꼭대기에 십자형이나 X자형 가로목을 설치해 그 위에서 물구나무서기와 같은 기예를 연행한다. 즉 쌍줄백이는 솟대와 줄 모두에서 펼칠 수 있는 연희인데 반해 쌍줄타기는 양쪽 장대에 연결된 줄에서만 가능한 연희다. 셋째, 쌍줄백이에서는 악기연주가 가능하다. 현존하는 줄타기 기예는 악기연주보다 줄의 반동을 이용한 체기와 재담에 주력한다. 그러나 쌍줄백이는 솟대와 줄 모두에서 체기는 물론 악기를 연주하는 기예를 선보였다.

⑥ 발탈

한쪽 발에 탈(가면)을 씌워서 연희하는 예능. 1983년 이동안이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로 처음 지정됐다. 구전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 지방의 남사당패가 행한 ‘꼭두각시놀음’이 변형돼 나타나 주로 중부지방 일원에서 연희되었다고 하며, 또는 유랑예인들에게서 파생됐다고도 한다. 이것이 협률사의 공연을 거쳐 광무대와 가설극장(포장굿) 또는 창극단(唱劇團) 등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발탈의 전승계보는 남사당패에서 비롯된 김덕순·조갑철·박춘재·오명선 등을

시점으로 하며 김덕순·조갑철·박춘재계의 발탈은 이동안으로 이어지고, 오명선계의 발탈은 남형우로 이어지는데 그가 작고하자 맥이 끊기고 말았다 한다. 발탈의 연희적 특징은 줄인형극의 조종형식과 장대인형극의 조종형식을 갖춘 인형극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여기에 가면극으로서의 성격도 가미돼 있다. 발탈은 규모가 작은 판놀음의 하나로 광대들의 예능이라 할 수 있으며, 발탈꾼과 어릿광대의 어울림에서 전승되는 재담을 제외하고는 거의 현장성이 우세하여 즉흥성이 짙은 연희다. 또한 발탈은 동작을 포함한 춤과 노래, 그리고 재담으로 이루어지는 가무극적 특징을 갖고 있다.

⑦ 무동놀이(새미놀이)

나이 어린 소년을 뽑아 여장을 시켜 남자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연행하는 놀이. 걸립패·답교놀이·남사당패·농악 등에서 연행되며 지방에 따라서 ‘꽃받기’ ‘꽃나비’ ‘꽃나부풍장’ 등으로 불린다. 무동놀이는 농악을 할 때 농악대원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거나 곡예적인 놀이를 하는 ‘무동타기(동고리)’와 땅에서 춤을 추는 것을 위주로 하는 ‘무동춤’이 있다. ‘무동타기’는 2명이 하는 놀이(맞동리·단동고리)와 3명이 연행하는 놀이(삼동·삼동고리), 그리고 5명이 연행하는 놀이(곡마당·논고리·5동고리)가 있다. 맞동리(단동고리)는 농악대원 1명이 어린이 무동을 어깨 위로 올리거나 머리 위로 올리며, 몸 앞으로 한바퀴 돌려 내렸다가 다시 어깨 위로 올리는 등 곡예적인 연기를 부리며 춤추기도 하고 흥이 나면 ‘삼동’을 만들기 위하여 상대방의 ‘맞동리’에 무동을 힘차게 던지는 아슬아슬한 놀이(기러기시위)도 한다. 삼동(삼동고리)은 농악대원 1명이 어른무동 1명을 어깨 위로 올리고, 그 위에 어린이 무동을 올려 3층탑을 만들어 제자리에서 돈다. 곡마당은 삼동을 만들고 나서 밑에 있는 농악대원과 어른무동은 어린이무동 2명을 양쪽 옆으로 올려 바깥 손과 바깥 발을 벌리게 하고, 안쪽 손과 발을 잡아주어서 공중에 뜨게 한다. 무동놀이의 ‘무동춤’은 다양하다. 농악에는 여러 가지 잡색들의 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춤을 위주로 한 배역은 무동이다. 무동은 노랑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땡기를 드린다.

⑧ 산대놀이

산대놀이는 서울 및 서울 인근의 경기도에서 전승되던 가면극이다. 원래 애오개(아현동)·녹번·구파발·사직골 등에 산대(山臺)놀이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그 대신

에 애오개 또는 녹번리의 산대놀이를 배워왔다고 하는 양주별산대놀이와, 구파발본산대 또는 노량진본산대 등에서 배워왔다는 송파산대놀이가 현재 전승되고 있다. 흔히 애오개·사직골 등에 있었던 원래의 산대놀이를 본산대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양주와 송파 등지의 별산대놀이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산대놀이는 한자말 산대희(山臺戲)에서 유래했는데 산대희는 나례, 중국 사신 환영행사 등에서 설치했던 ‘산대(山臺)’라는 무대구조물 앞에서 놀았던 연희들을 말한다. 산대희를 놀았던 연희자들 중에서 가면극을 만들어내어 산대놀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서울 본산대놀이의 내용은 상좌과장·팔선녀과장·노장과장·양반과장(샌님·포도부장과장), 영감·할미과장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등장인물들이 오늘날의 양주별산대놀이나 봉산탈춤과 대부분 일치한다. 특히 애오개와 사직골의 본산대패는 지방 순회공연을 자주 다녔는데, 이것이 각 지방의 가면극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한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남사당패·대광대패 등의 유랑예인집단이 각 지방을 떠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연희를 공연하면서 흥행을 위해 본산대패의 가면극을 그들의 공연 종목 가운데 하나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은 상업이 발달했던 곳에서 공연된 것들이 많다. 양주에서는 일제강점기에도 난장을 뒀을 때 낮에는 줄타기를, 밤에는 양주별산대놀이를 공연했다. 우리나라 가면극의 악사는 원래 예전부터 지역에 따라 무부(巫夫), 재인칭의 재인, 악사칭의 악사, 농민, 연희자를 겸하고 있는 악사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다. 산대놀이의 춤사위는 부드럽고 우아하며 섬세한 중부 지방의 무용적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춤사위가 매우 분화되었으며 종류도 다양하다. 산대놀이의 가면은 황해도 해서탈춤의 가면이나 경상남도 야류·오광대의 가면과 차이를 보인다. 산대놀이 가면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고 비교적 아기자기하고, 손질이 많이 가해져서 기교가 뛰어나고 다양하며 가면의 크기가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나 야류와 오광대의 가면은 선이 굵고 투박하며 생김새가 단순하면서도 개성이 강하다. 말뚝이가면은 모두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⑨ 땅재주

땅재주는 연희자가 어릿광대를 대동하고 음악 반주에 맞춰 땅 위에서 물구나무를 서거나 재주를 넘는 등 신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예를 보여주는 전통연희다. 땅재주는 지예(地藝)·장기(場技)·근두·살판·물구나무서기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지예와 장기는 땅에서 행하는 기예라는 뜻이다. 살판은 송순갑의 말에 따르면 ‘잘하면 살판이요, 못 하면 죽을 판’이란 뜻에서 살판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한다. 근두는 한·중 두 나라에서 ‘근두(跟斗·筋斗·斤頭)’ 등

의 표기로 고르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칭이다. 땅재주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행하는 걷기·달리기·도약하기·균형잡기 등의 육체적 기능과 관련이 깊은 공연종목이다. 땅재주는 기초적인 육체기능을 전문공연예술로 발전시켰으며, 그 기술들은 줄타기·숫대타기·나무다리걷기·무동태우기 등 다양한 전통연희종목과 결합하여 연행되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땅재주와 관련한 기록인 조선조 『문종실록』엔 중국사신 영접행사와 관련해 나타난다. ‘광대와 서인(서역인)의 주질·농령·근두 등과 같은 규칙이 있는 놀이’라고 하여 땅재주가 규칙이 있는 연희로서 중국 사신의 영접 시에 광대와 서인이 연행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땅재주는 은영연(恩榮宴), 문희연(聞喜宴), 삼일유가(三日遊街) 등 과거급제자 행사에서도 연행되었다. 국가에서 주최한 문무급제자 축하연인 은영연에서 연행한 땅재주의 모습은 선조 13년(1580) ‘은영연도(恩榮宴圖)’를 통해, 삼일유가 시 연행한 땅재주는 ‘신등용문(新登龍門)’과 유득공(柳得恭·1749~1807)의 『경도잡지』 「유가(遊街)」 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민간에서 행해진 등과 잔치에서 연행된 땅재주의 모습은 송만재의 ‘관우희’ 50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희 소요시간은 보통 30여분이다. 땅재주 연희자는 크게 한강 이남의 세습무 집단 연희자와 한강 이북의 재인청 연희자로 대별된다. 세습무 집단은 한강 이남의 대표적 땅재주 연행집단이다. 이들 집단에서 땅재주의 위상은 판소리 광대, 악사, 줄타기와 땅재주, 방석 화랭이 순으로 하위 기예에 속해 있다. 그래서 판소리 연희자와 달리 땅재주 연희자는 줄타기 연희자와 함께 재인으로 구분되었다. 땅재주의 연행공간은 세습무 집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업과 관련하여 구분된다. 무업이 있을 때 그들은 단골판을 중심으로 곳거리 내에서 땅재주를 연행한다. 하지만 무업이 없거나 무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단골판을 벗어나 과거급제자 잔치나 생일잔치 등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사당패 땅재주의 재담은 비정상적인 동작을 통해 양반을 표현하고 음담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그러한 동작을 설명하면서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또한 땅개비·벼룩·게·자반·용수철·승어·용 등 땅재주 기예 동작을 동물이거나 사물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관객의 흥미를 높인다. 현존하는 연희본으로는 무형문화재조서본과 심우성본이 있다.

⑩ 유술(요요기)

유술(柔術)은 상체를 뒤로 굽히기(下腰), 물구나무 서기(倒立), 다리 쳐올리기(踢腿), 공중 제비 넘기(跟斗)의 네 가지 기법을 기본으로 하는 ‘번금두(翻金斗)’에서 분화되어 독립적으로

발전한 잡기 종목이다. 이는 신체의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불가능할 것 같은 형태를 만들고, 이를 유지·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예다. 현대 서커스나 잡기단에서 유술은 유신술(柔身術)·연공(軟功)·연골공(軟骨功)·축골공(縮骨功)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데 ‘유(柔)’ 또는 ‘연(軟)’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팔다리와 몸(특히 허리)의 유연성을 극도로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기예를 보여주는 연희다. 유술에서 요구되는 유연성은 물구나무를 서서 두 다리를 앞으로 넘기기, 정수리를 허리 뒤로 넘겨 다리 사이로 넣거나 앞 어깨까지 닿게 하기, 연체동물 처럼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등 인체의 표준적인 운동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듯 인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동작 때문에 유술의 연행은 강한 시각적인 인상을 남긴다. 유술은 하요(下腰)·절요(折腰)·탈구(脫臼)·반궁(反弓)·원보정(圓寶頂)·진면희(眞面戲)·도설면희(倒掣面戲)·두족입거(頭足入莒)·요요기(拗腰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중국의 현대 화상석 및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연희종목과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연희종목들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국 및 서역과의 교류를 통해 유술 종목 역시 한반도에 전래되어 연행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V. 나오며

경기재인청이 공식적으로 폐청된 지 100년이나 되었고, 재인청과 관련한 기록물 등 유·무형의 유산도 부족한 현실에서 재인청에 관해 주목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웃음과 해학, 기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가 재인청 속에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산시는 재인청의 중요 위치인 도대방을 3대째 계승한 이용우 선생의 가계가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다. 또한 재인청의 존재를 기록한 『조선무속의 연구』에 그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온 경기도당굿의 연행 내용이 「오산 12제차」로 게재되어 있다. 이 내용은 수많은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신화이며, 이야기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재인청에 대한 관심이 작게나마 일고 있다. 재인청이 위치했던 장소에 대해 지자체마다 주장을 달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어느 곳이라는 확실적인 기록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재인청의 역할과 특성상 재인청이 있던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발굴해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사라져버린 우리의 소중한 전통과 문화인 것이다. 당연히 우리의 전통문화 복원을 위해 재인청과 관련한

학술적 연구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오산 12제차」의 ‘시루말’은 독산성문화제의 ‘주제공연’ 시나리오로,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 ‘땅재주’ 등 재인칭 놀이들은 독산성문화제의 대표 콘텐츠로 우리의 아이들이 즐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신앙사전』(국립민속박물관)
- 『문화원형백과 ‘한국의 곳’』(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전통연희사전』(민속원)
- 『한겨레음악대사전』(보고사)
- 『한국민속문학사전』(국립민속박물관)
- 『무속,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 『경기도당굿 화랭이 이용우의 개인적 구비사』(김헌선)
- 『한국 화랭이 무속의 역사와 원리』(김헌선)
-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연구』(김헌선, 집문당)
- 『경기도당굿의 화랭이 연구』(목진호)
- 『조선의 마지막 춤꾼 이동안』(김명수, 서해문집)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전통예인 백사람』(현암사)
- 『재인칭의 역사』(강영화, 용인신문)
- 『학예연구사가 들려주는 재인칭 이야기』(국립국악원)
- 『전통문화의 오늘과 내일』(심우성, 답게)
- 『조선무속의 연구』(아키바 다카시, 아카마쓰 지조/심우성 역, 동문선)
- 『조선무속의 연구』(아키바 다카시, 아카마쓰 지조/최석영 해제, 민속원)
- 『한국무속과 연희』(이두현,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15 오산학연구』(오산향토문화연구소)
- 『오산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세종대학교 박물관)
- 『오산시사』(오산시사편찬위원회)

여 백

오산시 구전설화연구

－ 도깨비설화를 중심으로 －

김 용 국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I. 서론

II. 오산에 전하는 구전설화

III. 오산시 구전설화의 유형

IV. 오산시 구전설화의 특성

V. 오산시 도깨비설화의 의미

VI. 결론

* 참고자료

집필자
김 용 국

문학박사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여 백

서론

설화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섭(交涉)을 통하여 발생한다. 그러니 설화는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해석해 놓은 자취이다. 또한 설화는 시대별로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무엇인지를 담아내고 있기에 설화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指標)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듯 같은 시대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동일한 자연현상에 대하여도 대륙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같은 대륙내에서도 지역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기에 설화를 통하여 대륙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설화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개인적인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를 담아낸다. 같은 설화도 누가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어느 부분은 확대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축소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이것이 설화가 갖는 전승의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은 전승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그 차이를 보이는 것이 설화의 특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 오산지역에서 발생한 설화는 오산지역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담아낸다. 다시 말하여 동일한 자연환경과 동일한 자연물에 대하여도 다른 지역과 같으면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오산지역에서 발생되었고 구전되고 있는 설화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오산지역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의미이며 오산사람들의 가치관을 의미 있게 해설할 수 있는 단초(端初)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맥락과 의미에서 본고를 작성하게 되었다.¹⁾ 본고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산의 구비전승』에 실린 설화를 대상으로 하였다.²⁾ 또한 본고에서는 오산에 전하는 구비전승 가운데 설화

1) 필자는 어린 시절부터 오산천 수중보 근처에서 먹을 감고 물놀이를 하면서 자랐다. 집은 수원이었지만 오산시 궏동에 누나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종종 오산을 찾았고 여름철이면 발가벗고 오산천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추억도 만들 수 있었다.

2) 『오산의 구비전승』(김용국·이도남, 2008, 오산시·오산문화원. 『오산의 구비전승』은 필자가 오산지역의 구비전승과 민속을 발굴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오산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오산의 토박이 어른들을 일일이 만나 구술을 듣고 채록하여 발간한 책자이다. 본 책자에는 그간 오산시에 구전되는 설화와 새롭게 발굴한 설화를 총망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화는 오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오산지역 사람들의 가치관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인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지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1. 오산에 전하는 구전설화

오산시에 전하는 구전설화는 가곡동의 가룟, 금암동, 내삼미동, 누읍동, 두곡동 큰 말여울, 부산동, 서동, 서랑동, 세교동 오리골, 양산동 큰말, 원동의 우촌과 당말과 절골, 부산동, 조꼬지 지곶동, 탑동, 외삼미동 등에서 채록되었다.³⁾

오산시 구전설화에 있어 특기할 점은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광포형 설화보다는 지역성을 갖고 있는 지역설화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지역이든 지역의 설화가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오산시의 경우와 같이 지역의 자연과 지역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산시와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異例)적이라 하겠다.

이는 그만큼 오산시의 사람들이 오산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중된 의식이 오산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작용하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오산시민들에 의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오산시의 설화는 오산사람들의 가치관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각 지역에 전하는 구전설화는 다음과 같다.

“ □ 구렁이의 저주 □ 상주 남대문 용의 조화 □ 금암동의 개호주와 여우 □ 호랑이와 싸워 주인을 구한 소 □ 금산의 여우 □ 여자로 둔갑한 구렁이 □ 일기를 잘 맞추던 사람 □ 축지법을 쓰던 사람 □ 수수깡이 빨간 이유 □ 구렁이로 태어난 개 □ 도깨비에 홀린 이야기 □ 굶감 때문에 화가 난 호랑이 □ 도깨비 퇴치법 □ 도깨비와 싸운 이야기 □ 과거도 치르지 않고 암행어사가 된 사람 □ 신립장군의 지략 □ 도깨비와 허깨비 □ 능참봉을 하니 거동이 한 달에 스물아홉 번 □ 호랑이가 길을 밝혀준 효자 □ 세마대의 유래 □ 사람의 생각을 먹는 문둥이 □ ‘고마니가 있어 안 된다.’는 말 □ 구렁이로 환생한 개 □ 충성스런 개 □ 굶 구경 가는 도깨비 □ 최춘말(오리골) 도깨비 장난 □ 축지법을 쓰시던 도사 할아버지 □ 악기소리를 좋아하는 높은재[高峴洞] 도깨비 □ 상여소리

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채록의 과정에서 오산시에 전하는 구전설화를 통하여 오산시의 특성을 파악한 바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3) 박동에서 박씨네 과수원이 박동으로 오게된 유래와 은계동 등에서 박영호와 관련된 이야기, 위포의 유래, 가수리에서 뚝덩에 제사를 지내는 유래 등은 각각 지명유래나 민속 편에서 다루었다. 이 밖에 지역별로 전하는 이야기는 『오산의 구비전승』(김용국·이도남), 『오산의 민속』(김용국) 2008, 오산시·오산문화원 등을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잘 하는 도깨비 □ 우촌의 도깨비 이야기 □ 배꼽산에 초분(草墳)하는 이유 □ 당말의 부자들이 망한 이유 □ 선바위 전설 □ 영험한 당집의 돌 □ 엄나무를 문 앞에 심는 이유 □ 구기자가 몸에 좋은 이유 □ 집안에 살구나무를 심지 않는 이유 □ 부산동 매암산(梅岩山)당집의 유래 □ 도깨비 이야기 □ 독산(禿山)의 호랑이 이야기 □ 삼천병마를 물리친 권율장군 □ 여우한테 홀린 이야기 □ 윤씨들이 외삼미에 터를 잡게 된 이야기 □ 브아지의 도깨비불 □ 여우에게 홀린 이야기 □ 윤암들의 전설 □ 꽃가마의 전설 □ 선바위 □ 당집 □ 배만이[鰲坪]의 전설 □ 대호발의 전설 □ 궁터 부자의 전설 □ 궤리사(關里祠) □ 애기바위 □ 내삼미 용인 이씨 집안의 전설 □ 필봉산 대덕암 □ 조산께 □ 벌음동유래 □ 서랑(徐娘)의 전설 □ 아기 엮은 바위의 전설 □ 청해 이씨 사당에 얹힌 전설 □ 장자못의 전설 외삼미 □ 능지기와 정조 임금의 전설” 63편이다.

이 가운데 “□ 상주 남대문 용의 조화 □ 과거도 치르지 않고 암행어사가 된 사람 □ 수수깡이 빨간 이유 □ 꽃감 때문에 화가 난 호랑이 □ 엄나무를 문 앞에 심는 이유 □ 구기자가 몸에 좋은 이유 □ 집안에 살구나무를 심지 않는 이유” 등은 오산시에만 전하는 이야기는 아니며, 특히 “□ 수수깡이 빨간 이유 □ 꽃감 때문에 화가 난 호랑이 이야기 □ 장자못의 전설”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광포형(廣布形)설화이다. 그리고 “□ 엄나무를 문 앞에 심는 이유 □ 구기자가 몸에 좋은 이유 □ 집안에 살구나무를 심지 않는 이유” 등은 민속과 관련된 이야기로 타 지역에서 왕성한 전승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오산시의 구비전승』에 기록하여 두고자 하였다.

2. 오산시 구전설화의 유형

앞서 오산시의 구전설화를 개괄하였다. 2. 오산시 구전설화의 유형에서는 오산시에 전하는 설화를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별 비중은 어떠한지? 또한 유형별 특징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2-1. 동물(動物)관련 설화

먼저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분류하였다. 동물관련 설화는 다음과 같다.

“□ 구렁이의 저주 □ 금암동의 개호주와 여우 □ 호랑이와 싸워 주인을 구한 소 □ 금산의 여우 □ 여자로 둔갑한 구렁이 □ 구렁이로 태어난 개 □ 꽃감 때문에 화가 난 호랑이 □ 호랑이가 길을

밝혀준 효자 □ 구렁이로 환생한 개 □ 충성스런 개 □ 독산(禿山)의 호랑이 이야기 □ 여우한테 홀린 이야기 □ 여우에게 홀린 이야기”

이상과 같이 동물설화는 구렁이, 호랑이, 개, 여우, 소와 관련된 이야기로 모두 13편이었다. 이 가운데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5편, 구렁이에 관한 이야기는 4편이 전하고 있으며, 개와 관련된 이야기는 3편, 여우와 관련된 이야기는 3편, 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1편이 현재까지 발굴 채록되어 기록되었다.

그런데 특기할 점은 “□ 금암동의 개호주와 여우 □ 호랑이와 싸워 주인을 구한 소 □ 여자로 둔갑한 구렁이 □ 구렁이로 태어난 개 □ 구렁이로 환생한 개”와 같이 하나의 동물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동물설화 가운데 “□ 여자로 둔갑한 구렁이”이야기를 제외하면 호랑이[개호주]와 여우, 호랑이와 소, 구렁이와 개 등 동물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동물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구렁이의 이야기는 3편이 모두 둔갑을 한다는 내용으로 전하고 있다. 이는 구렁이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구렁이가 매우 신령스러운 짐승이며 그러함으로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구렁이에 대한 민중적 인식이 투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또한 “□ 호랑이와 싸워 주인을 구한 소 □ 충성스런 개”와 같이 인간에게 소와 개가 얼마나 긴요한 동물인지를 확인시키는 이야기가 전한다는 점은 한국인이 소와 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정서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 호랑이가 길을 밝혀준 효자”는 호랑이가 영물이며 특히나 효자들에게는 위해를 가하지 않고 효자를 돕는 신령스러운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화성시 동탄지역에 전하는 “효자 박장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그 격이 같다고 하겠다.

오산시에 전하는 동물관련 설화는 동물과 동물의 관계 속에서 동물에 대한 특성과 인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판단한다. 특히나 구렁이를 둔갑에 능한 영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오산시 구렁이 설화의 특성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구렁이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것은 ‘업’신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산지역에서 성하였던 ‘경기재인청’ 소속의 무속인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추단(推斷)한다.

2-2. 이물(異物)관련 설화

오산시에 전하는 이물관련 설화는 다음과 같다. 필자가 이물(異物)로 분류하는 것은 도깨비와 고마니, 용 등이다. 지역의 설화는 아니지만 □ 상주 남대문 용의 조화를 대상으로 포함하여 다루고자 한다.⁴⁾

“□ 도깨비에 홀린 이야기 □ 도깨비 퇴치법 □ 도깨비와 싸운 이야기 □ 도깨비와 허깨비 □ ‘고마니가 있어 안 된다.’는 말 □ 굿 구경 가는 도깨비 □ 최춘말(오리골) 도깨비 장난 □ 악기소리를 좋아하는 높은재[高峴洞] 도깨비 □ 상여소리 잘 하는 도깨비 □ 우촌의 도깨비 이야기 □ 도깨비 이야기 □ 브아지의 도깨비불 □ 상주 남대문 용의 조화”

이상과 같이 이물관련 설화는 모두 13편이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깨비와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11편이나 된다. 그리고 각각 ‘고마니’, ‘용’의 이야기가 1편이 전한다.

이 가운데 ‘상주 남대문 용의 조화’를 제외하면 모두가 오산지역에서 지역성을 갖고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물관련 설화 전체가 13편인데 오산의 지역성을 갖고 있는 것이 12편이고 이 가운데 도깨비의 이야기가 무려 11편에 달한다. 이물관련 설화 전체에서 차지하는 도깨비 이야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또한 오산지역 설화가 갖는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고마니’이야기는 구렁이로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그 내용이 매우 교훈적이고 철학적이다.⁵⁾

4) ‘상주 남대문 용의 조화’를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동물관련 설화에서 ‘꽃감 때문에 화가 난 호랑이’를 다루는 이유와 같다. 동일한 대상과 이야기이지만 구전자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오산지역에서 채록된 이상 오산의 지역성이 담겨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5)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고마니는 구렁이는 아니고 구렁이와 비슷한 짐승이라고 한다. 이는 아마도 집안의 재물을 일으켜 주고 지켜준다는 믿음에서 민간에서 섬기고 있는 ‘업’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농가에서 특히 장자(長子)의 집에서 주저리를 틀어서 ‘업’을 모시는데 그 업은 제각각이며 구렁이, 족제비, 돼지 등이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업은 구렁이다. 그렇게 볼 때 ‘고마니’의 형상으로 보아 ‘업’과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업’과 ‘고마니’의 행동 양상만으로 볼 때 양자는 적대적일 수 있을 것이다. ‘업’은 재물을 지키고, ‘고마니’는 재물을 훔쳐내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를 역할과 관련하여 살펴면 양자가 별개의 것은 아니다. 즉, ‘업’은 재물을 지키도록 하고, ‘고마니’는 운명을 지키도록 한다. 다시 말하여 ‘업’과 ‘고마니’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 ‘업’이 주어진 재물을 지키는 역할이라면 ‘고마니’는 주어진 운명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업’은 줄어드는 것을, ‘고마니’는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론은 같다. 주어진 운명과 재물을 지키는 것이다.

먼저 오산에 전하는 도깨비 설화는 도깨비의 존재와 도깨비 퇴치법, 도깨비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 도깨비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깨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설화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오산에 전하는 도깨비의 이야기에서 도깨비와 허깨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와 도깨비를 퇴치하는 방법이 채록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여 흔하지 않은 자료가 오산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오산의 도깨비는 음악을 좋아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굿 구경 가는 도깨비’, ‘악기소리를 좋아하는 도깨비’, ‘상여소리 잘 하는 도깨비’의 이야기가 음악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굿, 소리, 악기’ 등과 밀접하다. 이를 다시 풀어서 정리하자면 굿이나 장례에 악기가 등장하며, 굿과 장례에 무당이 등장하는 것으로 축약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여소리란 장례의 민속에 등장하는 것이지만 상여소리란 결국 저승에 대한 인식과 망자에 대한 천도(薦度)의 의식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기는 무당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무구(巫具)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오산시에 전하는 이물관련 설화는 무속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2-3. 인물(人物)관련 설화

오산에 전하는 인물관련 설화는 다음과 같다. ‘과거도 치르지 않고 암행어사가 된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가 오산지역에서 발생하였거나 오산지역과의 연관성 속에서 구전되고 있는 설화들이다.

“□ 일기를 잘 맞추던 사람 □ 축지법을 쓰던 사람 □ 과거도 치르지 않고 암행어사가 된 사람 □ 신립장군의 지략 □ 능참봉을 하니 거동이 한 달에 스물아홉 번 □ 호랑이가 길을 밝혀준 효자 □ 사람의 생간을 먹는 문둥이 □ 축지법을 쓰시던 도사 할아버지 □ 당말의 부자들이 망한 이유 □ 삼천병마를 물리친 권율장군 □ 윤씨들이 외삼미에 터를 잡게 된 이야기 □ 운암들의 전설 □ 꽃가마의 전설 □ 선바위 □ 배만이[艤艇坪]의 전설 □ 대호발의 전설 □ 궁터 부자의 전설 □ 궐리사(闕里祠) □ 내삼미 용인 이씨 집안의 전설 □ 서랑(徐娘)의 전설 □ 청해 이씨 사당에 얹힌 전설 □ 장자뫾의 전설 외삼미 □ 능지기와 정조 임금의 전설”

이상과 같이 오산시에 전하는 인물관련 설화는 모두 23편으로 6개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산사람들과만 관련된 이야기는 “□ 일기를 잘 맞추던 사람 □ 축지법을 쓰던 사람 □ 호랑이가 길을 밝혀준 효자 □ 사람의 생간을 먹는 문둥이 □ 축지법을 쓰시던 도사 할아버지 □ 당말의 부자들이 망한 이유 □ 윤씨들이 외삼미에 터를 잡게 된 이야기 □ 운암들의 전설 □ 꽃가마의 전설 □ 선바위 □ 배만이[鰲堤坪]의 전설 □ 대호발의 전설 □ 궁터 부자의 전설 □ 궤리사(關里祠) □ 내삼미 용인 이씨 집안의 전설 □ 서랑(徐娘)의 전설 □ 청해 이씨 사당에 얹힌 전설 □ 장자뭇의 전설 외삼미” 등 18편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지역의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 윤씨들이 외삼미에 터를 잡게 된 이야기 □ 궤리사(關里祠) □ 내삼미 용인 이씨 집안의 전설 □ 청해 이씨 사당에 얹힌 전설” 등으로 4편이다. 엄밀히 본다면 ‘외삼미 윤씨’, ‘궤리사의 공서린’ 등은 오산시에 들어온 입향조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지만 ‘가수리 청해 이씨 이지란’은 가수리의 입향조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외삼미의 용인 이씨’ 이야기도 외삼미의 입향조가 아니라 ‘아기장수’설화가 가미된 집안 영웅설화의 유형으로 확인된다. 오산에 전하는 오산시 궤동의 입향조가 된 곡부(曲阜) 공씨 공서린 선생의 이야기는 오산의 교육이 어떠한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며 오산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삼미초등학교의 전신인 삼미의숙의 창시자인 윤학영선생과의 연관성 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한다면 오산시 교육철학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운암들’, ‘꽃가마’, ‘선바위’, ‘궁터 부자’, ‘서랑’, ‘당말부자’, ‘장자뭇’ 등은 이야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심 내용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호랑이가 길을 밝혀준 효자’의 이야기는 앞선 2-1 동물관련 설화에서도 다른 내용으로 2-3과 함께 분류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본고에서는 “□ 일기를 잘 맞추던 사람 □ 축지법을 쓰던 사람 □ 축지법을 쓰시던 도사 할아버지”를 중심된 내용으로 하여 그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여 위의 3편 자료는 신이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오산사람의 이야기이다. 신이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오산사람의 이야기는 오산사람관련 이야기 18편 가운데 3편이다.

축지법을 쓰거나 일기를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3편의 이야기는 누읍동과 양산동 큰말에 전하는 것으로고 앞의 2편은 누읍동에서 뒤의 1편은 양산동에서 채록되었다. 누읍동과 양산동에서 공통적으로 축지법을 쓰는 도인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었다. 비록 3편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이렇듯 오산지역에 신이한 능력을 갖

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하는 것이 오산지역의 특성이라고 판단한다.

2-4. 자연(自然)관련 설화

오산에 전하는 자연관련 설화는 12편으로 다음과 같다.

“□ 수수깡이 빨간 이유 □ 배꼽산에 초분(草墳)하는 이유 □ 선바위 전설 □ 영험한 당집의 돌 □
엄나무를 문 앞에 심는 이유 □ 구기자가 몸에 좋은 이유 □ 애기바위 □ 집안에 살구나무를 심지
않는 이유 □ 꽃가마의 전설 □ 선바위 □ 조산개 □ 장자뭇의 전설”

이 가운데 ‘수수깡’, ‘장자뭇’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이야기 이다. 그리고 ‘선바위’, ‘당집의 돌’, ‘꽃가마’ 등의 이야기는 오산지역만의 특징적 이야기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또한 ‘엄나무’, ‘구기자’, ‘살구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도 오산지역만을 특징을 담아내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원동 배꼽산에서 초분(草墳)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장례의 풍속은 지역성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때론 각 집안의 풍습에 따라 탈관(脫棺)을 하는 경기도에서도 입관(入棺)을 한 채 매장을 하는 풍습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깊숙한 내륙지역인 오산시에서 초분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기할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초분은 주로 해안(海岸)이나 도서(島嶼)지역의 특색 있는 장례풍속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분을 하는 이유의 하나로 배꼽산의 토양이 황토가 아니라 적토(赤土)였기 때문이라고 전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에도 필자의 연구과제로 남을 것이다.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한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필자는 부산동의 매암산과의 관련성, 그리고 오랜 세월 전 오산시의 지형에 대한 것도 추측하고 상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산동의 매암산 당제사에서 제물로 용떡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용떡이 마을공동체신앙에서 제물로 올려지는 경우는 바닷가에서만 확인되는 풍습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산천의 크기와 역할이 오늘날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근거의 이야기들이 은계동, 외삼미동이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 ‘위포’의 규모와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이다.

즉 다시 정리하면 원동 배꼽산에서 초분이 행하여졌다는 것은 신령한 산이면서 동시에 오산시의 옛지형과 오산천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2-5. 건물(建物)관련 설화

오산에 전하는 건물관련 설화는 모두 6편으로 다음과 같다.

“□ 상주 남대문 용의 조화 □ 세마대의 유래 □ 부산동 매암산(梅岩山)당집의 유래 □ 꺾리사(闕里祠) □ 필봉산 대덕암 □ 청해 이씨 사당에 얹힌 전설”

그러나 ‘세마대’와 ‘대덕암’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모두 앞서 동물관련, 인물관련 설화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중으로 그 유형을 분류한 것은 내용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마대’의 이야기는 인물관련 설화에서 다른 ‘권율장군’과 관련되어 있기에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대덕암’의 이야기는 내삼미에서 채록된 ‘여자로 둔갑한 구렁이’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물관련 설화에서 다른 오산지역의 특성으로 파악한 ‘구렁이’이야기와도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하여 둔갑하는 구렁이 이야기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라 여긴다.

2-6. 지명(地名)관련 설화

오산에 전하는 지명관련이야기는 『오산의 구비전승』 편에 수록한 지명의 이야기와 별도로 이야기 구조의 완성도를 보아 설화편에서 다른 자료들이다. 그러나 이 역시 ‘조산곶’, ‘벌음동’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앞선 자연관련 설화와 인물관련 설화를 통하여 살펴본 자료들이다.

지명관련 설화로 분류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배곶산에 초분(草墳)하는 이유 □ 운암들의 전설 □ 배만이[鰐艇坪]의 전설 □ 대호밭의 전설 □ 조산곶 □ 벌음동유래”

‘벌음동’의 유래는 마을의 이름을 풀어 놓은 정도의 의미이다. 그리고 ‘조산곶’은 산의 형상을 조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화성시 수직리에 전하는 미륵관련 이야기와 쌍정리에 전하는 미륵관련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모두가 지형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야기의 근간은 지역의 여자들의 바람기를 잠재우기 위한 방책으로 나무를 심어 기운을 제어하거나 미륵을 세워 땅의 기운을 잠재웠다는 유형이다. 그리고 화성시의 미륵관련 이야기를 다른 시각에서 분류한다면 ‘겨루기’의 유형에 속한다. ‘겨루기 유형’은 남녀의 겨루기, 남자와 남자의 겨루기, 지역과 지역의 겨루기 등으로 나타나는 데 ‘조산계’는 벌음동과 서동의 겨루기에서 발생된 이야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긴다.

3. 오산시 구전설화의 특성

오산지역 구전설화를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 오산시 구전설화의 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특성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물관련 설화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오산시에 전하는 동물관련 설화는 동물과 동물의 관계 속에서 동물에 대한 특성과 인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판단한다. 특히나 구렁이를 둔갑에 능한 영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오산시 구렁이 설화의 특성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구렁이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것은 ‘업’신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산지역에서 성하였던 ‘경기재인청’ 소속의 무속인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추단(推斷)한다.

이물관련 설화는 무속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인물관련 설화는 오산시의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오산에 전하는 오산시 궐동의 입향조가 된 곡부(曲阜) 공씨 공서린 선생의 이야기는 오산의 교육이 어떠한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며 오산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삼미초등학교의 전신인 삼미의숙의 창시자인 윤학영선생과의 연관성 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한다면 오산시 교육철학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누읍동과 양산동에서 공통적으로 축지법을 쓰는 도인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었다. 비록 3편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이렇듯 오산지역에 신이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하는 것이 오산지역의 특성이라고 판단한다.

자연관련 설화는 배곶산에서 초분이 행하여졌다는 것이 그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원동 배곶산에서 초분이 행하여졌다는 것은 신령한 산이면서 동시에 오산시의 옛지형과 오산천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건물관련 설화 가운데 ‘대덕암’의 이야기는 내삼미에서 채록된 ‘여자로 둔갑한 구렁이’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물관련 설화에서 다른 오산지역의 특성으로 파악한 ‘구렁이’이야기와도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하여 둔갑하는 구렁이 이야기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라 여긴다.

지명관련 설화 가운데 ‘조산께’는 벌음동과 서동의 겨루기에서 발생된 이야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긴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오산시의 구전설화는 오산시의 자연과 자연에 대한 오산사람들의 인식과 오산사람들의 자부심이 깃들여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나 오산시에 전하는 ‘도깨비’ 이야기는 오산의 정체성을 살필 수 있는 지표(指標)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오산지역이 예인들의 고장이며 예인을 양성하던 지역이었음을 입증하는 한 증거임이 보다 명확하여졌다고 판단된다.

4. 오산시 도깨비설화의 의미

오산의 도깨비가 어떤 특징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4편의 자료를 제시한 다음 이를 스토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다시 종합적인 의미를 추출하기로 한다.

4-1. 굿 구경 가는 도깨비

세교동에서는 도깨비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진등’에서 보았다는 도깨비 이야기가 있고, 오리골에서 보았다는 도깨비 이야기가 있다. 또한 지곶동(조꼬지)로 넘어가는 언덕에 옛날에 서낭이 있었는데 그 곳에도 도깨비가 있었다고 전한다.

먼저 오리골에 전하는 도깨비 이야기다.

옛날에 오리골의 여자 몇 명에서 밤에 뽕을 따러 갔다. 길거리에 심어진 뽕나무인데 주인이 있어도 따가지 않는 뽕밭이었다. 그러나 그래도 주인이 있는 뽕나무라 낮에는 따기가 어려워 밤을 이용하여 따곤 하였다.

여자 몇 명에서 한창 뽕을 따고 있는데 냇가에 횃불을 내려놓고 허영계 한 서넛이 맴을 돌고 있었다. 한 사람이 “저게 무슨 불이야?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니, 다른 사람이 “저게 무슨 사람 불이야, 도깨비불이지. 그러니 도망가자.”했다. 거기 뽕밭이 언덕이 졌는데 도깨비들이 울지 모른다고 낮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어디서 징과 장구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징장, 징장...’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도깨비들이 불을 들고 징, 장구를 치면서 굿을 하고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다.⁶⁾

- 사람들이 도깨비불을 만났다.
- 도깨비를 피하여 숨었다.
- 그 때 인근에서 굿하는 소리가 들렸다.
- 도깨비들이 굿을 하는 곳으로 갔다.

4-2. 악기소리를 좋아하는 높은재[高峴洞] 도깨비

원동 우촌말에서 청호동의 옛 지명과 큰 청이 도깨비 이야기가 채록되었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지금의 청호1동은 아래청[塚]이고 청호 2동은 원당리로 불렸다. 도깨비가 살았다는 큰청이는 지금 LG물류센터 자리로 공동묘지가 있었던 곳이다. 이곳에 전주 이씨들이 터를 잡았는데 외지의 사람들은 청이 이서방네라고 불렸다. 그런데 큰청이에 도깨비가 자주 나타나 심술을 부리기 때문에 지금의 우촌말에 터전을 새롭게 개척한 것이라고 전한다.

옛날, 현재의 물류센터는 공동묘지고 조금 못미쳐 골짜구니가 있었는데 그 곳에 마을이 있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성호고등학교가 있는 자리다. 이곳의 도깨비들이 심술을 부리면 솔뚜껑을 솔단지 안에다 집어넣었다.

6) 제보자: 박용태(남, 70세), 이계은(여, 66세), 윤옥(여, 95세) 2008년

그런데 높은재[高峴洞] 도깨비들은 악기소리를 좋아했다고 한다. 마을에서 징이며, 팽과리, 장구 같은 악기를 장만하여 보관하였다. 그런데 도깨비들이 이장집 솔뚜껑을 솔 안에 집어넣어버렸다. 도깨비들이 마을에 징이며 팽과리이며 악기가 생기자 사람들이 한 번 놀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자 심술을 부린 것이라 전한다. 그 때 그 장면을 보려고 원당일 사람들이 높은재로 구경을 갔었다고 전한다.

- 마을에서 징이며 팽과리, 장구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 악기소리를 내어 도깨비들을 즐겁게 하지 않았더니 심술을 부렸다.
- 심술을 부리다가도 악기소리가 나면 도깨비들이 심술을 멈추었다.

그리고 어느 집에서는 도깨비가 소당(솔뚜껑)을 길거리에 내다버리고 해서 밥을 양재기에 담아 놓고는 이 밥을 먹고 멀리 가라고 기원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 어느 집에서는 짚을 뿔는 돌을 갖다 놓았더니 밤새 도깨비들이 ‘콩닥콩닥’ 짚을 뿔었다고도 전한다.⁷⁾

4-3. 상여소리 잘 하는 도깨비

지금도 도깨비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제보자들은 상여소리를 잘하는 도깨비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하셨다.

가만히 부엌밖에 있으면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부엌을 들어가면 솔뚜껑이 솔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솔뚜껑을 붙잡고서 “들어가는 재주만 있고 나오는 재주는 없느냐?” 그러면 밖에서 도깨비가 ‘꺄꺄’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그 때 솔뚜껑을 잡으면 ‘쑈’ 빠진다. 그리고 도깨비는 12가지 재주를 부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여소리를 또 기가 막히게 잘 한다고 전한다.⁸⁾

- 도깨비는 12 가지 재주를 부렸다.
- 상여소리를 잘하는 도깨비가 있었다.

7) 제보자: 엄우영(남, 72세)노인회장, 서사래(여, 89세), 통장(남, 61세), OOO(여, 68세) 2008년

8) 제보자: 엄우영(남, 72세)노인회장, 서사래(여, 89세), 통장(남, 61세), OOO(여, 68세) 2008년

『오산의 구비전승』 민요와 놀이 편에서 소개 하였지만 이 지역출신인 유금산(77세) 어른의 상여소리는 필자가 이제까지 들어본 어느 상여소리보다 구슬프고 아름답다. 어쩌면 이 마을에서 도깨비들이 불렀다는 그 상여소리와 맥이 닿는 지도 모를 일이다.

4-4. 도깨비 이야기

지곳동에서 채록한 이야기로 제보자는 소경이다. 마을에서 목살을 잡고 부정을 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셨던 어른이다. 제보자께서 경험하신 도깨비관련 설화를 구술하여 주셨다.

예전에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을 짓는 동안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오늘날의 여관과 같은 숙박 업소가 없었던 것이다. 그 시절 제보자의 큰집에서 집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마을의 양학당에서 기거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마을 두레패들의 장구나 풍물 같은 것과 상여 등을 놓아 두고 있었다.

그런데 특히 날이 궂으려는 밤이면 어디선가 뚱뚱거리는 소리가 났다. 미닫이문이 덜덜덜 흔들리고 누군가 뚱뚱뚱뚱하고 노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래 “이거 뭐냐?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확 열면 조용해지는 것이다.

또 마을의 옛날 방앗간자리에 새로 집을 짓고 세간을 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도깨비가 나타났다.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뚫다 창에다 뭘를 푹푹 끼얹는 것이었다. 막 뭔가 후두둑 후두둑 쏟아졌다. 그래 문을 열면서 “빨리 불 켜라, 이게 뭐냐?”고 소리를 치니까 잠잠해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고는 밖을 나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⁹⁾

○ 두레패 악기를 보관한 곳이 있었다.

○ 날이 궂으면 도깨비들이 뚱뚱거리는 소리를 내며 놀았다.

제보자께서는 이러한 일이 도깨비가 자신의 담력을 시험을 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기력이 센지 안센지 그거를 시험 해 본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구전되는 도깨비설화는 반드시 도깨비에게 이겨야지 지면 죽음에 이르거나 병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9) 제보자: 이건수(남, 74세) 2008년

4-5. 오산시 도깨비의 특성

이상 4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도깨비들의 공통점을 스토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 그 때 인근에서 굿하는 소리가 들렸다.
- 도깨비들이 굿을 하는 곳으로 갔다.

자료2.

- 마을에서 징이며 팽과리, 장구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 악기소리를 내어 도깨비들을 즐겁게 하지 않았더니 심술을 부렸다.
- 심술을 부리다가도 악기소리가 나면 도깨비들이 심술을 멈추었다.

자료3.

- 도깨비는 12 가지 재주를 부렸다.
- 상여소리를 잘하는 도깨비가 있었다.

자료4.

- 두레패 악기를 보관한 곳이 있었다.
- 날이 갓으면 도깨비들이 똥땅거리는 소리를 내며 놀았다.

앞서 제시하고 분석한 4편의 자료에서 보여지는 오산시 도깨비들은 모두 재주가 있어 음악을 좋아한다는 점이다. 굿을 좋아하는 것도, 악기소리를 좋아하고 악기를 다루는 것도, 게다가 상여소리를 하는 등의 재주를 보이면서 흥에 겨운 것이 바로 오산시 도깨비들의 특성이라고 분석되었다.

결론

오산시의 구전설화를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나타난 오산시 구전설화의 의미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도깨비설화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확인된 오산시 구전설화의 특징은 오산시의 자연조건 지형적 여건에 대한 오산 사람들의 인식이 투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에 대한 인식과 오산의 문화적 전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존하고 보전하여야 하며, 어떻게 가꾸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적 자료를 동물, 이물(異物), 인물 등에 나타난 특성으로 다시 정리하여 말하자면 오산시가 경기재인청의 본거지로 예인들을 양성하던 예인의 고장이라는 점, 예인들을 교육하던 교육의 장이었다는 점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는 공서린, 윤학영으로 이어졌으며 오산시가 오늘날 주요한 정책으로 ‘교육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통이 이미 오래전 오산에서 터를 잡고 삶을 영위하던 옛 사람들의 자취와 노력의 결과물임도 확인되었다고 판단한다.

“오산은 교육의 도시이다. 그리고 예인들의 고향이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러한 오산의 정체성은 매우 오래전 오산이라는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였던 옛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전통을 직시하고 바로 읽어 오산의 내일을 준비하였으면 한다. 오산의 전통은 과거의 유산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도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수원문화의 뿌리- 설화 · 제당편』, 설성경 · 김용국, 2000, 수원문화원
-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1권』 태안 · 동탄 편, 2004, 화성시 · 화성문화원
- 『오산의 마을신앙』, 김용국, 2006, 오산문화원
-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3권』향남면 편, 김용국, 2006, 화성시 · 화성문화원
-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5권』송산면 편, 김용국, 2007, 화성시 · 화성문화원
- 『오산의 구비전승』 김용국 · 이도남, 2008, 오산시 · 오산문화원
- 『오산의 민속』, 김용국, 2008, 오산시 · 오산문화원
- 『한국의 무속과 경기도당굿』, 김용국, 『오산학연구』1집, 2015

중앙동의 지명유래, 구비전승과 전설

한 민 규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 I. 중앙동(中央洞)
- II. 중앙동의 지명유래
- III. 중앙동의 마을신앙과 민속
- IV. 중앙동의 전설
- V. 부산동에서 채록된 옛이야기

집필자
한 민 규

경기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 백

*금번 2016 오산문화총서 『오산학연구(II)』는 오산의 중심인 중앙동을 주제로 특집을 다룬다. 오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오매장터를 포함하고 있는 오산동과 경기재인청이 있었던 부산동으로 중앙동은 이루어져 있다. 경기재인청과 오매장터에 대한 연구가 실리고 여기에 중앙동에 관련한 지명, 전설, 민속 등을 함께 정리했다.

그동안 연구되고 조사된 중앙동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신고자했다. 지역의 작은 이야기가 모여 역사가 되듯 이 지명 한자리, 전설 한 토막까지 소중하게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실린 경우도 많은 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 실린 것을 원안으로 했고, 또한 여러 곳에 게재된 내용 중에 가장 내용이 많은 것을 원안으로 해서 풍부한 자료가 되도록 작업했다. —편집자 註

I. 중앙동(中央洞)

1989년 1월 1일 오산시가 승격되면서 당시 오산리 일부(오산 1, 2, 3, 7, 8, 9리)와 부산리를 합쳐(8개통 52개반) 중앙동으로 되었다. 오산시의 중심부에 있다는 뜻으로 동명을 정하였으며, 오산천을 중심으로 남쪽이고 서쪽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동쪽이며, 남쪽은 롯데마트(옛 화성군 청 자리) 앞 도로의 북쪽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부산동의 끝인 용인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정조 17년(1793)에 발간된 『수원부읍지』에 따르면 청호면 지역으로 오매리와 부산리가 현재의 중앙동 지역이며, 1899년(광무 3년) 청호면으로 천변동과 부산동이 있었는데, 천변동은 오산천 주변의 마을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1914년 4월 1일부터 성호면으로 1, 4, 5동이, 1동은 부산리 4동과 5동은 현 중앙동의 오산동으로 되었다. 1941년 10월 1일 성호면에서 오산면으로 개칭, 1960년 1월 1일 오산읍으로 승격된 후 1988년 말까지 오산 1, 2, 3, 7, 8, 9리와 부산리로 속해 있었다. 1970년 6월 10일 화성군 청사가 수원에서 이전하여 오산으로 오면서부터 군청소재지와 읍 소재지로 발전을 거듭하다가 1989년 1월 1일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하면서 중앙동이 되었다.

II. 중앙동의 지명유래

(1) 오산동(烏山洞)

오산시의 중심지역이다. 오산동은 행정 담당하는 행정동이 중앙동·대원동·남촌동 3개동에 나뉘어져 있으며 오산시청, 오산우체국, 오산전화국 등의 관공서가 밀집된 곳으로 행정의 중심지이다. 오산시장(오산장=오매장터+오산오색시장)을 중심으로 장터가 일찍부터 발달하고 있어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오매리(烏梅里), 천변동(川邊洞) 등으로 불린 것과 같이 오산천을 끼고 있는 곳이며,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오산읍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었다. 또한 화성군시기의 화성군청이 1970년 6월 10일 부터 오산읍 원동으로 이전하는데, 현재 오산시 오산동의 롯데마트 자리이다. (당시 주소 : 오산읍 원리 232의 2) 2000년 11월 1일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로 이전하기 전까지 화성군청은 오산동에 존재했었다. 대원동 관할 오산동의 행정구역으로는 상가지역이 많은 오산동의 남쪽지역과 오산역 주변을 포함하고 있다.

■ 오산천(천)

오산천은 용인시 보개산에서 발원하여 구흥천을 흐르다 화성시 동탄면을 경유하여 오산으로 흘러 평택의 항곶포(亢串浦)로 흐르면서 수원외 황구지천과 합류하여 서해안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예전에는 서해의 바닷물이 오산동 일대의 오산천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오산의 곳곳의 공사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깊이만 들어가면 갯벌 흙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쯤이면 갈매기가 금오대교까지 올라와 날며 오산천에서 고기를 낚아채 먹는 것을 매년 본다. 특히, 옛 지명에 포구(浦口)를 표현하는 위포(은계동-한국전쟁시 미공군 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었다), 초평동의 어인포(魚仁浦), 탑동대교 밑 황새포, 갈곶동의 갯변(강변), 가장동의 배문이 등의 지명이 있는 걸로 봐서 옛날에는 아주 작은 소금선 정도는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며,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은 배가 오산천에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다. 1970년초만 해도 오산천은 물이 맑고 깨끗해 먹 감고, 물고기 잡아 오산천 물 떠서 천렵 찌개도 끓여 먹은 기억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갖고 있다. 오산천에는 붕어, 모래무지, 피라미, 메기 등 많은 물고기가 서식했고, 한 가지 흠이라면 맑은 물에 산다는 거머리가 많았다. 장마가 질 때면 오산천이 범람할 것처럼 많은 물이 흘렀다. 한 번은 제방이 붕괴된다고 해서 대피 명령에 따라 갈곶동 또는 현 오산대가 있는 청학산으로 피난간 적도 있다. 이러한 오산천은 옛날에도 오산의 중심가를 흘러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산의 젖줄이 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 오산장(터)

오산장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오산장이 처음 문헌에 기록을 보인 것은 1753년에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 오산(鰲山)이란 지명이 나오고 또한 오산장이 3일과 8일(당시엔 음력)에 열린다는 기록이 보이고, 1792년에 발간된 『화성궐리지』에 오산화성궐리사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 오산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장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1863년(철종 14년)에 발간된 『대동지지』와 1899년(광무 3년)에 발간된 『수원군읍지』에도 보인다. 장시(場市)편 청호면에 기록되어 있으며 3일과 8일(당시 음력 사용)에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어 오늘의 오산장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오산장의 역사는 최소 260년 이상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명칭은 오산중앙전통시장으로 불리다 2013년 8월에 오산오색시장으로 변경됐다. 현재는 오매장터와 오산오색시장을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 웃말(마을)

오산동의 가장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현재 희망아파트(희망빌라)가 있는 곳 주변이다.

■ 뒷말(마을)

국도변을 중심으로 뒤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마을이다. 현 오산시장 부근을 말한다.

■ 새터말(마을)

새로운 터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사탄말, 사탯말, 섯터말, 새텃말로도 불렸으며 예전에 이곳에 참나무 숲이 많았는데, 이곳을 정지 작업하면서 새로 마을이 형성되어 불린 이름이다. 현 성호초등학교와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주변을 이른다.

■ 운암들(들)

오산동과 부산동 사이의 넓은 들판으로 1899년에 발간된 『수원군읍지』에 의하면 양향둔(糧餉屯 在府南 晴湖面 田畝 36結 45負 5束)이 있는데, 현재의 평수로 계산하면 대략 22만평에서 30만평으로 보아 현재의 운암들로 보인다. 운암들의 명칭에는 예전에 운암이란 사람이 오산천 제방으로 막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 상골밭(밭)

예전에 오산천변 일대에 뽕나무밭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나 현재는 없다.

■ 선독(마을)

오산천변의 마을로 현재 시민회관이 있는 독 위에 있던 마을이나 지금은 없어졌으며, 독방이라고도 불렀다.

■ 마장터(마을)

현재의 시민회관 맞은 편 남쪽 마을로 예전에 마구간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필자가 본 기억은 1960년대 싸전시장 내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 만세거리(거리)

싸전거리 또는 미시장이라고도 한다. 대원약국 입구에서부터 KT오산지점 건너 앞 골목까지의 거리이다. 만세거리로 불리는 곳이다. 1919년도 당시에는 우시장이었는데, 오산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발상지이기도 하다. 오산3·1독립만세운동 발상지 표식과 표지석(판)이 설치되어 있다.

■ 싸전골목(마을)

미시장이라고도 불렀으며, 예전의 장터로 주로 쌀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 새터말우물(우물)

새터말의 공동우물로 국도변 새태말 가운데 있던 우물이다.

■ 구장터(장터)

오산의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궐동의 새로 생긴 장터(새장터)에 비교하여 붙여진 이름이나 최근에는 시장의 형성으로 거의 소멸되고 있었으나 2013년 8월부터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8년 오매장터로 다시 부활하는 곳으로 본래 옛 오산장이다.

■ 붓포랑(川)

현재 성호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흐르던 예전의 개천으로 지금은 복개되어 오산오색시장 중심 길로 변했다.

■ 소방우물(우물)

국도변에 있던 우물로 예전 읍사무소(현재 금성아파트)에서 오산역쪽 200m위치에 있었으며, 주로 방화수로 쓰였고 평소에는 주변 아낙네들의 빨래터로 이용되었다.

■ 진전골목(장터)

주로 기름집과 생선전이 섰던 장터 이름으로 현 오매장터 내에 있던 골목.

■ 고술막거리(장터)

고수막 거리라고도 하였으며, 장터가 좁은 골목에 있었으며 주로 술을 파는 주점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골목 주막 또는 주점이 있는 좁은 골목 장터란 뜻이다. 현 오매장터 내에 있던 골목.

■ 가마니전(장터)

구장터 안에 있던 장터로 주로 가마니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 오산비행장(Osan Air Base 첫 위치)

현 오산시민회관과 오산종합공설운동장 자리로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군의 경비행장으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후 6·25가 발발하고 미군이 물자 수송을 위해 임시 비행장으로 사용한 곳이다. 이때 붙여진 명칭이 지금 평택시 송탄으로 1952년 이전한 오산비행장(K-55)의 명칭이 되었다. 1960년대 오산공설운동장은 토끼풀이 가득한 단단히 다져진 평평한 초지였다. 염소와 소가 방목되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 은계대교(다리)

1982년에 설치된 다리로 은계동에서 오산시민회관과 오산종합공설운동장 사이의 국도 1호

선 다리로 길이 150.6m이다.

■ 오산대교(다리)

궐동에서 오산동을 이어주는 다리로 길이 136m이며, 1996년에 재가설되었다.

■ 성호지하차도(차도)

중원 사거리에서 경부선 철도를 통과하여 남촌동 성산초등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로 연장 216m, 폭 25m로 다리로 1978년에 준공되었다.

■ 운동장 사거리(거리)

시민회관과 공설운동장 사이의 네거리로 동쪽은 동탄면으로, 서쪽은 오산천을 따라 발안으로 남쪽은 중앙동주민자치센터와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로, 북쪽은 수원으로 가는 네거리이다.

■ 군청사거리(거리)

현재는 롯데마트 사거리로 불린다. 롯데마트 자리는 2000년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하여 남양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화성군청이 있던 곳이다. 1970년에 화성군 청사가 수원에서 옮겨 오면서부터 발달한 사거리로 북으로는 수원시, 서쪽으로는 발안, 남쪽으로는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의 변화가이다.

■ 중원사거리(거리)

롯데마트(구 화성군청)에서 서쪽으로 300m의 거리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수원시, 남쪽으로는 평택시, 서쪽으로는 발안으로 연결되는 사거리로 근처에 예전 중원백화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오산동 지하보도(보도)

경부선 철도에 있는 지하보도로 오산동과 남촌동을 이어주는 지하보도이다. 길이가 37m, 폭은 4m이며 1994년에 준공되었다.

(2) 부산동(釜山洞)

부산동은 오산시의 가장 동쪽마을로 기록상으로 오산시의 마을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권 제24 백제본기 제2 고이왕 5년(238) 2월조에 의하면, “왕은 부산에서 사냥을 하고 50일 만에 서울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나온다. 특히 이런 기록을 근대 역사학자들은 모두 진위를 부산으로 해석하고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현재의 평택시는 예전에 평택부였고, 그 전에는 진위현이었으며, 진위현 전에는 부산현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문헌으로 보아 부산동의 역사는 1700년 이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자로 부산동은 가마(釜)와 뫼(山)로 마을의 모양이 가마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풀어볼 수 있으나, 까마귀가 많아 붙여진 지명이라고도 한다. 부산동은 현재에도 주로 논농사를 짓고 있으며,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도시화로 인해 개발은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부산동은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 가마뫼(마을)

가마뫼 또는 가마미라고 부르며 마을의 지형이 가마솥처럼 생겼다하여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부(釜)’자를 썼다고 한다. 혹 가마는 까마귀의 까막으로도 인식하기도 한다.

■ 부산(산)

부산동 동쪽의 산으로 해발 129m의 야산으로 마을에서는 보통 마을의 앞에 있는 산이라 앞산이라 부른다.

■ 말등산(산)

부산동 앞쪽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부르는 지명으로 산의 능선이 말의 잔등과 같이 생겼다하여 말등산, 혹은 말동산이라 불렀다. 현재는 마등산으로 변경됐다. 해발 145m.

■ 매미산(산)

맴산이라 부르며 부산동 우측(북동쪽) 산으로 예전에는 매가 많아 매사냥을 하던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진다.

■ 불탄디(산)

부산동의 동쪽 끝의 산으로 오산시와 용인시의 경계에 있으며, 예전에 산불이 났던 곳이라 불리는 이름이라고 전한다.

■ 봉바위(바위)

부산동 앞산의 정상에 있는 바위로 생김새가 봉황처럼 생긴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농바위(바위)

불당굴 위에 있는 바위로 생김새가 농(籠)처럼 생긴데서 불리는 이름이라고 전한다.

■ 사근적골(골짜기)

부산동에서 용인군 남사면 사후동으로 넘어가는 골짜기로 절 뒤에 있는 골짜기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당집(집)

부산동 마을 안에 있으며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매년 음력 7월 초하루와 9월 초하루에 마을 주민이 모여 마을제를 지내던 곳이다.

■ 새말(마을)

부산동의 원래 마을로 큰말이라고도 불리며 원래는 현재의 마을 앞쪽 산(마등산) 밑에 있었으나, 점차 현재의 마을로 옮겨져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개량굴(마을)

부산동의 북쪽 마을로 현재 롯데연수원이 있는 일대의 마을로 새말에 비해 잘 고쳐졌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새말고개(고개)

개량굴에서 새말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 두께우물(우물)

부산동 원래 마을 가운데 있던 우물로 마을 전체의 식수로 쓰던 샘물로서 샘물 위에 큰돌이 덮여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순우물(우물)

개량굴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던 우물로 물이 순하고 맛이 좋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 움굴(골짜기)

움굴이라고도 하였으며, 부산동 앞쪽 산의 골짜기로 움푹 들어간 골짜기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박적골(골짜기)

부산동에서 현재 경부고속도로 정류장이 있는 곳의 이름으로 땅이 박하고 메말라 붙여진 이름이다.

■ 불당굴(골짜기)

부산동의 북동쪽 골짜기로 예전에 불당(사찰)이 있었다고 전하며 지금도 기와가 나오고 있으며, 예전에는 이 근처에 많은 무당들이 모여 치성을 드렸다고도 전한다.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지리지』에 의하면 이곳에 절(사찰 이름 불명 -성호면 원리)이 있었음은 확실하다고 본다.

■ 나부재(고개)

개량굴에서 새말로 넘어가는 고개로 근처에 나비혈(穴)형의 묘 터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 장기혈(터)

부산동 새말 앞쪽(동쪽)의 산으로 묘 터가 평의 장기혈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풍덕군수를 지낸 분의 묘가 있다.

■ 섭들(들)

부산동에서 현재의 운암들 남쪽의 들판을 부르던 이름이며, 연유는 모른다고 하나 논농사를 짓는 들이란 뜻이라고 할 수 있다.

■ 방죽들(들)

운암들의 북쪽 용인시 송전으로 가는 쪽의 들판 이름으로 방죽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꽤갓(들)

꽤갓이라고도 하며, 부산동에서 운암들의 동쪽 입구를 부르던 이름으로 연유는 모른다고 한다.

■ 나부(들)

부산동에서 나부재 너머 운암들을 부르던 이름이라 한다.

■ 옥곡불(들)

부산동에서 운암들의 가장 남쪽 별판을 부르던 이름으로 연유는 모른다고 한다.

■ 문앞들(들)

부산동 큰말의 앞쪽(동쪽)의 들판으로 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달맞이고개(고개)

부산동 큰말에서 개량굴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는 정월대보름이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달맞이놀이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호랭이굴(골짜기)

부산동 양어장(저수지) 위의 골짜기로 예전에는 호랑이가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부산동저수지

부산동 동쪽 골짜기의 저수지로 양어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가 현재는 물 공급용도로만 사용한다. 물리 면적이 12ha이고 만수 면적은 0.8ha이다.

■ 경기재인청

부산동은 조선 후기 ‘경기재인청’이 있던 곳으로, 예전에는 소리꾼을 길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며, 유명한 단골무당이 3명 있었다고 한다. 당시 단골무당은 지삼룡, 이용우(원래 이름은 이남복), 신경식이였다. 지삼룡은 자전거를 뒤로 타고 다닐 정도로 서커스를 잘했으며, 이용우는 피리불고 소리를 잘했다고 한다. 그리고 신경식은 상쇠잡이로 유명했다.

—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하)』, 오산시, 1998

—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제1권)』, 오산시, 2008

— 남경식, 『오산역사문화 e-book』개정판, 우리동네사람들, 2016

Ⅲ. 중앙동의 마을신앙과 민속

(1)부산동의 산신제

부산동의 산신제에 대하여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행한 『한국의 마을제당』 제 1권 서울. 경기도편에서 소개된 바 있다. 부산동의 마을 신앙에 대한 첫 번째의 조사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당시에 조사된 바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부산리 웃말마을

조사기록책임자 성명 손종채(孫宗彩) 성호학교 근무 남 43세

- 당이름 : 매암산신당(梅岩山神堂)
- 당위치 : 부락 앞산에 있고 동좌서향으로 부락에서 500m 전방에 있다.
- 당의 형태 : 목조 초가집으로 4평, 당집 내 신목주(神木柱) 1개가 있으며, 신주를 안치하였고 제상과 제기가 있다. 신목은 괴목으로 높이가 일척(一尺) 삼촌(三寸)이고 둘레는 3m에 달한다. 매암산 신령을 잘 모셔야 동네가 무사하다고 믿고 있다.
- 제관 : 제관, 축관, 화장, 당주 각 1명을 선출하며 제축일진에 연령으로 보아 생기복덕일이 된다. 이들 외에는 제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의절차 : 제의 3일전부터 목욕하고 근신한다. 제의날 밤에 불을 켜둔다. 다음날(翌日) 동민전원이 모여 회의록을 읽는다.
- 제일일시 : 음력 9월 말일 오후 12시
- 제수 상차림 : 술, 흰떡, 백반, 소머리, 과실(果實)
- 제비 : 각 호당 100원 정도 약 10,000원을 전액 제의 비용으로 충당한다.
- 제의 명칭 : 산신제

※ 『한국의 마을제당』은 1995년에 발행되었으나 수록된 자료는 1967년에 조사된 것이다.

■ 당의 형태

검은색 슬레이트 지붕으로 외관상 기와처럼 보인다. 외부는 빨간 벽돌로 쌓았다. 당의 바깥쪽 오른쪽에는 아궁이가 있으며, 제의에 필요한 음식을 장만할 때에 사용한다. 당 내부는 약 4평 가량 되고, 마당까지 합치면 약 80~90평 정도가 된다. 당은 2000년에 새롭게 지었으며 전에는 초가지붕이었다. 슬레이트 지붕에 빨간 벽돌로 외부를 지었다.

■ 제의 시기

산신제는 매년 음력 10월 1일에 지낸다.(음력 9월 30일 밤 12시 이후) 산신제를 지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분 정도이다.

■ 제관의 선출

제관은 1년마다 한 번씩 선출한다.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제관 외에도 축관, 화장, 당주를 선출한다. 이들은 모두 그 해의 생기복덕을 보아 부정이 없는 사람이 선출의 기준이 된다. 제관은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물론 민물고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단, 소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들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되며, 초상집에 문상을 하는 것도 금지되며, 임산부 등을 만나는 것도, 장에 가는 것조차 금지된다.

■ 제의 비용

산신제를 올리기 위해 드는 비용은 마을의 각 집마다 세대별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걷어서 사용한다. 만일 한 집이 두 세대로 구성되었다면 두 세대의 몫을 걷는다고 한다. 비용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80만 원 정도가 쓰인다고 한다. 세대별로 걷는다고 하여도 경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부족한 경비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경비를 사용하고 있다.

■ 제의 순서

제의 순서는 일반 제사의 순서와 같다. 잔을 올려 신을 청하고, 축문을 읽고, 마을의 대동소지를 올린 뒤에 마을주민들의 소지를 올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어느 마을의 제의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 제수용품

산신제에 사용되는 음식은 다음과 같다. 소머리, 닭은 한 마리를 삶아서 쓴다. 대구포와 과일, 사과와 배를 각각 7개씩 올린다. 사탕 종류는 일체 올리지 않으며, 향도 피우지 않는다. 제에 사용하는 떡은 흰색의 가래떡과 검은색의 시루떡을 사용한다. 특이한 점은 가래떡을 용떡이라고 한다는 점이다. 용떡을 올리는 지역은 흔히 바닷가 마을의 제사에 쓰이는 것인데 부산동의 산신제에서 용떡을 사용한다는 점은 그 사실만으로도 의의가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술은 마을에서 직접 빚은 것을 사용한다. 산신제를 지내기 3일전에 조라술을 담그어 사용한다. 조라에는 누룩을 사용한다. 옛날에는 떡을 마을에서 직접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방앗간에서 만들어진 떡을 사용한다고 한다.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하는데, 집안에 초상이 난 사람이거나, 아이를 낳았거나, 본인만이 아니라 집안에

임산부가 있는 집안의 여자도 음식을 장만할 수는 없다. 제를 끝내고 난 음식은 의식이 끝난 후 당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제를 올리고 나서 남은 음식은 집안에서 기르는 개는 물론 다른 가축에게도 주지 않으며, 음식이 남는다고 버려서도 절대 안 되며, 제사에 사용된 음식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누어 먹는다.

■ 기타

부산동의 매암산 산신제에는 호랑이 신을 모신다고 한다. 그러나 당 안에 호랑이나 산신의 그림(화분) 등을 모시지는 않는다. 부산동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것은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매암산의 산신제는 1995년을 전후하여 중단되었었다. 약 6~7년 가량 중단되었던 산신제를 다시 지내게 된 것은 마을의 번고가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마을의 젊은이들이 병들고 죽어갔다. 이에 마을에서는 그 원인을 산신제를 지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2000년에 다시 당집을 짓고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집은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경비를 추렴하고 공사도 함께 했다. 산신제를 다시 지내면서 마을에 특별히 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매암산 산신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집의 신령함에 대하여 전하는 이야기도 있다. 과장된 감은 있지만 마을의 어른들께서는 한국전쟁 때 총을 쏘도 총알이 박히지 않았다고 한다. 안 들어갔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당은 신성한 곳이고 또 마을의 안전을 지켜주는 곳이기도 했다는 의미라고 본다.

현재 이 마을에 산신을 믿는 정도는 확실히 파악할 수 없다. 대체로 불교를 믿고 있으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종교와는 무관하게 마을의 토박이들은 산신을 믿는 사람도 꽤 있다. 산신을 믿음으로써 부락에는 나쁜 일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집의 내부에는 제의에 사용되는 그릇들이 보관되어 있다. 당에 두지 않고 그것이 마을로 오게 되면, 가령, 임산부가 쓸 수도 있고, 상갓집에서 쓸 수도 있으므로 온갖 부정이 들 수 있기에 함부로 당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한 켠 가득히 제에 쓰이는 음식을 올리는 나무 단상이 두 개 있다. 뒤쪽 벽에 붙어있는 가는 나무는 가운데 축문을 놓고 양 옆으로 촛대를 올리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그 앞으로 붙여져 있는 넓은 제상은 음식을 올려놓는 것이다. 제사를 올릴 때에는 음식을 놓는 제상의 위, 4개의 다리가 보이는 앞, 양 옆을 모두 창호지로 가린다. 제기는 놋그릇을 사용했었지만, 다시 제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은 플라스틱 그릇과 양은그릇들을 사용한다. 특이한 점은 다른 사람은 신을 수 없고 오직 제관만이 신는다는 신발이 한 켤레 있다. 또한 예전에는 성황도 있었다. 옛날 땅 주인은 조동순씨로 현재

대성빌라가 있는 곳에 성황이 있었다. 당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난 뒤에 성황에서 시루떡을 해 놓고 마을 사람들이 잘되기를 빌었다.

당집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조그만 우물이 있다. 이곳이 바로 당우물로 제관이 목욕재계를 하는 곳이다. 당우물은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며 한 겨울에도 그다지 차갑지 않아, 그 물로 목욕을 할 정도라고 한다. 지금은 함부로 당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웠다. 현재 당우물은 제사를 지낼 때 제관이 목욕을 하거나 산제사날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하고 있다. 우물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마을의 공동우물의 물이 부족하여 예전에는 간혹 이 물을 길어다가 먹기도 하였는데 물을 먹은 사람에게 반드시 해가 갔다고 한다. 당의 왼쪽으로는 엄나무가 있다. 수령이 약 200년가량 되었다고 하며 이 나무에도 재를 올린다. 이른바 신목(神木)인 셈이다. 우물 옆 엄나무에는 오색의 천이 묶여져있는데 이는 마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무속인들 기도를 하고 묶어 놓고 간 것이다. 매암산에 오래된 나무를 벗겨 놓았다는데 어느 동네분이 그 나무를 가져간 후에 바로 그 분의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듯 이 마을의 당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마을의 역사는 앞서도 언급하였던 1700년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 집터를 마련할 제일 양지바르고 터가 좋다고 하는 곳에서는 향아리 같은 생활용기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고 한다. 현재 부산동은 집성촌은 아니다. 옛날에는 흥가와 임가가 많이 살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성씨들이 살고 있으며 지금은 주로 노인 분들이 남아 있으며 이분들이 산신제를 주관하고 있다.

- 김용국 『오산의 마을신앙』 오산문화원, 2006

(2) 부산동의 민간신앙

■ 단골

부산동 김지영어른께 이 마을의 단골들과 가계세습 무속인 집단에 대하여 소상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용우 선생의 본명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다.

예전에 이 마을에는 두레패를 가르치던 신경식이라는 분이 사셨는데 부인은 무당이였다. 마을의 상쇠이기도 했으며 호적도 잘 붙어 방송국에서도 찾을 정도로 기량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지삼용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자전거를 뒤로도 잘 탔을 만큼 재주가 있었다. 그리고 이용우 선생은 소리를 잘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세 사람이 이 마을의 재주꾼들이었다. 신경식, 지삼용, 이용우 선생이 마을의 두레패들에게 상모돌리기를 비롯한 재주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북이며 장구며 팽과리 등의 연주도 가르쳤다고 한다. 지삼용 선생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용우, 신경식의 집안은 화랭이 집단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용우 선생의 경우 본명이 이남북이었으며 동생이 이서북이었다고 한다. 이용우 선생의 아버님은 부산동 교회 옆에 사셨고, 그러다가 이용우씨는 절골에 접한 부산동에 살았다. 그러다가 이용우 선생은 수원에 사는 부인에게로 가서 사셨다고 한다.

한편 이 마을에는 외모가 빼어나고 노래를 잘 하는 홍도라는 분이 계셨다고 이 마을에서 노래를 배웠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들로 보아 부산동에는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여럿 살았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재능의 근간에 가계세습무 집단이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 가정신앙

마을에 우물은 있었으나 마을단위의 우물 제사를 따로 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지영 어른 댁에서는 가을 고사를 지내면 고사떡을 한쪽 갖다가 우물 앞에 놓고 비손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먼저 대청에 시루를 올린다. 이는 성주신에게 먼저 떡을 올리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터주, 엽, 대감, 조왕의 순으로 떡을 올린다. 또한 광을 비롯하여 집안의 구석구석 떡을 올렸다. 터주는 터주항아리를 두고 벼를 담아두었고, 대감항아리에는 쌀을 부었다.

■ 출산

아이를 낳으면 금줄을 대문에 걸었는데 숯과 솔가지는 공통이었으며 아들의 경우에는 고추를 더 걸었다.

그리고 문간에는 정안수를 떠 놓는데 이는 상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의미였다. 물을 떠 놓는 것은 비단 아이의 출산만이 아니었다. 송아지를 낳아도 물을 떠 놓았다. 이도 역시 부정을 물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특히 소는 조상이라고 하여 위하였다고 한다.

■ 민간요법

부산동에서는 이철배어른께 ‘삼’, ‘목살’, ‘두드리기’ 잡는 민간요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절골에 붙은 마을에서는 김지영어른께 ‘삼’, ‘두드리기’, ‘홍역’, ‘하루거리’ 등을 잡는 민간요법이 조사되었다.

먼저 ‘삼’은 해 뜰 적에 오늘날과 같은 벽이 아니고 흙벽에다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찍어서 잡아낸다. 또 삼을 잡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잡았다. ‘목살’은 씨레를 갖다 놓고 복숭아 가지로 때리면서 경을 읽어 잡는다. ‘두드리기’는 화장실 지붕에서 짚을 뽑아 불을 붙여서 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김지영어른께서는 ‘삼’은 삼 눈 고치는 노인네가 있었다고 하셨다. 그 분은 숯돌물을 받아서 햇빛에 말리고 그 가루를 눈에 넣어 주었다. 그렇게 하여 고쳤으며 인근에서 그 노인의 이름이 나 근동에서는 다 그 분이 고쳤다고 한다.

‘두드리기’는 화장실 지붕의 짚을 한 움큼 빼다가 불을 태운다. 그걸 갖고 두드리기 난데를 쓸면서 ‘중도 고기 먹느냐. 중도 고기 먹느냐’한다. 그러면 바로 없어졌다.

‘홍역’은 특별한 처방이 없다고 하셨다. 그렇기에 ‘홍역’, ‘마마’가 걸리면 출생신고를 늦게 하었다고 한다. 어른께서도 호적 나이가 두 살이 줄었다 하신다.

‘하루거리’는 고총(古冢)에 가서 재주를 세 번 넘는다. 그렇게 하여 하루거리를 잡았다.

- 김용국 『오산의 민속 2』 오산문화원 2008

(3) 부산동에 전하는 옛 놀이

현재 부산동은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LG물류창고에서 달맞이고개까지를 하나의 마을(개량굴)로 볼 수 있고, 하나는 부산동 마을 버스정류장이 있는 노인정 주변을 하나의 마을(가마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마을이 부산동의 중심마을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을은 원동의 절골에 접하여 있는 마을이다. 각각의 마을에서 정월대보름에 <달맞이>를 하는 장소가 달랐으며 그 놀이 방식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량굴의 경우 정월에 우물 청소하면서 두레놀이를 하였으며, <달맞이>는 된봉에 올라가서 하였다. 쥐불놀이도 하고 망우리도 만들어서 돌렸다. 가마뽀의 경우 매미산(당집이 있는 매암산의 다른 이름이다) 꼭대기로 가서 하였다. 짚방망이를 만들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쥐불놀이

도 하였다. 그리고 절골과 접한 마을에서는 약수터가 있는 말등산으로 올라가서 하였다. 불 놓고 길다란 짚에다가 달보고 절을 하였다. 나이수대로 망우리를 엮어서 인사하고 절하면서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거북놀이〉는 8월 추석에 수수대 앞으로 거북을 만들어 집집마다 돌면서 술과 떡을 얻어먹었다. 거북이 속에는 사람이 돌리고 셋이고 거기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는 거북이의 크기가 그 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어미거북과 새끼거북을 만들어 놀기도 한다. 그렇게 본다면 부산동의 거북이는 큰 놈으로 하나를 만들어 다녔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편 〈두레놀이〉의 경우, ‘이쪽 농군하고 저쪽 농군하고 기(旗)싸움을 했다’고 하며, 깃대 맨 꼭대기의 꿩의 털이 땅에 닿는 편이 졌다고 하는데 이는 가마뱀과 개량굴의 기싸움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두레놀이〉는 칠월 백중에도 행하여졌다고 한다.

칠석에는 집집마다 밀떡을 부쳐 먹었다고 하며 단오에는 특별한 놀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김용국·이도남 『오산의 구비전승 1』 오산문화원 2008

IV. 중앙동의 전설

(1) 운암들 전설

아주 오랜 옛날에는 오산천에 제방이 없어 장마만 지면 물이 범람하여 농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제방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고민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던 과객이 금암리 어느 진사의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과객은 구척장신에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과객이 며칠 동안을 무위도식하며 지내다 하루는 진사에게 신세를 많이 졌으니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물어, 진사가 오산천 범람에 대해 말하니 과객은 딱한 사정을 듣고는 내가 제방을 쌓아줄 테니 몇 월 며칠 보름날까지 큰 가래를 하나 준비하고, 통돼지 일곱 마리와 술 일곱 동이를 준비해 달라고 하더라. 진사는 어이가 없었으나 과객의 인물됨이 보통 이상이라 사람을 시켜 수원 광고산에서 큰 물푸레나무를 하나 베고, 수원의 대장간에서 큰 가래 삽을 만들어 소로 끌고 오산으로 왔다. 드디어 약속한 날짜에 과객이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는 저녁에 일어나 진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니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아무도 밖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이른다. 진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하였으나 너무 궁금하여 마을 주민들과 몰래 숨어서 과객의 하는 짓을 보니 과객은 그 큰 가래를 한 손으로 들고는 오산천에서 일을 하는데 개천 바닥의 흙과 모래를 떠서는 왼쪽에 쌓고, 또 떠서는 오른쪽에 쌓으니 순식간에 제방이 되더라. 한참을 그렇게 일을 하더니 통돼지 한 마리를 먹고는 술 한 동이를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제방을 쌓는데 새벽이 되어 동이 틀 무렵에는 오산천의 제방이 다 쌓여졌다고 한다. 밤새 숨어서 구경을 하던 진사와 마을 사람들은 피곤하여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일어나니 오산천의 제방은 완성되어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더라. 한편, 과객은 밤새도록 오산천의 제방을 쌓는 일을 마치니 동녘에 붉은 해가 떠올라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진사에게 떠나겠노라 인사를 드리니 진사를 비롯한 주민들이 사례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절하고 유유히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고 한다. 그 때까지 그 과객의 이름을 모르던 주민들은 과객에게 이름을 물었으나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과객이 오산을 떠나 한양을 향해 화성시 동탄면 미륵덩이를 지나 영천리로 가다가 길 가운데 나무 두 그루가 있어 체격이 크고 몸집이 좋은 과객을 가로막자 돌아가지 않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놓고는 그 나무에 ‘운암발목(雲岩拔木)’이라 써놓아 주민들이 그때서야 그 과객의 이름이 운암(雲岩)인 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그때부터 오산천변의 들을 운암들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오산의 운암들은 오산동과 부산동 사이의 넓은 들판으로 이곳은 오산의 쌀 생산지 중의 넓은 곳 중의 하나였다. 현재는 운암들의 약 반 정도가 택지로 개발, 운암택지지구가 되어 오산의 중심 주거지로 변한 곳이다. 이곳에 오산시청, 경찰서, 도서관, 문예회관, 스포츠센터, 오산공설운동장, 전화국, 대단위 아파트, 상가, 고속도로 나들목이 들어서 있다. 어찌 보면 건조한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한 때는 오산을 대표하는 쌀 생산지였다. 이곳에 전해지는 운암들의 전설을 이야기하고 기록하려는 것은 도시화 속에 잊혀져가는 추억을 현대에 접목, 그 옛날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해야했던 어려웠던 우리의 옛일을 반추하려고 함에 있다고 하겠다. 지금의 이 풍요는 더 많은 쌀 생산을 염원했던 전설 속 우리 선대들의 마음이 녹아 있어서였을 것이다. 현재 운암들은 글자 그대로 아파트가 구름처럼 솟아올라 구름바위(雲岩)가 되어 있다.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의 오산천이 옛날에는 운암들을 가로질러 하류에서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독이 지금처럼 높고 튼튼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물길에 지금처럼 일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2) 꽃가마 전설

오랜 옛날 가마뽕(현 부산동) 마을에 지체 높은 대갓집이 있었는데 주인의 인심이 후덕해서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 대갓집에는 마음씨가 착하고 얼굴이 아름다운 미모의 무남독녀 외동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고 여러 가지 약을 썼으나 백약이 무효하여 대갓집 내외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할 수 없어 대갓집 마님이 무봉산 만의사에 찾아가 백일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마님이 백일기도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날 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현몽하기를 “네 정성이 가룩하여 이르노니 산 너머 마을 뒷산 중턱에 신비한 샘이 있으니 그 곳을 찾아가 샘을 마시고 샘물로 몸을 정갈하게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다음날 꽃가마에 외동딸을 태우고 몸종을 시켜 함께 산을 넘어 웅달샘을 찾아갔다. 그리고 샘물을 마시고 그 물로 몸을 씻으니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던 아가씨가 원기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후 아가씨는 몇 번 더 웅달샘을 찾아 마시고 씻으니 몸이 깨끗이 완쾌되었고 그 후로는 인동에서 그 웅달샘이 효험이 있는 약수로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고 전한다.

대갓집 아가씨가 꽃가마를 타고 그 샘터를 찾았다고 해서 지금도 그 샘터를 ‘꽃가마 약수터’라고 부르며 오산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약수터에 붙을 법한 전설이다. 그만큼 물맛과 질이 좋았으리라. 등산로가 잘 개발되어 있는 곳이니, 운동하고 좋은 약수도 마시면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3) 선바위 전설

노적봉이라고 하며, 노적산 정상 근처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아름답게 생겼고, 모양이 세운 것 같아 붙여진 이름이며, 현재는 마등산으로 통일되어 있다. (마등산 : 2004년 9월에 오산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성한 지명위원회에서 말등산, 노적산, 학교산, 배꼽산, 달맞이산, 선바위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산을 ‘마등산’이라는 하나의 산 이름으로 통일 결정함)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 이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았는데 지금의 원 2동인 밀머리에서 배가 들어왔다고 한다. 소금장수는 인천에서 소금을 사서 배로 밀머리까지 싣고 와서 팔았다고 한다. 당시에 마땅한 이름이 없던 소금장수는 오산의 선바위라고 자신을 말하곤 했다. 그런데 인천의 구두쇠 상인이 어찌나 짜게 구는지 한번 혼을 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소금 세 배를 싣고 오면서 대금은 다음에 주기로 약속하고는 오산으로 와서 소금 대금을 보내지 않았다.

인천의 구두쇠 상인은 외상값을 가져올 것을 기다리다가 지쳐 화가 나서 오산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길을 물어 오산까지 찾아온 인천의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산의 선바위를 물으니 마을 사람들은 어째서 찾느냐고 되물으니, 인천 상인이 소금 세 배 값을 받으려 왔다는 말에 웃음을 참지 못하며 저 산의 정상에 있는 바위가 선바위라고 하였다. 인천의 구두쇠 상인은 어처구니가 없어 멍하니 선바위만 쳐다보다가 돌아갔다고 한다. 이때부터 근동에서 이곳 선바위는 소금 세 배를 삼킨 바위로 이름이 났다고 전한다.



마등산 자락에 있는 선바위. 이곳은 마등산 등산로가 잘 개발되어 있어 등산하기 좋다.

마등산은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산으로 해발 145m로 오산시의 오산시 도보여행코스의 남부(마등산)코스에 해당한다. 부산동은 오산에서 기록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다. 17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전설 속의 바위는 부산동에, 내용상의 밀머리와 선바위라는 사람은 현재의 행정 구역상 원동에 있다. 마등산에는 이 선바위 전설 말고도 꽃가마 전설도 가지고 있는 산이다. 전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산이 사람들의 발길이 많고 사람들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선바위 전설이 생겨난 것의 의미는 각박하지 않는 삶을 희구하던 이곳 주민들의 정서를 나타낸다고 본다. 마등산을 등반하면서 이 선바위 전설도 생각하며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즐거운 등반이 되었으면 한다.

- 오산시사편찬위원회,『오산시사(하)』, 오산시, 1998.
- 오산시사편찬위원회,『오산시사(제1권)』, 오산시, 2008.
- 남경식,『오산역사문화 e-book』개정판, 우리동네사람들, 2016.

V. 부산동에서 채록된 옛이야기

(1) 과거도 치르지 않고 암행어사가 된 사람

경상도에 딸만 셋을 낳은 생원이 있었다. 워낙 낮은 벼슬이라 사위를 얻어서 큰 벼슬을 시키고 싶었다. 그래 큰사위를 얻었는데 매번 과거시험을 보면 낙방만 하였다. 둘째사위를 얻어서 또 과거 준비를 시켰다. 그런데 사위 둘 다 과거시험을 보면 또 떨어지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어디 가서 점을 쳐보았다. 그 점괘에서 말하기를 “강원도 대관령에 가면 키가 부쩍 큰 장승같은 떠꺼머리총각이 이리로 넘어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총각을 사위로 맞아 과거시험을 보게 한다면 과거에 합격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생원은 강원도 대관령을 며칠을 걸어서 도착하였다. 산마루터기에 올라가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점쟁이의 말과 같이 튼튼하고 건장한 총각이 넘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 어디 가느냐?”고 물어 보니까 “돈 벌러 간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른 데 돈 벌러 갈 것 없이 우리 집에 가자. 가서 일만 잘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하고 데리고 왔다. 신체도 좋고 하여 글을 가르쳤다. 셋째 사위가 글을 3~4년 배운 사람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두 사위와 함께 셋을 다 과거시험을 보라고 보냈다. 셋이 보따리를 매고 가는데 먼저 동서 둘이 “저게 무슨 과거를 볼까?”하면서 막내 동서 흉을 보았다.

가다가 보니까 큰 대갯집인데 그 집에 무슨 큰일이 있는 것 같았다. 동서들이 “너, 기운도 장사고 하니 이 담을 뛰어 넘어 갈 수 있느냐?”하였다. 그러니까 막내 동서가 “그까지 것 못 뛰어 넘겠느냐”고 하면서 훌쩍 뛰어 넘어 갔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니 높이가 담장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니 들어가기는 했는데 나오지는 못하고, 사람들은 막 지나다니며 보는데 큰일이었다.

과거시험 보러 가는 길인데 도둑으로 몰리면 큰일이지 않는가? 과거도 못 보고... 그래서 막

내사위는 후원 으스스한 데로 숨었다. 어두울 때를 기다리며, 어두우면 대문을 찾아 나가리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동서들은 막내동서를 뺑개치고 그냥 과거를 보러 갔다.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막내사위가 나올 구멍을 찾으려 살살 나오는데 어디서 ‘뽕’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쪽을 훑 보니까 중이 하나 그 집으로 담을 넘어 들어오더라. 틀림없이 ‘초달(楚撻 : 닭달하거나 문초함)이 있을 거다’, ‘아니 무슨 방법이 있을 거다’ 하면서 중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보았다. 가만히 집안의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그 이튿날이 이집 잔치 날인 것이다. 그 집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사람이 많이 와서 시끄러운데 한 밤 12시가 넘은 것 같았다. 후원을 보니까 중이 그 시집갈 처녀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막내사위가 가만히 가서 엿들어 보았다.

“내일 신랑이 올 거다. 장가들고 갈 텐데 이 반닫이에 내가 들어가서 있을 테니 너는 신랑 집에 가서 첫날밤에 너는 윗목에 드러눕고 나는 아랫목에 드러눕자”고 약속을 하는 것이었다. 막내사위는 그 밤에 시집갈 준비를 하느라 왁자지껄한 틈을 타서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장가들 예정인 신랑의 집으로 가서 그 집 동태를 살피보았다. 그런데 신랑 집에서도 역시 점을 보았던 것이다. 신랑집에서 점을 보니까 그 점괘가 그렇게 나왔다. “이러저러한 일이 있으니 이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은 믿지를 마라” 장가드는 집에서도 시끄럽게 잔치준비를 하느라고 야단이었다. 막내사위가 집안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니까, 이상한 사람이 왔다가 갔다 하니까 그 집에서 막내사위를 불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고할 얘기가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보니까 그 집이 과거시험관의 집이었다. 그 시험관의 아들을 장가들이는 거였다. 그래서 신부집에 넘어 들어온 사람(중) 얘기를 다 했어.

“틀림없이 중이 아랫목에서 잘 거다. 당신 며느리는 윗목에서 자고, 그러니까 반닫이를 조치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고맙다고 해서 막내 사위에게 “당신은 여기 어디서 기다리라”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첫날밤 막내사위가 일러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레 아랫목에 드러누운 놈을 잡아서 반닫이 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반닫이를 강물에다 띄웠다. 그러니 시험관의 집에서는 이 막내사위가 자기 아들 살린 은인이었다. 일을 처리하고 나자 시험관이 물었다. “어디서 어디로 뭐 하러 가는 길이야?”고 물으니까. “예, 저는 이만저만해서 과거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험관이 그 사람을 과거도 안보고 암행어사 벼슬을 줬다.

그레 이제 막내사위는 암행어사가 되어서 집으로 내려가는데 마패는 깊숙이 숨기고, 또 그 집에서 정성스레 보자기에 음식을 싸서 주었다. 그러나 막내사위는 보자기를 다시 허름하게 다시 짚으로 싸서 집으로 갔다. 행색은 초라하지만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 돌아오니 기쁘고 반갑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두 동서들은 막내동서가 그 대갓집에 갇혀서 고생이나 하고 있

을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돌아온 것이 심통이 났다. 막내사위는 아내에게 “내가 환갑집에 들렀더니 먹을 게 많아서 싸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낱낱이 다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암행어사 마패를 보였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막내사위의 아내는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 했다. 그러자 장인 되는 이는 막내사위가 암행어사가 되어서 왔다는 말에 너무도 기뻐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사위를 골탕 먹인 두 사위에 대한 분이 크기만 하였다. 그래서 위에 두 사위는 몹쓸 놈들이라고 내쫓고 막내사위와 살았다고 한다. | 제보자: 김지영

(2) 신립장군의 지략

신립장군이 평택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집에서 하루저녁 자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은 형편이 어려워 밥도 제대로 못 해먹는 어려운 집이었다. 집주인은 자기 집의 형편이 어려워니 건너가면 큰 대갓집이 있으니 거기 가서 주무시라고 하였다.

그래서 신립장군은 그 대갓집을 찾아갔다. 대갓집엘 가서 집 주인에게 장기를 둘 줄 아느냐 물으니 조금 둔다고 했다. 그래 신립장군은 내기 장기를 두자고 말했다. 그렇게 하여 내기 장기를 두어 신립장군이 이기게 되었다.

신립장군은 다른 제물은 필요 없고 박을 심을 수 있게 토지를 좀 빌려 달라고 했다. 내기 장기에서 진 집주인은 신립장군에게 박을 심을 수 있는 토지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여 신립장군은 수천 평의 땅에 박을 심었고 수천 통의 박을 거두어들였다. 그리고는 바가지로 만 들고 검은 철을 하였다. 그런데 신립장군은 또 장정이 간신히 들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철모도 따로 수십 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해변에다 그 철모를 놓아두었다.

그 때가 바로 왜놈들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왜국(倭國)에서는 조선을 치기 전에 조선의 형편을 염탐할 군사들을 미리 보내었다. 그렇게 하여 조선에 당도한 왜군들이 평택 쪽의 해변을 통해 들어오는데 철모가 놓여있는 것이었다. 그래 한 번 철모를 들어보려고 하니 너무나 무거워서 온힘을 다 써야 간신히 들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다.

왜군이 생각하니 조선의 군사들은 얼마나 힘이 세기에 이렇게 무거운 철모를 쓸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보니 그러한 철모가 수천 개 해변에 놓여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왜군은 지레 겁을 먹고는 염탐할 엄두도 못 내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 제보자: 김지영

(3) 도깨비와 허깨비

제보자가 말하는 도깨비와 허깨비는 다음과 같이 구별되었다.

옛날 대원아파트 자리가 산이었을 때는 매일 도깨비들이 나와서 놀았다. 뭘 하고 노는지는 모르지만 저녁을 먹고 산자락을 보면 퍼런 불이 왔다 갔다 하고, 번쩍 번쩍 하고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이튿날 도깨비 놀던 자리를 보러 가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도깨비가 곧 차돌이었다는 말이다.

한편 허깨비란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달거리 때, 그 피가 빗자루, 특히 수수비에 묻으면 허깨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묻은 빗자루를 내다 버리는데 그 빗자루가 허깨비가 되어 특히나 술 취한 사람과 날 밤새 싸웠던 장소엘 가보면 빗자루가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여자들이 빗자루에 앉는 것을 금기로 한다. | 제보자: 김지영

(4) 능참봉을 하니 거동이 한 달에 스물아홉 번

이 말은 용·건릉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지역에 전하는 이야기이다.

옛날에 능참봉이라고 있어. ‘거동이 한 달에 스물아홉 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만 빼놓고(임금이) 날마다 온 거지.

이 말은 정조께서 그 만큼 아버지의 묘소를 자주 찾았다는 말이다. 실제로 한 달에 스물아홉 번을 다녀가셨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 능참봉이 얼마나 고되었겠는가? 그런 정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 속담은 ‘매우 신경이 쓰여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제보자: 김지영

- 김용국·이도남 『오산의 구비전승 1』 오산문화원, 2008

여 백

오산장(오산오색시장, 오매장터)의 역사성

— 오산장 거주 주민 인터뷰를 통한 기록을 중심으로 —

강 경 구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I. 머리말

II. 인터뷰 채록

1. 보건약방 김종연 사장(88세)
2. 오산식품 최병훈 사장(75세)
3. 할머니집 3대 송옥순 사장(87세)

III. 마무리하며

집필자
강 경 구

경기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 백

I. 머리말

오산5일장인 ‘오산시장’은 오산장, 짜전마당, 오산중앙전통시장, 오색시장, 오매장터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며 예나 지금이나 성시를 이루고 있다.

오산의 역사책인 『오산시사』에는 “1917년 당시 수원군에는 6개의 5일장이 개설되었는데, 수원 성내장이 가장 번성하였고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오산장도 화물유통이 왕성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 “당시 오산장의 거래상품의 수요지역은 수원군의 초평·청호·어탄·동북·문시·산성·정촌·이탄·고두 등이었고, 공급지역은 양지·죽전·이천·수원·안성군 보개면, 경북 용관·예천·비안·상주·함창·문경 등 지역이었다.” 또 “오산장의 출장상인은 평균 200명에 달했고, 출장구매자(出場購買者)는 평균 2천500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했다.

2015년 현재 오색시장은 영업점포수가 350개에 이르고 상인 700여 명, 종업원 300여 명, 노점 50여 명 등 1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시장 인근에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가 입점했음에도 연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오산시장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근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굳건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다만, 시장의 위치가 예전과 비교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1970년대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짜전마당’이나 ‘오매장터’로 불리던 곳이 시장의 중심지였고, 이후에는 현재의 오색시장으로 중심지가 바뀌었다.

‘오매장터’는 조선 후기 오산장이 처음 개설된 이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쳐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오산시장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1980대부터 시장상권이 오색시장 쪽으로 내려오면서 현재는 오산시에서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낙후지역으로 변모했다.

특이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기간까지 오매장터의 규모나 상권, 매출 등을 기록한 자료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오매장터에서 50여 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구술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유추해 보고자 했다.

인터뷰는 보건약방 김종연 사장(88세), 오산식품 최병훈 사장(75세), 할머니집 송옥순 사장(87세)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에 영업장소와 오산문화원에서 진행하였다.

대답은 필자 강경구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했으며, 남정식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상임위원이 자문하였고, 사진은 사진작가인 신명수 오산문화원 운영위원이 촬영했다.

Ⅱ. 인터뷰 채록

(본문의 답변은 인터뷰 당시 구어체를 그대로 옮겨 현장감을 살리려고 했다.)

1. 보건의약방 김종연 사장(88세)

김종연 사장은 1948년부터 오산에 정착했으며, 1956년에 오매장터에서 보건의약방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김종연 사장



인터뷰 채록, 필자와 김종연 사장

— 오산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 예전에 북한, 일정 말 때에는 많이 어렵고 그랬지. 사는 게 뭐 생필품도 하나도 없고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불행히도 선친이 너무 어렸을 때, 10살 정도에 세상을 떠나시고 애들은 많이 낳아서 5남매를 낳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30살에 혼자됐으니까 많이 어렵지 뭐. 그래서 옛날 학교도 없지 어디 있어요. 시골에 사니까 그래서 1, 2학년 다니다 말고 13살에 혼자 객지로 나왔어.

— 13살에 오산에 오신 거예요?

▲ 여기(오산)는 16살에 왔지. 처음 정착한 곳은 서울 중구에 예관동 병원에서 2~3년 근무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되었고. (오산에는)1948년도지 북한에서 같이 내려온 분이 여기 (오산)에 와서 병원을 했어요. 중앙의원이라고 거기서 같이 도왔지,

– 1948년도에 오산에 왔을 때 오산은 어땠어요?

▲그 당시 오산은 여기(도로) 양쪽으로 집이 몇 채 있었고 구시장 안에 있고 ‘할머니집’ 뒤로 해서 주택이 있었지, 중간 내려와서 바로 오산면사무소 앞에 내려와서부터 옆으로 도로 옆에 집이 몇 채 있었지, 그리고는 전부 논이야 논.

– 그 당시는 싸전시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싸전시장이었나요?

▲싸전시장은 이 안에 조그맣게 이 안에 (현재)중앙동 경로회관 공터 있는데 거기가 싸전시장이었어요.

(현재)중앙동 경로회관 자리가 싸전시장 중심지였지.

– 그게 몇 년도인가요? 1960년도인가요?

▲ 1960년, 1970년, 그런데 본래 재래시장이 거기 있었는데, 6.25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올라와서 오산시장 다리 건너 구곶동으로 옮겼어요. 왜 옮겼냐하면 하천보다 오산리 시내가 더 얕아서 여름에 홍수가 나면, 얼마나 물이 올라 오냐 하면 대홍수가 내 기억으로 3번 정도 대홍수를 겪었지. 저쪽 역전 있는 데로 100m 내려가면 오산읍사무소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물이 차 들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웠지요. 그래서 윤학영 면장이 있었는데 내삼미 윤씨네가 오산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예요. 학식도 그렇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롭고 그런데 제방을 높이거나 못하니까 저쪽 (현재)구곶동으로 장을 옮겼어요.

– 그게 6·25때인가요?

▲6.25나고 바로지.

– 6·25 당시 서울 수복한 다음 여기 있던 시장을 홍수 때문에 현재의 구곶동으로 옮겼다 이거지요.

▲그렇지. (현재)구곶동으로 옮겨가 지고 4~5년 정도 시장했었는데 시장이 역시나 먹고사는 이권관계가 개입되니까 구시장하고 신시장하고 서로 대립하여서 그때까지 서로 싸움을 해서.

- 다리 저쪽 분들하고 이쪽 원래 시장 분들하고요?

▲그렇지, 그래서 면사무소도 그리(구결동)로 이사 갔지, 내가 보건소도 다녔는데 보건소도 그쪽으로 거의 다 지었고 이쪽으로(옮겼지.)

- 면사무소도 여기 있던 것이 홍수가 났기 때문에 구결동으로 이사 갔고, 보건소도 여기 있던 게 이사 갔고요?

▲보건소는 처음 생겼고, 그런데, 1951년이예요.

- 면사무소를 옮긴 연도도 1951년인가요?

▲ 그렇지

- 그렇게 구결동으로 옮겼던 시장이 4~5년 만에 다시 싸전마당으로 왔다. 이거지요?

▲거의 4~5년 그쪽에 있었지요. 다시 이쪽으로 옮겼는데

- 그 당시는 오산천이 범람해서 홍수 난 게 아니라 저기 아래부터 물이 올라왔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 아래 황새포가 있는데, 가로포인가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되니까 물이 잘 빠져야 하니까 (물이)올라오고

- 그러면 우시장은 언제 생긴 건가요?

▲우시장도 거기 있다가 옮겼지요.

- 싸전마당에 있던 시장하고 우시장이 모두 다 현재의 구결동 옮겨 갔다는 것인가요?

▲원래 우시장이 어디 있었냐하면, 미시장 현 중앙동 경로회관 있던 쪽이 미시장인데 컸지요. (당시에)이쪽 오산면 시장이 (오산면 주위)10개 면의 생활권이니까. 오산면, 동탄면, 태안면, 정남면, 향남면, 양감면, 서탄면, 진위면, 용인 남사면, 용인 이동면까지가(오산면 시장 생활권) 그러니까 오산시장이 지금도 전국에서 10대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크지만, 그전에도 오산시장이 굉장히 컸지요. 그리고 도로가 옛날에 1번국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나오고 남쪽에서 오고 동남쪽에서 오는 분들이 전부 이 길을 통해야 하니까 장날이면 5일에 한 번 서는데 이 길이 메어질 정도였지요.

– 그러면 우시장이 맨 처음에 여기(싸전마당)에 있었나요?

▲맨 처음에 여기(싸전마당)에 있다가 다리 건너 (현재의)오산침례교 있는 데가 우시장이요.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왔지. 싸전마당 우시장 있는데 (오산천)제방 테니스코트 있는 그쪽이 우시장이야. 옛날의 우시장이고 그다음에 (현재)궐동으로 이사 갔다가 이쪽으로 옮겨와서는 좀 더 올라가서 우시장이 생겼고, 그래서 우시장도 오산이 제일 큰데, 저 아래에서 소를 끌고 와서 마방간에서 소를 팔고 했으니까.

– 그러면 여기(싸전마당)에 있던 우시장이 언제까지 있었나요?

▲시장 옮기고 왔다갔다, 여기서 6.25사변 나고 오산시장이 궐동으로 이전하고 같이 우시장도 이전했지, 그다음에 복원이 되어서 재래시장으로 오산 구시장으로 왔을 때 점차적으로 우시장도 시민회관 있는데 그쪽으로 왔지요.

– 제가 듣기로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는 우시장이 현재 싸전시장으로 불리는 곳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는 내가 이곳에 살지 않았을 때고, 내가 오산에 살 때는 싸전마당, 그 자리도 오산에서 시장이 활성화된 곳이 미시장이야, 미시장은 우시장 상권이 제일 큰 거예요.

– 지금 중앙동 경로회관이 (예전에)미시장이잖아요. 우시장은 지금 싸전시장이라고 불리는 데 있었나요?

▲제방, 남사에서 나오면서 동탄 나오는 길, 테니스장 있는 쪽에 시민회관 앞으로 있는 도로 있잖아? 거기(도로) 넘어 냇가를 넘어가 우시장이고 넘어가지 않고는 미시장이고.

– 오산장이 10개 면의 중심지였을 때 주로 거래됐던 품목이 무엇이었나요?

▲쌀시장이 유명했지요. 그다음은 우시장, 그다음은 고추라든가 일반 생필품.

– 그 당시에는 향남이나 정남이나 이런 분들이 걸어 나오신 건가요?

▲걸어왔지, 그럼. 다 걸어왔지. 옛날에 동탄이나 남사 이 사람들이 나무 한 짐씩 지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마차나 우마차에 싣고 오고 그러는 거지. 걸어다니고 지고 오는 거지.

– 그러면 잠자리 같은 거, 여관 같은 것도 많이 있었나요?

▲여관? 여관은 내가 알기로는 여관자리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없어지고 이쪽 여관 오산 일성여관이지.

– 그 당시에는 병원이 몇 개 있었나요?

▲의원 3군데, 치과 하나, 그런데 제대로 된 것은 제일 먼저는 우리 오기 전에는 송순원씨라고 세브란스 나왔는데 나이가 40인데 미시장 앞에서 병원을 했고, 또 한 분은 갑전골목에서 오산, 그다음에 동인의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중앙의원하고 4군데인데 치과가 나중에 하나 오고.

– 면사무소는 원래 여기(싸전마당)쪽 있다가 (현재의)구곶동 갔다가 다시 이곳(싸전마당)으로 온 건가요?

▲그렇지요. 6.25사변 전에 여기(싸전마당) 있다가 새장터로 갔지.

– 새장터 어디쯤이죠?

▲새장터에 있던 자리가 우시장에서 얼마 안 가는데 (현재의)새마을금고에서 조금 더 동북쪽으로 100m쯤 일거야.

– 보건소는 어디쯤 있었나요?

▲보건소는 처음에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다가 그 후에 건물을 짓고, 저쪽(구곶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방앗간에 보살이 있었어. 바로 그 위로. 그 후에 새로 건물 짓고 시민회관 쪽으로 이사를 왔지.

– 6.25사변 중에 비행장은 기억하세요?

▲오산비행장은 말만 들었는데 간이비행장이 있는데 지금 스포츠센터 있지요. 거기인가? 오산문화예술회관인가 그쪽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 그러면 비행기가 직접 뜨고 내리고 했나요?

▲그건 못 봤어. 난 해방이 되고 왔으니까 못 보고 거기 있었다는 말만 들었지.

- 6·25동란 때는요?

▲안 썼지요. 1945년 이후에는 없었으니까 해방되고 나서는 없어졌지.

- 처음 오산 오셔서 정착한 곳이 싸전마당 인근인가요?

▲오산에 와서 44-1번지 오산중앙의원에 1948년에 와서 6.25사변 날 때까지 있었어요. 그 후에 1951년부터 의료기관이 너무 열악하고 하니까 미국에서 도와줘서 보건진료소가 의약품을 대주고 보건진료소가 생기면서 제가 처음에 6년을 근무했어요.

- 그 당시에는 오산이 장도 많고 그러면 큰 부자가 있었겠네요?

▲부자가 있었지요. 시장 안에 박경국 씨 그리고, 서랑리에 차정환씨라고 부자였었고, 장지리에 박승일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제일 부자였지요. 옛날 일정 때부터 6.25사변 때까지 부자가 그분들이 제일 부자지.

- 오산천이 현재하고 그때하고 똑같은 거지요? 변했나요?

▲오산넷가 하천이 높아서 그런데 건축들도 하고 모래자갈을 워낙 많이 파가서 하상이 낮아졌지요. 옛날에는 시내가 더 낮았어. 지금 많이 파내서.

- 큰 홍수가 3번 났다고 하셨는데요?

▲1953, 54년 월동 보건소 다닐 때 그 앞의 집이 재건축들이라서 임시로 미군부대에서 목재 갔다가(건축했는데) 거기서 살았는데 (홍수가 나서) 방에 이만큼 물이 찰 정도로(큰 홍수가 있었다.)

- 그다음에는 없었나요?

▲그다음에도 몇 번 있는데, 1970년대 말 정도에 비가 많이 왔지. 기홍수리조합에 제방이 물이 새 가지고, 비상이 걸려서 오산비행장 사람들이 제방이 터지면 안 되니까 여기로 해서 사이렌 불고, 군경 차들이 왔다갔다하고 경기도지사가 헬리콥터를 타고 직접 온 거야. 70년대 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오산사람들이 다 여기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높은 데가 부산리 쪽으로 일부 피난을 다 가고 저쪽 건너서는 청학리 오산대학 있는 대로 가면서 오산에 전부 다 물 피난을 다 갔어요. 70년대.

– 그때 오산역은?

▲오산역은 조금 높게 해서 거기까지는 물이 안 찼어. 그다음에는 90년대 중후반쯤으로 홍수 한번 있었고, 그전에도 테니스장에서 내가 테니스를 많이 치곤했는데 30년 넘었지, 하여튼 물이 넘어서 잉어, 붕어들이 못 나가서 많이 잡아내고 그랬지.

– 50년대 53년도 대홍수는 저 아래쪽에서 물이 올라온 거고, 70년대는 오산천이 범람한 건가요?

▲그전에 제방이 넘는다고 남촌인가 얄으니까 제방하고 수위하고 왔다갔다했어요. 그런데 넘진 않았어. 하여튼 저쪽 밑창에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로가 좁으니까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물이 역류가 되는 거지?

– 1950년대 1953년대 싸전마당이나 미시장에 상가가 몇 개정도 있었나요?

▲상가? 6.25사변 후에는 상가, 포목상, 광목과 옥양목 파는 데 있었고, 건어물가게가 있었고, 먹는 거, 선술집, 잡화 등이 있었지.

– 정식 건물로 있었던 가게는 몇 개인가요?

▲건물은 몇 개 없으니까 집이 몇 채 안 됐으니까. 60, 70년대 오산시에서 시장은 사람 많이 모여들고 해서 옛날에 소매치기가 많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지.

– 보건약방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나는 1956년도 5월 1일부터 이곳에서 했어요. 62년간 오래했지.

– 외람되지만 1956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그 당시에) 약방이 8군데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벌었는데, 장날은 착실히 해서 그렇겠지 만 (약을 사려고)줄을 설 정도였어요.

– 그때는 주로 파는 약이 어떤 약이지요?

▲일반약이지 뭐. 소화제, 감기약, 설사약, 매상약.

– 장날에 손님이 줄을 설 정도로 많았나요?

▲장날 하루 파는 것이 평일 나흘 파는 정도 됐으니까 팔기도 많이 팔았는데, 옛날에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니까 저항력이 떨어져 질병은 많은데 병원이나 약을 사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소득이 없잖아. 농사 조금 저야 먹고살지도 못하는데 대개 한 10만 원어치를 매출한다면 30~40%는 외상이고, 50% 정도는 소득이 있는데…. 우리 시대는 외상거래를 하고 물건을 포목이고 뭐고 해서 1년에 쓰고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추석 대목, 설 대목에 갚는 거야. 옛날에는 외상 제도가 보통이야. 돈 없는 사람들이 아프긴 하고 약은 가져야 하고 하는데 가져가면 돈을 내려고 해도 돈을 낼 형편이 못되잖아, 먹고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70년대 말 정도에 결산해보니까 1년에 150만 원 정도를 못 받은 게 있더라고, 오산 1리, 2리, 3리 해서 부락마다 장부 처리해서 액수가 많은 데는 나중에 직원들 시켜서 받아오라고 하니까 받긴 돈 있어야 받지 뭐.

– 그때는 종업원이 몇 명 있었나요?

▲종업원이 2명 있었지. 매상으로는 웬만큼 되는데 외상으로 못 받은 것이 있어서, 다 받았으면 오산에서 재벌 됐을 거야. 지금 생각하면 좋은 일했다. 어려운 분들 도와줬다 하는데 옛날에는 어려웠으니까 할 수 없지 뭐.

– 예전에 싸전마당이나 우시장에서 큰불이 났다거나 큰 사건 같은 것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거기는 화재는 없었어. 홍수만 있었고 도로가 대풍약국하고 골목으로 해서 들어가는 첫 골목 위에 올라가서 위 골목이 골수막거리가 있는데 거기 양조장이 있었고.

– 오산시에서 현재 싸전마당 즉 오산장터를 정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거기 고문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회의에) 참석하고 했는데 거기가 제대로 되려면 문화골목을 제대로 해야지. 이장희 결혼식도 내가 가고 했는데 이장희를 데려다가 어찌고 하는데 그것이 뜻은 좋은데 제대로 자리가 잡히려면 내가 봐서는 단시일에는 어려울 거 같더라고 자리가, 그래도 먹을거리라든가 특색 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2. 오산식품 최병훈 사장(75세)

최병훈 사장은 1964년부터 오산으로 시집와 오매장터에서 ‘오산식품’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병훈 사장

– 싸전시장과 우시장의 위치를 시기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1964년도에 시집을 왔거든요. 1964년도에 시집을 오고 그때는 싸전마당이 지금의 협동방앗간 주차장 있지요? 옛날 송영만 씨네 집 거기였어요. 거기에 싸전마당이 그대로 있었던 때예요.

– 1964년에 오산에 처음 오신 건가요?

▲그전에도 제가 (오산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서리(현재의 서동)가 제 외가댁이었거든요. 서리가 외가댁이라 거기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왔을 때는 여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삼형제

상회가 있는 곳 그곳에 싸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철물점들이 있고 송씨네 고무신가게. 엄마하고 같이 나왔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외가에 왔을 때,

–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것은 1964년도 당시에는 현재 싸전시장이 그 당시에도 싸전시장이었고, 그전 어렸을 때는 지금 중앙동 경로회관 자리라고 보면 되는지요?

▲그렇지요. 현재 중앙동 경로회관, 오산식품 뒤였으니까, 그때 삼호정 정육점도 있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 그러면 중앙동 경로회관 자리에 싸전시장이 있었을 때, 그전에는 이 싸전시장이 다른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못 들었어요.

– 오산장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더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1964년도에 (시집을) 왔을 때 삼형제상회가 있었고요. 삼형제가게 포목점이 있었고, 송씨네 고무신가게, 제일당약방, 그 옆에 지금 노인회장 박신영 씨가 거기 있고, 그 옆에 협신상회가 있고 협신상회 포목점, 포목도 하고 이쪽에 삼형제상회 앞으로 장의사를 겸한 화남상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내려오면 끝에 양은그릇집 가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한흥철물이 있었어요. 지금 지승천씨 가게 거기에 지금으로 보면 대원약국 자리지요. 그 옆에 보건약방 가기 전에 삼리상회인가 그런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슈퍼 그분이 오래했어요. 이순영씨가 거기 사위잖아요. 그 집 사위. 그리고 좁은 떡전골목에 할머니집이 있고. 지승천씨 앞 가게가 그때 공씨네가 시멘트를 팔았지요. 제일시멘트.

– 병원도 있었나요?

▲그 당시에 중앙의원, 신의원, 김의원이 있었지요. 형제여관, 그 안으로 마방집들이 쪽 있었고, 오산식품도 있었고요. 오산식품으로 제가 시집을 왔으니까 오산식품은 그전에 생긴 거지요.

– 1964년 이전 우시장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시집왔을 때 우시장은 새장터(현재 켄동)에 있었습니다.

– 그전 시기에 말씀 들은 건 없나요?

▲그전에 한번 외가댁에 왔을 때 뚝방길을 걸었을 때 현재 테니스장, 시민회관 있는 곳 그쪽에 잠깐 (우시장이)있던 걸 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시집을 오니까 새장터로 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고, 그때는 자세히 안 봤지요. 시집오고 나서 기억하고 그러지요.

– 오산장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뚝방길(오산천 제방)에 집들이 쪽 있었지요. 그게 저 시집와서도 있었어요. 그 집들이 있었어요. 1964년 이전부터 있었고 뚝방길에서도 장이 섰습니다. 장이 섰을 때 그 당시에는 나무(땔감용)를 신리, 중리, 남사면 이런 데서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나무장이 있었어요. 나무장이 서면서 지게 같은 거 팔고 낫 같은 거 팔고 먹물점이라고 했지요. 지게 팔고 하는 그 걸 먹물점이라고 했어요. 먹물점이 그때 서고 그때는 사람들이 종이가 귀할 때니까 왕골로 엮은 지직자리들을 깔았어요. 지직자리들을 남사면 이런 데서 엮어서 나와서 돛자리, 지직자리 그런 거 팔고, 그때 그런 장이 선 걸로 기억나고 또 뚝방 아래로는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철공소지요. 철공소 있던 걸로 생각되고 낫 만들고 호미 만들고 하는 대장간도 거기 뚝방 아래에 있었어요.

– 뚝방 아래라는 것은 냇가 쪽을 말씀하시나요?

▲그래요. 냇가(오산천) 쪽. 나무 장대를 세워서 집을 짓고 그 아래로 그런 대장간 철공소가 있었어요. 무당집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집와서 아팠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가 따라왔다고 무당집을 데려가는데 제가 무당집을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놀란 적이 있어요.

– 그 당시 오산장의 거래 물건이나 경제 규모가 어떠했나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굉장히 시장규모가 컸습니다. (오산천)뚝방에는 장이 서고 그 아래 송씨네 고무신가게, 삼형제 화남상회 그쪽으로는 다 노점들이 와서 장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는 장사가 굉장히 잘됐었어요. 마도면, 삼화리, 무낭리, 서탄면, 용인 천리, 남사면, 송탄, 수원, 안양에서까지 왔었어요. 오산장을요. 그리고 정말 소매치기들이 많았어요. 오산서 돈 못 벌어 가지고 가면 소매치기가 아니다. 그럴 정도로 소매치기도 많았어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가 잘 된 거지요. 오산장 경제가.

- 면사무소나 관공서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때 면사무소, 후에 오산읍사무소는 금성아파트 자리에 있었어요.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가 면사무소 옆에서 한약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약방을, 작은 외할아버지댁에 와 보니까 거기가 면사무소 옆이었고 그래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농협이 있었어요. 그 아래 우체국이 있고 파출소가 있고, 오산지소가 있었고 그랬던 것이 생각나네요.

오산비행장에 대한 기억은 제가 잘 모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예술회관 자리, 투마트 자리 거기지요. 거기에 수원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뜰 때 비행기를 행로를 잡아주던 신호를 보내주는 곳이었어요. 수원 비행 통신대가 있었어요. 거기는 얕았어요. 물이 얕고 넓은 게 모래가 금빛모래였어요. 얕고, 거기를 떠나서는 물이 굉장히 깊었어요. 남촌다리 거기까지 깊어서 아이들이 그 당시에 드럼통을 잘라서 배를 타고 놀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1970년대 같네요.

- 오산천 제방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1965년도예요. 1965년도에 용인 고매리저수지 제방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밤 11시에 사이렌이 불고 그랬어요. 결국은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남촌 쪽으로 물이 넘치고, 새장터 쪽에 물이 넘치고 해서 오산시장 사람들이 피난을 갔어요. 오산중학교와 오산고등학교, 갈곶리로 갔는데, 어떤 분은 밀머리 과수원으로, 오산중·고등학교의 청학산 그리로 많이들 가셨어요. 저희도 그리로 가고, 저희 집 양반은 그때는 가평옥이 제일 높아서 가평옥이 3층이니까 그리로 올라간 거예요. 가장들은 남았으니까.

- ‘가평옥’이면 예전에 요정이라고 했던 곳 말인가요?

▲예 요정이예요. 가평옥, 오산옥 등 오산식품을 기준으로 그 둘레가 다 오산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오산식품이 제일 컸었으니까요. 그리고 장사가 제일 잘됐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고무신가게 등등해서 형성되었던 거지요. 저희(오산식품) 아래로 해서 생선집들이 쪽 생겼어요. 오산식품 앞쪽을 진전골목이라고 해요.

- 골수막거리는 가평옥 앞으로 해서 흥아네집까지 형성된 거지요?

▲예 거기가 골수막거리입니다. 우리 집 오산식품 앞으로는 진전거리, 생선집이 있었고. 할머니집 진전골목에는 빵집이 있고, 떡집이 있고, 서울옥이 있었고 신흥옥이 있었지요. 오산에서 장을 보고 소를 팔고 그러면 한잔들 걸치고 가야 되니까 오산식품 앞으로 와서 거기서 잡수시고 가시고 그랬지요.

– 혹시 오산천의 물줄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산천이 운암들로 지나갔다. 이런 애기도 있고 한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 오산역에 대한 기억은?

▲역은 조그마했어요. 협소했어요. 몇 년도인가, 6.25 한국전쟁이 지나고 나서지요. 1950년대, 1960년대 그때도 조그마했어요. 그래서 아마 6.25 한국전쟁 이후에 새로 지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 터미널이 3번에 걸쳐서 이전했다고 하는데, 처음 있던 데가 어디인가요?

▲오산단위농협 본점 맞은 편 화남당 자리예요. 거기에서 택시도 했었지요. 삼형제상회에서 처음에 거기서 택시사업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중원사거리 중원건물자리예요. 그리고 현재 터미널 이렇게 3번의 이전이 있는 거지요.

– 그 당시 극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중원사거리 중앙교회 그 자리가 극장이었었어요. 내가 시집왔을 때(1964년) 그 자리였어요. 오산극장이라고. 그리고 진주예식장 건물에 하나 있었는데 화성극장이었지요. 그 후에 터미널 앞 문화거리에 오산극장이 있었고, 현재는 오산롯데시네마가 되어 있고 비비피아 거물에 극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천일 사거리에 프리머스극장이 있었고, 현재는 메가박스극장으로 바꿨지요.

– 오산 최초의 극장은 성호초등학교 입구에 있던 중앙교회 건물 자리에 있던 오산극장이었네요?

▲거기가 최초예요.

– 그 당시 오산장 이외에는 논밭이었지 않나요?

▲그럼요. 그때는 중앙교회 그 뒤편에도 현재는 다 오산시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도 다 논이었어요. 저희 큰 애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논이라 논길로 다녔지요. 1970년대, 그러니까 애가 1965년생인데 1학년을 들어갔으니까 70년대지요. 거기 다 논이었고.

– 오색시장도 논밭이었겠네요?

▲현재 오색시장 자리도 성호초등학교만 빼고는 논이었고 밭이었어요. 교육청 자리도 밭이었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실습장으로 쓰는….

지금 우체국 자리도 다 밭이었어요. 다 밭이고 파밭 과수원 이런 거였어요. 현재 롯데마트에 있던 화성군청이 들어서면서 큰 길이 뚫린 거예요.

- 이때가 1970년대이었나요?

▲예, 큰 길이 중원사거리가 되고 (도로가)뚫리면서 시장 길도 그때 생긴 거지요. 지금 농협 중앙회 오산지부 앞에서 길이 쪽 위로 올라오다가 오산농협 앞에 시장 길이 지금 오산식품까지 쪽 와있지 않습니까?

- 시장 길이 오산식품까지요?

▲오산테니스장까지 쪽 연결이 된 거지요. 현재 대동의원과 중앙가축병원 사이 시장 길도 그 당시에 그제 오다가 거기서 끊겼었지요. 그때 거기까지는 큰길이 났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제 막히니까 그때는 힘 있는 사람들이라 거기를 안 내줬어요. 안 내줘서 거기가 끊겨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거는 뚫어야 한다고 해서 저하고 한기택 씨 이렇게 해서 부녀회에서 다섯 명이 국회의원 권오석 씨를 수원에 가서 만나 가지고 그때 그걸 부탁한 일도 생각이 나요. 그런 일도 있었고, 만약에 그때 거기가 함께 이렇게 뚫렸으면,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 오매장터와 오색시장은 어떤 관계로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왕 그 아래는 (오색시장이)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살고, 또 여기 오매장터는 환경정비사업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오색시장)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오매장터)는 여기대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지금 이장희공원을 한다고 하니까, 먹고 즐기며, 공방거리도 형성되면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곳, 이런 공간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서로 이익을 보면서 윈윈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 1964년도부터 오산식품을 운영하고 계신 데 그동안 사업하면서 느끼는 소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오산식품을 하면서 여태껏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름(상호)을 갈아보지 않았

어요. 그때도 오산식품이고 지금도 오산식품이죠. 그 당시에는 세금들 많이 내서 ‘모자를 갈아 쓴다.’라고 해서 (상호를)바꿔 썼거든요. 그래도 저는 바꾸지 않고 꾸준히 한 상호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오산식품을 3대째 경영하신 건가요?

▲그렇죠. 3대로 봐야지요.

– 수입이나 매출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런 거는 없고 단단한 땅 위에 물 고인다고 절약하면서 열심히 사니까 아이들 공부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만 왔습니다.

– 수입도 괜찮으셨지요?

▲그 당시에 자동차 있고, 냉장고 있고, TV 있고, 그러면 못 사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 부자였네요?

▲아니요.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랬어요. 왜 우리는 없는 게 없어서 그때는 손 들으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는 없는 게 없어서 애들한테 창피하게 만드느냐고 떼쓴 적도 있었어요.

– 사장님이 사회적으로 봉사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때 로터리클럽에 장학금을 6천만 원을 내놨어요. 2008년도에 제가 칠순이었거든요. 70세가 되어서 아이들이 칠순잔치를 해준대요. 그래서 나는 칠순잔치 안 한다. 너희 아버지 안 계시고 그런데 내가 무슨 칠순을 하겠느냐. 난 그걸로 장학금을 내놓겠다. 그랬더니 어디에 내놓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 6천만 원이면 큰돈인데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3천만 원만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큰 애가 “어머니가 언제 또 장학금을 내놓으시겠느냐며 3천만 원 더 해서 6천만 원 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천만 원을 국제로터리 3750지구에다 내놨어요. 그리고 별개로 지금까지 대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400만 원씩 지금까지 주고 있고, 지난가을에도 두 아이한테 그동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아이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람이지요.

- 장학금을 주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게 장학금을 주게 된 것이... 1990년도에 우리 집에 불이 크게 났어요. 불이 나서 저희 가게가 다 타버리고 그 많던 물건도 다 타버리고 없을 때, 불이 나던 해가 언제나 하면 남사면에서 물난리가 나서 소, 돼지가 600m 떠내려 왔고, 남사면 사람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서해안 가서 찾고 이랬을 때예요. 그때가 7월 25일인데 24일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비가)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제가 쌀을 막 퍼줬어요. 그분들한테 가서 진지라도 해 잡수시라고 다 무너지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났는데 그날 저녁 25일 새벽에 우리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오산식품이 싹 타버린 거예요. 그때 옆에 술집에서 저희를 깨우지 않았으면 저희 집 양반하고 저하고 둘은 죽었을 거예요. 자고 있었으니까 밖에서 타들어 와도 몰랐었지요. 아이들은 지금 중원사거리 집에서 자고 있었고, 죽었을 텐데 살아난 겁니다. 그때 저희 집 양반은 불이 나니까 눈꺼풀이 안 닫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요. 그래서 영동세브란스에 입원해 계시고 저는 왔다 갔다 하고 삼 남매가 가게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때 불이 다 난 것을... 그때 정말 우리 3남매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가게를 일으켜 세우고 저희가 무슨 가업인 줄 알고 오산식품이 가업인 줄 알고 장사를 셋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헛되이 살지는 않았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6천만 원 내놓고 어려운 아이들 도와준다 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오매장터가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곳을 볼 때 옛날처럼 아래위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옛날처럼 북적북적 대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고추장, 마늘장, 개장 서고 그런 식으로 북적북적한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할머니집 3대 송옥순 사장(87세)

송옥순 사장은 1951년부터 오산에 정착했으며 오매장터에서 ‘할머니집’을 개업하여 4대째 운영하고 있다.



송옥순 사장

– 사장님께서 오산에 오신지 몇 년 되셨어요?

▲몇 년도는 모르겠고 따져보면 알겠지, 나 스물.

– 일제 강점기 때인가요?

▲아니지, 일사후퇴 후 바로…. 60여 년 됐나?

– 그러면 결혼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여기와 있다가 결혼했지.

- 1951년 전 싸전시장이 어디쯤 있었나요?

▲우리 집 할머니집 다음 골목 그 위야, 여기는 길이 없었어. 없었는데 우리가 터를 내줬어요. 앞에 길이 우리 터야.

- 싸전시장은 지금 여기가 아니고, 안쪽의 중앙동 경로회관 있는 곳인가요?

▲응, 거기가 싸전이야.

- 1950년대도 싸전시장이 중심지였나요?

▲그렇지. 그전에 싸전이면 그만이야.

- 그 당시에 집이 몇 채나 있었나요?

▲많지는 않았어.

- 싸전시장 내 가구 수나 상가는 많았나요?

▲많지는 않았어. 장날이면 여자들이 쌀을 이고 나와서 되로, 말로 해서 파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말로 돼주고, 남는 것은 갖고, 파는 사람은 이고 나와서 그 사람한테 맡겨, 그러면 그 사람이 돼서 팔고 쌀이 남잖아? 그러면 자기네가 먹고 돼서 팔아준 거야. 그렇게 장사해서 싸전이 그거야 옛날에, 나도 처음 와서 여기오니까 장안날, 장안날 그래서 장안날이 뭔가 그랬어.

- 사장님이 영업하실 때는 우시장이 어디 있었나요?

▲새장터(현재 궐동).

- 새장터요?

▲당시 우시장은 새장터에 있었고, 그다음에 우시장이 있다가 지금 성당근처 쌍용제지로 쪽으로 갔지.

- 할머니 집 이쪽 골목을 진전 골목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할머니집 골목 그러면 진전골목, 떡도 있고 국밥도 있고. 떡 장사들이 앉아서 제 팔았지.

– 오산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3일장, 8일장이야. 그때부터 계속.

– 오산장 안에는 병원이 있었나요?

▲병원? 서울병원이 있었지. 그게 대동병원 자리지.

– 그러면 보건소나 진료소는요?

▲보건소가 시장터에 있었지 아마.

– 보건소가 새장터에 처음 개설된 걸로 알려 있는데요.

▲새장터에 있다가 지금 시민회관 자리로 보건소가 다시 왔지요. 성호초등학교는 남촌의 성산초등학교 자리에 있다가,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어요.

– 그러면 이때가 몇 년도 인가요?

▲내가 오산에 온 때가 1951년 1,4 후퇴 때였어. 이때 오산에 정착했는데 아마 1951년도일 거예요.

– 싸전시장 내에 거래물품이나 경제 규모 같은 게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그전에는 여기는 없었고 저쪽 골목만 있었지, 옷장사고, 필묵장사고 다 거기 있었어. 여기는 이게 없었고 장사는 잘되었어. 노점이 시장 안을 꼭 찼었지 뭐.

– 그때 혹시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름도 잊어버렸네. 여기 박씨.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제일 부자라고 오산에서.

– 이쪽에 여인숙이라든가, 마방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저쪽 위예지, 이 골목 말고 위에 골목 있잖아.

– 성호초등학교 가는 길인가요?

▲아니 이쪽에 이 골목 말고 저 골목, 우시장은 다리 건너고, 마방집은 거기 있었어, 지금 거기를 1리라고 하잖아. 여기는 2리고,

– 마방집은 1리였었다 이거지요?

▲그렇지.

– 할머니 집이 오매장터 안에 있잖아요. 오매장터 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오매시장은?

▲시장도 자꾸 옮겨지는 것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역지로 되나? 그전에는 여기가 중심지였었는데 저리 다 밀렸잖아. 지금은 여기가 뒷동네가 되어버렸는데, 싸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장세가 확산하면 좋긴 좋겠지. 그렇지만, 여기만의 특색을 이장희공원을 만들고 문화 예술거리를 만들고 암만해도 젊은 사람 위주로 만든다고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

– 일제강점기 때 싸전시장 위치라든가 우시장의 위치를 알고 계시는지요?

▲응 그때는 모르지 난.

– 할머니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우리는 워낙 오래되고 그래서 외골목에서 유지하는 거지 배기지 못해. 이 골목 저 골목 다녀도 사람 드나드는 걸 못 봐, 식당은 많지 또 얼마나 많은지. 걱정이야. 우리는 워낙 오래 돼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 할머니집의 전성기는?

▲우리 시어머니 2대 조명분 할머니 때가 제일 잘됐었지. 그때는 영업집이 없었어. 그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많아지고 넓어지고 하니까.

– 사장님이 3대 째 신가요?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시할머니 이일봉 1대 할머니, 시어머니 2대 조명분할머니, 내가 3대 송옥순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 현재는 며느리 박명희가 4대째 이어오고 있어.

– 오산에 이렇게 오래된 식당이 별로 없지요?

▲없지, 4대는 없지요. 여기가 한국에서 100대 식당 안에 드는 거야.

– 특별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우리 때하고는 또 다르고 점점, 다 달라져 뭐든지, 음식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워낙 잘 하니까, 그래도 유지하는 거야, 힘들어.

– 영업을 하시면서 가장 잘 됐던 때가 언제인가요?

▲가장 잘 될 때는 우리 할머니가 할 때지.

– 80년대인가요?

▲그렇지 80년대, 90년대까지 다 괜찮았어요.

– 흥아라고 불리는 사람 있었잖아요. 솜틀집에. 그 사람은 정체가 뭐예요?

▲일본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그랬어. 말도 못하고.

– 병어리였나요?

▲응, 그래서 흥아라고 흥흥흥 그리고 다녀서 흥아라고 한 거야.

– 오산천에 천변 쪽으로 기둥 세워서 지은 집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있었나요?

▲응 오래 있었어. 새장터로 이사 가면서 없어진 거예요. 새마을이라고, 부산리에 새마을이 생기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새마을로 이주했지.

Ⅲ. 마무리 글

오산장은 오산을 대표하는 5일장이었다. 또 오산장은 전국 5일장을 합쳐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장이다. 그동안 오산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큰 변화가 오산장이 원래 위치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현재 오산오색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원래의 오산장 자리는 낙후되어 있다가 재정비계획에 의해 오매장터로 새로운 시장 명칭을 얻어 재정비 중에 있다. 변화가 불가피한 오산장의 역사와 연혁을 오산장터에 사시던 원로 어르신 3분의 인터뷰 채록을 통해 당시의 오산장 모습을 회상 복원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 광복이후

의 모습은 떠올릴 수가 있었으나, 광복 이전 일제강점기의 오산장의 모습은 알아낼 수가 없었다. 임영근 전 오산시의회의장은 중앙동 경로회관 자리에 있던 싸전시장이 그 이전에는 현 한 흥철물 뒤편, 즉 동쪽 편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신 걸로 봐선, 시기별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후 오산향토문화연구소에서 세밀히 검토 연구하여 시기별 이전의 내용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여 백

사진으로 보는 2016년 오매장터

사진 : 신 명 수 / 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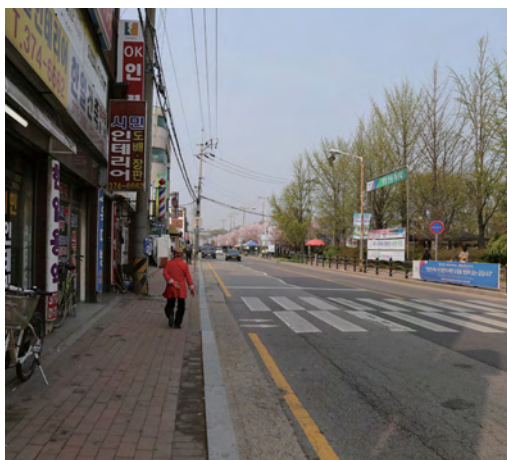
자문 : 남 경 식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상임위원

여 백

*금번 2016오산문화총서 『오산학연구(Ⅱ)』는 오산시의 중심인 중앙동을 주제로 특집을 다룬다. 오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오매장터를 포함하고 있는 오산동과 경기재인청이 있었던 부산동으로 중앙동은 이루어져 있다. 경기재인청과 오매장터에 대한 연구가 실리고 여기에 중앙동에 관련한 지명, 전설, 민속 등을 함께 정리했으며, 오산장의 옛 흔적을 더듬고자 오매장터 안에 살고 계시는 대표적 어르신들을 인터뷰하여 채록으로 담았다. 여기에 덧붙여 오매장터가 재정비되면 현재의 오매장터 모습은 새롭게 변하게 된다. 변하기 전에 사진 촬영을 시행하였다. 한정된 지면이라 찍은 많은 사진을 모두 실을 수는 없지만, 사진은 보관되어 다른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촬영된 사진 중 지면 허락 한도 내로 실도록 한다. —편집자 註



1960년대~70년대 싸전시장 북쪽 출구



독방길로 불리던 길이다



골수막거리(고수막거리) 북쪽 부분



성호새싹길.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오색시장을 거쳐 오산시네마극장(오산문화거리)까지 다다를 수가 있다.



성호새싹길로 오매장터 남쪽을 이어 오산오색시장이 이어진다.



쌍용제면 국수집(정가네국수)



오매장터 고층주상 아파트에서 바라본 오산대교와 결동



오매장터 안에 있는 한흥철물과 뒤로 보이는 오색시장 북쪽 입구



오매장터 중간길 북쪽 출구 부분



오매장터



오매장터 고층주상아파트에서 바라본 오산천



오매장터 고층주상아파트에서 바라본 오매장터와 운암들.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 이장희공원이다



오매장터 고층주상아파트에서 바라본 오매장터주민위원회가 있는 오매장터 남쪽 부분과 오색시장을 포함한 오산시 남쪽 정경 (청년몰 예정지, 공방촌)



오매장터 고층주상아파트에서 바라본 구) 1번 국도와 남쪽 시가지



오매장터



오매장터



오매장터 좁은 골목안길



오산시민회관(일제강점기 때 오산종합운동장 주변과 함께 오산비행장이 있었던 곳, 곧 복합문화체육센터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오산천변으로 천변에 주택과 상가가 있었다.



이장희공원으로 확정되어 정비를 기다리고 있다.



제일정미소



중앙동 경로회관(1960년대 이후 싸전시장이 있던 자리이다



오산천 뚝방(오매장터 치킨거리 후보지)



현재 만세거리(싸전거리)



오산식품 앞 오매장터 청년몰이 들어설 자리



할머니집과 오른쪽 건물 사이로 진전골목이었던 터가 보인다.



한 때 우시장 자리



요정이 있었던 골수막거리 남쪽 부분

2016년 오산문화총서 제2집 烏山學研究(Ⅱ)

| 발 행 일 | 2016년 12월 30일
| 발 행 처 | 오산문화원 부설 오산향토문화연구소
(18131)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5
전화 : 031)375-7755 / 팩스 : 031)375-7959
| 발 행 인 | 공창배
| 편 집 인 | 남경식
| 편 집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 제 작 | 우리동네사람들 1577-5433

비매품

본 총서에 실린 논문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그 권리가 보호됩니다.
오산문화원과 필자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오산 세교택지개발 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 성과 | 강지원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변천 - 보수기록을 통하여 | 이용범
무향의 터전 수원고읍성과 독산성 | 김영호
정조대 화성유수부의 의료기관 고찰 | 김준혁
오산시 외삼미동 탁자식 고인돌의 별자리 성혈 | 임종삼
새롭게 기억하고, 기록되어야 할 오산이야기(II) | 남경식
일제강점기하 신문과 잡지 기사로 보는 오산인의 삶 | 김종욱
경기재인청과 오산시독산성문화제 전통 연희 | 박문정
오산시 구전설화연구-도깨비 설화를 중심으로 | 김용국
중앙동의 지명유래, 구비전승과 전설 | 한민규
오산장(오산오색시장, 오매장터)의 역사성과 연혁 | 강경구
- 오산장 거주 주민 인터뷰를 통한 기록을 중심으로
2016년 오산오색시장, 오매장터 사진 | 신명수